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강권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홍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연구기간 : 2022년 4월 ~ 11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발 간 사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가족 관점에서 뚜렷한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들은 각종 사회 환경과 맞물려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 개념의 약화는 비단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섬이라는 명확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결속된 문화를 보유한 제주지역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족 특성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가족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 내 정책이나 서비스 수요자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족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의 실태와 변화, 특성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의 가족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2014년 제주지역 실태조사와의 비교, 전국 통계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오늘날 제주 가족의 특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도 내외 전문가 분들, 그리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제주도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본 연구가 향후 제주지역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이자 방향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속



---

## 연구 요약



## 연구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의 증가, 출산률의 감소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형태, 구조 등을 비롯한 가족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가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들은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가족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지역별 현황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정착주민, 1인 가구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기적인 근거 자료 수집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음
- 다만 분야별 특성화된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가족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태조사나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 근거 데이터 확보,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제주지역 가족 현황 분석

- 통계청에 제공된 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혼인이혼통계 등)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가족 형태 및 구조 변화, 가족의 형성 및 해체, 인구 현황, 가족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함
- 기존에 수집되고 있는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등) 중 가족분야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을 분석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타 지역에서 수행된 각종 선행연구 및 2014년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실태조사 연구,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연구 등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도출하고,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역 변수에 따른 분석(전국-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역-동 지역 등), 시계열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함

### 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 도출

- 국가단위 가족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1) 및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함
- 제주도내에서 수립된 분야별 가족정책(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정착주민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함



|     |                |   |   |
|-----|----------------|---|---|
| 1단계 | 연구 설계          | ⇔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br>· 연구 착수 보고                 |
| 2단계 |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 · 전국단위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br>· 지역단위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3단계 | 전문가 의견 수렴      | ⇔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br>- 연구 방향 자문<br>- 설문지 설계 자문    |
| 4단계 | 설문지 개발 및 조사 실시 | ⇔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개발<br>· 도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 5단계 | 조사 결과 분석       | ⇔ | · 결과 분석 및 집필                                  |
| 6단계 | 정책 제언          | ⇔ | · 정책 제언                                       |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현황

- 제주로의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세는 최근 이른바 ‘지방소멸’이 논의되는 가운데 고무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이주민 증가세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출산률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673,1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합계 출산률의 감소(2012년 5,992명→2021년 3,989명),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2012년 0.97→2021년 0.71) 등 인구관련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형태별 변화 추세를 종합하면, 1인 가구의 증가, 2세대 가구의 감소세, 분거가족 및 이주민 증가 등의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세대구성별 가구에서 현재까지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타 가구 형태에 비해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 1인 가구 내에서도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분거가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제주지역의 특성 상 전국평균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모두가 분거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거가족, 이주민 관련 연구 및 정책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동지역의 경우 소규모 가구원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구 수가 많은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다수의 가족원을 보유한 다문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기준 행정구역 단위별 다문화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06호로서 동지역(3,724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 수(16,817명)는 동지역(1,372명)에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32.3세로서, 전국(32.2세)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1.1세)에 비해 남성(33.5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사회조사에 나타난 가족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가족원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도민들은 ‘가족의 건강이상(43.8%)’이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16.2%)’ 등을 불안을 겪는 사유로 인식하고 있음
- 제주사회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가족원 돌봄과 관련하여 상당수가 스스로 혹은 동거하지 않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70.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원 돌봄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유급 연차 사용, 단축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분석

### 1. 조사개요

#### 가. 조사개요

○ 조사명, 조사대상, 표본 수 등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내용   |
|------|--|
| 조사명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 대상   | 제주도에 거주중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
| 표본 수 | 1,009명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설문조사 (자기기입식,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 병행)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3.1\%$                           |
|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 ~ 9월 2일                            |

#### 나. 조사내용

| 조사 영역        | 내용  |
|--------------|---|
| 일반적 특성       | 거주지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출생지역 및 거주기간, 취업상태 및 직업 등, 세대유형, 가구특성, 경제적 수준 등  |
| 가족에 대한 인식    |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등  |
|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배우자 선택 시 고려 항목, 출산에 대한 인식(출산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등), 입양에 대한 인식(입양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등), 이혼에 대한 인식(경험, 종료이유, 지속이유 등)   |
| 가족의 관계 및 생활  |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만족도, 종류 등), 가족구성원과의 여가시간 (여부, 빈도, 종류, 충분하지 못한 이유 등),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정도, 가정 내 의사결정 분담 정도,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해결방법 등)  |
| 건강 및 노후준비    |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노력여부 등),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노후 생활(지내고 싶은 거주 형태, 동거를 원하는 가족원 등)   |
|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이웃과의 교류 수준 및 형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공동체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공동체 관계에 관한 인식, 가정건강성 인식, 가족서비스 전달기관 인식 (인지도, 경험 여부, 만족도 등),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 지원 우선순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 자녀 및 가족 돌봄   | 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및 주 간병인, 간병이나 돌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 이용 여부                          |

## 2.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읍·면·동별 가구 수 데이터(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의 응답자 비중(56.1%)이 높게 나타남
-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남성들은 스스로를 “가구주” 라고 인식 (352명, 98.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니라는 응답은 4건(1.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응답률(2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0~30대의 응답률(13.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결혼(동거 및 사실혼 포함) 응답자 비율이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별 가구의 경우 여성 비율(22.2%)이 남성(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비취업 상태인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67.7%) 또는 육아 및 가사(20.1%)등의 사유에 의해 현재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 가족에 대한 인식

-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혈연에 대한 의식은 증가(3.40점→3.62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관계(3.88점) 또는 경제적 공유 관계(3.65점)라는 인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다만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 또는 법적 관계 등으로 인식되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동거(2.84점) 및 동거 중 출생(2.65점), 한 부모 입양(2.75점)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동거 2.68점, 동거 중 출생 2.27점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녀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부모돌봄’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4-2022년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인식 증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동거 중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인식 감소',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상호 돌봄 의식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4.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결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47.7%)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혼 사유(44.4%)에 대한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해서(45.7%)', '나이가 너무 많아서(3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20-30대' 가구와 '미혼' 가구 응답자들의 경우 출생(47.5%, 39.2%) 및 입양(12.2%, 14.9%)에 대한 의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적인 의사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 대상이 가구주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됨에 따라 조사 표본의 평균 연령이 상향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결혼 또는 동거 상태인 응답자 중 이혼(또는 동거 상태의 종료)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녀가 있어서(68.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과 관련된 응답의 평균 점수는 감소하는 추세(2014년 3.56점→2020년 3.01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68.1%)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가족의 관계 및 생활

-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가족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4.15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4.04점)보다 여성(4.20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배우자와의 관계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대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와의 관계 분석 결과, 낮은 연령대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여부가 자녀와의 다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3.44점)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 빈도(3.64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감소(3.74점→3.44점)한 반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소폭 증가(3.62점→3.64점)하였음
-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남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 노동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가사노동과는 다르게 가정생활 결정권은 주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 (자녀→부모)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도움을 받고 있다’ (부모→자녀)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항목은 ‘정서적 지원’ 인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가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70.5%)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는 ‘가족구성원들이 바빠서(42.8%)’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 분석 결과 ‘일 년에 서너번’ 정도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 수는 2014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6. 자녀 및 가족 돌봄

-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이의 어머니(80.8%)를 1순위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이의 아버지를 1순위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8.2%)은 조부모(6.8%)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이용률은 1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는 가구(18.5%), 특히 맞벌이 가구(21.6%)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실태 분석 결과,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아동들의 돌봄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거주’, ‘취업(경제활동) 중’, ‘맞벌이’ 응답자 가정의 경우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녀돌봄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대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 사이에 추가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4.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 응답자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당 가족원과 동거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자녀(35.0%), 배우자(20.0%), 기타(14.0%), 형제자매(13.0%)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년의 자녀를 간병하는 부모의 경우 대부분 동거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관계의 경우 미동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녀(손자녀) 돌봄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성은 양육비, 대화부족,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여성에 비해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돌봄 시간 부족,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또한 자녀(손자녀) 돌봄 시, 저 연령층에서는 양육비 및 보육비의 부담을 높게 느끼고 있는 반면, 고 연령층에서는 대화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족원 간병이나 돌봄에 있어서 남성들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 정신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육체적 어려움 등에 대한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 건강 및 노후 준비

- 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36.3%, 37.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혼인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14.6%)가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9.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응답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운동(25.8%)’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동 지역(제주시 68.0%, 서귀포시 70.6%)이 읍면지역(제주시 59.8%, 서귀포시 61.2%)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일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 중 국민연금(32.9%)의 선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및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금 및 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정 건강성 및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가정 건강성(42.3%)과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63.5%)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동체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긍정 16.8%, 부정 22.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2.80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의지(2.94점)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족 유형별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55.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프로그램 제공(20.3%),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 지원(16.7%), 노인 돌봄 및 시설 지원(13.7%)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들은 가정생활 참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유연근무제 확산 33.4%,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22.5%)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워킹맘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19.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특성 및 변화 종합

#### 가. 2022년 제주지역 가족실태 요약

- **(가족의 정의 대한 인식 변화)**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 또는 법적 관계 등으로 인식되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높은 자녀돌봄 의식, 낮은 부모돌봄 의식)**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자녀의 부모돌봄’에 비해 ‘부모의 자녀돌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결혼과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성격’)**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성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높은 수준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다른 가족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대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여전히 높은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남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편과 아내 간의 차이가 적은 20~3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산관리는 남편이, 가사 결정은 아내가)** 가족의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아내가 높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 및 자산관리 항목의 경우 남편의 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퇴근 시간 중심의 자녀돌봄 수요 발생)** 자녀 돌봄 시설 이용률 및 이용 수요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는 가구, 특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오전 9시, 오후 6시)를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미동거 가족원 대상 간병·돌봄 수요)**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응답자 중 동거중인 응답자는 24.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모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모와 미동거중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 노동)** 가족원 간병이나 돌봄 시 여성들의 경우 실질적 돌봄 참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어려움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 ‘운동’)**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연령대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운동, 식이요법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수단(건강보조제 및 보조식품 섭취, 건강검진, 수면 등)의 의존 빈도가 높아지는 등의 경향을 보임
- **(동 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지역 노후준비)** 동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일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국민연금 의존도)**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의존도는 고 연령대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 공동체에 대한 낮은 인식)** 공동체와 가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공동체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낮은 의지)** 응답자의 다수는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높은 수준의 1인 가구 정책 수요)**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노인 1인 가구, 청-중년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성별별 인식 차이)**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들은 가정생활 참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워킹맘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 제주지역의 가족 실태 변화

- **(인구 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 전입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이주민 증가세 감소, 출산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상이 맞물려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가구 구성의 변화)** 가구형태별 가구의 추세를 종합하면, 1인 가구의 증가, 2세대 가구의 감소세, 분거가족 증가 등 가구 구조의 변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평균 혼인연령 증가)**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만혼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혼자들의 평균 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혈연에 대한 인식 증가)**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읍면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는 질문의 평균 점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거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자녀와 본인의 삶의 분리 의식 상승)**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등 자녀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배우자 간 친밀도 약화)**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 간의 대화 시간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점수 또한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부모와 자녀 간 상호 돌봄 의식 감소)** 자녀 및 부모 돌봄과 관련된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부모 돌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 전국과 비교한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

-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평준화)** 전국적으로는 30대 이하 청년 및 7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낮은 초혼율, 높은 재혼율)**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재혼 비중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혼 후 재혼률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임
- **(혼인 대비 높은 이혼율)**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교했을 때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혈연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혈연, 법적관계, 경제적 관계 등) 또한 전국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족 형성 및 출산에 대한 개방적 사고)** 가족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동거, 동거 중 출산, 무자녀 결혼생활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자녀 돌봄 의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지는 의무감, 행복감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방향

### 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발굴

- 2세대 가구의 지속적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분거 가족의 증가, 다문화가족 문제의 변화 등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이자 가족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형태의 가구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주사회 가족 형태 및 가족 문제의 변화는 향후 일원화된 가족정책이 더 이상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정책 대상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대안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지역의 가족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다문화가족, 정착주민, 1인 가족(예정)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형태 이외

에 소수의 가족들은 충분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고르게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나. 여성 관점의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

- 제주지역의 경우 출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수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및 혼인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전체 여성 1인 가구 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임 연령대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 중 출산 의사가 있는 남성의 비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육아를 위한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제주지역의 출생률 감소에는 결혼률 감소 및 결혼, 출산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인식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및 저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

-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대면형 인간관계의 축소,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실제 가족들의 생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족, 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족 등 특정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가족원 돌봄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족 내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사노동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 노동의 부담이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 및 시간, 서비스 종류 등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통해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라. 성별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인식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최근 제주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성별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역할이 고착화된 제주지역의 현 상황은 임금, 고용 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서, 성별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가족친화적이고,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사회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제주사회의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처해진 환경 및 인식의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성별 간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안의 마련 및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마.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

-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주민들이 현실로 느끼고 있는 가족 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요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은 다양화된 수요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 및 고령자 중심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연령별로 고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각 세대별 맞춤 수요조사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과제의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바. 이혼 및 재혼가족 지원 체계 구축**

-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낮은 초혼률, 높은 이혼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재혼 가정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혼 연령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녀를 포함한 재혼 가정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혼 가정 및 자녀를 포함한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가족의 생활 주기 및 발달과업은 가구의 형태, 특히 일반 가정과 재혼 가정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높으며,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 주기 또는 발달과업 등을 재혼가정에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족정책들은 이혼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가족이 재혼을 통해 재구성된 이후 부모의 역할 및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 인구 및 사회 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제주시 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등 제주지역은 인구, 가구, 사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가족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역별로 인구 및 가구 증가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럽게 선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갈등 문제, 분거가족 증가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문제, 연령 및 성별별 1인 가구 문제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 문제 도출 및 해결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행정시, 권역, 읍면동 등 지역별 인구, 가족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제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아. 효과적인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

- 최근 가족의 특성 및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제주지역 내 효과적인 가족정책 수립 및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가칭)가족정책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부서 내에 가족정책의 주요 현안이슈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돌봄 및 가족 친화팀, 다문화정책팀, 1인 가구 지원팀, 정착주민 지원팀 등)의 신설, 가족정책 및 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가족센터’의 전달 체계를 강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가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기본계획(다문화 기본계획, 정착주민 기본계획, 1인 가구 기본계획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제주지역 가족 현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 가족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전국단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별 가족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수립하고, 관련 기능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또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족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각종 가족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정례화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목 차

### 제1장 서 론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3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5 |
| 가. 제주지역 가족 현황 분석 .....               | 5 |
|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 5 |
| 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 도출 .....      | 6 |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현황

|                            |    |
|----------------------------|----|
| 1. 인구 및 가구 .....           | 9  |
| 가. 제주지역 인구 일반 현황 .....     | 9  |
| 나.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 10 |
| 다. 가구 수 현황 및 변화 .....      | 11 |
| 라. 가구원 수 현황 및 변화 .....     | 15 |
| 마. 가구특성별 현황 .....          | 18 |
| 2.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 26 |
| 가. 혼인 .....                | 26 |
| 나. 이혼 .....                | 32 |
| 다. 재혼 .....                | 36 |
| 라.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     | 39 |
| 3. 가족구성원 변화 .....          | 42 |
| 가. 출생 .....                | 42 |
| 나. 사망 .....                | 45 |
| 다. 전입 및 전출 .....           | 46 |
| 4. 사회조사에 나타난 제주 가족 .....   | 47 |
| 가. 불안 유무와 불안을 느꼈던 상황 ..... | 47 |
| 나. 코로나 19와 돌봄 .....        | 48 |
| 5. 소결 .....                | 50 |

###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분석

|                        |     |
|------------------------|-----|
| 1. 조사 개요 .....         | 55  |
| 가. 조사 설계 .....         | 55  |
| 나. 조사 영역 및 내용 .....    | 57  |
| 2. 일반적 특성 .....        | 59  |
| 가. 가구주 여부 및 성별 .....   | 59  |
| 나. 거주지역 .....          | 60  |
| 다. 연령 .....            | 62  |
| 라. 혼인상태 .....          | 64  |
| 마. 최종학력 .....          | 65  |
| 바. 월평균 가구소득 .....      | 66  |
| 사.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 | 67  |
| 아. 출생지역 및 거주기간 .....   | 68  |
| 자. 취업 및 고용상태 .....     | 70  |
| 차. 세대유형 .....          | 74  |
| 카. 자녀 수 .....          | 76  |
| 타. 가구특성 .....          | 78  |
| 파. 소결 .....            | 79  |
| 3. 가족에 대한 인식 .....     | 80  |
| 가. 가족의 정의 및 구성 .....   | 80  |
| 나.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 86  |
| 다. 자녀 및 부모 돌봄 .....    | 92  |
| 라. 소결 .....            | 101 |
| 4.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 103 |
| 가.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103 |
| 나. 자녀계획 .....          | 107 |
| 다. 이혼 .....            | 113 |
| 라. 소결 .....            | 115 |

|                            |     |
|----------------------------|-----|
| 5. 가족의 관계 및 생활 .....       | 117 |
| 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 117 |
| 나. 가족과의 대화 .....           | 131 |
| 다. 배우자와의 가정생활 .....        | 135 |
| 라.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 140 |
| 마. 가족과의 여가활동 .....         | 143 |
| 바. 소결 .....                | 151 |
| 6. 자녀 및 가족 돌봄 .....        | 153 |
| 가. 취학 전 영유아 돌봄 .....       | 153 |
| 나. 초등학생 돌봄 .....           | 159 |
| 다. 가족 간병 및 돌봄 .....        | 163 |
| 라. 가족원 돌봄 시 발생하는 문제점 ..... | 167 |
| 마. 소결 .....                | 169 |
| 7. 건강 및 노후 준비 .....        | 171 |
| 가. 건강 상태 .....             | 171 |
| 나. 노후 준비 .....             | 176 |
| 다. 소결 .....                | 183 |
| 8.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 184 |
| 가. 공동체와 가족 .....           | 184 |
| 나.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 .....       | 190 |
| 다. 가족친화정책 .....            | 196 |
| 라. 소결 .....                | 210 |

####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     |
|-------------------------------|-----|
|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특성 및 변화 종합 ..... | 215 |
| 가. 2022년 제주지역 가족실태 요약 .....   | 215 |
| 나. 제주지역 가족실태 변화 .....         | 219 |
| 다. 전국과 비교한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 .....  | 221 |

|   |         |
|---|---------|
|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방향 .....               | 223     |
| 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발굴 .....          | 223     |
| 나. 여성 관점의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 .....             | 224     |
| 다.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 .....                | 226     |
| 라. 성별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인식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 228     |
| 마.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 .....           | 229     |
| 바. 이혼 및 재혼가족 지원 체계 구축 .....             | 230     |
| 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            | 231     |
| 아. 효과적인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 .....              | 232     |
| 자. 가족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 233     |
| <br>참고문헌 .....                          | <br>235 |
| 부록 .....                                | 237     |

## 표 목 차

|  |    |
|--|----|
|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수 변화 .....              | 9  |
| 〈표 2-2〉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 10 |
| 〈표 2-3〉 세대구성별 가구 수 현황 .....                | 12 |
| 〈표 2-4〉 세대구성별 제주특별자치도 가구 수 변화 .....        | 13 |
| 〈표 2-5〉 제주도내 권역별 가구 수 변화 .....             | 14 |
| 〈표 2-6〉 세대구성별 가구원 수 현황 .....               | 15 |
| 〈표 2-7〉 세대구성별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원 수 변화 .....       | 16 |
|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원 수 별 가구 수 변화 .....      | 18 |
| 〈표 2-9〉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비교 .....              | 19 |
| 〈표 2-10〉 성별별 1인 가구 변화 .....                | 20 |
| 〈표 2-11〉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현황 변화 .....          | 20 |
| 〈표 2-12〉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1인 가구 변화 .....        | 21 |
|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 | 22 |
| 〈표 2-14〉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                 | 23 |
| 〈표 2-15〉 다문화가구 수 .....                     | 24 |
| 〈표 2-16〉 다문화 가구원 수 .....                   | 25 |
| 〈표 2-17〉 혼인현황 변화 .....                     | 27 |
| 〈표 2-18〉 혼인종류별 혼인현황 변화 .....               | 28 |
| 〈표 2-19〉 연령별 초혼 현황 .....                   | 29 |
| 〈표 2-20〉 제주지역 연령별 초혼 변화 .....              | 30 |
| 〈표 2-21〉 평균 초혼연령 변화 .....                  | 32 |
| 〈표 2-22〉 이혼현황 변화 .....                     | 33 |
| 〈표 2-23〉 이혼종류별 이혼현황 .....                  | 33 |
| 〈표 2-24〉 제주지역 이혼사유별 이혼현황 변화 .....          | 34 |
| 〈표 2-25〉 연령별 이혼 건수 현황 .....                | 35 |
| 〈표 2-26〉 제주지역 연령별 이혼 건수 변화 .....           | 36 |
| 〈표 2-27〉 연령별 재혼 현황 .....                   | 37 |

|  |    |
|--|----|
| 〈표 2-28〉 제주지역 연령별 재혼 변화 .....                  | 38 |
| 〈표 2-29〉 평균 재혼연령 변화 .....                      | 39 |
| 〈표 2-30〉 혼인 및 이혼 현황 변화 비교 .....                | 40 |
| 〈표 2-31〉 연령별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               | 40 |
| 〈표 2-32〉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변화 .....                  | 42 |
| 〈표 2-33〉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변화 .....                 | 43 |
| 〈표 2-34〉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           | 44 |
| 〈표 2-35〉 출생아, 가임기 여성, 혼인건수 변화 비교 .....         | 45 |
| 〈표 2-36〉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변화 .....                 | 46 |
| 〈표 2-37〉 전입 및 전출 인구 변화 .....                   | 47 |
| 〈표 2-38〉 불안 유무와 불안을 느꼈던 상황 .....               | 48 |
| 〈표 2-39〉 코로나19와 돌봄 수행방식 .....                  | 49 |
| 〈표 2-40〉 코로나19와 돌봄 애로 .....                    | 50 |
| 〈표 3-1〉 조사 개요 .....                            | 55 |
| 〈표 3-2〉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 55 |
| 〈표 3-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 | 57 |
| 〈표 3-4〉 가구주 구분 .....                           | 59 |
| 〈표 3-5〉 거주지역 (읍·면·동별) .....                    | 60 |
| 〈표 3-6〉 연령-성별별 응답자 특성 .....                    | 62 |
| 〈표 3-7〉 연령-지역별 응답자 특성 .....                    | 63 |
| 〈표 3-8〉 혼인상태 .....                             | 64 |
| 〈표 3-9〉 최종학력 .....                             | 65 |
| 〈표 3-10〉 월평균 가구소득 .....                        | 66 |
| 〈표 3-11〉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                   | 67 |
| 〈표 3-12〉 출생지역 .....                            | 68 |
| 〈표 3-13〉 타지역 출생자의 거주기간 .....                   | 69 |
| 〈표 3-14〉 취업상태 .....                            | 70 |
| 〈표 3-15〉 취업자 고용유형 .....                        | 71 |
| 〈표 3-16〉 취업자 직업 .....                          | 72 |



|   |     |
|---|-----|
| 〈표 3-17〉 비취업 사유 .....                         | 73  |
| 〈표 3-18〉 세대유형 .....                           | 75  |
| 〈표 3-19〉 자녀 수 .....                           | 76  |
| 〈표 3-20〉 가구특성 .....                           | 78  |
| 〈표 3-21〉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             | 80  |
| 〈표 3-22〉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비교 ... | 82  |
| 〈표 3-23〉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변화: 혈연 .....           | 84  |
| 〈표 3-24〉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비교 .....               | 85  |
| 〈표 3-25〉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             | 86  |
| 〈표 3-2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 | 88  |
| 〈표 3-27〉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          | 90  |
| 〈표 3-28〉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          | 91  |
| 〈표 3-29〉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              | 92  |
| 〈표 3-3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  | 94  |
| 〈표 3-31〉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           | 96  |
| 〈표 3-32〉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           | 97  |
| 〈표 3-3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          | 98  |
| 〈표 3-34〉 부모 돌봄의 책임 .....                      | 100 |
| 〈표 3-35〉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103 |
| 〈표 3-36〉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비교 .....    | 105 |
| 〈표 3-37〉 출생계획 .....                           | 107 |
| 〈표 3-38〉 응답자 특성에 따른 향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 .....      | 109 |
| 〈표 3-39〉 입양의향 .....                           | 110 |
| 〈표 3-4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입양 의향이 없는 이유 .....        | 112 |
| 〈표 3-41〉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 의향 .....              | 113 |
| 〈표 3-42〉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를 고민하게 된 이유 .....      | 114 |
| 〈표 3-43〉 결혼(또는 동거) 생활을 지속하게 된 이유 .....        | 115 |
| 〈표 3-44〉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 117 |
| 〈표 3-4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 119 |

|  |     |
|--|-----|
| 〈표 3-46〉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변화 .....             | 120 |
| 〈표 3-47〉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                   | 121 |
| 〈표 3-4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        | 123 |
| 〈표 3-49〉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비교 .....                | 124 |
| 〈표 3-50〉 자녀와의 관계 .....                       | 125 |
| 〈표 3-5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인식 비교 .....      | 127 |
| 〈표 3-52〉 부모와의 관계 인식 .....                    | 128 |
| 〈표 3-53〉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인식 .....         | 130 |
| 〈표 3-54〉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                 | 131 |
| 〈표 3-55〉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변화 .....              | 132 |
| 〈표 3-5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      | 134 |
| 〈표 3-57〉 가족과 나누는 대화의 종류 (중복응답) .....         | 135 |
| 〈표 3-58〉 맞벌이 여부 .....                        | 135 |
| 〈표 3-59〉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                   | 136 |
| 〈표 3-60〉 연령별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               | 137 |
| 〈표 3-61〉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 138 |
| 〈표 3-62〉 연령별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              | 139 |
| 〈표 3-63〉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              | 139 |
| 〈표 3-64〉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 140 |
| 〈표 3-65〉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 142 |
| 〈표 3-66〉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 143 |
| 〈표 3-67〉 가족과의 여가시간 .....                     | 144 |
| 〈표 3-6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 .....   | 147 |
| 〈표 3-69〉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 .....                  | 148 |
| 〈표 3-70〉 가족과의 여가활동 변화 .....                  | 149 |
| 〈표 3-71〉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종류 .....            | 150 |
| 〈표 3-72〉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 .....            | 153 |
| 〈표 3-7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 ..... | 155 |
| 〈표 3-74〉 취학 전 영유아의 돌봄 시설 이용 여부 .....         | 156 |

|  |     |
|--|-----|
| 〈표 3-75〉 취학 전 영유아의 돌봄을 위한 이용 시설 종류 .....         | 157 |
| 〈표 3-76〉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            | 158 |
| 〈표 3-77〉 방과 후 돌봄 장소 (중복응답) .....                 | 159 |
| 〈표 3-78〉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 .....              | 161 |
| 〈표 3-79〉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             | 162 |
| 〈표 3-80〉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및 동거 여부 .....       | 163 |
| 〈표 3-81〉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중복응답) .....           | 164 |
| 〈표 3-82〉 주로 돌보는 사람 (중복응답) .....                  | 165 |
| 〈표 3-83〉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 이용 여부 .....              | 166 |
| 〈표 3-84〉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 | 167 |
| 〈표 3-85〉 자녀(손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          | 168 |
| 〈표 3-86〉 가족원 간병 또는 돌봄 시 애로사항 .....               | 169 |
| 〈표 3-87〉 신체적 건강 상태 .....                         | 171 |
| 〈표 3-8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상태 .....              | 172 |
| 〈표 3-89〉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                    | 173 |
| 〈표 3-9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         | 174 |
| 〈표 3-91〉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비교 .....                   | 175 |
| 〈표 3-92〉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 (중복응답) .....                | 176 |
| 〈표 3-9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                  | 177 |
| 〈표 3-9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수단 (중복응답) .....           | 179 |
| 〈표 3-95〉 노후에 지내고 싶은 장소 .....                     | 180 |
| 〈표 3-96〉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                  | 182 |
| 〈표 3-97〉 가정 건강성 .....                            | 184 |
| 〈표 3-98〉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인식 .....                    | 185 |
| 〈표 3-99〉 지역 분위기와 가족의 삶 관계 인식 .....               | 187 |
| 〈표 3-100〉 지역 공동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인식 .....            | 189 |
| 〈표 3-101〉 이웃과의 교류 수준 .....                       | 191 |
| 〈표 3-102〉 이웃과의 관계 인식 .....                       | 193 |
| 〈표 3-10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 인식 비교 .....         | 195 |

|   |     |
|---|-----|
| 〈표 3-104〉 공동체 지원 정책 수요 .....                  | 196 |
| 〈표 3-105〉 가족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         | 197 |
| 〈표 3-106〉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 .....                  | 198 |
| 〈표 3-107〉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정책 수요 .....            | 200 |
| 〈표 3-108〉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             | 202 |
| 〈표 3-10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  | 204 |
| 〈표 3-110〉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           | 205 |
| 〈표 3-1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 | 208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 6   |
| 〈그림 2-1〉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 11  |
| 〈그림 3-1〉 가구주 여부 및 성별 .....                  | 60  |
| 〈그림 3-2〉 연령별 응답자 특성 .....                   | 63  |
| 〈그림 3-3〉 혼인상태별 응답자 특성 .....                 | 64  |
| 〈그림 3-4〉 최종학력별 응답자 특성 .....                 | 65  |
| 〈그림 3-5〉 월평균 가구소득 .....                     | 66  |
| 〈그림 3-6〉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                | 67  |
| 〈그림 3-7〉 출생지역별 응답자 특성 .....                 | 69  |
| 〈그림 3-8〉 타지역 출생자의 거주기간 .....                | 69  |
| 〈그림 3-9〉 취업상태별 응답자 특성 .....                 | 70  |
| 〈그림 3-10〉 취업자 고용유형별 응답자 특성 .....            | 71  |
| 〈그림 3-11〉 취업자 직업별 응답자 특성 .....              | 73  |
| 〈그림 3-12〉 비취업 사유 .....                      | 74  |
| 〈그림 3-13〉 세대유형별 응답자 특성 .....                | 76  |
| 〈그림 3-14〉 자녀 수 (성별별) .....                  | 77  |
| 〈그림 3-15〉 자녀 수 (연령별) .....                  | 77  |
| 〈그림 3-16〉 자녀 수 (거주지별) .....                 | 78  |
| 〈그림 3-17〉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          | 81  |
| 〈그림 3-18〉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          | 85  |
| 〈그림 3-19〉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          | 87  |
| 〈그림 3-20〉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       | 91  |
| 〈그림 3-21〉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           | 93  |
| 〈그림 3-22〉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        | 97  |
| 〈그림 3-2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성별별) ..... | 98  |
| 〈그림 3-24〉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연령별) ..... | 99  |
| 〈그림 3-25〉 부모 돌봄의 책임 인식 (성별별) .....          | 100 |

|  |     |
|--|-----|
| 〈그림 3-26〉 부모 돌봄의 책임 인식 (연령별) .....         | 101 |
| 〈그림 3-27〉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104 |
| 〈그림 3-28〉 출생계획 .....                       | 108 |
| 〈그림 3-29〉 입양의향 .....                       | 111 |
| 〈그림 3-30〉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 의향 .....          | 114 |
| 〈그림 3-31〉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 118 |
| 〈그림 3-32〉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변화 비교 .....       | 120 |
| 〈그림 3-33〉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                | 122 |
| 〈그림 3-34〉 자녀와의 관계 .....                    | 126 |
| 〈그림 3-35〉 부모와의 관계 인식 .....                 | 129 |
| 〈그림 3-36〉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              | 132 |
| 〈그림 3-37〉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 변화 비교 .....         | 133 |
| 〈그림 3-38〉 맞벌이 여부 .....                     | 135 |
| 〈그림 3-39〉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 141 |
| 〈그림 3-40〉 가족과의 여가시간 .....                  | 145 |
| 〈그림 3-41〉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종류 .....         | 150 |
| 〈그림 3-42〉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 .....         | 154 |
| 〈그림 3-43〉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     | 158 |
| 〈그림 3-44〉 초등학교 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      | 162 |
| 〈그림 3-45〉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비교 (동거여부) ..... | 164 |
| 〈그림 3-46〉 주로 돌보는 사람 (동거여부) .....           | 165 |
| 〈그림 3-47〉 신체적 건강 상태 .....                  | 171 |
| 〈그림 3-48〉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             | 173 |
| 〈그림 3-49〉 가정 건강성 .....                     | 184 |
| 〈그림 3-50〉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인식 .....             | 186 |
| 〈그림 3-51〉 지역 분위기와 가족의 삶 관계 인식 .....        | 188 |
| 〈그림 3-52〉 지역 공동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인식 .....      | 190 |
| 〈그림 3-53〉 이웃과의 교류 수준 .....                 | 192 |
| 〈그림 3-54〉 이웃과의 관계 인식 .....                 | 193 |

|                                     |     |
|-------------------------------------|-----|
| 〈그림 3-55〉 공동체 지원 정책 수요 .....        | 196 |
| 〈그림 3-56〉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 .....        | 199 |
| 〈그림 3-57〉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   | 203 |
| 〈그림 3-58〉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 | 206 |





## 제 1 장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의 증가, 출산률의 감소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형태, 구조 등을 비롯한 가족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 수는 약 6,214천호(30.4%)로서, 2015년 5,238천호(27.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형태의 가구 수는 2015년 44.2%에서 2020년 31.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들은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여겨지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중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은 기존 가족정책 수요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의 공급자인 행정은 이러한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가족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 및 건강가정 구현 등을 목적으로 가족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 및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지역별 현황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2010년대부터 최근까지 급격하게 전입인구가 변화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의 가족 특성 및 가족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출산율, 이혼율 등 가족 특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지표가 타 지역에 비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즉, 제주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족실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정착주민, 1인 가구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주기적인 근거 자료 수집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문화가족 및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립되면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다만 분야별 특성화된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가족의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태조사나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적인 데이터의 확보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가족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자료의 축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도내 출자·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제주연구원, 200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 연구 이후 가족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제주지역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부족 상황에 직면하였음
- 따라서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 근거 데이터 확보,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제주지역 가족 현황 분석

- 통계청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가족 형태 및 구조 변화, 가족 형성 및 해체, 인구 현황, 가족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함
  -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혼인이혼통계 등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전국단위 데이터 중 제주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전국과 비교한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가족 현황을 분석함
  - 지역별 인구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소멸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함
- 기존에 수집되고 있는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 중 가족분야 데이터 일부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가족 특성을 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자료 중 가족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문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제주지역의 가족 실태를 분석함
  - 타 지역에서 수행된 각종 선행연구 및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연구,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연구 등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도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지역 변수에 따른 분석(전국-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중산간지역-해안지역 등), 시계열 분석(2014년-2022년) 등을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함
  - 전국 데이터의 경우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경우 2014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함

## 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 도출

- 국가단위 가족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1)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 및 제주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 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함
  -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국가단위 정책과의 연계성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검토하고, 제주지역의 가족 특성에 부합하는 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함
- 제주도내에서 수립된 분야별 가족정책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4차 기본계획(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 ‘정착주민 기본계획(제주연구원, 2021)’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최근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관련한 연구 영역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에 수립된 분야별 가족정책들의 특수성 및 해당 연구들과 본 연구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전반적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                |   |   |
|-----|----------------|---|---|
| 1단계 | 연구 설계          | ⇔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br>· 연구 착수 보고                 |
| 2단계 |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 · 전국단위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br>· 지역단위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3단계 | 전문가 의견 수렴      | ⇔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br>- 연구 방향 자문<br>- 설문지 설계 자문    |
| 4단계 | 설문지 개발 및 조사 실시 | ⇔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개발<br>· 도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 5단계 | 조사 결과 분석       | ⇔ | · 결과 분석 및 집필                                  |
| 6단계 | 정책 제언          | ⇔ | · 정책 제언                                       |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현황

1. 인구 및 가구
2. 가족 형성 및 해체
3. 가족구성원 변화
4. 사회조사에 나타난 제주 가족
5. 소결





## 1. 인구 및 가구

### 가. 제주지역 인구 일반 현황

- 2015~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변화 분석 결과, 제주지역 인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 수는 673,107명으로서, 2015년(605,619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1.78%)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5~2021년 제주지역 행정시별, 지역 특성별 인구 수 변화 분석 결과,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급격하게 인구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서귀포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58%로서, 제주시(1.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읍면지역(2.84%)이 동 지역(1.3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수 변화

(단위: 명, %)

| 구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1               | 연평균<br>증가율<br>(%) |
|----|------|--------------------|--------------------|--------------------|--------------------|--------------------|--------------------|-------------------|
| 전체 |      | 605,619<br>(100.0) | 623,332<br>(100.0) | 641,757<br>(100.0) | 658,282<br>(100.0) | 665,048<br>(100.0) | 673,107<br>(100.0) | (1.78)            |
|    | 제주시  | 451,758<br>(74.6)  | 462,286<br>(74.2)  | 472,399<br>(73.6)  | 482,932<br>(73.4)  | 487,688<br>(73.3)  | 493,869<br>(73.4)  | (1.50)            |
|    | 서귀포시 | 153,861<br>(25.4)  | 161,046<br>(25.8)  | 169,358<br>(26.4)  | 175,350<br>(26.6)  | 177,360<br>(26.7)  | 179,238<br>(26.6)  | (2.58)            |
|    | 읍면지역 | 160,212<br>(26.5)  | 166,451<br>(26.7)  | 175,240<br>(27.3)  | 183,096<br>(27.8)  | 186,489<br>(28.0)  | 189,478<br>(28.1)  | (2.84)            |
|    | 동 지역 | 445,407<br>(73.5)  | 456,881<br>(73.3)  | 466,517<br>(72.7)  | 475,186<br>(72.2)  | 478,559<br>(72.0)  | 483,629<br>(71.9)  | (1.38)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나.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고려한 제주지역의 사회구조 변화 특성 분석 결과, 2021년 제주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sup>1)</sup>는 0.71로서, 전국(0.72)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71로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2~2021년 제주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2012~2021년 제주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0.2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폭은 전국(-0.47)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도내 행정시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비교 분석 결과, 2021년 서귀포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50으로서, 제주시(0.81)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감소 폭은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구분    | 2012 | 2015 | 2018 | 2021 | 2012-2021 |
|-------|------|------|------|------|-----------|
| 전국    | 1.20 | 1.02 | 0.89 | 0.72 | -0.47     |
| 서울특별시 | 1.48 | 1.23 | 1.07 | 0.91 | -0.57     |
| 부산광역시 | 1.09 | 0.89 | 0.74 | 0.58 | -0.51     |
| 대구광역시 | 1.24 | 1.00 | 0.85 | 0.67 | -0.57     |
| 인천광역시 | 1.57 | 1.32 | 1.12 | 0.88 | -0.69     |
| 광주광역시 | 1.49 | 1.23 | 1.05 | 0.88 | -0.61     |
| 대전광역시 | 1.57 | 1.28 | 1.08 | 0.86 | -0.72     |
| 울산광역시 | 1.85 | 1.51 | 1.18 | 0.83 | -1.02     |
| 세종시   | 0.85 | 1.42 | 1.60 | 1.34 | 0.50      |
| 경기도   | 1.57 | 1.33 | 1.15 | 0.94 | -0.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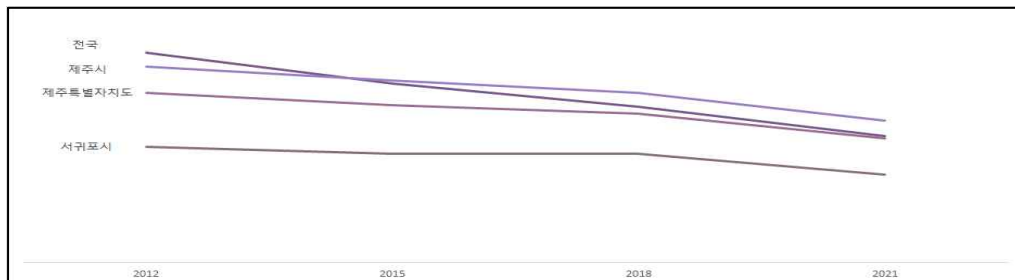
1) 지방소멸위험지수란 만20-39세의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와 관련하여 제안 및 제시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즉,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며,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구분      | 2012 | 2015 | 2018 | 2021 | 2012-2021 |
|---------|------|------|------|------|-----------|
| 강원도     | 0.75 | 0.66 | 0.57 | 0.46 | -0.29     |
| 충청북도    | 0.93 | 0.82 | 0.72 | 0.58 | -0.35     |
| 충청남도    | 0.83 | 0.74 | 0.66 | 0.54 | -0.30     |
| 전라북도    | 0.75 | 0.64 | 0.56 | 0.46 | -0.29     |
| 전라남도    | 0.57 | 0.51 | 0.46 | 0.38 | -0.18     |
| 경상북도    | 0.74 | 0.63 | 0.53 | 0.42 | -0.32     |
| 경상남도    | 1.03 | 0.88 | 0.74 | 0.56 | -0.47     |
| 제주특별자치도 | 0.97 | 0.90 | 0.85 | 0.71 | -0.26     |
| 제주시     | 1.12 | 1.04 | 0.97 | 0.81 | -0.31     |
| 서귀포시    | 0.66 | 0.62 | 0.62 | 0.50 | -0.16     |

주 :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제시하는 인구 자료 재가공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2-1〉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 다. 가구 수 현황 및 변화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총 가구 수(일반가구 기준)는 271,162호로서, 전국 가구 수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1세대 가구 및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세대 가구 및 비친족 가구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국 가구 중 1세대 가구 비중은 18.9%, 1인 가구 비중은 33.4%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각각 17.6%, 32.7%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지역 3세대 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경우 각각 4.2%, 3.1%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3.3%, 2.2%) 대비 높은 수준임

〈표 2-3〉 세대구성별 가구 수 현황

(단위: 호, %)

| 구분        |                  | 전국         |         | 제주      |         |
|-----------|------------------|------------|---------|---------|---------|
|           |                  |            | %       |         | %       |
| 전체        |                  | 21,448,463 | (100.0) | 271,162 | (100.0) |
| 1세대 가구    | 부부               | 3,668,451  | (17.1)  | 42,969  | (15.8)  |
|           | 부부+미혼형제자매        | 19,874     | (0.1)   | 252     | (0.1)   |
|           | 부부+기타친인척         | 4,893      | (0.0)   | 61      | (0.0)   |
|           | 가구주+미혼형제자매       | 225,014    | (1.0)   | 2,482   | (0.9)   |
|           | 가구주+기타친인척        | 22,305     | (0.1)   | 253     | (0.1)   |
|           | 기타               | 113,930    | (0.5)   | 1,736   | (0.6)   |
|           | 소계               | 4,054,467  | (18.9)  | 47,753  | (17.6)  |
| 2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          | 5,981,094  | (27.9)  | 68,929  | (25.4)  |
|           | 부+미혼자녀           | 503,179    | (2.3)   | 7,975   | (2.9)   |
|           | 모+미혼자녀           | 1,514,406  | (7.1)   | 21,664  | (8.0)   |
|           | 부부+양친            | 15,659     | (0.1)   | 253     | (0.1)   |
|           | 부부+한부모           | 106,771    | (0.5)   | 1,513   | (0.6)   |
|           |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 55,858     | (0.3)   | 701     | (0.3)   |
|           | 조부모+미혼손자녀        | 46,860     | (0.2)   | 574     | (0.2)   |
|           |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 72,047     | (0.3)   | 923     | (0.3)   |
|           | 기타               | 754,013    | (3.5)   | 12,494  | (4.6)   |
|           | 소계               | 9,049,887  | (42.2)  | 115,026 | (42.4)  |
| 3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양친       | 67,967     | (0.3)   | 1,180   | (0.4)   |
|           | 부부+미혼자녀+부친       | 57,401     | (0.3)   | 837     | (0.3)   |
|           | 부부+미혼자녀+모친       | 257,827    | (1.2)   | 3,796   | (1.4)   |
|           | 기타               | 317,900    | (1.5)   | 5,446   | (2.0)   |
|           | 소계               | 701,095    | (3.3)   | 11,259  | (4.2)   |
| 4세대 이상 가구 |                  | 4,566      | (0.0)   | 114     | (0.0)   |
| 1인 가구     |                  | 7,165,788  | (33.4)  | 88,683  | (32.7)  |
| 비친족가구     |                  | 472,660    | (2.2)   | 8,327   | (3.1)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15~2021년 제주지역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제주지역 가구 수는 2015년 220,369호에서 2021년 271,162호로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제주지역 세대구성별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2세대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가구 대비 2세대 가구 수 비중은 42.4%로서 2014년(48.2%)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1인 가구 수 비중은 32.7%로서 2014년(26.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세대구성별 제주특별자치도 가구 수 변화

(단위: 호, %)

| 구분                    |                  | 2015    |         | 2018    |         | 2021    |         |
|-----------------------|------------------|---------|---------|---------|---------|---------|---------|
|                       |                  |         | %       |         | %       |         | %       |
| 전체                    |                  | 220,369 | (100.0) | 248,998 | (100.0) | 271,162 | (100.0) |
| 1<br>세<br>대<br>가<br>구 | 부부               | 33,157  | (15.0)  | 37,407  | (15.0)  | 42,969  | (15.8)  |
|                       | 부부+미혼형제자매        | 205     | (0.1)   | 224     | (0.1)   | 252     | (0.1)   |
|                       | 부부+기타친인척         | 26      | (0.0)   | 42      | (0.0)   | 61      | (0.0)   |
|                       | 가구주+미혼형제자매       | 2,159   | (1.0)   | 2,311   | (0.9)   | 2,482   | (0.9)   |
|                       | 가구주+기타친인척        | 162     | (0.1)   | 219     | (0.1)   | 253     | (0.1)   |
|                       | 기타               | 1,404   | (0.6)   | 1,628   | (0.7)   | 1,736   | (0.6)   |
|                       | 소계               | 37,113  | (16.8)  | 41,831  | (16.8)  | 47,753  | (17.6)  |
| 2<br>세<br>대<br>가<br>구 | 부부+미혼자녀          | 64,163  | (29.1)  | 67,466  | (27.1)  | 68,929  | (25.4)  |
|                       | 부+미혼자녀           | 7,765   | (3.5)   | 8,011   | (3.2)   | 7,975   | (2.9)   |
|                       | 모+미혼자녀           | 18,924  | (8.6)   | 20,269  | (8.1)   | 21,664  | (8.0)   |
|                       | 부부+양친            | 309     | (0.1)   | 335     | (0.1)   | 253     | (0.1)   |
|                       | 부부+한부모           | 1,366   | (0.6)   | 1,510   | (0.6)   | 1,513   | (0.6)   |
|                       |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 863     | (0.4)   | 864     | (0.3)   | 701     | (0.3)   |
|                       | 조부모+미혼손자녀        | 574     | (0.3)   | 560     | (0.2)   | 574     | (0.2)   |
|                       |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 939     | (0.4)   | 880     | (0.4)   | 923     | (0.3)   |
|                       | 기타               | 11,304  | (5.1)   | 13,448  | (5.4)   | 12,494  | (4.6)   |
|                       | 소계               | 106,207 | (48.2)  | 113,343 | (45.5)  | 115,026 | (42.4)  |

| 구분        |            | 2015   |        | 2018   |        | 2021   |        |
|-----------|------------|--------|--------|--------|--------|--------|--------|
|           |            |        | %      |        | %      |        | %      |
| 3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양친 | 1,723  | (0.8)  | 1,583  | (0.6)  | 1,180  | (0.4)  |
|           | 부부+미혼자녀+부친 | 919    | (0.4)  | 920    | (0.4)  | 837    | (0.3)  |
|           | 부부+미혼자녀+모친 | 4,931  | (2.2)  | 4,608  | (1.9)  | 3,796  | (1.4)  |
|           | 기타         | 7,058  | (3.2)  | 6,676  | (2.7)  | 5,446  | (2.0)  |
|           | 소계         | 14,631 | (6.6)  | 13,787 | (5.5)  | 11,259 | (4.2)  |
| 4세대 이상 가구 |            | 251    | (0.1)  | 199    | (0.1)  | 114    | (0.0)  |
| 1인 가구     |            | 58,446 | (26.5) | 73,250 | (29.4) | 88,683 | (32.7) |
| 비친족가구     |            | 3,721  | (1.7)  | 6,588  | (2.6)  | 8,327  | (3.1)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15~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행정구역 단위별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가구 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5~2021년 서귀포시 연평균 가구 수 증가율은 4.58%로서, 제주시(3.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읍면지역(4.58%)이 동 지역(3.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5〉 제주도내 권역별 가구 수 변화

(단위: 호,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1               | 연평균<br>증가율<br>(%) |
|------|--------------------|--------------------|--------------------|--------------------|--------------------|--------------------|-------------------|
| 전체   | 224,724<br>(100.0) | 234,449<br>(100.0) | 246,504<br>(100.0) | 256,158<br>(100.0) | 261,162<br>(100.0) | 278,458<br>(100.0) | (3.64)            |
| 제주시  | 166,475<br>(74.1)  | 172,493<br>(73.6)  | 179,758<br>(72.9)  | 185,775<br>(72.5)  | 189,701<br>(72.6)  | 202,250<br>(72.6)  | (3.30)            |
| 서귀포시 | 58,249<br>(25.9)   | 61,956<br>(26.4)   | 66,746<br>(27.1)   | 70,383<br>(27.5)   | 71,461<br>(27.4)   | 76,208<br>(27.4)   | (4.58)            |
| 읍면지역 | 61,087<br>(27.2)   | 64,502<br>(27.5)   | 69,614<br>(28.2)   | 73,743<br>(28.8)   | 75,162<br>(28.8)   | 79,932<br>(28.7)   | (4.58)            |
| 동 지역 | 163,637<br>(72.8)  | 169,947<br>(72.5)  | 176,890<br>(71.8)  | 182,415<br>(71.2)  | 186,000<br>(71.2)  | 198,526<br>(71.3)  | (3.27)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라. 가구원 수 현황 및 변화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총 가구원 수(일반가구 기준)는 637,155명으로서 전국 총 가구원 수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세대구성별 가구원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3세대 가구 및 비친족 가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가구 비중이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가구원 현황 분석 결과, 3세대 가구원 비중(8.4%) 및 비친족 가구원 비중(2.8%)은 전국(6.5%, 2.1%)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형태의 가구들의 경우 전국 대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2세대 가구 수는 전국(42.2%)에 비해 제주지역(42.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 수는 전국(60.0%) 비중이 제주지역(59.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6〉 세대구성별 가구원 수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전국         |         | 제주      |         |
|-----------------------|------------------|------------|---------|---------|---------|
|                       |                  |            | %       |         | %       |
| 전체                    |                  | 49,063,531 | (100.0) | 637,155 | (100.0) |
| 1<br>세<br>대<br>가<br>구 | 부부               | 7,336,902  | (15.0)  | 85,938  | (13.5)  |
|                       | 부부+미혼형제자매        | 59,962     | (0.1)   | 761     | (0.1)   |
|                       | 부부+기타친인척         | 15,171     | (0.0)   | 191     | (0.0)   |
|                       | 가구주+미혼형제자매       | 463,468    | (0.9)   | 5,212   | (0.8)   |
|                       | 가구주+기타친인척        | 47,268     | (0.1)   | 532     | (0.1)   |
|                       | 기타               | 292,428    | (0.6)   | 4,422   | (0.7)   |
|                       | 소계               | 8,215,199  | (16.7)  | 97,056  | (15.2)  |
| 2<br>세<br>대<br>가<br>구 | 부부+미혼자녀          | 21,451,843 | (43.7)  | 255,167 | (40.0)  |
|                       | 부+미혼자녀           | 1,190,602  | (2.4)   | 19,481  | (3.1)   |
|                       | 모+미혼자녀           | 3,591,530  | (7.3)   | 53,584  | (8.4)   |
|                       | 부부+양친            | 62,636     | (0.1)   | 1,012   | (0.2)   |
|                       | 부부+한부모           | 320,313    | (0.7)   | 4,539   | (0.7)   |
|                       |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 258,233    | (0.5)   | 3,330   | (0.5)   |
|                       | 조부모+미혼손자녀        | 151,345    | (0.3)   | 1,866   | (0.3)   |
|                       |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 158,495    | (0.3)   | 2,093   | (0.3)   |
|                       | 기타               | 2,268,558  | (4.6)   | 38,421  | (6.0)   |
|                       | 소계               | 29,453,555 | (60.0)  | 379,493 | (59.6)  |

| 구분        |            | 전국        |        | 제주     |        |
|-----------|------------|-----------|--------|--------|--------|
|           |            |           | %      |        | %      |
| 3세대 가구    | 부부+미혼자녀+양친 | 388,026   | (0.8)  | 6,954  | (1.1)  |
|           | 부부+미혼자녀+부친 | 268,051   | (0.5)  | 4,030  | (0.6)  |
|           | 부부+미혼자녀+모친 | 1,193,848 | (2.4)  | 18,112 | (2.8)  |
|           | 기타         | 1,336,844 | (2.7)  | 24,179 | (3.8)  |
|           | 소계         | 3,186,769 | (6.5)  | 53,275 | (8.4)  |
| 4세대 이상 가구 |            | 27,120    | (0.1)  | 690    | (0.1)  |
| 1인 가구     |            | 7,165,788 | (14.6) | 88,683 | (13.9) |
| 비친족가구     |            | 1,015,100 | (2.1)  | 17,958 | (2.8)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15~2021년 제주지역 가구원 수 변화 분석 결과, 제주지역 가구원 수는 2015년 575,873명에서 2022년 637,155명으로 23.0% 증가하였음
- 2015~2021년 제주지역 세대구성별 가구원 수 변화 분석 결과, 제주지역 전체 인구 증가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구유형별 가구원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등 다세대 가구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변화 추세를 비교 분석해보면, 제주지역 가구 및 가구원 수 증가세는 유사한 경향(2021년 기준, 2015년 대비 약 23.0% 증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세대구성별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원 수 변화

(단위: 명, %)

| 구분     |            | 2015    |         | 2018    |         | 2021    |         |
|--------|------------|---------|---------|---------|---------|---------|---------|
|        |            |         | %       |         | %       |         | %       |
| 전체     |            | 575,873 | (100.0) | 619,848 | (100.0) | 637,155 | (100.0) |
| 1세대 가구 | 부부         | 66,314  | (11.5)  | 74,814  | (12.1)  | 85,938  | (13.5)  |
|        | 부부+미혼형제자매  | 620     | (0.1)   | 675     | (0.1)   | 761     | (0.1)   |
|        | 부부+기타친인척   | 79      | (0.0)   | 127     | (0.0)   | 191     | (0.0)   |
|        | 가구주+미혼형제자매 | 4,552   | (0.8)   | 4,851   | (0.8)   | 5,212   | (0.8)   |
|        | 가구주+기타친인척  | 347     | (0.1)   | 484     | (0.1)   | 532     | (0.1)   |
|        | 기타         | 3,788   | (0.7)   | 4,195   | (0.7)   | 4,422   | (0.7)   |
|        | 소계         | 75,700  | (13.1)  | 85,146  | (13.7)  | 97,056  | (15.2)  |



| 구분                    |                  | 2015    |        | 2018    |        | 2021    |        |
|-----------------------|------------------|---------|--------|---------|--------|---------|--------|
|                       |                  |         | %      |         | %      |         | %      |
| 2<br>세<br>대<br>가<br>구 | 부부+미혼자녀          | 242,102 | (42.0) | 251,898 | (40.6) | 255,167 | (40.0) |
|                       | 부+미혼자녀           | 19,418  | (3.4)  | 19,763  | (3.2)  | 19,481  | (3.1)  |
|                       | 모+미혼자녀           | 47,812  | (8.3)  | 50,277  | (8.1)  | 53,584  | (8.4)  |
|                       | 부부+양친            | 1,238   | (0.2)  | 1,340   | (0.2)  | 1,012   | (0.2)  |
|                       | 부부+한부모           | 4,108   | (0.7)  | 4,530   | (0.7)  | 4,539   | (0.7)  |
|                       |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 4,226   | (0.7)  | 4,150   | (0.7)  | 3,330   | (0.5)  |
|                       | 조부모+미혼손자녀        | 1,868   | (0.3)  | 1,827   | (0.3)  | 1,866   | (0.3)  |
|                       |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 2,099   | (0.4)  | 1,979   | (0.3)  | 2,093   | (0.3)  |
|                       | 기타               | 36,692  | (6.4)  | 42,829  | (6.9)  | 38,421  | (6.0)  |
|                       | 소계               | 359,563 | (62.4) | 378,593 | (61.1) | 379,493 | (59.6) |
| 3<br>세<br>대<br>가<br>구 | 부부+미혼자녀+양친       | 10,214  | (1.8)  | 9,381   | (1.5)  | 6,954   | (1.1)  |
|                       | 부부+미혼자녀+부친       | 4,520   | (0.8)  | 4,516   | (0.7)  | 4,030   | (0.6)  |
|                       | 부부+미혼자녀+모친       | 24,016  | (4.2)  | 22,184  | (3.6)  | 18,112  | (2.8)  |
|                       | 기타               | 33,441  | (5.8)  | 30,993  | (5.0)  | 24,179  | (3.8)  |
|                       | 소계               | 72,191  | (12.5) | 67,074  | (10.8) | 53,275  | (8.4)  |
| 4세대 이상 가구             |                  | 1,630   | (0.3)  | 1,280   | (0.2)  | 690     | (0.1)  |
| 1인 가구                 |                  | 58,446  | (10.1) | 73,250  | (11.8) | 88,683  | (13.9) |
| 비친족가구                 |                  | 8,343   | (1.4)  | 14,505  | (2.3)  | 17,958  | (2.8)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1년 기준 가구원 수 별 가구 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32.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2인 가구(28.4%), 3인 가구(18.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1인 가구 및 2인 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타 형태의 가구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 및 2인가구의 경우 2015년 각각 26.5%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 각각 32.7%, 28.4%로 증가하였음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원 수 별 가구 수 변화

(단위: 호,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체    | 220,369<br>(100.0) | 229,337<br>(100.0) | 240,215<br>(100.0) | 248,998<br>(100.0) | 253,716<br>(100.0) | 263,068<br>(100.0) | 271,162<br>(100.0) |
| 1인    | 58,446<br>(26.5)   | 62,841<br>(27.4)   | 68,738<br>(28.6)   | 73,250<br>(29.4)   | 75,353<br>(29.7)   | 81,855<br>(31.1)   | 88,683<br>(32.7)   |
| 2인    | 58,302<br>(26.5)   | 60,522<br>(26.4)   | 64,612<br>(26.9)   | 68,170<br>(27.4)   | 71,409<br>(28.1)   | 74,308<br>(28.2)   | 77,092<br>(28.4)   |
| 3인    | 43,864<br>(19.9)   | 45,663<br>(19.9)   | 46,952<br>(19.5)   | 48,239<br>(19.4)   | 49,002<br>(19.3)   | 49,903<br>(19.0)   | 50,111<br>(18.5)   |
| 4인    | 38,308<br>(17.4)   | 38,608<br>(16.8)   | 38,854<br>(16.2)   | 38,944<br>(15.6)   | 38,634<br>(15.2)   | 38,747<br>(14.7)   | 38,007<br>(14.0)   |
| 5인    | 15,257<br>(6.9)    | 15,552<br>(6.8)    | 15,180<br>(6.3)    | 14,799<br>(5.9)    | 14,176<br>(5.6)    | 13,719<br>(5.2)    | 13,067<br>(4.8)    |
| 6인    | 4,378<br>(2.0)     | 4,395<br>(1.9)     | 4,208<br>(1.8)     | 4,035<br>(1.6)     | 3,712<br>(1.5)     | 3,380<br>(1.3)     | 3,153<br>(1.2)     |
| 7인 이상 | 1,814<br>(0.8)     | 1,756<br>(0.8)     | 1,671<br>(0.7)     | 1,561<br>(0.6)     | 1,430<br>(0.6)     | 1,156<br>(0.4)     | 1,049<br>(0.4)     |

주 :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마. 가구특성별 현황

### □ 1인 가구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연령별 1인 가구 특성 분석 결과, 전국 대비 30대 이하 청년 및 7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낮은 반면,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국과 제주지역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40대(17.0%), 50대(20.5%) 1인 가구 비율이 전국(13.3%, 15.4%)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20대(14.3%), 30대(15.4%), 70대 이상(16.0%) 1인 가구 비율은 전국(19.8%, 17.1%, 18.1%)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2-9〉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비교 (2021년 기준)

(단위: 호, %)

| 구분     | 전국                   |                      |                      | 제주                |                   |                   |
|--------|----------------------|----------------------|----------------------|-------------------|-------------------|-------------------|
|        |                      | 남성                   | 여성                   |                   | 남성                | 여성                |
| 전체     | 7,165,788<br>(100.0) | 3,583,770<br>(100.0) | 3,582,018<br>(100.0) | 88,683<br>(100.0) | 44,806<br>(100.0) | 43,877<br>(100.0) |
| 20대 이하 | 1,417,604<br>(19.8)  | 723,741<br>(20.2)    | 693,863<br>(19.4)    | 12,684<br>(14.3)  | 6,221<br>(13.9)   | 6,463<br>(14.7)   |
| 30대    | 1,226,034<br>(17.1)  | 782,658<br>(21.8)    | 443,376<br>(12.4)    | 13,688<br>(15.4)  | 8,222<br>(18.4)   | 5,466<br>(12.5)   |
| 40대    | 950,236<br>(13.3)    | 603,550<br>(16.8)    | 346,686<br>(9.7)     | 15,076<br>(17.0)  | 9,094<br>(20.3)   | 5,982<br>(13.6)   |
| 50대    | 1,100,914<br>(15.4)  | 636,990<br>(17.8)    | 463,924<br>(13.0)    | 18,188<br>(20.5)  | 10,390<br>(23.2)  | 7,798<br>(17.8)   |
| 60대    | 1,176,108<br>(16.4)  | 521,174<br>(14.5)    | 654,934<br>(18.3)    | 14,817<br>(16.7)  | 7,165<br>(16.0)   | 7,652<br>(17.4)   |
| 70대 이상 | 1,294,892<br>(18.1)  | 315,657<br>(8.8)     | 979,235<br>(27.3)    | 14,230<br>(16.0)  | 3,714<br>(8.3)    | 10,516<br>(24.0)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지역 또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제주지역 1인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해당 기간동안 제주지역의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은 7.2%로서, 같은 기간 전국의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5.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1인 가구는 남성 44,806호, 여성 43,877호로서,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제주지역 성별별 1인 가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남녀 비율은 각각 49.5%, 50.5%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0〉 성별별 1인 가구 변화

(단위: 호, %)

| 구분   | 2015      |           |           | 2018      |           |           | 2021      |           |           |
|------|-----------|-----------|-----------|-----------|-----------|-----------|-----------|-----------|-----------|
|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전국   | 5,203,440 | 2,532,963 | 2,610,477 | 5,848,594 | 2,906,320 | 2,942,274 | 7,165,788 | 3,582,770 | 3,582,018 |
| 제주   | 58,446    | 28,946    | 29,500    | 73,250    | 37,607    | 35,643    | 88,683    | 44,806    | 43,877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제주시  | 43,189    | 21,630    | 21,559    | 52,189    | 26,871    | 25,318    | 63,856    | 32,348    | 31,508    |
|      | (73.9)    | (74.7)    | (73.1)    | (71.2)    | (71.5)    | (71.0)    | (72.0)    | (72.2)    | (71.8)    |
| 서귀포시 | 15,257    | 7,316     | 7,941     | 21,061    | 10,736    | 10,325    | 24,827    | 12,458    | 12,369    |
|      | (26.1)    | (25.3)    | (26.9)    | (28.8)    | (28.5)    | (29.0)    | (28.0)    | (27.8)    | (28.2)    |

주 : 일반가구만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20~49세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수는 17,713호로서, 도내 1인 가구(41,050호)의 4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5~2021년 제주지역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수 비중은 43.1%로서, 2015년(40.4%)에 비해 2.7%p 증가하였음

〈표 2-11〉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현황 변화

(단위: 호, %)

| 구분 |        | 2015      |           |      | 2018      |           |      | 2021      |           |      |
|----|--------|-----------|-----------|------|-----------|-----------|------|-----------|-----------|------|
|    |        | 전체        | 여성        |      | 전체        | 여성        |      | 전체        | 여성        |      |
|    |        |           |           | %    |           |           | %    |           |           | %    |
| 전국 | 전체     | 5,203,440 | 2,610,477 | 50.2 | 5,848,594 | 2,942,274 | 50.3 | 7,165,788 | 3,582,018 | 50.0 |
|    | 20~49세 | 2,680,103 | 1,053,093 | 39.1 | 2,876,902 | 1,151,260 | 40.0 | 3,539,822 | 1,454,888 | 41.1 |
| 제주 | 전체     | 58,446    | 29,500    | 50.5 | 73,250    | 35,643    | 48.7 | 88,683    | 43,877    | 49.5 |
|    | 20~49세 | 28,282    | 11,417    | 40.4 | 34,641    | 14,058    | 40.6 | 41,050    | 17,713    | 43.1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별(5세별) 1인 가구 현황 분석 결과, 50 ~ 54세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54세(1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5~59세(9.85%), 60~64세(9.6%)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5~2021년 제주지역 연령별(5세별) 1인 가구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5~29세, 60~64세, 65~69세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5~2021년 연령에 따른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변화 비교 분석 결과, 25~29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64세(12.8%), 65~69세(11.2%)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2〉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1인 가구 변화

(단위: 호,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체     | 58,446<br>(100.0) | 62,841<br>(100.0) | 68,738<br>(100.0) | 73,250<br>(100.0) | 75,353<br>(100.0) | 81,855<br>(100.0) | 88,683<br>(100.0) |
| 20세 미만 | 551<br>(0.9)      | 552<br>(0.9)      | 672<br>(1.0)      | 646<br>(0.9)      | 449<br>(0.6)      | 635<br>(0.8)      | 398<br>(0.4)      |
| 20~24  | 2,826<br>(4.8)    | 2,825<br>(4.5)    | 3,055<br>(4.4)    | 3,213<br>(4.4)    | 3,172<br>(4.2)    | 3,914<br>(4.8)    | 3,934<br>(4.4)    |
| 25~29  | 3,916<br>(6.7)    | 4,240<br>(6.7)    | 4,844<br>(7.0)    | 5,783<br>(7.9)    | 6,313<br>(8.4)    | 7,487<br>(9.1)    | 8,352<br>(9.4)    |
| 30~34  | 4,837<br>(8.3)    | 4,959<br>(7.9)    | 5,227<br>(7.6)    | 5,404<br>(7.4)    | 5,554<br>(7.4)    | 6,094<br>(7.4)    | 7,086<br>(8.0)    |
| 35~39  | 4,835<br>(8.3)    | 5,181<br>(8.2)    | 5,811<br>(8.5)    | 6,121<br>(8.4)    | 6,231<br>(8.3)    | 6,418<br>(7.8)    | 6,602<br>(7.4)    |
| 40~44  | 5,733<br>(9.8)    | 5,731<br>(9.1)    | 6,100<br>(8.9)    | 6,216<br>(8.5)    | 6,130<br>(8.1)    | 6,452<br>(7.9)    | 7,052<br>(8.0)    |
| 45~49  | 6,135<br>(10.5)   | 6,762<br>(10.8)   | 7,531<br>(11.0)   | 7,904<br>(10.8)   | 7,972<br>(10.6)   | 8,010<br>(9.8)    | 8,024<br>(9.0)    |
| 50~54  | 6,019<br>(10.3)   | 6,605<br>(10.5)   | 7,118<br>(10.4)   | 7,619<br>(10.4)   | 7,850<br>(10.4)   | 8,682<br>(10.6)   | 9,458<br>(10.7)   |
| 55~59  | 5,754<br>(9.8)    | 6,464<br>(10.3)   | 7,280<br>(10.6)   | 7,772<br>(10.6)   | 7,919<br>(10.5)   | 8,257<br>(10.1)   | 8,730<br>(9.8)    |
| 60~64  | 4,120<br>(7.0)    | 5,132<br>(8.2)    | 5,824<br>(8.5)    | 6,550<br>(8.9)    | 6,931<br>(9.2)    | 7,723<br>(9.4)    | 8,490<br>(9.6)    |
| 65~69  | 3,344<br>(5.7)    | 3,656<br>(5.8)    | 3,996<br>(5.8)    | 4,209<br>(5.7)    | 4,584<br>(6.1)    | 5,350<br>(6.5)    | 6,327<br>(7.1)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70~74  | 3,081<br>(5.3) | 3,221<br>(5.1) | 3,289<br>(4.8) | 3,549<br>(4.8) | 3,757<br>(5.0) | 4,134<br>(5.1) | 4,510<br>(5.1) |
| 75~79  | 2,986<br>(5.1) | 3,083<br>(4.9) | 3,351<br>(4.9) | 3,348<br>(4.6) | 3,373<br>(4.5) | 3,368<br>(4.1) | 3,692<br>(4.2) |
| 80~84  | 2,496<br>(4.3) | 2,570<br>(4.1) | 2,605<br>(3.8) | 2,662<br>(3.6) | 2,684<br>(3.6) | 2,798<br>(3.4) | 3,147<br>(3.5) |
| 85세 이상 | 1,813<br>(3.1) | 1,860<br>(3.0) | 2,035<br>(3.0) | 2,254<br>(3.1) | 2,434<br>(3.2) | 2,533<br>(3.1) | 2,881<br>(3.2) |

주 : 일반가구만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1년 기준 연령별 제주시와 서귀포시 1인 가구 비율 비교 분석 결과, 제주시는 25~29세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제주시 1인 가구 중 25~29세 1인 가구 비중은 10.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50~54세(11.4%), 60~64세(11.4%), 55~59세(11.0%) 등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호, %)

| 구분     | 제주시    |         | 서귀포시   |         | 합계     |         |
|--------|--------|---------|--------|---------|--------|---------|
|        |        | %       |        | %       |        | %       |
| 전체     | 63,856 | (100.0) | 24,827 | (100.0) | 88,683 | (100.0) |
| 20세 미만 | 362    | (0.6)   | 36     | (0.1)   | 398    | (0.4)   |
| 20~24  | 3,308  | (5.2)   | 626    | (2.5)   | 3,934  | (4.4)   |
| 25~29  | 6,625  | (10.4)  | 1,727  | (7.0)   | 8,352  | (9.4)   |
| 30~34  | 5,483  | (8.6)   | 1,603  | (6.5)   | 7,086  | (8.0)   |
| 35~39  | 4,990  | (7.8)   | 1,612  | (6.5)   | 6,602  | (7.4)   |
| 40~44  | 5,164  | (8.1)   | 1,888  | (7.6)   | 7,052  | (8.0)   |
| 45~49  | 5,795  | (9.1)   | 2,229  | (9.0)   | 8,024  | (9.0)   |
| 50~54  | 6,618  | (10.4)  | 2,840  | (11.4)  | 9,458  | (10.7)  |
| 55~59  | 6,006  | (9.4)   | 2,724  | (11.0)  | 8,730  | (9.8)   |
| 60~64  | 5,672  | (8.9)   | 2,818  | (11.4)  | 8,490  | (9.6)   |
| 65~69  | 4,267  | (6.7)   | 2,060  | (8.3)   | 6,327  | (7.1)   |
| 70~74  | 3,044  | (4.8)   | 1,466  | (5.9)   | 4,510  | (5.1)   |
| 75~79  | 2,490  | (3.9)   | 1,202  | (4.8)   | 3,692  | (4.2)   |
| 80~84  | 2,085  | (3.3)   | 1,062  | (4.3)   | 3,147  | (3.5)   |
| 85세 이상 | 1,947  | (3.0)   | 934    | (3.8)   | 2,881  | (3.2)   |

주 : 일반가구만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 2021년 기준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 내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수는 70,675호로서, 전국(4,094,416호)의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유형에 따른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 떨어져 사는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떨어져 사는 가구’ 비중은 16.4%로서, 전국(11.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4〉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단위: 호, %)

| 구분          |                         | 전국                   |                      | 제주                   |                   |                   |
|-------------|-------------------------|----------------------|----------------------|----------------------|-------------------|-------------------|
|             |                         |                      | 남                    | 여                    | 남                 | 여                 |
|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 |                         | 4,094,416<br>(100.0) | 2,674,712<br>(100.0) | 1,419,704<br>(100.0) | 70,675<br>(100.0) | 45,403<br>(100.0) |
|             | 배우자와 자녀 모두<br>떨어져 사는 가구 | 486,731<br>(11.9)    | 282,971<br>(10.6)    | 203,760<br>(14.4)    | 11,574<br>(16.4)  | 6,963<br>(15.3)   |
|             | 배우자만 떨어져<br>사는 가구       | 814,257<br>(19.9)    | 332,875<br>(12.4)    | 481,382<br>(33.9)    | 13,950<br>(19.7)  | 5,693<br>(12.5)   |
|             | 자녀만 떨어져<br>사는 가구        | 2,793,428<br>(68.2)  | 2,058,866<br>(77.0)  | 734,562<br>(51.7)    | 45,151<br>(63.9)  | 32,747<br>(72.1)  |

주 : \* 일반가구만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 다문화 가구

- 2021년 기준 전국 및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 수는 5,730호로서, 전국(385,219호)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행정구역 단위별 다문화 가구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동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시 다문화 가구 수는 4,061호로서 제주도 전체 다문화 가구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지역과 비교한 동 지역의 비중 또한 65.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5~2021년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 수 변화 분석 결과, 다문화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구역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비중 변화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 수는 5,730호로서, 2015년(3,939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별 구성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15〉 다문화가구 수

(단위: 호,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국   | 299,241          | 316,067          | 318,917          | 334,856          | 353,803          | 367,775          | 385,219          |
| 제주   | 3,939<br>(100.0) | 3,959<br>(100.0) | 4,276<br>(100.0) | 4,686<br>(100.0) | 5,072<br>(100.0) | 5,415<br>(100.0) | 5,730<br>(100.0) |
| 제주시  | 2,774<br>(70.4)  | 2,836<br>(71.6)  | 3,022<br>(70.7)  | 3,303<br>(70.5)  | 3,616<br>(71.3)  | 3,848<br>(71.1)  | 4,061<br>(70.9)  |
| 서귀포시 | 1,165<br>(29.6)  | 1,123<br>(28.4)  | 1,254<br>(29.3)  | 1,383<br>(29.5)  | 1,456<br>(28.7)  | 1,567<br>(28.9)  | 1,669<br>(29.1)  |
| 읍면지역 | 1,375<br>(34.9)  | 1,305<br>(33.0)  | 1,459<br>(34.1)  | 1,622<br>(34.6)  | 1,761<br>(34.7)  | 1,904<br>(35.2)  | 2,006<br>(35.0)  |
| 동 지역 | 2,564<br>(65.1)  | 2,654<br>(67.0)  | 2,817<br>(65.9)  | 3,064<br>(65.4)  | 3,311<br>(65.3)  | 3,511<br>(64.8)  | 3,724<br>(65.0)  |

주 :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 이민자 가구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 분석 결과, 전체 가구원 수는 18,189명으로서, 내국인(출생) 67.8%, 외국인(결혼이민자) 13.5%, 내국인(귀화) 13.5%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1년 기준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 단위별 다문화 가구원 수 현황 분석 결과,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는 16,817명으로서, 동지역(1,372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5~2021년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 변화 분석 결과, 내국인(출생) 비율이 감소한 반면 내국인(귀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출생) 비율은 70.9%에서 67.8%로 3.1%p 감소한 반면, 내국인(귀화) 비율은 10.2%에서 13.5%로 3.3%p 증가하였음

〈표 2-16〉 다문화 가구원 수

(단위: 명, %)

| 구분   |            | 전체                | 행정시별              |                  | 행정구역 단위별          |                  |
|------|------------|-------------------|-------------------|------------------|-------------------|------------------|
|      |            |                   | 제주시               | 서귀포시             | 읍면                | 동                |
| 2015 | 전체         | 12,888<br>(100.0) | 8,953<br>(100.0)  | 3,935<br>(100.0) | 11,960<br>(100.0) | 928<br>(100.0)   |
|      | 내국인(출생)    | 9,134<br>(70.9)   | 6,286<br>(70.2)   | 2,848<br>(72.4)  | 8,458<br>(70.7)   | 676<br>(72.8)    |
|      | 내국인(귀화)    | 1,320<br>(10.2)   | 980<br>(10.9)     | 340<br>(8.6)     | 1,235<br>(10.3)   | 85<br>(9.2)      |
|      | 외국인(결혼이민자) | 2,112<br>(16.4)   | 1,448<br>(16.2)   | 664<br>(16.9)    | 1,960<br>(16.4)   | 152<br>(16.4)    |
|      | 외국인(기타)    | 322<br>(2.5)      | 239<br>(2.7)      | 83<br>(2.1)      | 307<br>(2.6)      | 15<br>(1.6)      |
| 2021 | 전체         | 18,189<br>(100.0) | 12,765<br>(100.0) | 5,424<br>(100.0) | 16,817<br>(100.0) | 1,372<br>(100.0) |
|      | 내국인(출생)    | 12,331<br>(67.8)  | 8,533<br>(66.8)   | 3,798<br>(70.0)  | 11,355<br>(67.5)  | 976<br>(71.1)    |
|      | 내국인(귀화)    | 2,456<br>(13.5)   | 1,797<br>(14.1)   | 659<br>(12.1)    | 2,295<br>(13.6)   | 161<br>(11.7)    |
|      | 외국인(결혼이민자) | 2,903<br>(16.0)   | 2,070<br>(16.2)   | 833<br>(15.4)    | 2,698<br>(16.0)   | 205<br>(14.9)    |
|      | 외국인(기타)    | 499<br>(2.7)      | 365<br>(2.9)      | 134<br>(2.5)     | 469<br>(2.8)      | 30<br>(2.2)      |

주 : 내국인(출생) : 출생·현재 국적 한국 (자녀 또는 한국인배우자 등),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2.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가. 혼인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2,661건으로서, 전국 혼인 건수(192,507건)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0~2021년 혼인 건수 변화 분석 결과, 혼인 건수 및 조혼인률<sup>2)</sup>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2010년 대비 41.0% 감소한 192,50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혼인률 또한 2010년 6.5에서 2021년 3.8으로 41.5% 감소하였음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별 혼인 건수 분석 결과,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혼인건수 중 72.6%(1,933건)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지역의 비중은 27.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2021년 제주지역 혼인현황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혼인 건수 감소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0~2021년 제주지역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서 전국(-4.5%)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 일 년간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해당 연도의 7월 인구 수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

〈표 2-17〉 혼인현황 변화

(단위: 건, %)

| 구분       |      | 2010             | 2015             | 2020             | 2021             | 연평균<br>증가율 |
|----------|------|------------------|------------------|------------------|------------------|------------|
| 혼인<br>건수 | 전국   | 326,104          | 302,828          | 213,502          | 192,507          | (-4.7)     |
|          | 제주   | 3,515<br>(100.0) | 3,676<br>(100.0) | 2,981<br>(100.0) | 2,661<br>(100.0) | (-2.5)     |
|          | 행정시  | 제주시              | 2,544<br>(72.4)  | 2,696<br>(73.3)  | 1,933<br>(72.6)  | (-2.5)     |
|          |      | 서귀포시             | 971<br>(27.6)    | 980<br>(26.7)    | 728<br>(27.4)    | (-2.6)     |
|          | 조혼인률 | 6.5              | 5.9              | 4.2              | 3.8              | (-4.8)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0년 기준 혼인종류별 혼인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재혼, 이혼 후 재혼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통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0년 제주지역의 초혼 비중은 76.8%로서 전국(82.0%)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재혼(22.8%), 및 이혼 후 재혼(21.2%)는 전국(17.8%, 16.7%)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0~2020년 제주지역 혼인종류별 혼인 현황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혼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재혼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초혼률은 2000년 82.9%에서 2020년 76.8%로 6.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혼률과 이혼 후 재혼률은 각각 5.9%p(16.9%→22.8%), 5.8%p(15.4%→2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8〉 혼인종류별 혼인현황 변화

(단위: 건, %)

| 구분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전<br>국 | 전체     | 332,090<br>(100.0) | 314,304<br>(100.0) | 326,104<br>(100.0) | 302,828<br>(100.0) | 213,502<br>(100.0) |
|        | 초혼     | 283,357<br>(85.3)  | 245,226<br>(78.0)  | 268,541<br>(82.3)  | 249,978<br>(82.5)  | 175,033<br>(82.0)  |
|        | 재혼     | 48,132<br>(14.5)   | 66,587<br>(21.2)   | 57,451<br>(17.6)   | 52,747<br>(17.4)   | 38,064<br>(17.8)   |
|        | 사별후 재혼 | 5,466<br>(1.6)     | 6,194<br>(2.0)     | 4,773<br>(1.5)     | 3,554<br>(1.2)     | 2,384<br>(1.1)     |
|        | 이혼후 재혼 | 42,666<br>(12.8)   | 60,393<br>(19.2)   | 52,678<br>(16.2)   | 49,193<br>(16.2)   | 35,680<br>(16.7)   |
|        | 미상     | 601<br>(0.2)       | 2,491<br>(0.8)     | 112<br>(0.0)       | 103<br>(0.0)       | 405<br>(0.2)       |
| 제<br>주 | 전체     | 4,022<br>(100.0)   | 3,382<br>(100.0)   | 3,515<br>(100.0)   | 3,676<br>(100.0)   | 2,981<br>(100.0)   |
|        | 초혼     | 3,333<br>(82.9)    | 2,634<br>(77.9)    | 2,810<br>(79.9)    | 2,865<br>(77.9)    | 2,289<br>(76.8)    |
|        | 재혼     | 678<br>(16.9)      | 739<br>(21.9)      | 704<br>(20.0)      | 805<br>(21.9)      | 681<br>(22.8)      |
|        | 사별후 재혼 | 59<br>(1.5)        | 53<br>(1.6)        | 51<br>(1.5)        | 48<br>(1.3)        | 50<br>(1.7)        |
|        | 이혼후 재혼 | 619<br>(15.4)      | 686<br>(20.3)      | 653<br>(18.6)      | 757<br>(20.6)      | 631<br>(21.2)      |
|        | 미상     | 11<br>(0.3)        | 9<br>(0.3)         | 1<br>(0.0)         | 6<br>(0.2)         | 11<br>(0.4)        |

주 : 해당 자료는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아내의 혼인종류별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1년 기준 초혼연령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은 20~34세에 초혼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 통계와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지역 초혼 연령 현황 분석 결과, 30~34세(34.7%)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9세(34.1%), 35~39세(16.5%), 40~44세(5.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별에 따른 초혼 연령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남성의 초혼 연령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전국 기준 초혼 연령별 성비(남편/아내) 분석 결과, 29세 이하의 경우 남편 대비 아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1.00이상), 30세 이상에서는 남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1.00이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초혼 연령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9〉 연령별 초혼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건, %)

| 구분     | 전국                 |                    |                    |       | 제주               |                  |                  |       |
|--------|--------------------|--------------------|--------------------|-------|------------------|------------------|------------------|-------|
|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여성 |
| 전체     | 317,683<br>(100.0) | 161,207<br>(100.0) | 156,476<br>(100.0) | 1.03  | 3,941<br>(100.0) | 2,055<br>(100.0) | 1,886<br>(100.0) | 1.09  |
| 19세 이하 | 1,021<br>(0.3)     | 223<br>(0.1)       | 798<br>(0.5)       | 0.28  | 21<br>(0.5)      | 6<br>(0.3)       | 15<br>(0.8)      | 0.40  |
| 20-24세 | 13,679<br>(4.3)    | 4,143<br>(2.6)     | 9,536<br>(6.1)     | 0.43  | 186<br>(4.7)     | 60<br>(2.9)      | 126<br>(6.7)     | 0.48  |
| 25-29세 | 102,058<br>(32.1)  | 40,331<br>(25.0)   | 61,727<br>(39.4)   | 0.65  | 1,343<br>(34.1)  | 577<br>(28.1)    | 766<br>(40.6)    | 0.75  |
| 30-34세 | 125,363<br>(39.5)  | 67,419<br>(41.8)   | 57,944<br>(37.0)   | 1.16  | 1,369<br>(34.7)  | 735<br>(35.8)    | 634<br>(33.6)    | 1.16  |
| 35-39세 | 51,030<br>(16.1)   | 32,074<br>(19.9)   | 18,956<br>(12.1)   | 1.69  | 652<br>(16.5)    | 421<br>(20.5)    | 231<br>(12.2)    | 1.82  |
| 40-44세 | 15,814<br>(5.0)    | 10,652<br>(6.6)    | 5,162<br>(3.3)     | 2.06  | 223<br>(5.7)     | 146<br>(7.1)     | 77<br>(4.1)      | 1.90  |

| 구분     | 전국             |                |                |           | 제주          |             |             |           |
|--------|----------------|----------------|----------------|-----------|-------------|-------------|-------------|-----------|
|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br>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br>여성 |
| 45-49세 | 5,310<br>(1.7) | 3,908<br>(2.4) | 1,402<br>(0.9) | 2.79      | 84<br>(2.1) | 64<br>(3.1) | 20<br>(1.1) | 3.20      |
| 50-54세 | 2,144<br>(0.7) | 1,596<br>(1.0) | 548<br>(0.4)   | 2.91      | 43<br>(1.1) | 32<br>(1.6) | 11<br>(0.6) | 2.91      |
| 55-59세 | 727<br>(0.2)   | 551<br>(0.3)   | 176<br>(0.1)   | 3.13      | 8<br>(0.2)  | 7<br>(0.3)  | 1<br>(0.1)  | 7.00      |
| 60세 이상 | 537<br>(0.2)   | 310<br>(0.2)   | 227<br>(0.1)   | 1.37      | 12<br>(0.3) | 7<br>(0.3)  | 5<br>(0.3)  | 1.4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0~2021년 제주지역 초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혼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2000년 제주지역 내에서 가장 초혼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5~29세(56.0%)로 나타났으나, 2021년의 경우 30~34세(34.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2021년 성별에 따른 제주지역 초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혼화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00년 기준 25~29세 초혼 남성 비율은 56.0%였으나 2021년 28.1%로 27.9%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여성의 비중은 17.3%p(57.9%→40.6%) 감소하였음

〈표 2-20〉 제주지역 연령별 초혼 변화

(단위: 건, %)

| 구분     | 2000             |                  |                  | 2010             |                  |                  | 2021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전체     | 6,882<br>(100.0) | 3,370<br>(100.0) | 3,512<br>(100.0) | 5,427<br>(100.0) | 2,857<br>(100.0) | 2,570<br>(100.0) | 3,941<br>(100.0) | 2,055<br>(100.0) | 1,886<br>(100.0) |
| 19세 이하 | 183<br>(2.7)     | 46<br>(1.4)      | 137<br>(3.9)     | 42<br>(0.8)      | 15<br>(0.5)      | 27<br>(1.1)      | 21<br>(0.5)      | 6<br>(0.3)       | 15<br>(0.8)      |
| 20-24세 | 1,241<br>(18.0)  | 332<br>(9.9)     | 909<br>(25.9)    | 385<br>(7.1)     | 111<br>(3.9)     | 274<br>(10.7)    | 186<br>(4.7)     | 60<br>(2.9)      | 126<br>(6.7)     |

| 구분     | 2000            |                 |                 | 2010            |                 |                 | 2021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전체              | 남성            | 여성            |
| 25-29세 | 3,855<br>(56.0) | 1,822<br>(54.1) | 2,033<br>(57.9) | 2,410<br>(44.4) | 1,017<br>(35.6) | 1,393<br>(54.2) | 1,343<br>(34.1) | 577<br>(28.1) | 766<br>(40.6) |
| 30-34세 | 1,246<br>(18.1) | 918<br>(27.2)   | 328<br>(9.3)    | 1,685<br>(31.0) | 1,021<br>(35.7) | 664<br>(25.8)   | 1,369<br>(34.7) | 735<br>(35.8) | 634<br>(33.6) |
| 35-39세 | 259<br>(3.8)    | 190<br>(5.6)    | 69<br>(2.0)     | 619<br>(11.4)   | 470<br>(16.5)   | 149<br>(5.8)    | 652<br>(16.5)   | 421<br>(20.5) | 231<br>(12.2) |
| 40-44세 | 70<br>(1.0)     | 51<br>(1.5)     | 19<br>(0.5)     | 194<br>(3.6)    | 157<br>(5.5)    | 37<br>(1.4)     | 223<br>(5.7)    | 146<br>(7.1)  | 77<br>(4.1)   |
| 45-49세 | 14<br>(0.2)     | 8<br>(0.2)      | 6<br>(0.2)      | 67<br>(1.2)     | 50<br>(1.8)     | 17<br>(0.7)     | 84<br>(2.1)     | 64<br>(3.1)   | 20<br>(1.1)   |
| 50-54세 | 5<br>(0.1)      | 2<br>(0.1)      | 3<br>(0.1)      | 15<br>(0.3)     | 9<br>(0.3)      | 6<br>(0.2)      | 43<br>(1.1)     | 32<br>(1.6)   | 11<br>(0.6)   |
| 55-59세 | 4<br>(0.1)      | 1<br>(0.0)      | 3<br>(0.1)      | 6<br>(0.1)      | 6<br>(0.2)      | 0<br>(0.0)      | 8<br>(0.2)      | 7<br>(0.3)    | 1<br>(0.1)    |
| 60세 이상 | 5<br>(0.1)      | 0<br>(0.0)      | 5<br>(0.1)      | 4<br>(0.1)      | 1<br>(0.0)      | 3<br>(0.1)      | 12<br>(0.3)     | 7<br>(0.3)    | 5<br>(0.3)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1년 기준 전국과 제주지역의 평균 초혼연령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초혼 연령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평균 초혼연령은 32.3세로서 전국(32.2세)에 비해 0.1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기준 전국과 제주지역의 차이(0.2세)에 비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00~2021년 전국 및 제주지역의 평균 초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 평균 초혼 연령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초혼 연령은 32.2세로서, 2000년(27.9세)에 비해 4.3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또한 2000년 27.9세에서 2021년 32.3세로 4.4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성별별 평균 초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 전국 및 제주지역 모두 남편에 비해 아내의 초혼 연령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1년 기준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국 33.4세, 제주 33.5세로서 2000년 대비 각각 4.1세, 4.4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 4.6세, 제주 4.4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아내의 평균연령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1〉 평균 초혼연령 변화

(단위: 세)

| 구분 | 2000 |      |      | 2005 |      |      | 2010 |      |      | 2015 |      |      | 2021 |      |      |
|----|------|------|------|------|------|------|------|------|------|------|------|------|------|------|------|
|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 전국 | 27.9 | 29.3 | 26.5 | 29.3 | 30.9 | 27.7 | 30.4 | 31.8 | 28.9 | 31.3 | 32.6 | 30.0 | 32.2 | 33.4 | 31.1 |
| 제주 | 27.9 | 29.1 | 26.7 | 29.3 | 30.6 | 28.0 | 30.6 | 32.0 | 29.2 | 31.4 | 32.8 | 30.1 | 32.3 | 33.5 | 31.1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나. 이혼

- 2021년 기준 전국의 이혼 건수는 총 101,673건으로서,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 2010~2021년 전국 기준 이혼 현황 분석 결과, 이혼 건수 및 조이혼률<sup>3)</sup>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전국 이혼 건수는 2010년 대비 13.0% 감소한 101,673건으로 나타났으며, 조혼인률 또한 2010년 2.3에서 2021년 2.0으로 13.0% 감소하였음
- 2021년 기준 행정시별 이혼 건수 분석 결과,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제주지역 전체 이혼 건수 중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1.6%(1,067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지역의 비중은 28.4%(423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0~2021년 전국 및 제주지역의 이혼현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의 이혼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 이혼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2021년 전국 이혼 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0.1%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3) 인구 천 명당 이혼한 비율, 일 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7월 인구 수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



〈표 2-22〉 이혼현황 변화

(단위: 건, %)

| 구분       |      |      | 2010             | 2015             | 2020             | 2021             | 연평균<br>증가율 |
|----------|------|------|------------------|------------------|------------------|------------------|------------|
| 이혼<br>건수 | 전국   |      | 116,858          | 109,153          | 106,500          | 101,673          | (-1.3)     |
|          | 제주   |      | 1,466<br>(100.0) | 1,447<br>(100.0) | 1,744<br>(100.0) | 1,490<br>(100.0) | (0.1)      |
|          | 행정시  | 제주시  | 1,045<br>(71.3)  | 1,067<br>(73.7)  | 1,266<br>(72.6)  | 1,067<br>(71.6)  | (0.2)      |
|          |      | 서귀포시 | 421<br>(28.7)    | 380<br>(26.3)    | 478<br>(27.4)    | 423<br>(28.4)    | (0.0)      |
|          | 조이혼률 |      |                  | 2.3              | 2.1              | 2.1              | 2.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0년 기준 이혼종류별 이혼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협의이혼률은 72.4%로서 전국(78.6%)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0~2020년 제주지역 이혼종류별 이혼 현황 변화 분석 결과, 협의이혼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협의이혼률은 72.4%로 2000년(78.1%)에 비해 5.7%p 감소한 반면, 재판이혼률은 21.2%에서 27.6%로 6.4%p 증가하였음

〈표 2-23〉 이혼종류별 이혼현황

(단위: 건, %)

| 구분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전<br>국 | 전체   | 119,455<br>(100.0) | 128,035<br>(100.0) | 116,858<br>(100.0) | 109,153<br>(100.0) | 106,500<br>(100.0) |
|        | 협의이혼 | 99,797<br>(83.5)   | 110,747<br>(86.5)  | 87,834<br>(75.2)   | 84,645<br>(77.5)   | 83,660<br>(78.6)   |
|        | 재판이혼 | 19,213<br>(16.1)   | 16,433<br>(12.8)   | 29,018<br>(24.8)   | 24,491<br>(22.4)   | 22,806<br>(21.4)   |
|        | 미상   | 445<br>(0.4)       | 855<br>(0.7)       | 6<br>(0.0)         | 17<br>(0.0)        | 34<br>(0.0)        |
|        |      |                    |                    |                    |                    |                    |
| 제<br>주 | 전체   | 1,763<br>(100.0)   | 1,663<br>(100.0)   | 1,466<br>(100.0)   | 1,447<br>(100.0)   | 1,744<br>(100.0)   |
|        | 협의이혼 | 1,377<br>(78.1)    | 1,372<br>(82.5)    | 1,071<br>(73.1)    | 1,072<br>(74.1)    | 1,262<br>(72.4)    |
|        | 재판이혼 | 374<br>(21.2)      | 287<br>(17.3)      | 395<br>(26.9)      | 375<br>(25.9)      | 481<br>(27.6)      |
|        | 미상   | 12<br>(0.7)        | 4<br>(0.2)         | 0<br>(0.0)         | 0<br>(0.0)         | 1<br>(0.1)         |
|        |      |                    |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이혼사유별 이혼 현황 분석 결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3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사유가 미상인 경우의 비율(32.3%)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2017년 제주지역 이혼사유별 이혼 현황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격차이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이혼하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부정(19.5%→3.5%), 학대(6.1%→2.5%), 가정불화(18.3%→5.1%), 경제문제(10.7%→6.1%) 등 대부분의 이혼 사유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같은 기간 이혼사유가 미상인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2.8%→32.3%)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바, 각 사유별로 실질적인 수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2-24〉 제주지역 이혼사유별 이혼현황 변화

(단위: 건, %)

| 구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6             | 2017             |
|------------|------------------|------------------|------------------|------------------|------------------|------------------|
| 계          | 1,763<br>(100.0) | 1,663<br>(100.0) | 1,466<br>(100.0) | 1,447<br>(100.0) | 1,552<br>(100.0) | 1,530<br>(100.0) |
| 배우자 부정     | 343<br>(19.5)    | 123<br>(7.4)     | 137<br>(9.3)     | 62<br>(4.3)      | 100<br>(6.4)     | 54<br>(3.5)      |
| 정신적,육체적 학대 | 108<br>(6.1)     | 97<br>(5.8)      | 87<br>(5.9)      | 50<br>(3.5)      | 52<br>(3.4)      | 39<br>(2.5)      |
| 가족간 불화     | 322<br>(18.3)    | 156<br>(9.4)     | 115<br>(7.8)     | 91<br>(6.3)      | 71<br>(4.6)      | 78<br>(5.1)      |
| 경제문제       | 188<br>(10.7)    | 220<br>(13.2)    | 139<br>(9.5)     | 95<br>(6.6)      | 116<br>(7.5)     | 93<br>(6.1)      |
| 성격차이       | 526<br>(29.8)    | 762<br>(45.8)    | 632<br>(43.1)    | 534<br>(36.9)    | 585<br>(37.7)    | 512<br>(33.5)    |
| 건강문제       | 17<br>(1.0)      | 11<br>(0.7)      | 8<br>(0.5)       | 7<br>(0.5)       | 3<br>(0.2)       | 4<br>(0.3)       |
| 기타         | 210<br>(11.9)    | 276<br>(16.6)    | 335<br>(22.9)    | 395<br>(27.3)    | 242<br>(15.6)    | 256<br>(16.7)    |
| 미상         | 49<br>(2.8)      | 18<br>(1.1)      | 13<br>(0.9)      | 213<br>(14.7)    | 383<br>(24.7)    | 494<br>(32.3)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1년 기준 연령별 이혼 건수 현황 분석 결과, 전국을 기준으로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5~49세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35~39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국 기준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5~49세(남편 7.4건, 아내 7.7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35~39세의 이혼 건수(남편 8.5건, 아내 9.6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통계와 비교했을 때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가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혼 건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2-25〉 연령별 이혼 건수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건/천 명)

| 구분     | 전국  |     |     | 제주  |     |     |
|--------|-----|-----|-----|-----|-----|-----|
|        | 평균  | 남성  | 여성  | 평균  | 남성  | 여성  |
| 29세 이하 | 3.4 | 2.0 | 4.7 | 4.2 | 2.4 | 6.0 |
| 30-34세 | 5.2 | 3.9 | 6.5 | 6.2 | 4.7 | 7.6 |
| 35-39세 | 6.9 | 6.2 | 7.6 | 9.1 | 8.5 | 9.6 |
| 40-44세 | 7.5 | 7.1 | 7.8 | 8.8 | 8.9 | 8.7 |
| 45-49세 | 7.6 | 7.4 | 7.7 | 8.4 | 9.1 | 7.7 |
| 50-54세 | 6.9 | 7.1 | 6.7 | 7.7 | 7.6 | 7.8 |
| 55-59세 | 5.7 | 6.2 | 5.1 | 5.6 | 6.3 | 4.9 |
| 60-64세 | 4.7 | 5.2 | 4.1 | 4.6 | 5.6 | 3.5 |
| 65-69세 | 3.6 | 4.5 | 2.7 | 3.1 | 4.0 | 2.2 |
| 70-74세 | 2.2 | 3.0 | 1.4 | 1.7 | 2.0 | 1.3 |
| 75세 이상 | 0.9 | 1.5 | 0.3 | 0.6 | 1.0 | 0.2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0~2021년 제주지역 연령별 이혼 건수 변화 분석 결과, 2000년에는 저 연령대의 이혼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21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이혼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 이하 저 연령대의 이혼 건수 감소세는 결혼 연령 증가 흐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른 연령대 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혼 발생 건수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표 2-26〉 제주지역 연령별 이혼 건수 변화

(단위: 건/천 명)

| 구분       | 2000 |      |      | 2010 |      |      | 2021 |     |     |
|----------|------|------|------|------|------|------|------|-----|-----|
|          | 평균   | 남성   | 여성   | 평균   | 남성   | 여성   | 평균   | 남성  | 여성  |
| 29세 이하   | 13.4 | 8.8  | 18.0 | 6.7  | 4.0  | 9.4  | 4.2  | 2.4 | 6.0 |
| 30 - 34세 | 15.7 | 14.2 | 17.1 | 8.8  | 7.6  | 10.0 | 6.2  | 4.7 | 7.6 |
| 35 - 39세 | 17.0 | 17.2 | 16.8 | 11.5 | 10.6 | 12.4 | 9.1  | 8.5 | 9.6 |
| 40 - 44세 | 14.9 | 16.0 | 13.7 | 13.3 | 13.3 | 13.2 | 8.8  | 8.9 | 8.7 |
| 45 - 49세 | 11.5 | 13.9 | 9.0  | 10.5 | 11.4 | 9.6  | 8.4  | 9.1 | 7.7 |
| 50 - 54세 | 5.9  | 7.6  | 4.2  | 6.9  | 8.5  | 5.2  | 7.7  | 7.6 | 7.8 |
| 55 - 59세 | 3.8  | 4.5  | 3.1  | 4.6  | 6.1  | 3.0  | 5.6  | 6.3 | 4.9 |
| 60 - 64세 | 1.8  | 2.5  | 1.1  | 2.3  | 3.0  | 1.6  | 4.6  | 5.6 | 3.5 |
| 65 - 69세 | 1.0  | 1.7  | 0.3  | 1.4  | 1.8  | 0.9  | 3.1  | 4.0 | 2.2 |
| 70 - 74세 | 0.8  | 1.4  | 0.1  | 1.0  | 1.4  | 0.6  | 1.7  | 2.0 | 1.3 |
| 75세 이상   | 0.6  | 1.2  | 0.0  | 0.5  | 0.8  | 0.1  | 0.6  | 1.0 | 0.2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다. 재혼

- 2021년 기준 재혼연령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50~54세에 재혼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 통계와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지역 재혼 연령 현황 분석 결과, 50~54세(16.8%)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5~49세(15.7%), 40~44세(14.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재혼 연령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의 재혼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재혼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재혼 연령별 성비(남편/아내)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44세 이하에서 남성대비

여성의 재혼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54세 이하)에 비해 빠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전국과 제주지역의 성별별 재혼연령 현황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남성의 재혼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전국 단위에서는 여성의 재혼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재혼자 중 남성의 비율은 51.5%로 여성(48.5%)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국 단위에서는 남성(46.6%)이 여성(53.4%)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서로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2-27〉 연령별 재혼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건, %)

| 구분     | 전국                |                   |                   |           | 제주               |                |                |           |
|--------|-------------------|-------------------|-------------------|-----------|------------------|----------------|----------------|-----------|
|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br>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남성/<br>여성 |
| 전체     | 66,656<br>(100.0) | 31,059<br>(100.0) | 35,597<br>(100.0) | 0.87      | 1,175<br>(100.0) | 605<br>(100.0) | 570<br>(100.0) | 1.06      |
| 29세 이하 | 2,889<br>(4.3)    | 741<br>(2.4)      | 2,148<br>(6.0)    | 0.34      | 38<br>(3.2)      | 10<br>(1.7)    | 28<br>(4.9)    | 0.36      |
| 30-34세 | 5,528<br>(8.3)    | 1,776<br>(5.7)    | 3,752<br>(10.5)   | 0.47      | 94<br>(8.0)      | 30<br>(5.0)    | 64<br>(11.2)   | 0.47      |
| 35-39세 | 8,873<br>(13.3)   | 3,598<br>(11.6)   | 5,275<br>(14.8)   | 0.68      | 156<br>(13.3)    | 71<br>(11.7)   | 85<br>(14.9)   | 0.84      |
| 40-44세 | 9,423<br>(14.1)   | 4,202<br>(13.5)   | 5,221<br>(14.7)   | 0.80      | 167<br>(14.2)    | 79<br>(13.1)   | 88<br>(15.4)   | 0.90      |
| 45-49세 | 10,348<br>(15.5)  | 4,765<br>(15.3)   | 5,583<br>(15.7)   | 0.85      | 185<br>(15.7)    | 101<br>(16.7)  | 84<br>(14.7)   | 1.20      |
| 50-54세 | 10,685<br>(16.0)  | 5,129<br>(16.5)   | 5,556<br>(15.6)   | 0.92      | 197<br>(16.8)    | 105<br>(17.4)  | 92<br>(16.1)   | 1.14      |
| 55-59세 | 8,253<br>(12.4)   | 4,388<br>(14.1)   | 3,865<br>(10.9)   | 1.14      | 141<br>(12.0)    | 81<br>(13.4)   | 60<br>(10.5)   | 1.35      |
| 60-64세 | 5,642<br>(8.5)    | 3,305<br>(10.6)   | 2,337<br>(6.6)    | 1.41      | 109<br>(9.3)     | 68<br>(11.2)   | 41<br>(7.2)    | 1.66      |
| 65-69세 | 2,504<br>(3.8)    | 1,467<br>(4.7)    | 1,037<br>(2.9)    | 1.41      | 48<br>(4.1)      | 31<br>(5.1)    | 17<br>(3.0)    | 1.82      |
| 70-74세 | 1,373<br>(2.1)    | 880<br>(2.8)      | 493<br>(1.4)      | 1.78      | 21<br>(1.8)      | 16<br>(2.6)    | 5<br>(0.9)     | 3.20      |
| 75세 이상 | 1,138<br>(1.7)    | 808<br>(2.6)      | 330<br>(0.9)      | 2.45      | 19<br>(1.6)      | 13<br>(2.1)    | 6<br>(1.1)     | 2.17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0~2021년 제주지역 재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 44세 이하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재혼이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기준 제주지역 내에서 재혼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0~34세(24.1%), 35~39세(23.6%), 40~44세(18.4%)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의 경우 50~54세(16.8%), 55~59세(12.0%), 60~64세(9.3%) 등 50대 이상의 재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28〉 제주지역 연령별 재혼 변화

(단위: 건, %)

| 구분     | 2000             |                |                | 2010             |                |                | 2021             |                |                |
|--------|------------------|----------------|----------------|------------------|----------------|----------------|------------------|----------------|----------------|
|        | 전체               | 남편             | 아내             | 전체               | 남편             | 아내             | 전체               | 남편             | 아내             |
| 전체     | 1,310<br>(100.0) | 638<br>(100.0) | 672<br>(100.0) | 1,341<br>(100.0) | 658<br>(100.0) | 683<br>(100.0) | 1,175<br>(100.0) | 605<br>(100.0) | 570<br>(100.0) |
| 29세 이하 | 190<br>(14.5)    | 55<br>(8.6)    | 135<br>(20.1)  | 76<br>(5.7)      | 26<br>(4.0)    | 50<br>(7.3)    | 38<br>(3.2)      | 10<br>(1.7)    | 28<br>(4.9)    |
| 30~34세 | 316<br>(24.1)    | 141<br>(22.1)  | 175<br>(26.0)  | 192<br>(14.3)    | 70<br>(10.6)   | 122<br>(17.9)  | 94<br>(8.0)      | 30<br>(5.0)    | 64<br>(11.2)   |
| 35~39세 | 309<br>(23.6)    | 146<br>(22.9)  | 163<br>(24.3)  | 304<br>(22.7)    | 138<br>(21.0)  | 166<br>(24.3)  | 156<br>(13.3)    | 71<br>(11.7)   | 85<br>(14.9)   |
| 40~44세 | 241<br>(18.4)    | 130<br>(20.4)  | 111<br>(16.5)  | 263<br>(19.6)    | 133<br>(20.2)  | 130<br>(19.0)  | 167<br>(14.2)    | 79<br>(13.1)   | 88<br>(15.4)   |
| 45~49세 | 122<br>(9.3)     | 75<br>(11.8)   | 47<br>(7.0)    | 236<br>(17.6)    | 124<br>(18.8)  | 112<br>(16.4)  | 185<br>(15.7)    | 101<br>(16.7)  | 84<br>(14.7)   |
| 50~54세 | 67<br>(5.1)      | 39<br>(6.1)    | 28<br>(4.2)    | 140<br>(10.4)    | 82<br>(12.5)   | 58<br>(8.5)    | 197<br>(16.8)    | 105<br>(17.4)  | 92<br>(16.1)   |
| 55~59세 | 37<br>(2.8)      | 27<br>(4.2)    | 10<br>(1.5)    | 69<br>(5.1)      | 44<br>(6.7)    | 25<br>(3.7)    | 141<br>(12.0)    | 81<br>(13.4)   | 60<br>(10.5)   |
| 60~64세 | 14<br>(1.1)      | 12<br>(1.9)    | 2<br>(0.3)     | 30<br>(2.2)      | 21<br>(3.2)    | 9<br>(1.3)     | 109<br>(9.3)     | 68<br>(11.2)   | 41<br>(7.2)    |
| 65~69세 | 9<br>(0.7)       | 8<br>(1.3)     | 1<br>(0.1)     | 18<br>(1.3)      | 10<br>(1.5)    | 8<br>(1.2)     | 48<br>(4.1)      | 31<br>(5.1)    | 17<br>(3.0)    |
| 70~74세 | 2<br>(0.2)       | 2<br>(0.3)     | 0<br>(0.0)     | 5<br>(0.4)       | 4<br>(0.6)     | 1<br>(0.1)     | 21<br>(1.8)      | 16<br>(2.6)    | 5<br>(0.9)     |
| 75세 이상 | 3<br>(0.2)       | 3<br>(0.5)     | 0<br>(0.0)     | 8<br>(0.6)       | 6<br>(0.9)     | 2<br>(0.3)     | 19<br>(1.6)      | 13<br>(2.1)    | 6<br>(1.1)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21년 기준 전국과 제주지역의 평균 재혼연령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재혼 연령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평균 재혼연령은 48.7세로서 전국(48.6세) 대비 0.1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5.0세) 또한 전국(4.1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0~2021년 성별별 평균 재혼연령 변화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의 재혼연령 모두 제주지역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의 평균 재혼연령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남편의 평균 재혼 연령은 50.8세로서 2000년 대비 10.0세(전국 8.6세) 증가하였으며, 아내의 경우 2000년 36.5세에서 2021년 46.7세로 10.2세(전국 9.0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29〉 평균 재혼연령 변화

(단위: 세)

| 구분 | 2000 |      |      | 2005 |      |      | 2010 |      |      | 2015 |      |      | 2021 |      |      |
|----|------|------|------|------|------|------|------|------|------|------|------|------|------|------|------|
|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평균   | 남편   | 아내   |
| 전국 | 39.8 | 42.1 | 37.5 | 41.8 | 44.1 | 39.6 | 43.9 | 46.1 | 41.6 | 45.5 | 47.6 | 43.5 | 48.6 | 50.7 | 46.5 |
| 제주 | 38.6 | 40.8 | 36.5 | 40.5 | 42.8 | 38.3 | 42.9 | 44.5 | 41.2 | 45.6 | 47.4 | 43.7 | 48.7 | 50.8 | 46.7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라.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 □ 연도별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 2000~2021년 제주지역 혼인 건수 및 이혼 건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인 건수 및 이혼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제주지역 혼인 건수 비중은 1.4% 수준으로서 2000년(1.2%)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이혼 건수의 경우 2000년과 2021년이 유사한 비중(1.5%)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이혼 건수 비중이 혼인 건수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혼인 및 이혼 건수 비중은 1.4%, 1.5%로서 이혼 건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0〉 혼인 및 이혼 현황 변화 비교

(단위: 건, %)

| 구분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1           |
|----|----|----------------|----------------|----------------|----------------|----------------|
| 혼인 | 전국 | 332,090        | 314,304        | 326,104        | 302,828        | 192,507        |
|    | 제주 | 4,022<br>(1.2) | 3,382<br>(1.1) | 3,515<br>(1.1) | 3,676<br>(1.2) | 2,661<br>(1.4) |
| 이혼 | 전국 | 119,455        | 128,035        | 116,858        | 109,153        | 101,673        |
|    | 제주 | 1,763<br>(1.5) | 1,663<br>(1.3) | 1,466<br>(1.3) | 1,447<br>(1.3) | 1,490<br>(1.5)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연령별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 제주지역 60대 이상 고 연령자의 혼인률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혼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에 따른 제주지역 혼인 및 이혼 비교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20대 이하에서만 남성에 비해 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빠른데서 기인하는 현상인 것으로 보여짐

〈표 2-31〉 연령별 혼인 및 이혼 현황 비교 (2021년 기준)

(단위: 건, %)

| 구분    | 혼인                |                  |                 |                 | 이혼               |                  |               |               |
|-------|-------------------|------------------|-----------------|-----------------|------------------|------------------|---------------|---------------|
|       | 전국                |                  | 제주              |                 | 전국               |                  | 제주            |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전체    | 192,507           |                  | 2,661           |                 | 101,673          |                  | 1,490         |               |
| 20대이하 | 45,483<br>(23.6)  | 74,376<br>(38.6) | 653<br>(24.5)   | 997<br>(37.5)   | 3,620<br>(3.6)   | 7,622<br>(7.5)   | 49<br>(3.3)   | 131<br>(8.8)  |
| 30대   | 104,978<br>(54.5) | 86,083<br>(44.7) | 1,258<br>(47.3) | 1,081<br>(40.6) | 17,743<br>(17.5) | 23,181<br>(22.8) | 279<br>(18.7) | 373<br>(25.0) |
| 40대   | 23,570<br>(12.2)  | 17,433<br>(9.1)  | 390<br>(14.7)   | 312<br>(11.7)   | 30,003<br>(29.5) | 31,178<br>(30.7) | 512<br>(34.4) | 460<br>(30.9) |



| 구분    | 혼인              |                 |              |              | 이혼               |                  |               |               |
|-------|-----------------|-----------------|--------------|--------------|------------------|------------------|---------------|---------------|
|       | 전국              |                 | 제주           |              | 전국               |                  | 제주            |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전체    | 192,507         |                 | 2,661        |              | 101,673          |                  | 1,490         |               |
| 50대   | 11,686<br>(6.1) | 10,180<br>(5.3) | 225<br>(8.5) | 187<br>(7.0) | 28,785<br>(28.3) | 25,115<br>(24.7) | 408<br>(27.4) | 373<br>(25.0) |
| 60대   | 5,049<br>(2.6)  | 3,539<br>(1.8)  | 104<br>(3.9) | 71<br>(2.7)  | 16,547<br>(16.3) | 12,334<br>(12.1) | 200<br>(13.4) | 133<br>(8.9)  |
| 70대이상 | 1,741<br>(0.9)  | 896<br>(0.5)    | 31<br>(1.2)  | 13<br>(0.5)  | 4,975<br>(4.9)   | 2,243<br>(2.2)   | 42<br>(2.8)   | 20<br>(1.3)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현황 비교

- 2021년 기준 전국과 제주지역의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조혼인률, 조이혼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지역 조혼인률과 조이혼률은 각각 3.9, 2.2로서, 전국(조혼인률 3.7, 조이혼률 2.0)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1~2021년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변화 분석 결과,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은 전국 및 제주지역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의 조혼인률은 3.7, 조이혼률은 2.0으로서, 2010년 대비 각각 2.8p,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또한 각각 2.3p, 0.2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제주지역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의 감소폭은 각각 2.3p, 0.2p로서, 같은 기간 전국의 감소폭(2.8p, 0.3p)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2-32〉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변화

(단위: 천 명당 건수)

| 구분   | 조혼인률 |     | 조이혼률 |     |
|------|------|-----|------|-----|
|      | 전국   | 제주  | 전국   | 제주  |
| 2011 | 6.5  | 6.2 | 2.3  | 2.4 |
| 2012 | 6.4  | 6.0 | 2.2  | 2.5 |
| 2013 | 6.3  | 6.2 | 2.3  | 2.4 |
| 2014 | 6.0  | 6.0 | 2.3  | 2.5 |
| 2015 | 5.9  | 6.0 | 2.1  | 2.3 |
| 2016 | 5.5  | 5.8 | 2.1  | 2.4 |
| 2017 | 5.1  | 5.6 | 2.0  | 2.4 |
| 2018 | 5.0  | 5.5 | 2.1  | 2.4 |
| 2019 | 4.6  | 5.0 | 2.1  | 2.3 |
| 2020 | 4.1  | 4.4 | 2.1  | 2.6 |
| 2021 | 3.7  | 3.9 | 2.0  | 2.2 |

주 : 본 자료는 연도별 혼인건수/이혼건수 및 인구 데이터(각 년도 7월 기준)를 가공하여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인구동향조사」에서 제시하는 조혼인률 및 조이혼률 데이터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 3. 가족구성원 변화

#### 가. 출생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생 관련 지표(출생아 수, 조출생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60,562명으로서, 2000년(640,089명)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조출생률<sup>4)</sup> 변화 분석 결과 또한 2000년 13.5에서 2021년에 5.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

〈표 2-33〉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변화

(단위: 명, %)

| 구분   | 출생아 수   |         |       |         | 조출생률 |
|------|---------|---------|-------|---------|------|
|      | 전국      |         | 제주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 2000 | 640,089 | -       | 8,633 | -       | 13.5 |
| 2001 | 559,934 | (-14.3) | 7,453 | (-15.8) | 11.7 |
| 2002 | 496,911 | (-12.7) | 6,530 | (-14.1) | 10.3 |
| 2003 | 495,036 | (-0.4)  | 6,583 | (0.8)   | 10.2 |
| 2004 | 476,958 | (-3.8)  | 6,097 | (-8.0)  | 9.8  |
| 2005 | 438,707 | (-8.7)  | 5,734 | (-6.3)  | 9.0  |
| 2006 | 451,759 | (2.9)   | 5,853 | (2.0)   | 9.2  |
| 2007 | 496,822 | (9.1)   | 6,178 | (5.3)   | 10.1 |
| 2008 | 465,892 | (-6.6)  | 5,593 | (-10.5) | 9.4  |
| 2009 | 444,849 | (-4.7)  | 5,433 | (-2.9)  | 9.0  |
| 2010 | 470,171 | (5.4)   | 5,657 | (4.0)   | 9.4  |
| 2011 | 471,265 | (0.2)   | 5,628 | (-0.5)  | 9.4  |
| 2012 | 484,550 | (2.7)   | 5,992 | (6.1)   | 9.6  |
| 2013 | 436,455 | (-11.0) | 5,328 | (-12.5) | 8.6  |
| 2014 | 435,435 | (-0.2)  | 5,526 | (3.6)   | 8.6  |
| 2015 | 438,420 | (0.7)   | 5,600 | (1.3)   | 8.6  |
| 2016 | 406,243 | (-7.9)  | 5,494 | (-1.9)  | 7.9  |
| 2017 | 357,771 | (-13.5) | 5,037 | (-9.1)  | 7.0  |
| 2018 | 326,822 | (-9.5)  | 4,781 | (-5.4)  | 6.4  |
| 2019 | 302,676 | (-8.0)  | 4,500 | (-6.2)  | 5.9  |
| 2020 | 272,337 | (-11.1) | 3,989 | (-12.8) | 5.3  |
| 2021 | 260,562 | (-4.5)  | 3,728 | (-7.0)  | 5.1  |

주 : 인구 1천명당, 가임여성 1명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률<sup>5)</sup>은 0.81로서, 2000년 (1.48)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2000년 기준 20~39세 모의 연령별 출산률은 72.8명이었으나, 2021년 38.0명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기준 모의 연령별 출산률 변화 분석 결과, 2000년에는 25~2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의 경우 30~3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지역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전국단위의 추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5) 15세에서 49세의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 제주지역의 합계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78이었으나, 2021년 1명 이하 수준(0.95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2-34〉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단위: 명)

| 구분 |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
| 전국 | 합계출산율         |        | 1.48  | 1.09  | 1.23  | 1.24  | 0.84 | 0.81 |
|    | 모의<br>연령별 출산율 | 15-19세 | 2.6   | 2.2   | 1.8   | 1.4   | 0.7  | 0.4  |
|    |               | 20-24세 | 39.2  | 18    | 16.5  | 12.5  | 6.2  | 5    |
|    |               | 25-29세 | 150.3 | 92.1  | 79.7  | 63.1  | 30.6 | 27.5 |
|    |               | 30-34세 | 84.1  | 82.1  | 112.4 | 116.7 | 78.9 | 76.1 |
|    |               | 35-39세 | 17.6  | 19    | 32.6  | 48.3  | 42.3 | 43.5 |
|    |               | 40-44세 | 2.7   | 2.5   | 4.1   | 5.6   | 7.1  | 7.6  |
|    |               | 45-49세 | 0.2   | 0.2   | 0.2   | 0.2   | 0.2  | 0.2  |
| 제주 | 합계출산율         |        | 1.78  | 1.31  | 1.46  | 1.48  | 1.02 | 0.95 |
|    | 모의<br>연령별 출산율 | 15-19세 | 4.1   | 2.2   | 2.6   | 2.7   | 1.3  | 0.2  |
|    |               | 20-24세 | 43.8  | 22    | 23    | 19    | 11.3 | 9    |
|    |               | 25-29세 | 161.9 | 104.3 | 96.5  | 79.2  | 42.6 | 38.3 |
|    |               | 30-34세 | 111.3 | 98.3  | 123.8 | 125.1 | 88   | 81.7 |
|    |               | 35-39세 | 30.8  | 28.1  | 40.3  | 59.1  | 49.3 | 47.6 |
|    |               | 40-44세 | 5.4   | 3.9   | 7.5   | 8.6   | 9.2  | 10.7 |
|    |               | 45-49세 | 0.8   | 0.6   | 0.1   | 0.2   | 0.3  | 0.4  |

주 : 가임여성1명당,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0~2021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49세 가임여성 인구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는 각각 3,728명, 2,661건으로서, 2000

년(8,633명, 4,022건)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수(15~49세 여성 인구 수)는 2000년 148,998명에서 2021년 149,0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5〉 출생아, 가임기 여성, 혼인건수 변화 비교

(단위: 명, 건, %)

| 구분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1       |
|----|--------------|------------|------------|------------|------------|------------|
| 전국 | 출생아 수        | 640,089    | 438,707    | 470,171    | 438,420    | 260,562    |
|    | 15~49세 여성 인구 | 13,716,064 | 13,670,214 | 13,346,797 | 12,796,169 | 11,620,204 |
|    | 혼인건수         | 332,090    | 314,304    | 326,104    | 302,828    | 192,507    |
| 제주 | 출생아 수        | 8,633      | 5,734      | 5,657      | 5,600      | 3,728      |
|    | 15~49세 여성 인구 | 148,998    | 147,000    | 142,458    | 147,583    | 149,057    |
|    | 혼인건수         | 4,022      | 3,382      | 3,515      | 3,676      | 2,661      |

주: '15~49세 여성 인구'의 경우 각 연도의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 나. 사망

- 인구동향조사 변화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사망자 수는 317,680명으로서, 2000년(248,740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조사망률<sup>6)</sup> 변화 분석 결과, 조사망률의 경우 2000년대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4,229명으로서, 2000년(3,049명)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6) 1년간의 총 사망자 수를 당해연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

〈표 2-36〉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변화

(단위: 명, %)

| 구분   | 사망자 수   |       |       |       | 조사망률 |
|------|---------|-------|-------|-------|------|
|      | 전국      |       | 제주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 2000 | 248,740 | -     | 3,049 | -     | 5.2  |
| 2001 | 243,813 | -2.0% | 2,970 | -2.7% | 5.1  |
| 2002 | 247,524 | 1.5%  | 2,906 | -2.2% | 5.1  |
| 2003 | 246,463 | -0.4% | 2,870 | -1.3% | 5.1  |
| 2004 | 246,220 | -0.1% | 2,883 | 0.5%  | 5.1  |
| 2005 | 245,874 | -0.1% | 2,968 | 2.9%  | 5.1  |
| 2006 | 244,162 | -0.7% | 3,023 | 1.8%  | 5.0  |
| 2007 | 246,482 | 0.9%  | 2,931 | -3.1% | 5.0  |
| 2008 | 246,113 | -0.1% | 2,813 | -4.2% | 5.0  |
| 2009 | 246,942 | 0.3%  | 2,823 | 0.4%  | 5.0  |
| 2010 | 255,405 | 3.3%  | 3,017 | 6.4%  | 5.1  |
| 2011 | 257,396 | 0.8%  | 3,021 | 0.1%  | 5.1  |
| 2012 | 267,221 | 3.7%  | 3,238 | 6.7%  | 5.3  |
| 2013 | 266,257 | -0.4% | 3,317 | 2.4%  | 5.3  |
| 2014 | 267,692 | 0.5%  | 3,300 | -0.5% | 5.3  |
| 2015 | 275,895 | 3.0%  | 3,339 | 1.2%  | 5.4  |
| 2016 | 280,827 | 1.8%  | 3,542 | 5.7%  | 5.5  |
| 2017 | 285,534 | 1.6%  | 3,738 | 5.2%  | 5.6  |
| 2018 | 298,820 | 4.4%  | 3,912 | 4.4%  | 5.8  |
| 2019 | 295,110 | -1.3% | 3,959 | 1.2%  | 5.7  |
| 2020 | 304,948 | 3.2%  | 3,952 | -0.2% | 5.9  |
| 2021 | 317,680 | 4.0%  | 4,229 | 6.6%  | 6.2  |

주 : 전국 기준, 인구 1천명 당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다. 전입 및 전출

- 제주지역 전입 및 전출인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순이동 인구(전입인구 - 전출인구)는 3,917명으로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행정시별 순이동 인구 분석 결과, 제주지역 전체 순이동 인구(3,917명) 중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62.1%)이 제주시(37.9%)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도내 행정시별 전입 및 전출 인구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제주지역의 순이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제주시 지역 순이동 인구는 1,485명으로서, 2000년(771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증가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00~2021년 서귀포시 순이동 인구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전까지는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기준으로 반등을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37〉 전입 및 전출 인구 변화

(단위: 명)

| 구분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
| 전국      | 총전입 | 9,009,441 | 8,795,397 | 8,226,594 | 7,755,286 | 7,735,491 | 7,213,422 |
|         | 총전출 | 9,009,441 | 8,795,397 | 8,226,594 | 7,755,286 | 7,735,491 | 7,213,422 |
| 제주특별자치도 | 총전입 | 85,242    | 93,041    | 77,224    | 97,580    | 98,114    | 94,979    |
|         | 총전출 | 87,600    | 93,846    | 76,787    | 83,323    | 94,736    | 91,062    |
|         | 순이동 | -2,358    | -805      | 437       | 14,257    | 3,378     | 3,917     |
| 제주시     | 총전입 | 54,673    | 62,631    | 59,884    | 71,330    | 71,080    | 67,139    |
|         | 총전출 | 53,902    | 57,510    | 59,117    | 62,823    | 68,574    | 65,654    |
|         | 순이동 | 771       | 5,121     | 767       | 8,507     | 2,506     | 1,485     |
| 서귀포시    | 총전입 | 12,898    | 12,304    | 17,340    | 26,250    | 27,034    | 27,840    |
|         | 총전출 | 14,103    | 13,399    | 17,670    | 20,500    | 26,162    | 25,408    |
|         | 순이동 | -1,205    | -1,095    | -330      | 5,750     | 872       | 2,432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4. 사회조사<sup>7)</sup>에 나타난 제주 가족

### 가. 불안 유무와 불안을 느꼈던 상황

- 제주지역 가족의 삶과 관련하여 ‘불안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응답(39.7%)이 ‘불안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응답(60.3%)에 비해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36.0%)보다는 제주시(41.0%)가, 읍면지역

7) “20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3,000가구를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노동, 교육, 주거 및 교통, 문화와 여가, 지역 특성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

(35.5%, 30.4%)보다는 동 지역(42.7%, 40.5%)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불안을 느꼈던 상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건강이상과 관련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사유와 관련하여 가족의 건강이상(43.8%)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업불안정(21.6%),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16.2%), 실직 또는 파산(12.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행정시별, 행정구역 단위별 분석 결과 또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라는 응답의 경우 제주시 읍면지역(11.9%)과 서귀포시 읍면지역(21.1%)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38〉 불안 유무와 불안을 느꼈던 상황

(단위: %)

| 구분   | 불안 유무  |        | 불안을 느꼈던 상황 |        |              |          |       |        |
|------|--------|--------|------------|--------|--------------|----------|-------|--------|
|      | 있었음    | 없었음    | 가족의 건강 이상  | 직업 불안정 |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 | 실직 또는 파산 | 투자 손실 | 기타     |
| 전체   | (39.7) | (60.3) | (43.8)     | (21.6) | (16.2)       | (12.0)   | (9.1) | (11.4) |
| 제주시  | (41.0) | (59.0) | (43.3)     | (21.9) | (15.3)       | (11.4)   | (9.4) | (11.9) |
| 읍면지역 | (35.5) | (64.5) | (43.0)     | (22.6) | (11.9)       | (15.6)   | (7.1) | (11.2) |
| 동지역  | (42.7) | (57.3) | (43.3)     | (21.7) | (16.2)       | (10.3)   | (9.9) | (12.1) |
| 서귀포시 | (36.0) | (64.0) | (45.6)     | (20.8) | (19.0)       | (14.0)   | (8.5) | (10.0) |
| 읍면지역 | (30.4) | (69.6) | (48.6)     | (21.2) | (21.1)       | (12.8)   | (7.5) | (11.8) |
| 동지역  | (40.5) | (59.5) | (43.7)     | (20.5) | (17.6)       | (14.8)   | (9.2) | (8.9)  |

자료 : 2021년 제주 사회조사

## 나. 코로나 19와 돌봄

○ 돌봄대상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7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접 돌봄 이외에 도민들이 가족원 돌봄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은 ‘남겨두고 출근(20.5%)’, ‘부모님 및 친인척 등의 도움(18.6%)’, ‘돌봄 및 복지시설 이용(13.3%)’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가족원 돌봄을 위하여 유급 연차 사용, 단축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가족 돌봄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유급 연차 사용(6.3%), 단축근무(4.9%), 재택근무(4.2%), 가족돌봄휴가(2.5%), 육아휴직(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9〉 코로나19와 돌봄 수행방식

(단위: %)

| 구분   | 직접 돌봄 | 남겨 두고 출근 | 부모님 등의 도움 | 돌봄 복지 시설 이용 | 유급 연차 사용 | 단축 근무 | 재택 근무 | 데리고 출근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 육아 휴직 | 사직  | 휴직  | 기타  |
|------|-------|----------|-----------|-------------|----------|-------|-------|--------|-------------|-------|-----|-----|-----|
| 전체   | 70.2  | 20.5     | 18.6      | 13.3        | 6.3      | 4.9   | 4.2   | 3.0    | 2.5         | 2.1   | 1.8 | 1.1 | 2.0 |
| 제주시  | 68.7  | 22.1     | 19.1      | 13.4        | 7.4      | 5.0   | 4.4   | 3.2    | 2.6         | 2.0   | 1.6 | 1.1 | 1.1 |
| 읍면   | 68.9  | 19.5     | 19.4      | 10.0        | 3.0      | 3.6   | 5.6   | 1.7    | 0.9         | 2.0   | 1.8 | 2.4 | 0.5 |
| 동    | 68.7  | 22.7     | 19.0      | 14.2        | 8.5      | 5.3   | 4.1   | 3.5    | 3.0         | 2.0   | 1.5 | 0.8 | 1.3 |
| 서귀포시 | 74.5  | 15.9     | 17.1      | 13.1        | 3.2      | 4.8   | 3.6   | 2.4    | 2.1         | 2.5   | 2.5 | 1.1 | 4.4 |
| 읍면   | 82.6  | 22.0     | 11.7      | 12.3        | 2.7      | 4.4   | 3.3   | 3.0    | 1.2         | 1.8   | 1.4 | 0.0 | 8.9 |
| 동    | 70.1  | 12.7     | 20.0      | 13.6        | 3.5      | 5.0   | 3.7   | 2.1    | 2.6         | 2.9   | 3.0 | 1.6 | 2.1 |

주 : 돌봄 대상자 있는 응답자

자료 : 2021년 제주 사회조사

- 가족원 돌봄 시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식사준비 및 집안일 증가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식사 준비 및 집안일 증가(35.4%), 가족원 및 자녀 돌보기(26.1%),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지도(16.9%), 개인 시간의 부족(12.1%), 병원이용의 어려움(8.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2-40〉 코로나19와 돌봄 애로

(단위: %)

| 구분   | 식사 준비 및<br>각종 집안일<br>증가 | 집에서만<br>감당해야<br>하는<br>가족/자녀<br>돌보기 | 아이들의<br>온라인<br>학습지도 | 나를 위한<br>개인 시간<br>부족 | 가족/자녀가<br>아플 때 병원<br>이용의<br>어려움 | 기타    |
|------|-------------------------|------------------------------------|---------------------|----------------------|---------------------------------|-------|
| 전체   | (35.4)                  | (26.1)                             | (16.9)              | (12.1)               | (8.0)                           | (1.4) |
| 제주시  | (34.2)                  | (27.1)                             | (17.2)              | (12.2)               | (7.9)                           | (1.4) |
| 읍면지역 | (30.1)                  | (29.7)                             | (13.7)              | (12.3)               | (12.1)                          | (2.0) |
| 동지역  | (35.3)                  | (26.4)                             | (18.1)              | (12.1)               | (6.8)                           | (1.3) |
| 서귀포시 | (38.6)                  | (23.3)                             | (16.3)              | (12.1)               | (8.3)                           | (1.4) |
| 읍면지역 | (41.4)                  | (18.5)                             | (17.9)              | (11.4)               | (8.8)                           | (2.0) |
| 동지역  | (37.0)                  | (26.0)                             | (15.4)              | (12.5)               | (8.1)                           | (1.0) |

주 : 돌봄 대상자 있는 응답자

자료 : 2021년 제주 사회조사

## 5. 소결

- 제주로의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세는 최근 이른바 ‘지방소멸’이 논의되는 가운데 고무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이주민 증가세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출산률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673,1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합계 출산률의 감소(2012년 5,992명→2021년 3,989명),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2012년 0.97→2021년 0.71) 등 인구관련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형태별 변화 추세를 종합하면, 1인 가구의 증가, 2세대 가구의 감소세, 분거가족 및 이주민 증가 등의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세대구성별 가구에서 현재까지 2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타 가구 형태에 비해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대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 1인 가구 내에서도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분거가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제주지역의 특성 상 전국평균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모두가 분거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거가족, 이주민 관련 연구 및 정책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동지역의 경우 소규모 가구원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구 수가 많은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다수의 가족원을 보유한 다문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기준 행정구역 단위별 다문화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06호로서 동지역(3,724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 수(16,817명)는 동지역(1,372명)에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32.3세로서, 전국(32.2세)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31.1세)에 비해 남성(33.5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21년 제주사회조사에 나타난 가족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가족원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도민들은 ‘가족의 건강이상(43.8%)’이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16.2%)’ 등을 불안을 겪는 사유로 인식하고 있음
- 제주사회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가족원 돌봄과 관련하여 상당수가 스스로 혹은 동거하지 않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직접 돌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70.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원 돌봄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유급 연차 사용, 단축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를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일반적 특성
3. 가족에 대한 인식
4. 가족의 형성 및 변화
5. 가족의 관계 및 생활
6. 자녀 및 가족 돌봄
7. 건강 및 노후준비
8.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설계

#### □ 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조사 설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명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 대상   | 제주도에 거주중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
| 표본 수 | 1,009명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설문조사 (자기기입식, 조사원을 통합 면접조사 병행)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3.1\%$                           |
| 조사기간 | 2022년 8월 8일 ~ 9월 2일                            |

#### □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제주지역 가구형태 변화와 관련된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음

- 지역별 인구 구조 및 특성, 문화 등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읍·면·동별 표본을 구분 하였으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제주지역 가구 형태의 변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음

<표 3-2>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구분 | 행정구역 |     | 가구 수   |     | 표본 수  |       |    |
|----|------|-----|--------|-----|-------|-------|----|
|    |      |     |        | %   | 1인 가구 | 다인 가구 | 합계 |
| 1  | 제주시  | 한림읍 | 9,022  | 3.3 | 10    | 23    | 33 |
| 2  |      | 애월읍 | 14,430 | 5.3 | 14    | 40    | 54 |
| 3  |      | 구좌읍 | 6,306  | 2.3 | 7     | 16    | 23 |
| 4  |      | 조천읍 | 9,802  | 3.6 | 11    | 23    | 34 |
| 5  |      | 한경면 | 3,808  | 1.4 | 4     | 10    | 14 |

| 구분 | 행정구역 |      | 가구 수    |       | 표본 수  |       |       |
|----|------|------|---------|-------|-------|-------|-------|
|    |      |      |         | %     | 1인 가구 | 다인 가구 | 합계    |
| 6  | 제주시  | 추자면  | 863     | 0.3   | 1     | 2     | 3     |
| 7  |      | 우도면  | 793     | 0.3   | 1     | 2     | 3     |
| 8  |      | 일도1동 | 1,251   | 0.5   | 1     | 4     | 5     |
| 9  |      | 일도2동 | 12,476  | 4.6   | 14    | 32    | 46    |
| 10 |      | 이도1동 | 3,261   | 1.2   | 4     | 8     | 12    |
| 11 |      | 이도2동 | 19,413  | 7.2   | 22    | 51    | 73    |
| 12 |      | 삼도1동 | 5,383   | 2.0   | 6     | 14    | 20    |
| 13 |      | 삼도2동 | 3,644   | 1.3   | 4     | 10    | 14    |
| 14 |      | 용담1동 | 2,946   | 1.1   | 3     | 8     | 11    |
| 15 |      | 용담2동 | 5,688   | 2.1   | 6     | 15    | 21    |
| 16 |      | 건입동  | 3,714   | 1.4   | 4     | 10    | 14    |
| 17 |      | 화북동  | 9,212   | 3.4   | 12    | 24    | 36    |
| 18 |      | 삼양동  | 9,107   | 3.4   | 10    | 24    | 34    |
| 19 |      | 봉개동  | 2,063   | 0.8   | 2     | 6     | 8     |
| 20 |      | 아라동  | 15,178  | 5.6   | 17    | 39    | 56    |
| 21 |      | 오라동  | 5,549   | 2.1   | 7     | 15    | 22    |
| 22 |      | 연동   | 19,773  | 7.3   | 23    | 50    | 73    |
| 23 |      | 노형동  | 22,089  | 8.2   | 23    | 59    | 82    |
| 24 |      | 외도동  | 7,946   | 2.9   | 9     | 23    | 32    |
| 25 |      | 이호동  | 1,773   | 0.7   | 2     | 5     | 7     |
| 26 |      | 도두동  | 1,318   | 0.5   | 1     | 4     | 5     |
| 27 | 서귀포시 | 대정읍  | 8,970   | 3.3   | 10    | 23    | 33    |
| 28 |      | 남원읍  | 7,117   | 2.6   | 8     | 18    | 26    |
| 29 |      | 성산읍  | 6,654   | 2.5   | 7     | 18    | 25    |
| 30 |      | 안덕면  | 4,939   | 1.8   | 5     | 13    | 18    |
| 31 |      | 표선면  | 5,094   | 1.9   | 6     | 13    | 19    |
| 32 |      | 송산동  | 1,725   | 0.6   | 2     | 4     | 6     |
| 33 |      | 정방동  | 1,094   | 0.4   | 1     | 4     | 5     |
| 34 |      | 중앙동  | 1,695   | 0.6   | 3     | 3     | 6     |
| 35 |      | 천지동  | 1,644   | 0.6   | 2     | 4     | 6     |
| 36 |      | 효돈동  | 1,961   | 0.7   | 2     | 5     | 7     |
| 37 |      | 영천동  | 1,970   | 0.7   | 2     | 6     | 8     |
| 38 |      | 동홍동  | 8,833   | 3.3   | 11    | 23    | 34    |
| 39 |      | 서홍동  | 3,845   | 1.4   | 4     | 10    | 14    |
| 40 |      | 대륜동  | 5,819   | 2.2   | 7     | 14    | 21    |
| 41 |      | 대천동  | 5,723   | 2.1   | 6     | 15    | 21    |
| 42 |      | 중문동  | 4,852   | 1.8   | 5     | 14    | 19    |
| 43 |      | 예래동  | 1,692   | 0.6   | 2     | 4     | 6     |
| 합계 |      |      | 270,435 | 100.0 | 301   | 708   | 1,009 |

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43개 읍면동 별 가구 수 및 1인 가구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을 비례 할당하였음



## 나. 조사 영역 및 내용

-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현황 뿐만 아니라 가족특성 변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을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및 2020년 전국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한 설문지의 문항 일부를 반영하였음
- 다만 과거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와 본 조사와의 조사시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영역의 설정을 위해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연구 및 각 지역별로 실시된 지역단위 가족실태조사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며,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조사영역을 설정하였음
- 앞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조사 영역 및 세부 내용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 조사영역           | 문항 내용  |
|----------------|--|
| A. 일반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역</li> <li>■ 가구주와의 관계</li> <li>■ 성별</li> <li>■ 연령</li> <li>■ 혼인상태</li> <li>■ 학력</li> <li>■ 가구소득</li> <li>■ 출생지역 및 거주기간</li> <li>■ 취업상태 및 직업 등</li> <li>■ 세대유형</li> <li>■ 가구특성</li> <li>■ 경제적 수준</li> </ul> |
| B. 가족에 대한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인식</li> <li>■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li> <li>■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li> </ul>   |
| C.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선택 시 고려 항목</li> <li>■ 출산에 대한 인식(출산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등)</li> <li>■ 입양에 대한 인식(입양의향, 의향이 없는 이유 등)</li> <li>■ 이혼에 대한 인식(경험, 종료 이유, 지속이유 등)</li> </ul>   |

| 설문영역            | 문항 내용  |
|-----------------|--|
| D. 가족의 관계 및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li> <li>■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만족도, 종류 등)</li> <li>■ 가족구성원과의 여가시간 (여부, 빈도, 종류, 충분하지 못한 이유 등)</li> <li>■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일상 변화</li> <li>■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정도</li> <li>■ 가정 내 의사결정 분담 정도</li> <li>■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해결방법 등)</li> </ul>  |
| E. 건강 및 노후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노력여부 등)</li> <li>■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li> <li>■ 노후 생활(지내고 싶은 거주 형태, 동거를 원하는 가족원 등)</li> </ul>  |
| F.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의 교류 수준 및 형태</li> <li>■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li> <li>■ 공동체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li> <li>■ 공동체 관계에 관한 인식</li> <li>■ 지역에 대한 가족친화정도 및 가정건강성 인식</li> <li>■ 가족서비스 전달기관 인식 (인지도, 경험여부, 만족도 등)</li> <li>■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 지원 우선순위</li> <li>■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li> <li>■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li> </ul> |
| G. 자녀 및 가족 돌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li> <li>■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li> <li>■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li> <li>■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li> <li>■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및 주 간병인</li> <li>■ 간병이나 돌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li> <li>■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 이용 여부</li> </ul>   |

## 2. 일반적 특성

### 가. 가구주 여부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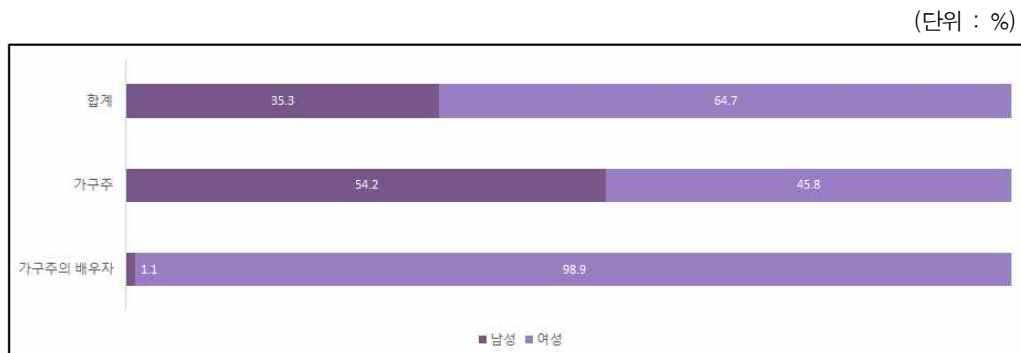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주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구주인 응답자는 650명(64.4%), 가구주의 배우자인 응답자는 359(35.6%)인 것으로 분석됨
- 성별에 따른 응답자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는 356명(35.3%), 여성 응답자는 653명(64.7%)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은 54.2%로 여성(45.8%)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주의 배우자라고 응답한 남성의 비중(1.1%)은 여성(98.9%)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3-4〉 가구주 구분

(단위 : 명, %)

| 구분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전체       |        | 1,009<br>(100.0) | 356<br>(35.3) | 653<br>(64.7) |
| 가구주      | 20~30대 | 99<br>(100.0)    | 48<br>(48.5)  | 51<br>(51.5)  |
|          | 40대    | 86<br>(100.0)    | 55<br>(64.0)  | 31<br>(36.0)  |
|          | 50대    | 171<br>(100.0)   | 115<br>(67.3) | 56<br>(32.7)  |
|          | 60대    | 133<br>(100.0)   | 74<br>(55.6)  | 59<br>(44.4)  |
|          | 70대 이상 | 161<br>(100.0)   | 60<br>(37.3)  | 101<br>(62.7) |
|          | 소계     | 650<br>(100.0)   | 352<br>(54.2) | 298<br>(45.8) |
| 가구주의 배우자 | 20~30대 | 40<br>(100.0)    | 1<br>(2.5)    | 39<br>(97.5)  |
|          | 40대    | 95<br>(100.0)    | 2<br>(2.1)    | 93<br>(97.9)  |
|          | 50대    | 124<br>(100.0)   | 1<br>(0.8)    | 123<br>(99.2) |
|          | 60대    | 58<br>(100.0)    | 0<br>(0.0)    | 58<br>(100.0) |
|          | 70대 이상 | 42<br>(100.0)    | 0<br>(0.0)    | 42<br>(100.0) |
|          | 소계     | 359<br>(100.0)   | 4<br>(1.1)    | 355<br>(98.9) |

〈그림 3-1〉 가구주 여부 및 성별



## 나. 거주지역

-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중인 응답자 비중(5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 읍면지역(16.3%), 서귀포시 동 지역(15.2%), 서귀포시 읍면지역(12.0%)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별 응답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노형동(82명, 8.1%), 이도1동·연동(73명, 7.2%), 아라동(56명, 5.6%), 애월읍(54명, 5.4%) 순으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애월읍(5.4%), 조천읍(3.4%) 등 제주시 동 지역과 인접한 읍면지역의 응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5〉 거주지역 (읍·면·동별)

(단위 : 명, %)

| 구분  |      |     | 응답자 수 |     | 구성비   |      |
|-----|------|-----|-------|-----|-------|------|
| 전체  |      |     | 1,009 |     | 100.0 |      |
| 제주시 | 읍면지역 | 한림읍 | 33    | 164 | 3.3   | 16.3 |
|     |      | 애월읍 | 54    |     | 5.4   |      |
|     |      | 구좌읍 | 23    |     | 2.3   |      |
|     |      | 조천읍 | 34    |     | 3.4   |      |
|     |      | 한경면 | 14    |     | 1.4   |      |
|     |      | 추자면 | 3     |     | 0.3   |      |
|     |      | 우도면 | 3     |     | 0.3   |      |

| 구분   |      |      | 응답자 수 |     | 구성비 |      |
|------|------|------|-------|-----|-----|------|
|      | 동지역  | 일도1동 | 5     | 571 | 0.5 | 56.6 |
|      |      | 일도2동 | 46    |     | 4.6 |      |
|      |      | 이도1동 | 12    |     | 1.2 |      |
|      |      | 이도2동 | 73    |     | 7.2 |      |
|      |      | 삼도1동 | 20    |     | 2.0 |      |
|      |      | 삼도2동 | 14    |     | 1.4 |      |
|      |      | 용담1동 | 11    |     | 1.1 |      |
|      |      | 용담2동 | 21    |     | 2.1 |      |
|      |      | 건입동  | 14    |     | 1.4 |      |
|      |      | 회북동  | 36    |     | 3.6 |      |
|      |      | 삼양동  | 34    |     | 3.4 |      |
|      |      | 봉개동  | 8     |     | 0.8 |      |
|      |      | 아라동  | 56    |     | 5.6 |      |
|      |      | 오라동  | 22    |     | 2.2 |      |
|      |      | 연동   | 73    |     | 7.2 |      |
|      |      | 노형동  | 82    |     | 8.1 |      |
|      |      | 외도동  | 32    |     | 3.2 |      |
|      |      | 이호동  | 7     |     | 0.7 |      |
|      |      | 도두동  | 5     |     | 0.5 |      |
| 서귀포시 | 읍면지역 | 대정읍  | 33    | 121 | 3.3 | 12.0 |
|      |      | 남원읍  | 26    |     | 2.6 |      |
|      |      | 성산읍  | 25    |     | 2.5 |      |
|      |      | 안덕면  | 18    |     | 1.8 |      |
|      |      | 표선면  | 19    |     | 1.9 |      |
|      | 동지역  | 송산동  | 6     | 153 | 0.6 | 15.2 |
|      |      | 정방동  | 5     |     | 0.5 |      |
|      |      | 중앙동  | 6     |     | 0.6 |      |
|      |      | 천지동  | 6     |     | 0.6 |      |
|      |      | 효돈동  | 7     |     | 0.7 |      |
|      |      | 영천동  | 8     |     | 0.8 |      |
|      |      | 동홍동  | 34    |     | 3.4 |      |
|      |      | 서홍동  | 14    |     | 1.4 |      |
|      |      | 대륜동  | 21    |     | 2.1 |      |
|      |      | 대천동  | 21    |     | 2.1 |      |
|      |      | 중문동  | 19    |     | 1.9 |      |
|      |      | 예래동  | 6     |     | 0.6 |      |

## 다. 연령<sup>8)</sup>

- 연령-성별별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50대(32.6%), 60대(18.8%)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대(27.4%), 40대(19.0%)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 연령-성별별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20~30대 | 139<br>(13.8)    | 49<br>(13.8)   | 90<br>(13.8)   |
| 40대    | 181<br>(17.9)    | 57<br>(16.0)   | 124<br>(19.0)  |
| 50대    | 295<br>(29.2)    | 116<br>(32.6)  | 179<br>(27.4)  |
| 60대    | 191<br>(18.9)    | 74<br>(20.8)   | 117<br>(17.9)  |
| 70대 이상 | 203<br>(20.1)    | 60<br>(16.9)   | 143<br>(21.9)  |

- 연령-지역별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20~30대의 경우 제주시 지역의 응답률(동 지역 16.3%, 읍면지역 14.6%)이 서귀포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의 응답률(동 지역 19.0%, 읍면지역 33.1%)이 제주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20~30대 응답자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표본 수가 적고, 20대와 30대 집단의 구분 실익이 적어 두 연령대를 묶어 분석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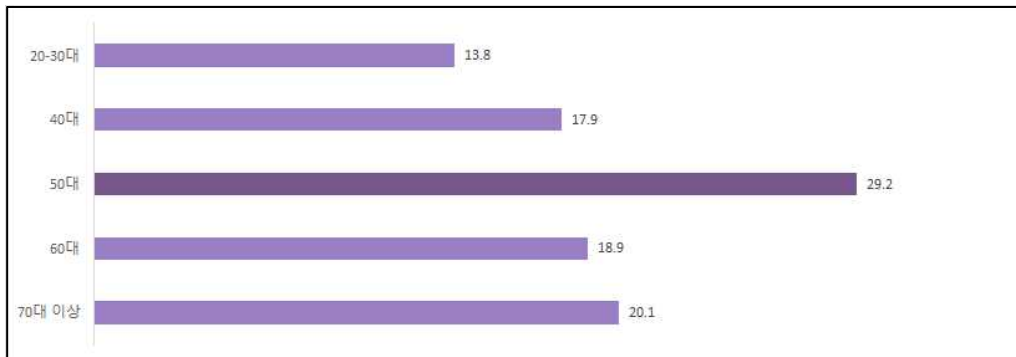
〈표 3-7〉 연령-지역별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 구분     | N                | 제주시            |                | 서귀포시           |                |
|--------|------------------|----------------|----------------|----------------|----------------|
|        |                  | 동 지역           | 읍면지역           | 동 지역           | 읍면지역           |
| 전체     | 1,009<br>(100.0) | 571<br>(100.0) | 164<br>(100.0) | 153<br>(100.0) | 121<br>(100.0) |
| 20~30대 | 139<br>(13.8)    | 93<br>(16.3)   | 24<br>(14.6)   | 9<br>(5.9)     | 13<br>(10.7)   |
| 40대    | 181<br>(17.9)    | 117<br>(20.5)  | 26<br>(15.9)   | 16<br>(10.5)   | 22<br>(18.2)   |
| 50대    | 295<br>(29.2)    | 187<br>(32.7)  | 47<br>(28.7)   | 31<br>(20.3)   | 30<br>(24.8)   |
| 60대    | 191<br>(18.9)    | 118<br>(20.7)  | 28<br>(17.1)   | 29<br>(19.0)   | 16<br>(13.2)   |
| 70대 이상 | 203<br>(20.1)    | 56<br>(9.8)    | 39<br>(23.8)   | 68<br>(44.4)   | 40<br>(33.1)   |

〈그림 3-2〉 연령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라. 혼인상태<sup>9)</sup>

- 혼인상태별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 결혼(동거 및 사실혼 포함) 상태의 응답자 비중(61.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15.8%), 미혼(11.3%), 이혼(9.3%)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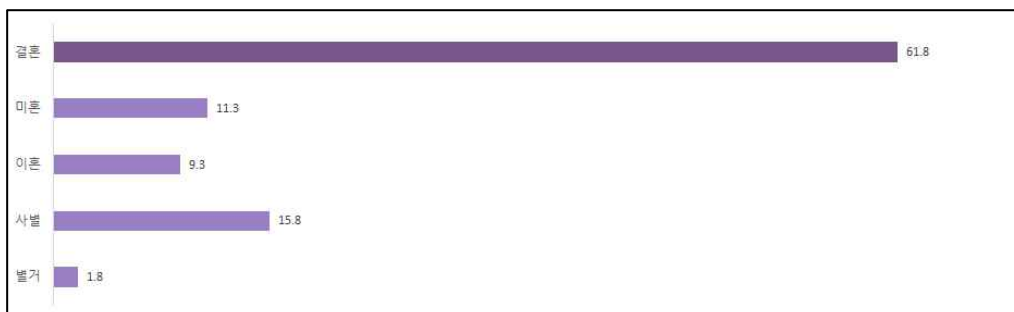
〈표 3-8〉 혼인상태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결혼<br>(동거 및 사실혼 포함) | 624<br>(61.8)    | 235<br>(66.0)  | 389<br>(59.6)  |
| 미혼                  | 114<br>(11.3)    | 56<br>(15.7)   | 58<br>(8.9)    |
| 이혼                  | 94<br>(9.3)      | 39<br>(11.0)   | 55<br>(8.4)    |
| 사별                  | 159<br>(15.8)    | 14<br>(3.9)    | 145<br>(22.2)  |
| 별거                  | 18<br>(1.8)      | 12<br>(3.4)    | 6<br>(0.9)     |

〈그림 3-3〉 혼인상태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9) 동거 응답자의 경우 표본 수가 적고 기혼자 집단과 구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어 기혼자 집단과 합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마. 최종학력

-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졸 응답자 비중(31.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21.4%), 4년제 이상 대졸(19.4%)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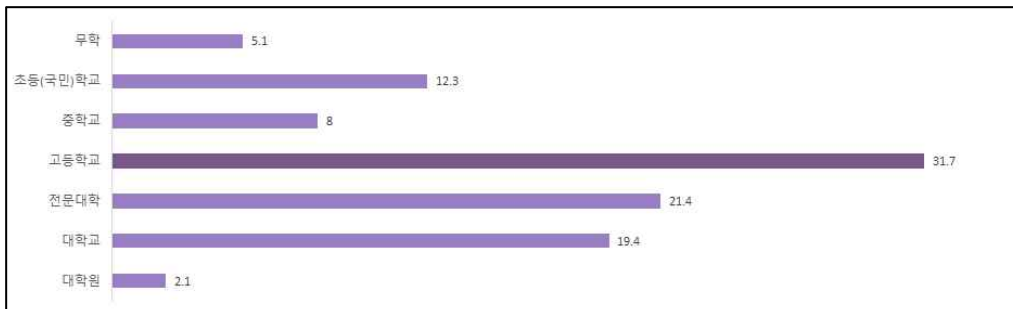
〈표 3-9〉 최종학력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무학           | 51<br>(5.1)      | 5<br>(1.4)     | 46<br>(7.0)    |
| 초등(국민)학교     | 124<br>(12.3)    | 21<br>(5.9)    | 103<br>(15.8)  |
| 중학교          | 81<br>(8.0)      | 34<br>(9.6)    | 47<br>(7.2)    |
| 고등학교         | 320<br>(31.7)    | 124<br>(34.8)  | 196<br>(30.0)  |
| 전문대학(4년제 미만) | 216<br>(21.4)    | 77<br>(21.6)   | 139<br>(21.3)  |
| 대학교(4년제 이상)  | 196<br>(19.4)    | 85<br>(23.9)   | 111<br>(17.0)  |
| 대학원(석사과정)    | 16<br>(1.6)      | 7<br>(2.0)     | 9<br>(1.4)     |
| 대학원(박사과정)    | 5<br>(0.5)       | 3<br>(0.8)     | 2<br>(0.3)     |

〈그림 3-4〉 최종학력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바. 월평균 가구소득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분석 결과, 300~399만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 (1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 400~499만원(11.0%), 250~299만원 (10.8%), 200~249만원(10.6%)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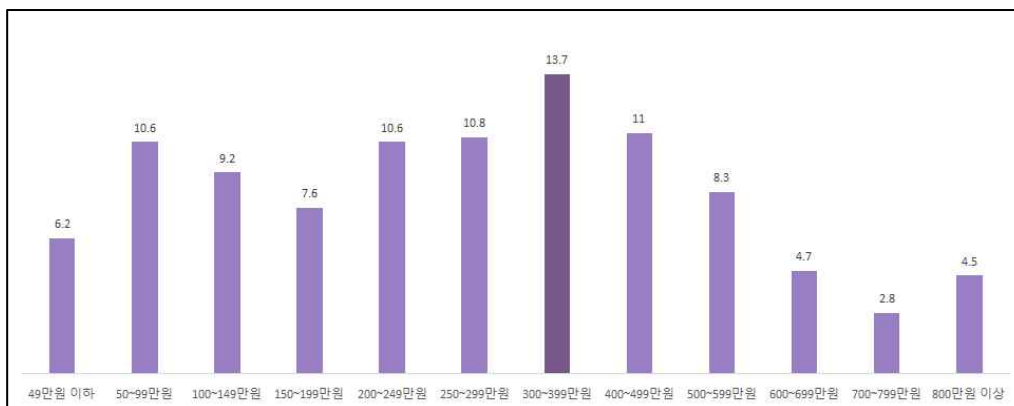
〈표 3-10〉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 구분        | N   | %      | 구분        | N   | %      |
|-----------|-----|--------|-----------|-----|--------|
| 49만원 이하   | 63  | (6.2)  | 300~399만원 | 138 | (13.7) |
| 50~99만원   | 107 | (10.6) | 400~499만원 | 111 | (11.0) |
| 100~149만원 | 93  | (9.2)  | 500~599만원 | 84  | (8.3)  |
| 150~199만원 | 77  | (7.6)  | 600~699만원 | 47  | (4.7)  |
| 200~249만원 | 107 | (10.6) | 700~799만원 | 28  | (2.8)  |
| 250~299만원 | 109 | (10.8) | 800만원 이상  | 45  | (4.5)  |

〈그림 3-5〉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 사.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본인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이 제주 사회 내에서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고 응답(62.0%)하였으며, ‘높다(18.2%)’는 인식 보다는 ‘낮다(19.8%)’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1〉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매우 낮음 | 23<br>(2.3)      | 6<br>(1.7)     | 17<br>(2.6)    |
| 낮음    | 160<br>(15.9)    | 49<br>(13.8)   | 111<br>(17.0)  |
| 보통    | 626<br>(62.0)    | 219<br>(61.5)  | 407<br>(62.3)  |
| 높음    | 180<br>(17.8)    | 68<br>(19.1)   | 112<br>(17.2)  |
| 매우 높음 | 20<br>(2.0)      | 14<br>(3.9)    | 6<br>(0.9)     |

〈그림 3-6〉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



## 아. 출생지역 및 거주기간

- 응답자의 출생지역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3%(881명)이 제주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외 지역의 출생자는 12.7%(128명)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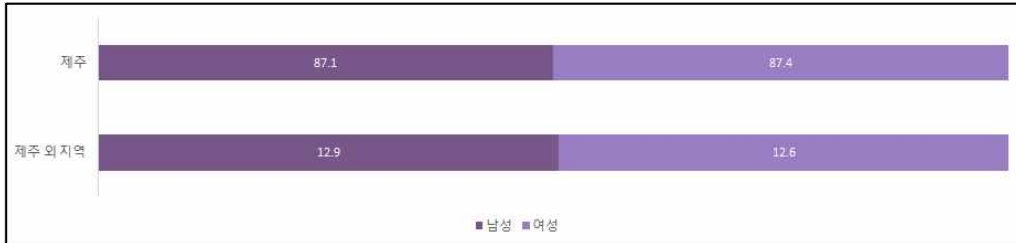
〈표 3-12〉 출생지역

(단위 : 명, %)

| 구분         |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제주         | 20-30대 | 114<br>(11.3)    | 37<br>(10.4)   | 77<br>(11.8)   |
|            | 40대    | 159<br>(15.8)    | 51<br>(14.3)   | 108<br>(16.5)  |
|            | 50대    | 251<br>(24.9)    | 98<br>(27.5)   | 153<br>(23.4)  |
|            | 60대    | 169<br>(16.7)    | 69<br>(19.4)   | 100<br>(15.3)  |
|            | 70대 이상 | 188<br>(18.6)    | 55<br>(15.4)   | 133<br>(20.4)  |
|            | 소계     | 881<br>(87.3)    | 310<br>(87.1)  | 571<br>(87.4)  |
| 제주 외<br>지역 | 20-30대 | 25<br>(2.5)      | 12<br>(3.4)    | 13<br>(2.0)    |
|            | 40대    | 22<br>(2.2)      | 6<br>(1.7)     | 16<br>(2.5)    |
|            | 50대    | 44<br>(4.4)      | 18<br>(5.1)    | 26<br>(4.0)    |
|            | 60대    | 22<br>(2.2)      | 5<br>(1.4)     | 17<br>(2.6)    |
|            | 70대 이상 | 15<br>(1.5)      | 5<br>(1.4)     | 10<br>(1.5)    |
|            | 소계     | 128<br>(12.7)    | 46<br>(12.9)   | 82<br>(12.6)   |

〈그림 3-7〉 출생지역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거주기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응답자 비중이 37.5%(15.6% + 21.9%)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16.4%)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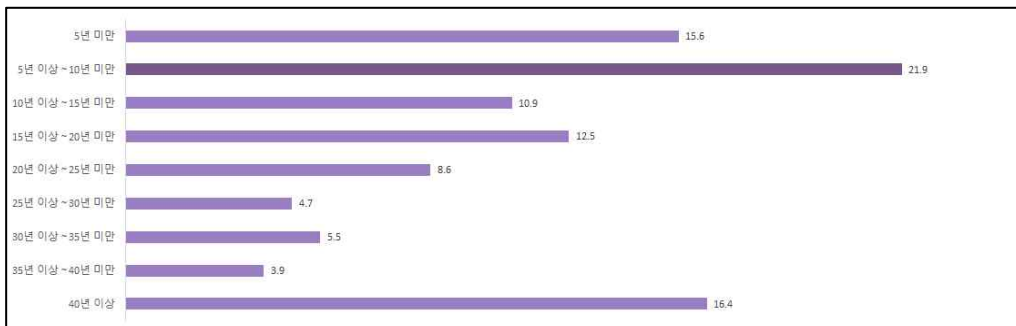
〈표 3-13〉 타지역 출생자의 거주기간

(단위 : 명, %)

| 구분              | N  | %      | 구분              | N  | %      |
|-----------------|----|--------|-----------------|----|--------|
| 5년 미만           | 20 | (15.6) | 25년 이상 ~ 30년 미만 | 6  | (4.7)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8 | (21.9) | 30년 이상 ~ 35년 미만 | 7  | (5.5)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4 | (10.9) | 35년 이상 ~ 40년 미만 | 5  | (3.9)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6 | (12.5) | 40년 이상          | 21 | (16.4)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11 | (8.6)  |                 |    |        |

〈그림 3-8〉 타지역 출생자의 거주기간

(단위 : %)



## 자. 취업 및 고용상태

### □ 취업상태별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취업상태 분석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7.3%(78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22.7%(229명)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의 경우 남성(86.5%)이 여성(7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 여성의 응답 비율(22.2%) 또한 남성(11.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3-14〉 취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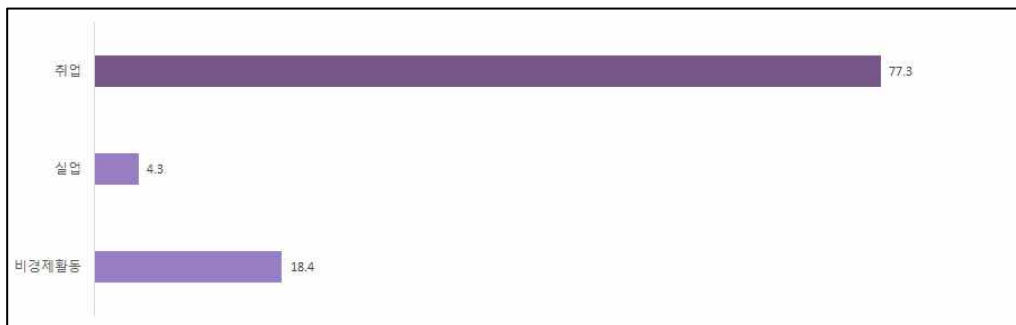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취업  |         | 780<br>(77.3)    | 308<br>(86.5)  | 472<br>(72.3)  |
| 비취업 | 실업*     | 43<br>(4.3)      | 7<br>(2.0)     | 36<br>(5.5)    |
|     | 비경제활동** | 186<br>(18.4)    | 41<br>(11.5)   | 145<br>(22.2)  |

주: 실업 (무직 또는 구직중인 응답자), 비경제활동 (현재 무직이며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그림 3-9〉 취업상태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 취업자 특성

-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고용유형 분석 결과, 상시근로자의 비중(4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31.8%), 임시 근로자(12.9%)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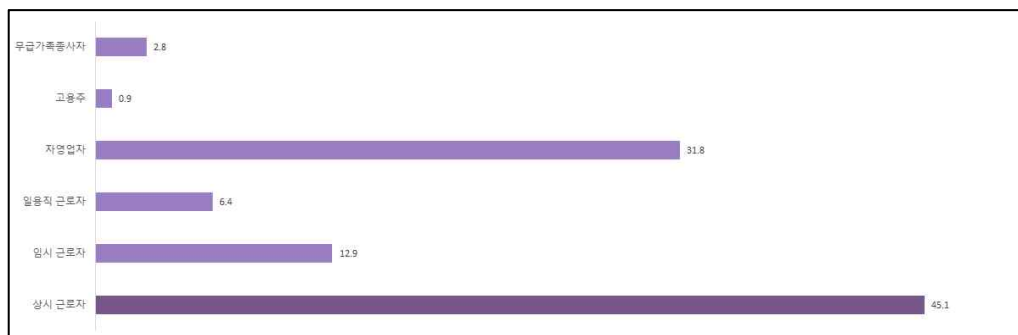
〈표 3-15〉 취업자 고용유형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780<br>(100.0) | 308<br>(100.0) | 472<br>(100.0) |
| 상시 근로자  | 352<br>(45.1)  | 144<br>(46.8)  | 208<br>(44.1)  |
| 임시 근로자  | 101<br>(12.9)  | 25<br>(8.1)    | 76<br>(16.1)   |
| 일용직 근로자 | 50<br>(6.4)    | 22<br>(7.1)    | 28<br>(5.9)    |
| 자영업자    | 248<br>(31.8)  | 113<br>(36.7)  | 135<br>(28.6)  |
| 고용주     | 7<br>(0.9)     | 2<br>(0.6)     | 5<br>(1.1)     |
| 무급가족종사자 | 22<br>(2.8)    | 2<br>(0.6)     | 20<br>(4.2)    |

〈그림 3-10〉 취업자 고용유형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직업 분석 결과, 서비스 종사자 비중 (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6%), 농·임·어업 종사자(13.2%), 사무종사자(12.0%) 순으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6〉 취업자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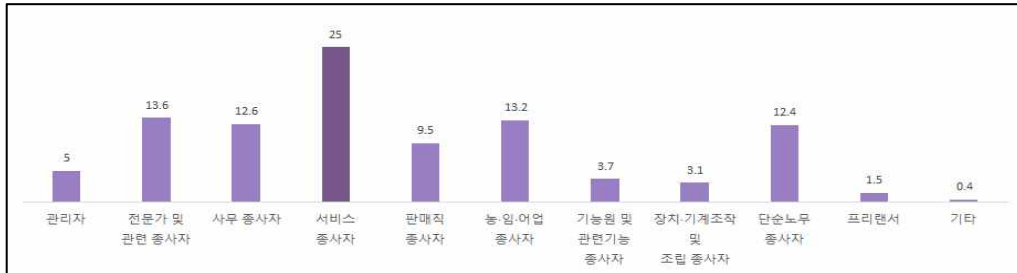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780<br>(100.0) | 308<br>(100.0) | 472<br>(100.0) |
| 관리자                 | 39<br>(5.0)    | 20<br>(6.5)    | 19<br>(4.0)    |
| 전문가 및<br>관련 종사자     | 106<br>(13.6)  | 39<br>(12.7)   | 67<br>(14.2)   |
| 사무 종사자              | 98<br>(12.6)   | 36<br>(11.7)   | 62<br>(13.1)   |
| 서비스 종사자             | 195<br>(25.0)  | 59<br>(19.2)   | 136<br>(28.8)  |
| 판매직 종사자             | 74<br>(9.5)    | 20<br>(6.5)    | 54<br>(11.4)   |
| 농·임·어업 종사자          | 103<br>(13.2)  | 50<br>(16.2)   | 53<br>(11.2)   |
| 기능원 및<br>관련기능 종사자   | 29<br>(3.7)    | 21<br>(6.8)    | 8<br>(1.7)     |
| 장치·기계조작 및<br>조립 종사자 | 24<br>(3.1)    | 22<br>(7.1)    | 2<br>(0.4)     |
| 단순노무 종사자            | 97<br>(12.4)   | 39<br>(12.7)   | 58<br>(12.3)   |
| 프리랜서                | 12<br>(1.5)    | 1<br>(0.3)     | 11<br>(2.3)    |
| 기타                  | 3<br>(0.4)     | 1<br>(0.3)     | 2<br>(0.4)     |



〈그림 3-11〉 취업자 직업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 비취업자 특성

○ 비취업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취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의 이유(67.7%), 육아 및 가사(20.1%)의 응답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무직 또는 구직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취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의 이유(48.8%), 취업준비중(20.9%), 육아 및 가사(16.3%) 순으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취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의 이유(72.0%) 및 육아 및 가사(21.0%)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인해 비취업 상태를 유지중인 응답자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7〉 비취업 사유

(단위 : 명, %)

| 구분  |             | N           | 남성           | 여성           |
|-----|-------------|-------------|--------------|--------------|
| 실업* | 육아 및 가사     | 0<br>(0.0)  | 7<br>(3.9)   | 7<br>(3.1)   |
|     | 학교재학 및 진학준비 | 0<br>(0.0)  | 1<br>(0.6)   | 1<br>(0.4)   |
|     | 취업준비중       | 0<br>(0.0)  | 9<br>(5.0)   | 9<br>(3.9)   |
|     | 건강상의 이유     | 4<br>(8.3)  | 17<br>(9.4)  | 21<br>(9.2)  |
|     | 장애          | 1<br>(2.1)  | 0<br>(0.0)   | 1<br>(0.4)   |
|     | 기타          | 2<br>(4.2)  | 2<br>(1.1)   | 4<br>(1.7)   |
|     | 소계          | 7<br>(14.6) | 36<br>(19.9) | 43<br>(18.8) |

| 구분      |             | N             | 남성             | 여성             |
|---------|-------------|---------------|----------------|----------------|
| 비경제활동** | 육아 및 가사     | 2<br>(4.2)    | 37<br>(20.4)   | 39<br>(17.0)   |
|         | 학교재학 및 진학준비 | 3<br>(6.3)    | 3<br>(1.7)     | 6<br>(2.6)     |
|         | 취업준비중       | 0<br>(0.0)    | 0<br>(0.0)     | 0<br>(0.0)     |
|         | 건강상의 이유     | 34<br>(70.8)  | 100<br>(55.2)  | 134<br>(58.5)  |
|         | 장애          | 0<br>(0.0)    | 2<br>(1.1)     | 2<br>(0.9)     |
|         | 기타          | 2<br>(4.2)    | 3<br>(1.7)     | 5<br>(2.2)     |
|         | 소계          | 41<br>(85.4)  | 145<br>(80.1)  | 186<br>(81.2)  |
| 전체      |             | 48<br>(100.0) | 181<br>(100.0) | 229<br>(100.0) |

주: 실업 (무직 또는 구직중인 응답자), 비경제활동 (현재 무직이며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그림 3-12〉 비취업 사유

(단위 : %)



## 차. 세대유형

- 전체 응답자의 세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2세대 가구의 비중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29.8%), 1세대 가구(25.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 응답자 수 분석 결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33.2%), 1인

가구(29.8%),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2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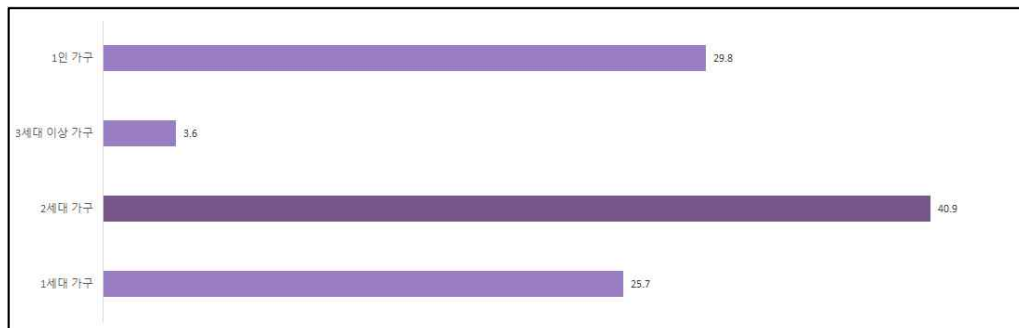
〈표 3-18〉 세대유형

(단위 : 명, %)

| 구분        |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1세대 가구    | 부부         | 237<br>(23.5)   | 108<br>(30.3)  | 129<br>(19.8)  |
|           | 부부+형제·자매   | 16<br>(1.6)     | 6<br>(1.7)     | 10<br>(1.5)    |
|           | 가구주+형제·자매  | 3<br>(0.3)      | 1<br>(0.3)     | 2<br>(0.3)     |
|           | 가구주+기타 친인척 | 2<br>(0.2)      | 0<br>(0.0)     | 2<br>(0.3)     |
|           | 기타         | 1<br>(0.1)      | 0<br>(0.0)     | 1<br>(0.2)     |
|           | 소계         | 259<br>(25.7)   | 115<br>(32.3)  | 144<br>(22.1)  |
| 2세대 가구    | 부부+자녀      | 335<br>(33.2)   | 107<br>(30.1)  | 228<br>(34.9)  |
|           | 부+자녀       | 5<br>(0.5)      | 4<br>(1.1)     | 1<br>(0.2)     |
|           | 모+자녀       | 61<br>(6.0)     | 8<br>(2.2)     | 53<br>(8.1)    |
|           | 부부+한부모     | 5<br>(0.5)      | 4<br>(1.1)     | 1<br>(0.2)     |
|           | 조부모+손자녀    | 2<br>(0.2)      | 0<br>(0.0)     | 2<br>(0.3)     |
|           | 기타         | 5<br>(0.5)      | 2<br>(0.6)     | 3<br>(0.5)     |
|           | 소계         | 413<br>(40.9)   | 125<br>(35.1)  | 288<br>(44.1)  |
| 3세대 이상 가구 | 부부+자녀+양친   | 8<br>(0.8)      | 1<br>(0.3)     | 7<br>(1.1)     |
|           | 부부+자녀+한부모  | 9<br>(0.9)      | 1<br>(0.3)     | 8<br>(1.2)     |
|           | 기타         | 19<br>(1.9)     | 9<br>(2.5)     | 10<br>(1.5)    |
|           | 소계         | 36<br>(3.6)     | 11<br>(3.1)    | 25<br>(3.8)    |
| 1인가구      |            | 301<br>(29.8)   | 105<br>(29.5)  | 196<br>(30.0)  |

〈그림 3-13〉 세대유형별 응답자 특성

(단위 : %)



## 카. 자녀 수

- 전체 응답자 가구의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자녀 수가 2명인 가구(3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23.0%), 없음(15.7%), 4명 이상(12.3%), 1명(9.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 수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응답자일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중(19.3%)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인 이상인 가구의 비중(5.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응답자의 경우 61.2%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46.8%가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19〉 자녀 수

(단위 : 명, %)

| 구분 |    | N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전체 |    | 1009    | 158    | 98     | 397    | 232    | 124    |
|    |    | (100.0) | (15.7) | (9.7)  | (39.3) | (23.0) | (12.3) |
| 성별 | 남성 | 356     | 77     | 40     | 130    | 74     | 35     |
|    |    | (100.0) | (21.6) | (11.2) | (36.5) | (20.8) | (9.8)  |
|    | 여성 | 653     | 81     | 58     | 267    | 158    | 89     |
|    |    | (100.0) | (12.4) | (8.9)  | (40.9) | (24.2) | (13.6) |

| 구분  |          | N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85<br>(61.2)  | 22<br>(15.8) | 23<br>(16.5)  | 7<br>(5.0)    | 2<br>(1.4)   |
|     | 40대      | 181<br>(100.0) | 33<br>(18.2)  | 18<br>(9.9)  | 74<br>(40.9)  | 50<br>(27.6)  | 6<br>(3.3)   |
|     | 50대      | 295<br>(100.0) | 23<br>(7.8)   | 20<br>(6.8)  | 163<br>(55.3) | 84<br>(28.5)  | 5<br>(1.7)   |
|     | 60대      | 191<br>(100.0) | 14<br>(7.3)   | 27<br>(14.1) | 93<br>(48.7)  | 41<br>(21.5)  | 16<br>(8.4)  |
|     | 70대 이상   | 203<br>(100.0) | 3<br>(1.5)    | 11<br>(5.4)  | 44<br>(21.7)  | 50<br>(24.6)  | 95<br>(46.8) |
| 거주지 | 제주시 동지역  | 571<br>(100.0) | 110<br>(19.3) | 58<br>(10.2) | 250<br>(43.8) | 124<br>(21.7) | 29<br>(5.1)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br>(100.0) | 20<br>(12.2)  | 14<br>(8.5)  | 60<br>(36.6)  | 38<br>(23.2)  | 32<br>(19.5) |
|     | 서귀포 동지역  | 153<br>(100.0) | 11<br>(7.2)   | 17<br>(11.1) | 49<br>(32.0)  | 47<br>(30.7)  | 29<br>(19.0) |
|     | 서귀포 읍면지역 | 121<br>(100.0) | 17<br>(14.0)  | 9<br>(7.4)   | 38<br>(31.4)  | 23<br>(19.0)  | 34<br>(28.1) |

〈그림 3-14〉 자녀 수 (성별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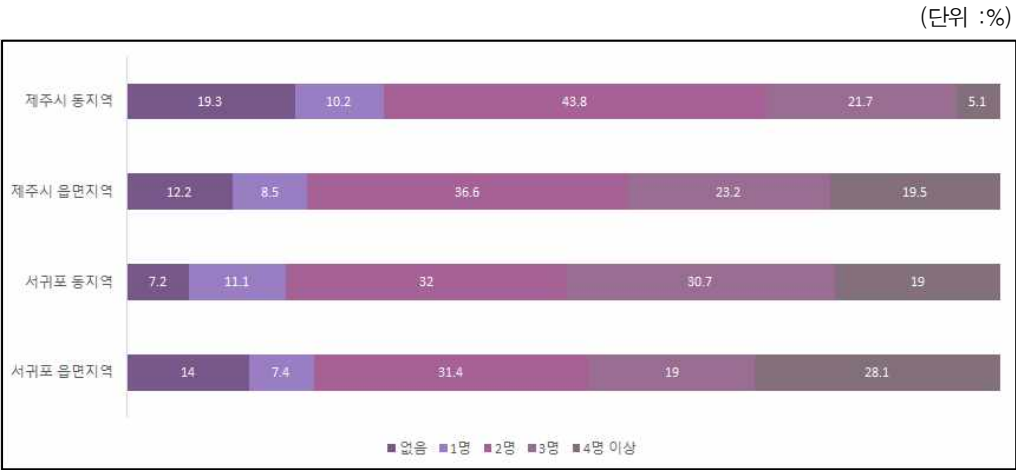


〈그림 3-15〉 자녀 수 (연령별)

(단위 :%)



〈그림 3-16〉 자녀 수 (거주지별)



타. 가구특성

○ 가구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다문화 가정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명(0.8%), 장애 가족원이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6명(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0〉 가구특성

(단위 : 명, %)

| 구분            | N               | 남성             | 여성             |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 다문화 가구        | 8<br>(0.8)      | 4<br>(1.1)     | 4<br>(0.6)     |
| 장애 가족원이 있는 가구 | 36<br>(3.6)     | 13<br>(3.7)    | 23<br>(3.5)    |
| 해당없음          | 965<br>(95.6)   | 339<br>(95.2)  | 626<br>(95.9)  |

## 파. 소결

-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읍·면·동별 가구 수 데이터(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의 응답자 비중(56.1%)이 높게 나타남
  - 2020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제주시 동 지역 거주 가구 수는 151,784호로서, 전체 가구(270,435호)의 5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설정함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 표본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남성들은 스스로를 “가구주” 라고 인식 (352명, 98.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아니라는 응답은 4건(1.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응답자 중 가구주의 배우자라고 응답한 남성의 수(4명)는 가구주라고 응답한 남성의 수(352명)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응답률(2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0~30대의 응답률(13.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자 한정, 1인 가구 표본 비례할 당에 따른 고령의 여성 1인 가구 응답자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혼인상태별로는 결혼(동거 및 사실혼 포함) 응답자 비율이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별 가구의 경우 여성 비율(22.2%)이 남성(3.9%)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비취업 상태인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67.7%) 또는 육아 및 가사(20.1%)등의 사유에 의해 현재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취업 상태인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29명 중 139명(60.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육아 및 가사를 목적으로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6명으로서, 이중 44명(95.7%)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3. 가족에 대한 인식

#### 가. 가족의 정의 및 구성

-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의 개념을 ‘결혼 등을 통해 형성된 법적 관계’,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 ‘출생을 통해 맺어지는 혈연관계’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3.88점)’,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3.65점)’,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다(3.62점)’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2.76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가족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타인(다른 가족 구성원, 지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21〉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다.                                   | 1,009<br>(100.0) | 44<br>(4.4)   | 108<br>(10.7) | 180<br>(17.8) | 533<br>(52.8) | 144<br>(14.3) | 3.62     |
|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 1,009<br>(100.0) | 12<br>(1.2)   | 61<br>(6.0)   | 154<br>(15.3) | 591<br>(58.6) | 191<br>(18.9) | 3.88     |
|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br>관계이다.                         | 1,009<br>(100.0) | 15<br>(1.5)   | 78<br>(7.7)   | 269<br>(26.7) | 530<br>(52.5) | 117<br>(11.6) | 3.65     |
|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함께<br>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할<br>수 있다. | 1,009<br>(100.0) | 58<br>(5.7)   | 274<br>(27.2) | 431<br>(42.7) | 198<br>(19.6) | 48<br>(4.8)   | 2.90     |
|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br>관계이다.                       | 1,009<br>(100.0) | 134<br>(13.3) | 286<br>(28.3) | 322<br>(31.9) | 225<br>(22.3) | 42<br>(4.2)   | 2.76     |

주1: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17〉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족이 ‘출생을 통해 맺어지는 혈연관계’ 또는 ‘결혼 등을 통해 형성된 법적 관계’라는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가족이 혈연으로 구성된 관계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60대(3.82점) 및 70대 이상(3.86점)에 비해 20-30대 응답자의 평균 점수(3.40점)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이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60대(3.99점) 및 70대 이상(4.01점)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30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3.84점)를 나타내고 있음
- 아와 대조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과 관련하여, 20-30대의 평균 점수가 60대 이상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20-30대의 평균점수(2.96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가정을 구성하는데 개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22〉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점)

| 구분  |          | N   | 1. 혈연으로<br>연결되어야 가족 | 2. 가족은 법적으로<br>연결된 관계 | 3. 가족은<br>경제적으로 생계를<br>함께하는 관계 | 4. 혈연이<br>아니더라도 함께<br>생활을 공유하면<br>가족 | 5. 가족은 내가<br>선택하고 구성할 수<br>있는 관계 |
|-----|----------|-----|---------------------|-----------------------|--------------------------------|--------------------------------------|----------------------------------|
| 성별  | 남성       | 356 | 3.68                | 3.92                  | 3.61                           | 2.84                                 | 2.87                             |
|     | 여성       | 653 | 3.59                | 3.86                  | 3.67                           | 2.94                                 | 2.70                             |
|     | t        |     | 1.418               | 1.016                 | -1.056                         | -1.633                               | 2.371*                           |
| 연령  | 20-30대   | 139 | 3.40                | 3.84                  | 3.55                           | 2.96                                 | 2.96                             |
|     | 40대      | 181 | 3.56                | 3.83                  | 3.66                           | 2.93                                 | 2.80                             |
|     | 50대      | 295 | 3.46                | 3.77                  | 3.65                           | 2.97                                 | 2.87                             |
|     | 60대      | 191 | 3.82                | 3.99                  | 3.71                           | 2.86                                 | 2.74                             |
|     | 70대 이상   | 203 | 3.86                | 4.01                  | 3.65                           | 2.79                                 | 2.43                             |
|     | F        |     | 8.920***            | 3.779**               | 0.728                          | 1.334                                | 6.907***                         |
| 거주지 | 제주시 동지역  | 571 | 3.59                | 3.86                  | 3.71                           | 2.91                                 | 2.89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 | 3.64                | 3.87                  | 3.26                           | 2.63                                 | 2.45                             |
|     | 서귀포 동지역  | 153 | 3.99                | 4.00                  | 3.76                           | 3.16                                 | 3.01                             |
|     | 서귀포 읍면지역 | 121 | 3.27                | 3.85                  | 3.74                           | 2.95                                 | 2.21                             |
|     | F        |     | 12.662***           | 1.297                 | 14.645***                      | 8.735***                             | 22.462***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구분   |           | N   | 1. 혈연으로<br>연결되어야 가족 | 2. 가족은 법적으로<br>연결된 관계 | 3. 가족은<br>경제적으로 생계를<br>함께하는 관계 | 4. 혈연이<br>아니더라도 함께<br>거주하며 생활을<br>공유하면 가족 | 5. 가족은 내가<br>선택하고 구성할 수<br>있는 관계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 | 3.62                | 3.92                  | 3.71                           | 2.93                                      | 2.78                             |
|      | 미혼        | 114 | 3.50                | 3.75                  | 3.46                           | 3.09                                      | 2.82                             |
|      | 이혼        | 94  | 3.50                | 3.70                  | 3.46                           | 2.83                                      | 2.80                             |
|      | 사별        | 159 | 3.77                | 3.94                  | 3.65                           | 2.75                                      | 2.57                             |
|      | 별거        | 18  | 3.67                | 3.89                  | 3.78                           | 2.72                                      | 3.00                             |
|      | F         |     | 1.705               | 2.373                 | 3.562**                        | 2.519*                                    | 1.631                            |
| 세대유형 | 1세대 가구    | 259 | 3.71                | 3.98                  | 3.69                           | 2.86                                      | 2.61                             |
|      | 2세대가구     | 413 | 3.57                | 3.86                  | 3.69                           | 2.98                                      | 2.89                             |
|      | 3세대 이상 가구 | 36  | 3.61                | 3.97                  | 3.67                           | 2.82                                      | 2.64                             |
|      | 1인 가구     | 301 | 3.62                | 3.80                  | 3.56                           | 2.84                                      | 2.71                             |
|      | F         |     | 1.057               | 2.383                 | 1.770                          | 1.552                                     | 4.296**                          |

주1 : \* p<.05, \*\* p<.01, \*\*\* p<.001

주2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 가족의 정의와 관련된 제주도민의 인식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기준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2점으로서, 2014년 조사(3.40점)에 비해 0.22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성별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정의에 있어 혈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 또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기준, 남성이 생각하는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8점으로서, 2014년(3.44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폭(0.24점) 또한 여성(0.23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변화: 혈연 (2014~2022년)

(단위 : 명, 점)

| 구분    |      | 2014  |      | 2022  |      | 2022-2014 |
|-------|------|-------|------|-------|------|-----------|
|       |      | N     | 평균점수 | N     | 평균점수 | 평균점수      |
| 전체    |      | 3,000 | 3.40 | 1,009 | 3.62 | 0.22      |
| 성별    | 남성   | 1,503 | 3.44 | 356   | 3.68 | 0.24      |
|       | 여성   | 1,497 | 3.36 | 653   | 3.59 | 0.23      |
| 거주 지역 | 동 지역 | 2,170 | 3.44 | 724   | 3.67 | 0.23      |
|       | 읍면지역 | 830   | 3.30 | 285   | 3.48 | 0.18      |

주1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주2 : 2014년 데이터의 평균 값은 해당 문항이 4점 척도로 측정됨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음

- 전국과 제주지역의 가족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의 경우 혈연 관계(4.38점), 법적 관계(4.22점), 경제적 공유 관계(3.86점) 순으로 가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법적 관계(3.88점), 경제적 공유 관계(3.65점), 혈연 관계(3.62점) 순으로 가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비교 (전국-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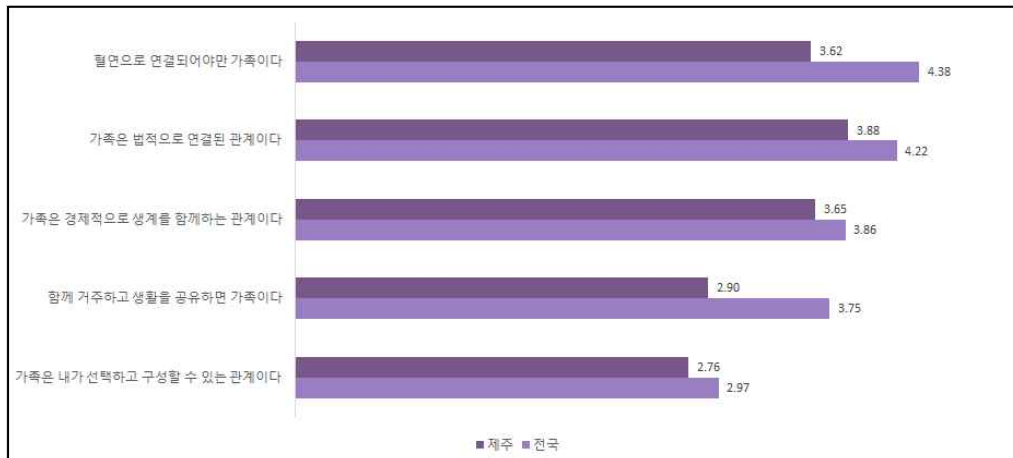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    | 2020 전국<br>(N: 10,997) | 2022 제주<br>(N: 1,009) |
|---------------------------|----|------------------------|-----------------------|
|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다          | 전체 | 4.38                   | 3.62                  |
|                           | 남성 | 4.40                   | 3.68                  |
|                           | 여성 | 4.35                   | 3.59                  |
|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 전체 | 4.22                   | 3.88                  |
|                           | 남성 | 4.22                   | 3.92                  |
|                           | 여성 | 4.22                   | 3.86                  |
|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 전체 | 3.86                   | 3.65                  |
|                           | 남성 | 3.87                   | 3.61                  |
|                           | 여성 | 3.85                   | 3.67                  |
|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다     | 전체 | 3.75                   | 2.90                  |
|                           | 남성 | 3.75                   | 2.84                  |
|                           | 여성 | 3.75                   | 2.94                  |
|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 전체 | 2.97                   | 2.76                  |
|                           | 남성 | 3.00                   | 2.87                  |
|                           | 여성 | 2.94                   | 2.70                  |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18〉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 나.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가족 형성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결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반면,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3.08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3.18점)’라는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2.84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출생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한 부모 입양, 동거 중 출생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2.75점)’, ‘동거 상태로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 괜찮다(2.65점)’ 등의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5〉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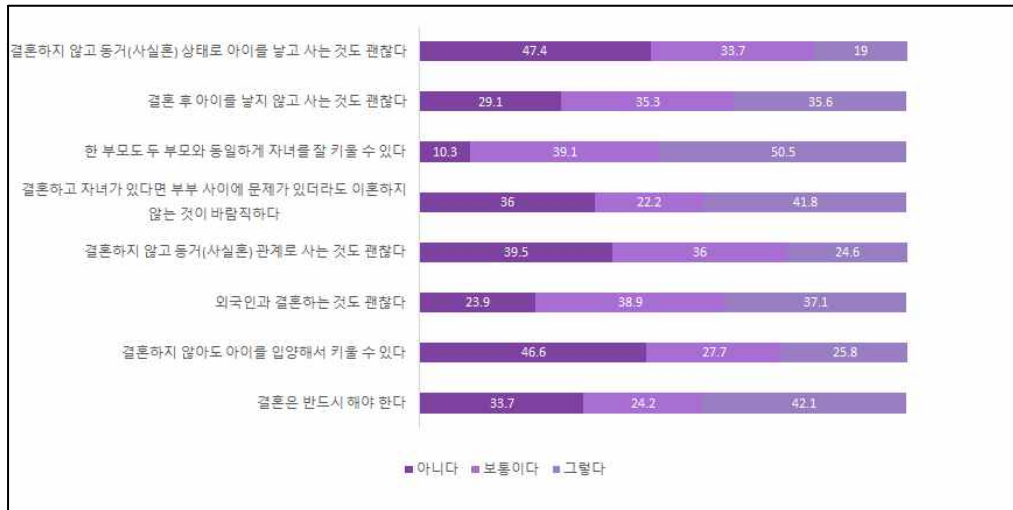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1,009<br>(100.0) | 107<br>(10.6) | 233<br>(23.1) | 244<br>(24.2) | 320<br>(31.7) | 105<br>(10.4) | 3.08     |
|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br>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                        | 1,009<br>(100.0) | 93<br>(9.2)   | 377<br>(37.4) | 279<br>(27.7) | 214<br>(21.2) | 46<br>(4.6)   | 2.75     |
|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 1,009<br>(100.0) | 25<br>(2.5)   | 216<br>(21.4) | 393<br>(38.9) | 304<br>(30.1) | 71<br>(7.0)   | 3.18     |
| 결혼하지 않고 동거(사실혼) 관계로<br>사는 것도 괜찮다                    | 1,009<br>(100.0) | 52<br>(5.2)   | 346<br>(34.3) | 363<br>(36.0) | 210<br>(20.8) | 38<br>(3.8)   | 2.84     |
|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br>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br>이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09<br>(100.0) | 119<br>(11.8) | 244<br>(24.2) | 224<br>(22.2) | 352<br>(34.9) | 70<br>(6.9)   | 3.01     |
| 한 부모도 두 부모와 동일하게<br>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1,009<br>(100.0) | 8<br>(0.8)    | 96<br>(9.5)   | 395<br>(39.1) | 418<br>(41.4) | 92<br>(9.1)   | 3.49     |
|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br>것도 괜찮다                         | 1,009<br>(100.0) | 43<br>(4.3)   | 250<br>(24.8) | 356<br>(35.3) | 292<br>(28.9) | 68<br>(6.7)   | 3.09     |
| 결혼하지 않고 동거(사실혼)<br>상태로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br>괜찮다          | 1,009<br>(100.0) | 95<br>(9.4)   | 383<br>(38.0) | 340<br>(33.7) | 160<br>(15.9) | 31<br>(3.1)   | 2.65     |

주: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19〉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 및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긍정적인 의견(3.32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성은 부정적인 의견(2.95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3.13점)이 남성(3.02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결혼의 필요성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드시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20-30대는 2.42점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70대 이상은 긍정적인 의견(4.01점)을 보이고 있음
- 동거, 동거 중 출생, 한 부모 입양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점)

| 구분  |          | N   | 1. 결혼은<br>반드시 해야<br>한다 | 2. 결혼하지<br>않아도<br>아이를<br>입양해서<br>키울 수<br>있다 | 3. 외국인과<br>결혼하는<br>것도 괜찮다 | 4. 결혼하지<br>않고 동거<br>관계로 사는<br>것도 괜찮다 | 5. 결혼하고<br>자녀가<br>있다면<br>이혼하지<br>않는 것이<br>바람직하다 | 6. 한 부모도<br>두 부모와<br>동일하게<br>자녀를 잘<br>키울 수<br>있다 | 7. 결혼 후<br>아이를 낳지<br>않고 사는<br>것도 괜찮다 | 8. 동거<br>상태로<br>아이를 낳고<br>사는 것도<br>괜찮다 |
|-----|----------|-----|------------------------|---|---------------------------|--------------------------------------|---|--|--------------------------------------|--|
| 성별  | 남성       | 356 | 3.32                   | 2.66  | 3.16                      | 2.85                                 | 3.08  | 3.37   | 3.02                                 | 2.70                                   |
|     | 여성       | 653 | 2.95                   | 2.79  | 3.19                      | 2.83                                 | 2.97  | 3.55   | 3.13                                 | 2.63                                   |
|     | t        |     | 4.739***               | -1.931                                      | -0.532                    | 0.201                                | 1.450   | -3.305**   | -1.705                               | 1.159                                  |
| 연령  | 20-30대   | 139 | 2.42                   | 2.95  | 3.37                      | 2.91                                 | 2.37  | 3.44   | 3.47                                 | 2.69                                   |
|     | 40대      | 181 | 2.64                   | 2.97  | 3.43                      | 3.09                                 | 2.71  | 3.64   | 3.28                                 | 2.75                                   |
|     | 50대      | 295 | 2.82                   | 2.77  | 3.16                      | 2.78                                 | 2.89  | 3.39   | 3.07                                 | 2.54                                   |
|     | 60대      | 191 | 3.41                   | 2.67  | 3.07                      | 2.71                                 | 3.27  | 3.51   | 2.97                                 | 2.69                                   |
|     | 70대 이상   | 203 | 4.01                   | 2.44  | 2.96                      | 2.76                                 | 3.65  | 3.49   | 2.81                                 | 2.67                                   |
|     | F        |     | 72.615***              | 8.357***                                    | 8.763***                  | 5.087***                             | 36.633***                                       | 2.752*   | 12.230***                            | 1.652                                  |
| 거주지 | 제주시 동지역  | 571 | 2.87                   | 2.72  | 3.04                      | 2.68                                 | 2.97  | 3.44   | 3.11                                 | 2.49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 | 2.84                   | 2.82  | 3.52                      | 3.19                                 | 2.40  | 3.40   | 3.30                                 | 3.19                                   |
|     | 서귀포 동지역  | 153 | 3.76                   | 2.90  | 3.46                      | 2.96                                 | 3.40  | 3.90   | 2.95                                 | 2.61                                   |
|     | 서귀포 읍면지역 | 121 | 3.57                   | 2.55  | 3.00                      | 2.93                                 | 3.51  | 3.30   | 2.92                                 | 2.74                                   |
|     | F        |     | 35.830***              | 2.973*                                      | 19.028***                 | 14.683***                            | 31.130***                                       | 17.367***  | 4.762**                              | 24.501***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구분   |           | N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2.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 | 3.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 4.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 | 5.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한 부모도 두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7.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 8. 동거 상태로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 괜찮다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 | 3.13             | 2.79                         | 3.25                | 2.88                        | 3.07                             | 3.47                              | 3.06                        | 2.66                       |
|      | 미혼        | 114 | 2.25             | 2.95                         | 3.23                | 2.88                        | 2.46                             | 3.41                              | 3.39                        | 2.61                       |
|      | 이혼        | 94  | 2.74             | 2.68                         | 3.01                | 2.77                        | 2.53                             | 3.53                              | 3.24                        | 2.60                       |
|      | 사별        | 159 | 3.72             | 2.47                         | 3.00                | 2.68                        | 3.48                             | 3.60                              | 2.87                        | 2.70                       |
|      | 별거        | 18  | 2.78             | 2.56                         | 2.78                | 2.83                        | 2.83                             | 3.39                              | 3.28                        | 2.61                       |
|      | F         |     | 31.911***        | 4.653***                     | 4.162**             | 1.661                       | 18.935***                        | 1.195                             | 5.602***                    | 0.280                      |
| 세대유형 | 1세대 가구    | 259 | 3.44             | 2.69                         | 3.11                | 2.88                        | 3.20                             | 3.37                              | 3.00                        | 2.71                       |
|      | 2세대가구     | 413 | 2.90             | 2.82                         | 3.30                | 2.86                        | 2.94                             | 3.54                              | 3.14                        | 2.63                       |
|      | 3세대 이상 가구 | 36  | 3.00             | 2.97                         | 3.44                | 3.03                        | 2.89                             | 3.72                              | 3.17                        | 2.53                       |
|      | 1인 가구     | 301 | 3.04             | 2.66                         | 3.04                | 2.75                        | 2.95                             | 3.47                              | 3.09                        | 2.64                       |
|      | F         |     | 11.819***        | 2.316                        | 6.007***            | 1.690                       | 3.334*                           | 3.362*                            | 1.156                       | 0.648                      |

주1 : \* p<.05, \*\* p<.01, \*\*\* p<.001

주2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 가족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된 제주도민의 인식 변화 분석 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동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가 감소(-0.64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거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항목의 경우 평균점수가 소폭 증가(+0.08점)하였음
- 결혼 및 이혼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거 중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됨
- 동거 중 출산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2022년 기준 2.65점으로 2014년(2.51점)에 비해 0.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2014년 3.56점에서 2022년 3.01점으로 0.55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7〉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2014~2022년)

(단위 : 점)

| 구분   |    | 2014<br>(N: 3,000) | 2022<br>(N: 1,009) | 2022-2014 |
|--|----|--------------------|--------------------|-----------|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전체 | 3.54               | 3.08               | -0.64     |
|  | 남성 | 3.65               | 3.32               | -0.33     |
|  | 여성 | 3.41               | 2.95               | -0.46     |
| 결혼하지 않고 동거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                    | 전체 | 2.76               | 2.84               | 0.08      |
|  | 남성 | 2.83               | 2.85               | 0.02      |
|  | 여성 | 2.70               | 2.83               | 0.13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 괜찮다                   | 전체 | 2.51               | 2.65               | 0.14      |
|  | 남성 | 2.60               | 2.70               | 0.10      |
|  | 여성 | 2.44               | 2.63               | 0.19      |
|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전체 | 3.56               | 3.01               | -0.55     |
|  | 남성 | 3.66               | 3.08               | -0.58     |
|  | 여성 | 3.45               | 2.97               | -0.48     |

주1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주2 : 2014년 데이터의 평균 값은 해당 문항이 4점 척도로 측정됨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음

○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전국과 제주지역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동거 및 동거 중 출산, 무자녀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거, 동거 중 출산과 관련하여 전국 평균은 각각 2.68점, 2.27점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각각 2.84점, 2.65점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덩크족(Double Income, No Kids)에 대한 인식 또한 제주지역(3.09점)이 전국(2.74점)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3-28〉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전국-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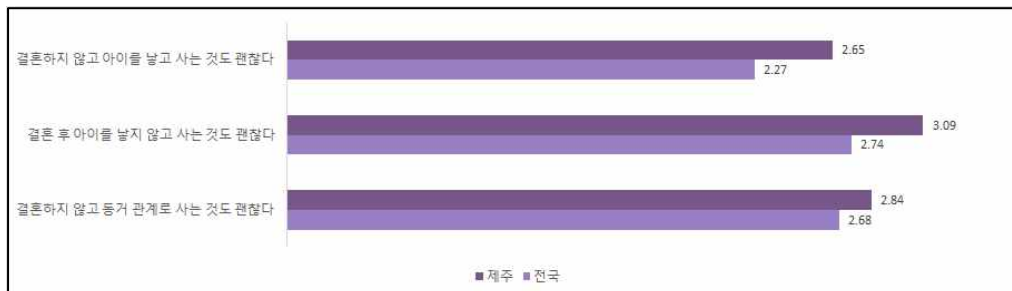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    | 2020 전국<br>(N: 10,997) | 2022 제주<br>(N: 1,009) |
|--------------------------|----|------------------------|-----------------------|
|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 | 전체 | 2.68                   | 2.84                  |
|                          | 남성 | 2.73                   | 2.85                  |
|                          | 여성 | 2.64                   | 2.83                  |
|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 전체 | 2.74                   | 3.09                  |
|                          | 남성 | 2.66                   | 3.02                  |
|                          | 여성 | 2.82                   | 3.13                  |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 괜찮다 | 전체 | 2.27                   | 2.65                  |
|                          | 남성 | 2.30                   | 2.70                  |
|                          | 여성 | 2.23                   | 2.63                  |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20〉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비교 (전국-제주)

(단위 : %)



## 다. 자녀 및 부모 돌봄

### □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의무이자 기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4.05점)’,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3.45점)’ 등 부모로서의 자녀 부양 책임과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부모의 자녀돌봄’에 대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자녀의 부모돌봄’에 대한 문항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의 부모돌봄’과 관련된 문항(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같이 살며 보살펴야 한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부모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문항(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이다,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9〉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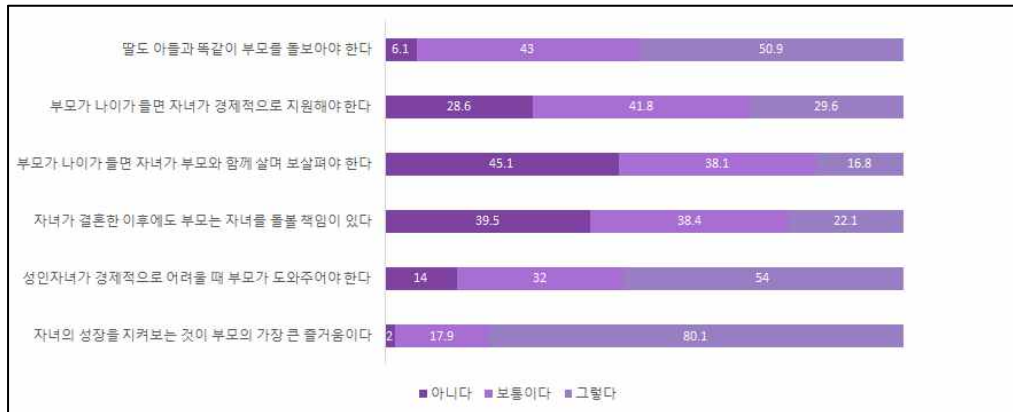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br>가장 큰 즐거움이다   | 1,009<br>(100.0) | 3<br>(0.3)  | 17<br>(1.7)   | 181<br>(17.9) | 532<br>(52.7) | 276<br>(27.4) | 4.05     |
|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br>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 1,009<br>(100.0) | 37<br>(3.7) | 104<br>(10.3) | 323<br>(32.0) | 462<br>(45.8) | 83<br>(8.2)   | 3.45     |
|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br>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1,009<br>(100.0) | 85<br>(8.4) | 314<br>(31.1) | 387<br>(38.4) | 173<br>(17.1) | 50<br>(5.0)   | 2.79     |
|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br>살며 보살펴야 한다 | 1,009<br>(100.0) | 57<br>(5.6) | 399<br>(39.5) | 384<br>(38.1) | 127<br>(12.6) | 42<br>(4.2)   | 2.70     |
|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br>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1,009<br>(100.0) | 20<br>(2.0) | 268<br>(26.6) | 422<br>(41.8) | 233<br>(23.1) | 66<br>(6.5)   | 3.06     |
|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모를<br>돌보아야 한다           | 1,009<br>(100.0) | 9<br>(0.9)  | 52<br>(5.2)   | 434<br>(43.0) | 396<br>(39.2) | 118<br>(11.7) | 3.56     |

주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21〉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



- ‘자녀에 대한 애착’을 묻는 질문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돌봄 책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남성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4.10점)이 남성(3.96점)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 및 부모 돌봄 책임과 관련된 4개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자녀 및 부모 돌봄 책임 인식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 돌봄의 책임은 낮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자녀에 대한 애착은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혼을 경험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 또한 기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기혼자(동거 포함)의 평균 응답 점수는 4.14점에 이르는 반면, 미혼자(3.56점) 및 이혼자(3.84점)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측정되었음

〈표 3-3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점)

| 구분  |          | N   |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 2.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 3.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4.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 5.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6.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
|-----|----------|-----|-----------------------------------|-----------------------------------|-----------------------------------|-------------------------------------|---------------------------------|---------------------------|
| 성별  | 남성       | 356 | 3.96                              | 3.47                              | 2.83                              | 2.74                                | 3.12                            | 3.51                      |
|     | 여성       | 653 | 4.10                              | 3.43                              | 2.77                              | 2.68                                | 3.02                            | 3.58                      |
|     | t        |     | -2.897**                          | 0.736                             | 1.031                             | 0.983                               | 1.507                           | -1.509                    |
| 연령  | 20-30대   | 139 | 3.78                              | 3.31                              | 2.73                              | 2.79                                | 3.16                            | 3.63                      |
|     | 40대      | 181 | 4.06                              | 3.42                              | 2.70                              | 2.69                                | 3.09                            | 3.71                      |
|     | 50대      | 295 | 3.99                              | 3.43                              | 2.73                              | 2.59                                | 2.93                            | 3.57                      |
|     | 60대      | 191 | 4.12                              | 3.51                              | 2.84                              | 2.75                                | 3.08                            | 3.58                      |
|     | 70대 이상   | 203 | 4.26                              | 3.53                              | 2.95                              | 2.76                                | 3.12                            | 3.33                      |
|     | F        |     | 9.714***                          | 1.499                             | 2.251                             | 1.768                               | 2.235                           | 6.508***                  |
| 거주지 | 제주시 동지역  | 571 | 4.08                              | 3.54                              | 2.85                              | 2.63                                | 2.97                            | 3.66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 | 3.63                              | 2.54                              | 2.12                              | 2.52                                | 3.20                            | 3.40                      |
|     | 서귀포 동지역  | 153 | 4.31                              | 3.81                              | 3.26                              | 3.26                                | 3.30                            | 3.51                      |
|     | 서귀포 읍면지역 | 121 | 4.17                              | 3.79                              | 2.82                              | 2.59                                | 2.95                            | 3.34                      |
|     | F        |     | 27.475***                         | 87.570***                         | 41.969***                         | 25.129***                           | 7.131***                        | 8.606***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구분   |           | N   |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 2.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 3.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4.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 5.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6.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 | 4.14                              | 3.51                              | 2.75                              | 2.65                                | 3.00                            | 3.59                      |
|      | 미혼        | 114 | 3.56                              | 3.24                              | 2.73                              | 2.94                                | 3.32                            | 3.61                      |
|      | 이혼        | 94  | 3.84                              | 3.16                              | 2.74                              | 2.59                                | 3.00                            | 3.54                      |
|      | 사별        | 159 | 4.19                              | 3.50                              | 2.99                              | 2.82                                | 3.18                            | 3.45                      |
|      | 별거        | 18  | 3.89                              | 3.67                              | 2.94                              | 2.56                                | 2.67                            | 3.22                      |
|      | F         |     | 19.830***                         | 4.957**                           | 2.190                             | 3.759*                              | 4.691**                         | 1.907                     |
| 세대유형 | 1세대 가구    | 259 | 4.04                              | 3.43                              | 2.73                              | 2.78                                | 3.11                            | 3.47                      |
|      | 2세대가구     | 413 | 4.15                              | 3.51                              | 2.77                              | 2.58                                | 2.96                            | 3.62                      |
|      | 3세대 이상 가구 | 36  | 4.03                              | 3.58                              | 3.00                              | 2.89                                | 3.03                            | 3.75                      |
|      | 1인 가구     | 301 | 3.92                              | 3.35                              | 2.84                              | 2.77                                | 3.15                            | 3.53                      |
|      | F         |     | 5.838**                           | 2.106                             | 1.131                             | 4.092**                             | 2.915*                          | 2.725*                    |

주1 : \* p<.05, \*\* p<.01, \*\*\* p<.001

주2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 자녀 및 부모 돌봄과 관련된 제주도민의 인식 변화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상호 돌봄 의식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모의 성인 자녀 돌봄(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문항의 경우 평균점수가 2014년 3.50점에서 2022년 남성 3.45점으로 0.05점 감소하였음
  - 자녀의 부모 돌봄(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문항의 경우 평균점수가 2014년 3.46점에서 2022년 2.70점으로 0.76점 감소하였음

〈표 3-31〉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2014~2022년)

(단위 : 점)

| 구분                                 |    | 2014<br>(N: 3,000) | 2022<br>(N: 1,009) | 2022-2014 |
|------------------------------------|----|--------------------|--------------------|-----------|
|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br>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 전체 | 3.50               | 3.45               | -0.05     |
|                                    | 남성 | 3.51               | 3.47               | -0.04     |
|                                    | 여성 | 3.50               | 3.43               | -0.07     |
|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함께 살며<br>보살펴야 한다    | 전체 | 3.46               | 2.70               | -0.76     |
|                                    | 남성 | 3.50               | 2.74               | -0.76     |
|                                    | 여성 | 3.41               | 2.68               | -0.73     |

주1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주2 : 2014년 데이터의 평균 값은 해당 문항이 4점 척도로 측정됨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음

- 자녀 돌봄에 대한 전국과 제주지역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부모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문항(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평균 점수는 각각 4.05점,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3.76점, 2.27점) 대비 높은 수준임
- 반면, 자녀의 부모 돌봄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녀의 부모 돌봄과 관련된 문항(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평균 점수는 각각 2.70점, 3.0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2.78점, 3.13점) 대비 낮은 수준임

〈표 3-32〉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전국-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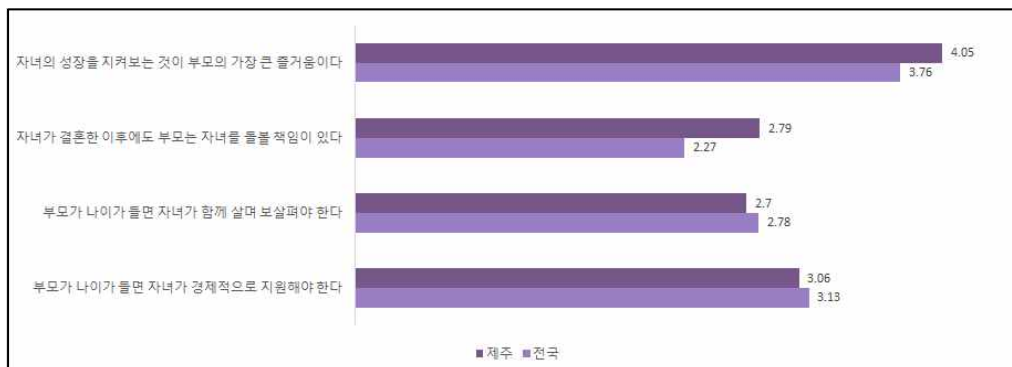
(단위 : 점)

| 구분                             |    | 2020 전국<br>(N: 10,997) | 2022 제주<br>(N: 1,009) |
|--------------------------------|----|------------------------|-----------------------|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 전체 | 3.76                   | 4.05                  |
|                                | 남성 | 3.75                   | 3.96                  |
|                                | 여성 | 3.77                   | 4.10                  |
|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전체 | 2.27                   | 2.79                  |
|                                | 남성 | 2.30                   | 2.83                  |
|                                | 여성 | 2.24                   | 2.77                  |
|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 전체 | 2.78                   | 2.70                  |
|                                | 남성 | 2.95                   | 2.74                  |
|                                | 여성 | 2.61                   | 2.68                  |
|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전체 | 3.13                   | 3.06                  |
|                                | 남성 | 3.25                   | 3.12                  |
|                                | 여성 | 3.01                   | 3.02                  |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22〉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전국-제주)

(단위 : %)



## □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도민들은 자녀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 때까지(32.7%) 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32.4%)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139<br>(100.0) | 181<br>(100.0) | 295<br>(100.0) | 191<br>(100.0) | 203<br>(100.0) |
| 성인이 될 때 까지    | 187<br>(18.5)    | 76<br>(21.3)   | 111<br>(17.0)  | 27<br>(19.4)   | 41<br>(22.7)   | 53<br>(18.0)   | 32<br>(16.8)   | 34<br>(16.7)   |
| 대학교 졸업 전까지    | 327<br>(32.4)    | 102<br>(28.7)  | 225<br>(34.5)  | 48<br>(34.5)   | 75<br>(41.4)   | 93<br>(31.5)   | 56<br>(29.3)   | 55<br>(27.1)   |
| 대학원 졸업 전까지    | 12<br>(1.2)      | 4<br>(1.1)     | 8<br>(1.2)     | 2<br>(1.4)     | 2<br>(1.1)     | 3<br>(1.0)     | 3<br>(1.6)     | 2<br>(1.0)     |
| 취업 전까지        | 330<br>(32.7)    | 121<br>(34.0)  | 209<br>(32.0)  | 48<br>(34.5)   | 47<br>(26.0)   | 108<br>(36.6)  | 60<br>(31.4)   | 67<br>(33.0)   |
| 결혼 전까지        | 62<br>(6.1)      | 19<br>(5.3)    | 43<br>(6.6)    | 3<br>(2.2)     | 7<br>(3.9)     | 21<br>(7.1)    | 13<br>(6.8)    | 18<br>(8.9)    |
| 결혼 후에도 필요할 경우 | 89<br>(8.8)      | 32<br>(9.0)    | 57<br>(8.7)    | 11<br>(7.9)    | 9<br>(5.0)     | 16<br>(5.4)    | 27<br>(14.1)   | 26<br>(12.8)   |
| 기타            | 2<br>(0.2)       | 2<br>(0.6)     | 0<br>(0.0)     | 0<br>(0.0)     | 0<br>(0.0)     | 1<br>(0.3)     | 0<br>(0.0)     | 1<br>(0.5)     |
| 차이 (t, F)     |                  | -0.037         |                | 5.964***       |                |                |                |                |

주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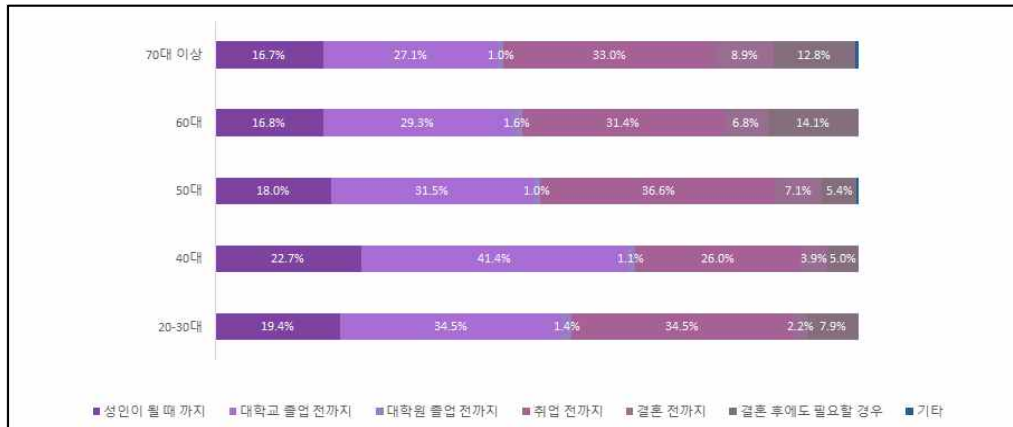
〈그림 3-2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성별별)

(단위 : %)



〈그림 3-24〉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 (연령별)

(단위 :%)



## □ 부모 부양의 책임

-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혹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모든 자녀들이 함께(46.6%)’, ‘아들, 딸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람(40.3%)’이라는 답변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장남 또는 아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8.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특성별 부모 돌봄 책임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아들의 존도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장남 또는 아들에게 부모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7.0% (2.3%+4.7%) 수준인 반면, 남성의 비율은 11.3%(4.8%+6.5%)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1.4%), 50대 및 60대(9.4%) 등 고령일수록 부모 돌봄의 책임이 아들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34〉 부모 돌봄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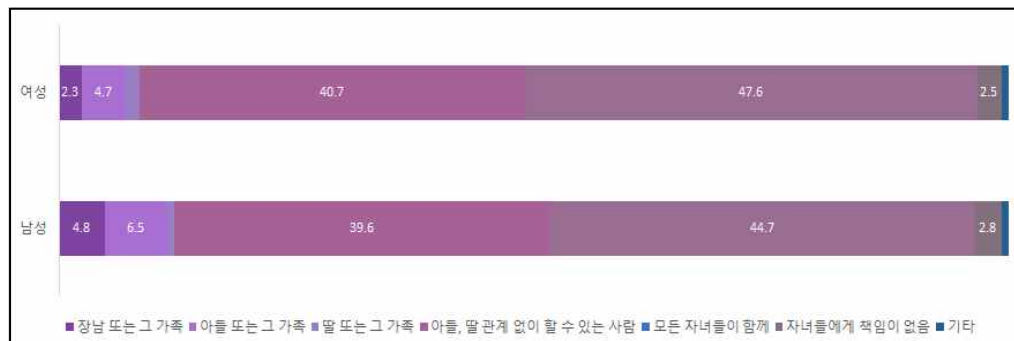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139<br>(100.0) | 181<br>(100.0) | 295<br>(100.0) | 191<br>(100.0) | 203<br>(100.0) |
| 장남 또는 그 가족            | 32<br>(3.2)      | 17<br>(4.8)    | 15<br>(2.3)    | 2<br>(1.4)     | 9<br>(5.0)     | 14<br>(4.7)    | 4<br>(2.1)     | 3<br>(1.5)     |
| 아들 또는 그 가족            | 54<br>(5.4)      | 23<br>(6.5)    | 31<br>(4.7)    | 1<br>(0.7)     | 5<br>(2.8)     | 14<br>(4.7)    | 14<br>(7.3)    | 20<br>(9.9)    |
| 딸 또는 그 가족             | 12<br>(1.2)      | 3<br>(0.8)     | 9<br>(1.4)     | 4<br>(2.9)     | 2<br>(1.1)     | 4<br>(1.4)     | 2<br>(1.0)     | 0<br>(0.0)     |
| 아들, 딸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 407<br>(40.3)    | 141<br>(39.6)  | 266<br>(40.7)  | 45<br>(32.4)   | 75<br>(41.4)   | 126<br>(42.7)  | 86<br>(45.0)   | 75<br>(36.9)   |
| 모든 자녀들이 함께            | 470<br>(46.6)    | 159<br>(44.7)  | 311<br>(47.6)  | 81<br>(58.3)   | 90<br>(49.7)   | 129<br>(43.7)  | 74<br>(38.7)   | 96<br>(47.3)   |
| 자녀들에게 책임이 없음          | 26<br>(2.6)      | 10<br>(2.8)    | 16<br>(2.5)    | 3<br>(2.2)     | 0<br>(0.0)     | 6<br>(2.0)     | 10<br>(5.2)    | 7<br>(3.4)     |
| 기타                    | 8<br>(0.8)       | 3<br>(0.8)     | 5<br>(0.8)     | 3<br>(2.2)     | 0<br>(0.0)     | 2<br>(0.7)     | 1<br>(0.5)     | 2<br>(1.0)     |
| 차이 (t, F)             |                  | -1.834         |                | 3.188*         |                |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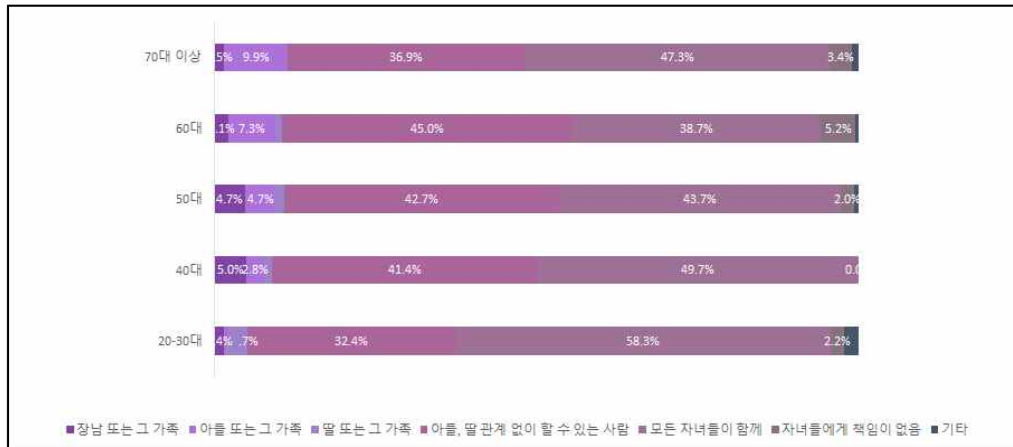
〈그림 3-25〉 부모 돌봄의 책임 인식 (성별별)

(단위 : %)



〈그림 3-26〉 부모 돌봄의 책임 인식 (연령별)

(단위 :%)



## 라. 소결

-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혈연에 대한 의식은 증가(3.40점→3.62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관계(3.88점) 또는 경제적 공유 관계(3.65점)라는 인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다만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 또는 법적 관계 등으로 인식되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으로 구성되어야만 가족’이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고령자보다 20-30대에서 긍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가족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타인(다른 가족 구성원, 지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동거(2.84점) 및 동거 중 출생(2.65점), 한 부모 입양(2.75점)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동거 2.68점, 동거 중 출생 2.27점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결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거, 동거 중 출생, 한 부모 입양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전국 조사의 경우 동거, 동거 중 출산 등에 대해 각각 2.68점, 2.27점의 평균 점수가 나타났는데 반해, 제주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2.84점, 3.09점)을 나타내고 있음
-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녀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부모돌봄’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애착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부모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문항과 ‘자녀의 부모돌봄’과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부모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2014-2022년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해보면,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인식 증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동거 중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인식 감소’,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상호 돌봄 의식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4. 가족의 형성 및 변화

### 가.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격(47.7%)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경제력(12.3%), 사랑(11.3%), 외모(7.1%)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결과 또한 성격(2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력(15.3%), 사랑(12.4%), 직업(10.7%), 가정환경(10.2%) 등 타 항목에 대한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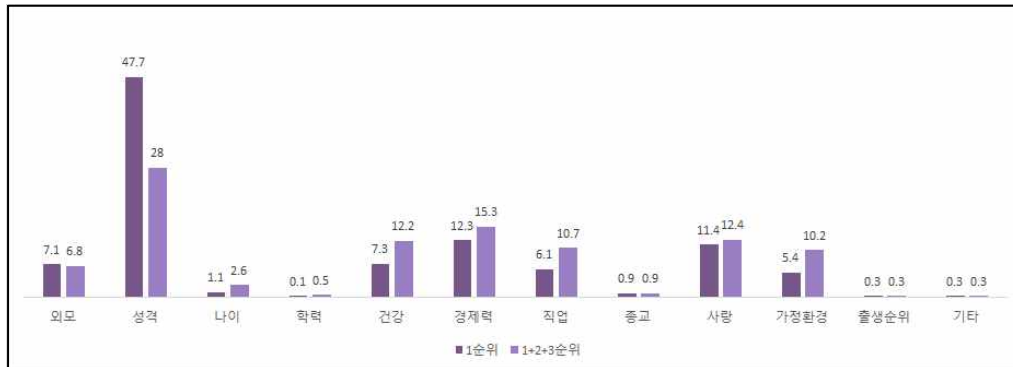
〈표 3-35〉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1,009<br>(100.0) | 1,009<br>(100.0) | 962<br>(100.0) | 2,018<br>(100.0) | 2,980<br>(100.0) |
| 외모   | 72<br>(7.1)      | 61<br>(6.0)      | 70<br>(6.9)    | 133<br>(6.6)     | 203<br>(6.8)     |
| 성격   | 481<br>(47.7)    | 253<br>(25.1)    | 99<br>(9.8)    | 734<br>(36.4)    | 833<br>(28.0)    |
| 나이   | 11<br>(1.1)      | 19<br>(1.9)      | 46<br>(4.6)    | 30<br>(1.5)      | 76<br>(2.6)      |
| 학력   | 1<br>(0.1)       | 3<br>(0.3)       | 11<br>(1.1)    | 4<br>(0.2)       | 15<br>(0.5)      |
| 건강   | 74<br>(7.3)      | 147<br>(14.6)    | 142<br>(14.1)  | 221<br>(11.0)    | 363<br>(12.2)    |
| 경제력  | 124<br>(12.3)    | 172<br>(17.0)    | 159<br>(15.8)  | 296<br>(14.7)    | 455<br>(15.3)    |
| 직업   | 62<br>(6.1)      | 120<br>(11.9)    | 137<br>(13.6)  | 182<br>(9.0)     | 319<br>(10.7)    |
| 종교   | 9<br>(0.9)       | 5<br>(0.5)       | 14<br>(1.4)    | 14<br>(0.7)      | 28<br>(0.9)      |
| 사랑   | 115<br>(11.4)    | 115<br>(11.4)    | 139<br>(13.8)  | 230<br>(11.4)    | 369<br>(12.4)    |
| 가정환경 | 54<br>(5.4)      | 110<br>(10.9)    | 139<br>(13.8)  | 164<br>(8.1)     | 303<br>(10.2)    |
| 출생순위 | 3<br>(0.3)       | 1<br>(0.1)       | 4<br>(0.4)     | 4<br>(0.2)       | 8<br>(0.3)       |
| 기타   | 3<br>(0.3)       | 3<br>(0.3)       | 2<br>(0.2)     | 6<br>(0.3)       | 8<br>(0.3)       |

〈그림 3-27〉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비교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과 관계 없이 모든 응답자들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성격’ 이외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혼인상태별, 경제적 수준 인식 별로 그 순위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외모(11.5%)가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경제력(15.8%)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혼인상태별 비교 분석 결과, 이혼이나 사별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건강(13.8%, 11.3%), 경제력(8.5%, 10.1%)을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은 경우 ‘성격’에 대한 고려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56.5%), 경제적 수준 인식이 낮은 경우 건강(12.6%), 경제력(13.1%)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6〉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기준)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 N   |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       |        |        |        |       |        |          |          |       | 차이<br>(t, F)  |
|----------|-----------|-----|---------------|--------|-------|-------|--------|--------|--------|-------|--------|----------|----------|-------|---------------|
|          |           |     | 외모            | 성격     | 나이    | 학력    | 건강     | 경제력    | 직업     | 종교    | 사랑     | 가정<br>환경 | 출생<br>순위 | 기타    |               |
| 성별       | 남성        | 356 | (11.5)        | (52.2) | (1.7) | (0.0) | (8.1)  | (5.9)  | (4.2)  | (0.6) | (12.6) | (2.5)    | (0.0)    | (0.6) | -4.185<br>*** |
|          | 여성        | 653 | (4.7)         | (45.2) | (0.8) | (0.2) | (6.9)  | (15.8) | (7.2)  | (1.1) | (10.7) | (6.9)    | (0.5)    | (0.2) |               |
| 연령       | 20-30대    | 139 | (13.7)        | (45.3) | (2.9) | (0.0) | (4.3)  | (7.2)  | (4.3)  | (0.0) | (20.9) | (1.4)    | (0.0)    | (0.0) | 3.268*        |
|          | 40대       | 181 | (6.6)         | (51.9) | (0.6) | (0.0) | (5.5)  | (15.5) | (5.0)  | (0.0) | (12.2) | (2.8)    | (0.0)    | (0.0) |               |
|          | 50대       | 295 | (4.7)         | (54.2) | (1.0) | (0.0) | (6.1)  | (12.2) | (6.1)  | (1.0) | (11.2) | (2.7)    | (0.0)    | (0.7) |               |
|          | 60대       | 191 | (3.7)         | (50.8) | (0.5) | (0.0) | (9.9)  | (11.5) | (4.7)  | (2.1) | (8.4)  | (7.3)    | (1.0)    | (0.0) |               |
|          | 70대 이상    | 203 | (9.9)         | (33.0) | (1.0) | (0.5) | (10.3) | (13.8) | (9.9)  | (1.0) | (7.4)  | (12.3)   | (0.5)    | (0.5) |               |
| 가주<br>지역 | 제주시 동지역   | 571 | (6.0)         | (51.5) | (1.2) | (0.0) | (8.6)  | (10.2) | (4.4)  | (0.5) | (11.2) | (6.0)    | (0.0)    | (0.5) | 3.015*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 | (4.9)         | (41.5) | (0.6) | (0.0) | (8.5)  | (8.5)  | (15.9) | (2.4) | (11.0) | (6.7)    | (0.0)    | (0.0) |               |
|          | 서귀포시 동지역  | 153 | (4.6)         | (42.5) | (2.0) | (0.7) | (6.5)  | (22.2) | (6.5)  | (0.7) | (7.8)  | (4.6)    | (2.0)    | (0.0)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121 | (19.0)        | (44.6) | (0.0) | (0.0) | (0.8)  | (14.9) | (0.8)  | (0.8) | (17.4) | (1.7)    | (0.0)    | (0.0) |               |

| 구분              |          | N   |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 |        |       |       |        |        |        |       |        |          |          |       | 차이<br>(t, F) |
|-----------------|----------|-----|---------------|--------|-------|-------|--------|--------|--------|-------|--------|----------|----------|-------|--------------|
|                 |          |     | 외모            | 성격     | 나이    | 학력    | 건강     | 경제력    | 직업     | 종교    | 사랑     | 가정<br>환경 | 출생<br>순위 | 기타    |              |
| 혼인<br>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 | (6.1)         | (50.3) | (1.0) | (0.0) | (5.6)  | (13.9) | (6.9)  | (0.6) | (10.1) | (5.0)    | (0.2)    | (0.3) | 4.758<br>**  |
|                 | 미혼       | 114 | (15.8)        | (44.7) | (3.5) | (0.0) | (6.1)  | (10.5) | (1.8)  | (0.9) | (16.7) | (0.0)    | (0.0)    | (0.0) |              |
|                 | 이혼       | 94  | (6.4)         | (53.2) | (0.0) | (0.0) | (13.8) | (8.5)  | (3.2)  | (1.1) | (8.5)  | (4.3)    | (0.0)    | (1.1) |              |
|                 | 사별       | 159 | (5.7)         | (35.8) | (0.6) | (0.6) | (11.3) | (10.1) | (8.8)  | (1.9) | (12.6) | (11.3)   | (1.3)    | (0.0) |              |
|                 | 별거       | 18  | (5.6)         | (50.0) | (0.0) | (0.0) | (5.6)  | (5.6)  | (0.0)  | (0.0) | (27.8) | (5.6)    | (0.0)    | (0.0) |              |
| 취업<br>상태        | 취업       | 780 | (7.6)         | (48.6) | (1.4) | (0.1) | (6.8)  | (12.8) | (5.4)  | (0.5) | (12.6) | (4.0)    | (0.0)    | (0.3) | 2.822        |
|                 | 실업       | 43  | (0.0)         | (51.2) | (0.0) | (0.0) | (14.0) | (7.0)  | (11.6) | (2.3) | (11.6) | (2.3)    | (0.0)    | (0.0) |              |
|                 | 비경제활동    | 186 | (7.0)         | (43.0) | (0.0) | (0.0) | (8.1)  | (11.3) | (8.1)  | (2.2) | (6.5)  | (11.8)   | (1.6)    | (0.5)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 | (4.9)         | (42.6) | (0.5) | (0.0) | (12.6) | (13.1) | (8.7)  | (1.6) | (8.2)  | (6.0)    | (0.5)    | (1.1) | 3.963*       |
|                 | 보통       | 626 | (7.3)         | (46.3) | (1.3) | (0.0) | (6.5)  | (12.9) | (6.4)  | (1.0) | (12.9) | (4.8)    | (0.3)    | (0.2) |              |
|                 | 높음       | 200 | (8.5)         | (56.5) | (1.0) | (0.5) | (5.0)  | (9.5)  | (3.0)  | (0.0) | (9.5)  | (6.5)    | (0.0)    | (0.0) |              |

주 : \* p<.05, \*\* p<.01, \*\*\* p<.001

## 나. 자녀계획

### □ 출생계획

-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출생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는 향후 더 이상 출생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출생계획 비교 분석 결과, '20-30대(47.5%)', '미혼(39.2%)' 가구를 제외한 응답자는 출생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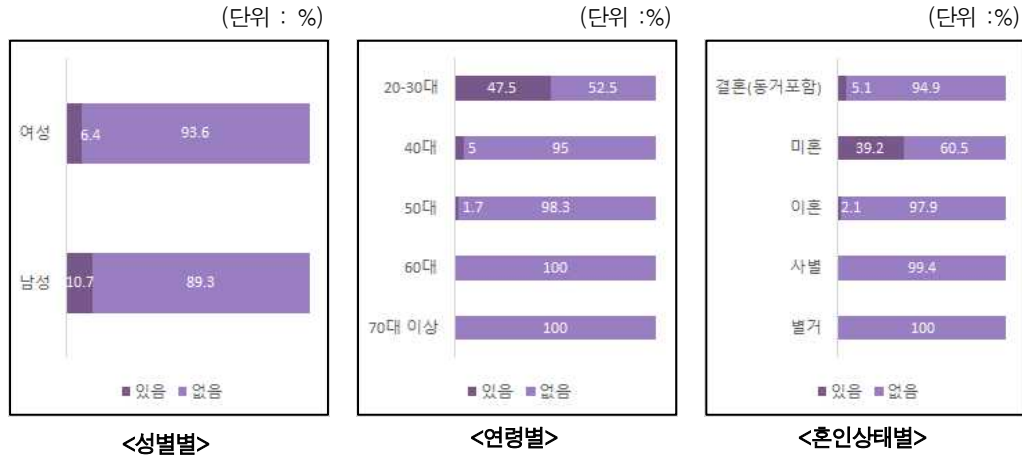
〈표 3-37〉 출생계획

(단위 : 명, %)

| 구분   |          | N                | 있음           | 없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80<br>(7.9)  | 929<br>(92.1)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38<br>(10.7) | 318<br>(89.3)  | -2.388*    |
|      | 여성       | 653<br>(100.0)   | 42<br>(6.4)  | 611<br>(93.6)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66<br>(47.5) | 73<br>(52.5)   | 133.128*** |
|      | 40대      | 181<br>(100.0)   | 9<br>(5.0)   | 172<br>(95.0)  |            |
|      | 50대      | 295<br>(100.0)   | 5<br>(1.7)   | 290<br>(98.3)  |            |
|      | 60대      | 191<br>(100.0)   | 0<br>(0.0)   | 191<br>(100.0)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0<br>(0.0)   | 203<br>(100.0)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br>(100.0)   | 32<br>(5.1)  | 592<br>(94.9)  | 54.349***  |
|      | 미혼       | 114<br>(100.0)   | 45<br>(39.2) | 69<br>(60.5)   |            |
|      | 이혼       | 94<br>(100.0)    | 2<br>(2.1)   | 92<br>(97.9)   |            |
|      | 사별       | 159<br>(100.0)   | 1<br>(0.6)   | 158<br>(99.4)  |            |
|      | 별거       | 18<br>(100.0)    | 0<br>(0.0)   | 18<br>(100.0)  |            |

주 : \* p<.05, \*\* p<.01, \*\*\* p<.001

〈그림 3-28〉 출생계획



- 향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미 낳은 자녀 수로 충분해서(45.7%), ‘나이가 많아서(37.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고연령자의 다수가 표본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응답자의 연령이나 혼인상태별로 향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 및 혼인상태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연령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20-30대 응답자의 40.0%가 향후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됨
  - 혼인상태별 향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절반 가량(48.3%)이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또한 19.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38〉 응답자 특성에 따른 향후 출생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연령           |               |               |               |               | 혼인상태          |              |              |              |              |
|-----------------------------|----------------|--------------|---------------|---------------|---------------|---------------|---------------|--------------|--------------|--------------|--------------|
|                             |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결혼<br>(동거포함)  | 미혼           | 이혼           | 사별           | 별거           |
| 이미 낳은 자녀수로 충분해서             | 548<br>(100.0) | 30<br>(26.1) | 113<br>(48.7) | 167<br>(46.0) | 93<br>(41.3)  | 145<br>(55.1) | 389<br>(49.3) | 0<br>(0.0)   | 51<br>(48.1) | 96<br>(49.0) | 12<br>(60.0) |
|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서           | 48<br>(100.0)  | 24<br>(20.9) | 12<br>(5.2)   | 9<br>(2.5)    | 3<br>(1.3)    | 0<br>(0.0)    | 1<br>(0.1)    | 42<br>(48.3) | 3<br>(2.8)   | 2<br>(1.0)   | 0<br>(0.0)   |
|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 17<br>(100.0)  | 8<br>(7.0)   | 7<br>(3.0)    | 1<br>(0.3)    | 1<br>(0.4)    | 0<br>(0.0)    | 13<br>(1.6)   | 4<br>(4.6)   | 0<br>(0.0)   | 0<br>(0.0)   | 0<br>(0.0)   |
|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 15<br>(100.0)  | 8<br>(7.0)   | 4<br>(1.7)    | 3<br>(0.8)    | 0<br>(0.0)    | 0<br>(0.0)    | 12<br>(1.5)   | 3<br>(3.4)   | 0<br>(0.0)   | 0<br>(0.0)   | 0<br>(0.0)   |
| 양육 비용이 부담되서                 | 48<br>(100.0)  | 17<br>(14.8) | 16<br>(6.9)   | 10<br>(2.8)   | 3<br>(1.3)    | 2<br>(0.8)    | 41<br>(5.2)   | 6<br>(6.9)   | 1<br>(0.9)   | 0<br>(0.0)   | 0<br>(0.0)   |
|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 2<br>(100.0)   | 2<br>(1.7)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2<br>(2.3)   | 0<br>(0.0)   | 0<br>(0.0)   | 0<br>(0.0)   |
| 자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 18<br>(100.0)  | 4<br>(3.5)   | 6<br>(2.6)    | 4<br>(1.1)    | 3<br>(1.3)    | 1<br>(0.4)    | 8<br>(1.0)    | 4<br>(4.6)   | 4<br>(3.8)   | 2<br>(1.0)   | 0<br>(0.0)   |
| 배우자가 반대해서                   | 9<br>(100.0)   | 3<br>(2.6)   | 4<br>(1.7)    | 1<br>(0.3)    | 1<br>(0.4)    | 0<br>(0.0)    | 9<br>(1.1)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 21<br>(100.0)  | 3<br>(2.6)   | 8<br>(3.4)    | 6<br>(1.7)    | 4<br>(1.8)    | 0<br>(0.0)    | 13<br>(1.6)   | 5<br>(5.7)   | 3<br>(2.8)   | 0<br>(0.0)   | 0<br>(0.0)   |
| 나이가 많아서                     | 449<br>(100.0) | 4<br>(3.5)   | 59<br>(25.4)  | 157<br>(43.3) | 115<br>(51.1) | 114<br>(43.3) | 289<br>(36.6) | 17<br>(19.5) | 42<br>(39.6) | 93<br>(47.4) | 8<br>(40.0)  |
| 육아를 위한 부부간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 13<br>(100.0)  | 10<br>(8.7)  | 3<br>(1.3)    | 0<br>(0.0)    | 0<br>(0.0)    | 0<br>(0.0)    | 11<br>(1.4)   | 1<br>(1.1)   | 1<br>(0.9)   | 0<br>(0.0)   | 0<br>(0.0)   |
| 기타                          | 10<br>(100.0)  | 2<br>(1.7)   | 0<br>(0.0)    | 5<br>(1.4)    | 2<br>(0.9)    | 1<br>(0.4)    | 3<br>(0.4)    | 3<br>(3.4)   | 1<br>(0.9)   | 3<br>(1.5)   | 0<br>(0.0)   |

## □ 입양

- 입양 의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입양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3.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입양 의향 비교 분석 결과, ‘20-30대(12.2%)’, ‘미혼(14.9%)’ 가구의 입양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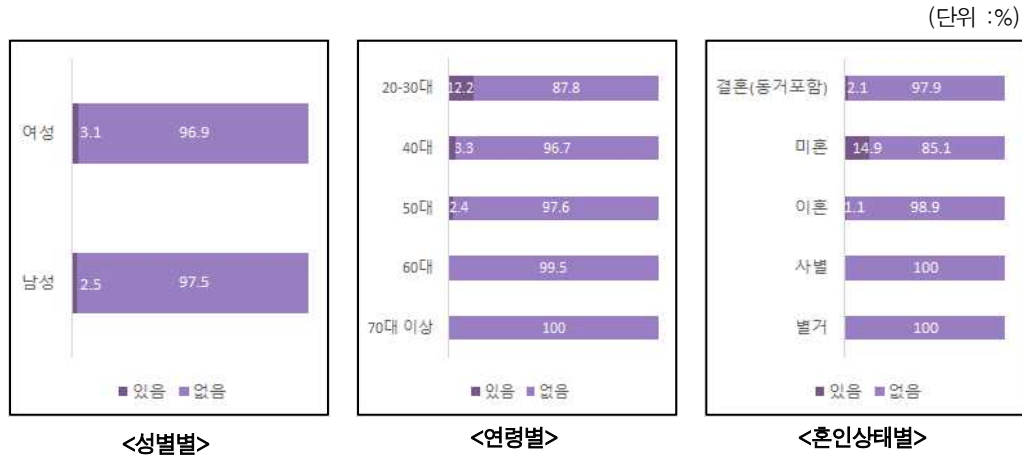
〈표 3-39〉 입양의향

(단위 : 명, %)

| 구분   |          | N                | 있음           | 없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31<br>(3.1)  | 978<br>(96.9)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9<br>(2.5)   | 347<br>(97.5)  | 0.739     |
|      | 여성       | 653<br>(100.0)   | 22<br>(3.1)  | 631<br>(96.9)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17<br>(12.2) | 122<br>(87.8)  | 13.160*** |
|      | 40대      | 181<br>(100.0)   | 6<br>(3.3)   | 175<br>(96.7)  |           |
|      | 50대      | 295<br>(100.0)   | 7<br>(2.4)   | 288<br>(97.6)  |           |
|      | 60대      | 191<br>(100.0)   | 1<br>(0.5)   | 190<br>(99.5)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0<br>(0.0)   | 203<br>(100.0)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br>(100.0)   | 13<br>(2.1)  | 611<br>(97.9)  | 16.602*** |
|      | 미혼       | 114<br>(100.0)   | 17<br>(14.9) | 97<br>(85.1)   |           |
|      | 이혼       | 94<br>(100.0)    | 1<br>(1.1)   | 93<br>(98.9)   |           |
|      | 사별       | 159<br>(100.0)   | 0<br>(0.0)   | 159<br>(100.0) |           |
|      | 별거       | 18<br>(100.0)    | 0<br>(0.0)   | 18<br>(100.0)  |           |

주 : \* p<.05, \*\* p<.01, \*\*\* p<.001

〈그림 3-29〉 입양의향



- 입양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이미 자녀가 있어서(69.5%)’,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20.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응답자의 연령 및 혼인상태별 입양 계획 비교 분석 결과, 자녀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가구’, ‘미혼가구’를 제외한 다른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연령대의 경우 ‘이미 자녀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이미 자녀가 있어서(36.9%)’와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32.8%)’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혼인상태별로 응답률 비교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미 자녀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없는 미혼 응답자의 경우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62.9%)’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입양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연령             |                |                |                |                | 혼인상태           |               |               |                |               |
|--------------------------|----------------|----------------|----------------|----------------|----------------|----------------|----------------|---------------|---------------|----------------|---------------|
|                          |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결혼<br>(동거포함)   | 미혼            | 이혼            | 사별             | 별거            |
| 전체                       | 978<br>(100.0) | 122<br>(100.0) | 175<br>(100.0) | 288<br>(100.0) | 190<br>(100.0) | 203<br>(100.0) | 611<br>(100.0) | 97<br>(100.0) | 93<br>(100.0) | 159<br>(100.0) | 18<br>(100.0) |
| 이미 자녀가 있어서               | 680<br>(69.5)  | 45<br>(36.9)   | 121<br>(69.1)  | 208<br>(72.2)  | 132<br>(69.5)  | 174<br>(85.7)  | 473<br>(77.4)  | 2<br>(2.1)    | 66<br>(71.0)  | 124<br>(78.0)  | 15<br>(83.3)  |
| 양육비의 부담 때문에              | 32<br>(3.3)    | 8<br>(6.6)     | 7<br>(4.0)     | 11<br>(3.8)    | 4<br>(2.1)     | 2<br>(1.0)     | 19<br>(3.1)    | 8<br>(8.2)    | 1<br>(1.1)    | 4<br>(2.5)     | 0<br>(0.0)    |
| 배우자가 반대해서                | 2<br>(0.2)     | 0<br>(0.0)     | 1<br>(0.6)     | 1<br>(0.3)     | 0<br>(0.0)     | 0<br>(0.0)     | 2<br>(0.3)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장애나 유전적 질병의 우려<br>때문에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내 핏줄이 아니라서               | 23<br>(2.4)    | 11<br>(9.0)    | 5<br>(2.9)     | 4<br>(1.4)     | 3<br>(1.6)     | 0<br>(0.0)     | 9<br>(1.5)     | 10<br>(10.3)  | 3<br>(3.2)    | 1<br>(0.6)     | 0<br>(0.0)    |
| 기존 자녀와의 차별에 대한<br>우려 때문에 | 19<br>(1.9)    | 10<br>(8.2)    | 6<br>(3.4)     | 2<br>(0.7)     | 1<br>(0.5)     | 0<br>(0.0)     | 11<br>(1.8)    | 8<br>(8.2)    | 0<br>(0.0)    | 0<br>(0.0)     | 0<br>(0.0)    |
| 재산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br>때문에    | 2<br>(0.2)     | 1<br>(0.8)     | 0<br>(0.0)     | 1<br>(0.3)     | 0<br>(0.0)     | 0<br>(0.0)     | 1<br>(0.2)     | 1<br>(1.0)    | 0<br>(0.0)    | 0<br>(0.0)     | 0<br>(0.0)    |
|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 202<br>(20.7)  | 40<br>(32.8)   | 29<br>(16.6)   | 58<br>(20.1)   | 49<br>(25.8)   | 26<br>(12.8)   | 87<br>(14.2)   | 61<br>(62.9)  | 23<br>(24.7)  | 28<br>(17.6)   | 3<br>(16.7)   |
| 성장한 이후 친부모를 찾게<br>될까봐    | 7<br>(0.7)     | 2<br>(1.6)     | 4<br>(2.3)     | 1<br>(0.3)     | 0<br>(0.0)     | 0<br>(0.0)     | 3<br>(0.5)     | 3<br>(3.1)    | 0<br>(0.0)    | 1<br>(0.6)     | 0<br>(0.0)    |
| 기타                       | 11<br>(1.1)    | 5<br>(4.1)     | 2<br>(1.1)     | 2<br>(0.7)     | 1<br>(0.5)     | 1<br>(0.5)     | 6<br>(1.0)     | 4<br>(4.1)    | 0<br>(0.0)    | 1<br>(0.6)     | 0<br>(0.0)    |



## 다. 이혼

- 미혼자 및 이혼경험자를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혼(또는 동거생활의 종료)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6.9%(135명)이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별, 연령별 이혼 의사 유무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 중년층의 응답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별 이혼의사 유무 분석 결과, 여성의 응답률은 18.5%(100명)으로 남성(13.4%)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이혼의사 유무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28.5%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의 응답률 또한 25.9%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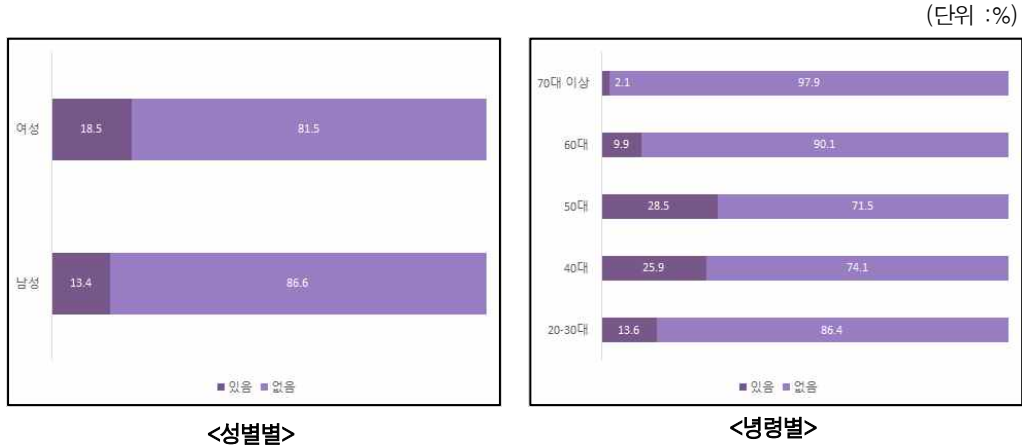
〈표 3-41〉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 의향

(단위 : 명, %)

| 구분 |        | N              | 있음            | 없음            | t, F      |
|----|--------|----------------|---------------|---------------|-----------|
| 전체 |        | 801<br>(100.0) | 135<br>(16.9) | 666<br>(83.1) | -         |
| 성별 | 남성     | 226<br>(100.0) | 261<br>(13.4) | 35<br>(86.6)  | 1.812     |
|    | 여성     | 440<br>(100.0) | 540<br>(18.5) | 100<br>(81.5) |           |
| 연령 | 20-30대 | 66<br>(100.0)  | 9<br>(13.6)   | 57<br>(86.4)  | 18.481*** |
|    | 40대    | 143<br>(100.0) | 37<br>(25.9)  | 106<br>(74.1) |           |
|    | 50대    | 146<br>(100.0) | 70<br>(28.5)  | 176<br>(71.5) |           |
|    | 60대    | 151<br>(100.0) | 15<br>(9.9)   | 136<br>(90.1) |           |
|    | 70대 이상 | 195<br>(100.0) | 4<br>(2.1)    | 191<br>(97.9) |           |

주 : \* p<.05, \*\* p<.01, \*\*\* p<.001

〈그림 3-30〉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 의향



- 이혼(또는 동거생활의 종료)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44.4%)’, ‘경제적인 문제(32.6%)’의 응답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이혼(또는 동거생활 종료)를 고민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전체                    | 135 | (100.0) |
| 경제적인 문제               | 44  | (32.6)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도         | 7   | (5.2)   |
| 술, 도박 등 중독 문제         | 2   | (1.5)   |
| 가사 및 육아 부담            | 4   | (3.0)   |
| 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         | 60  | (44.4)  |
| 부모 또는 돌봄가족 부양과 관련된 문제 | 4   | (3.0)   |
|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4   | (3.0)   |
| 신뢰나 애정이 없어져서          | 8   | (5.9)   |
|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         | 0   | (0.0)   |
| 기타                    | 2   | (1.5)   |

- 이혼(또는 동거생활의 종료)을 고려한 적이 있음에도 결혼 또는 동거생활을 지속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있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68.1%)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43〉 결혼(또는 동거) 생활을 지속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전체                   | 135 | (100.0) |
| 자녀가 있어서              | 92  | (68.1)  |
| 주변의 시선 때문에           | 4   | (3.0)   |
|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 10  | (7.4)   |
|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 2   | (1.5)   |
| 혼자서 자녀 양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 | 9   | (6.7)   |
| 이혼한다고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서  | 11  | (8.1)   |
| 사회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 2   | (1.5)   |
| 이혼하면 외로워질 것 같아서      | 1   | (0.7)   |
| 기타                   | 4   | (3.0)   |

## 라. 소결

- 결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47.7%)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혼 사유(44.4%)에 대한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47.7%(1순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결혼과 관련하여 ‘성격’이외의 고려사항에 대해 남성은 외모(11.5%)가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경제력(15.8%)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해서도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해서(45.7%)’, ‘나이가 너무 많아서(3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20-30대’ 가구와 ‘미혼’ 가구 응답자들의 경우 출생(47.5%, 39.2%) 및 입양(12.2%, 14.9%)에 대한 의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적인 의사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 대상이 가구주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됨에 따라 조사 표본의 평균 연령이 상향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결혼 또는 동거 상태인 응답자 중 이혼(또는 동거 상태의 종료)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자녀가 있어서(68.1%)’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인식과 관련된 응답의 평균 점수는 감소하는 추세(2014년 3.56점→2020년 3.01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68.1%)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가족의 관계 및 생활

### 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 가족 구성원별 관계 인식 및 변화

-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비동거중인 경우 포함)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은 4.15점으로서, 내 부모와의 관계(3.99점), 배우자와의 관계(3.84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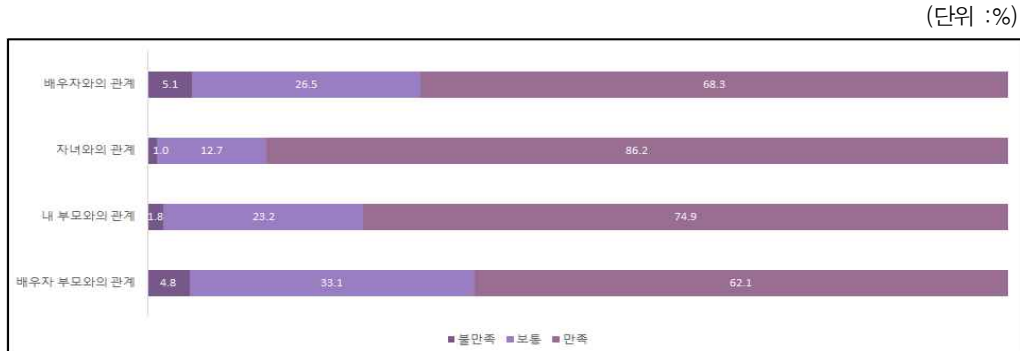
〈표 3-44〉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매우<br>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br>만족      | 평균<br>점수 |
|-------------|----------------|-------------|-------------|---------------|---------------|---------------|----------|
| 배우자와의 관계    | 642<br>(100.0) | 13<br>(2.0) | 20<br>(3.1) | 170<br>(26.5) | 293<br>(45.6) | 146<br>(22.7) | 3.84     |
| 자녀와의 관계     | 851<br>(100.0) | 2<br>(0.2)  | 7<br>(0.8)  | 108<br>(12.7) | 481<br>(56.5) | 253<br>(29.7) | 4.15     |
| 내 부모와의 관계   | 611<br>(100.0) | 2<br>(0.3)  | 9<br>(1.5)  | 142<br>(23.2) | 299<br>(48.9) | 159<br>(26.0) | 3.99     |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417<br>(100.0) | 3<br>(0.7)  | 17<br>(4.1) | 138<br>(33.1) | 177<br>(42.4) | 82<br>(19.7)  | 3.76     |

주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31〉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남성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3.95점으로 여성(3.7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경우 여성(4.20점)이 남성(4.04점)에 비해 높게 분석됨
- 연령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분석 결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분석 결과, 20-30대 응답자의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배우자, 자녀, 내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4.2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4.02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가 4점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대유형별로는 2세대 가구의 가족구성원간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별거상태인 응답자들이 1인 가구 응답자에 다수 포함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3-4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단위 : 명, 점)

| 구분   |           | 배우자와의 관계 |       |        | 자녀와의 관계 |       |           | 내 부모와의 관계 |       |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          |
|------|-----------|----------|-------|--------|---------|-------|-----------|-----------|-------|----------|-------------|-------|----------|
|      |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 전체   |           | 642      | 3.84  | -      | 851     | 4.15  | -         | 611       | 3.99  | -        | 417         | 3.76  | -        |
| 성별   | 남성        | 247      | 3.95  | 2.557* | 279     | 4.04  | -3.256*** | 214       | 3.89  | -2.292*  | 147         | 3.88  | 2.202*   |
|      | 여성        | 395      | 3.77  |        | 572     | 4.20  |           | 397       | 4.04  |          | 270         | 3.70  |          |
| 연령   | 20-30대    | 82       | 4.38  | 1.187  | 54      | 4.65  | 13.520*** | 137       | 4.24  | 7.498*** | 64          | 4.20  | 6.461*** |
|      | 40대       | 121      | 3.90  |        | 148     | 4.32  |           | 158       | 4.05  |          | 125         | 3.73  |          |
|      | 50대       | 176      | 3.68  |        | 272     | 4.12  |           | 232       | 3.86  |          | 178         | 3.61  |          |
|      | 60대       | 132      | 3.77  |        | 177     | 4.02  |           | 73        | 3.77  |          | 42          | 3.83  |          |
|      | 70대 이상    | 131      | 3.84  |        | 200     | 4.04  |           | 11        | 4.09  |          | 8           | 3.88  |          |
| 세대유형 | 1세대 가구    | 169      | 3.87  | 1.820  | 230     | 4.07  | 5.611***  | 115       | 3.91  | 1.177    | 104         | 3.77  | 2.164    |
|      | 2세대가구     | 251      | 3.93  |        | 398     | 4.24  |           | 323       | 4.02  |          | 278         | 3.80  |          |
|      | 3세대 이상 가구 | 21       | 3.42  |        | 36      | 3.94  |           | 27        | 3.81  |          | 23          | 3.48  |          |
|      | 1인 가구     | 201      | 2.13  |        | 187     | 4.08  |           | 146       | 3.99  |          | 12          | 3.33  |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 2014~2022년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변화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점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3.84점으로서 2014(3.83점)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4년 3.92점에서 2022년 4.15점으로 0.23점 증가하였음

〈표 3-46〉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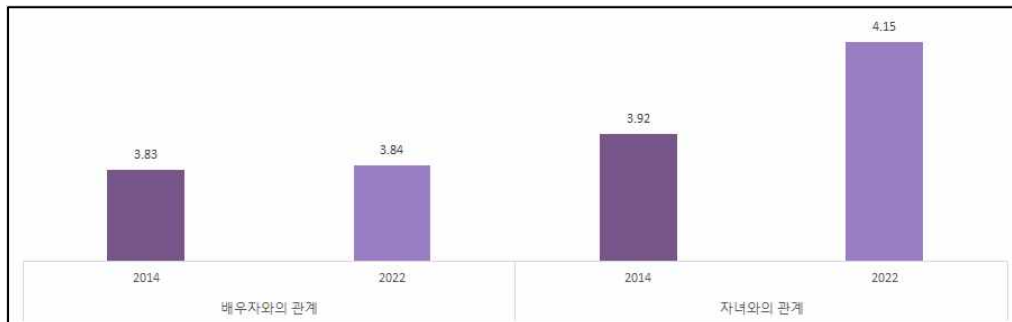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 구분       |      | N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평균 점수 |
|----------|------|------------------|-------------|-------------|---------------|----------------|---------------|-------|
| 배우자와의 관계 | 2014 | 2,012<br>(100.0) | 12<br>(0.6) | 44<br>(2.2) | 542<br>(26.9) | 1096<br>(54.5) | 318<br>(15.8) | 3.83  |
|          | 2022 | 642<br>(100.0)   | 13<br>(2.0) | 20<br>(3.1) | 170<br>(26.5) | 293<br>(45.6)  | 146<br>(22.7) | 3.84  |
| 자녀와의 관계  | 2014 | 2,277<br>(100.0) | 11<br>(0.5) | 52<br>(2.3) | 507<br>(22.3) | 1249<br>(54.9) | 460<br>(20.2) | 3.92  |
|          | 2022 | 851<br>(100.0)   | 2<br>(0.2)  | 7<br>(0.8)  | 108<br>(12.7) | 481<br>(56.5)  | 253<br>(29.7) | 4.15  |

주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32〉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변화 비교 (2014~2022년)

(단위 : %)





## □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배우자와 자주 다투지 않는다(3.89점)’, ‘배우자를 믿는다(3.80점)’,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3.66점)’, ‘배우자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3.20점)’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7〉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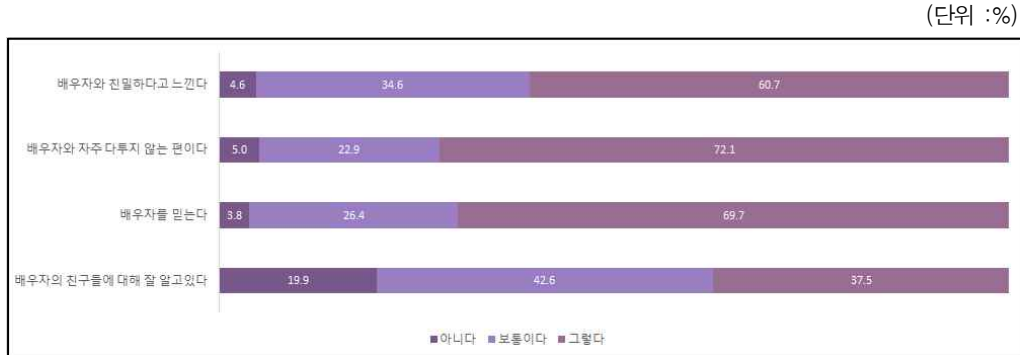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624<br>(100.0) | 5<br>(0.8)  | 24<br>(3.8)  | 216<br>(34.6) | 312<br>(50.0) | 67<br>(10.7)  | 3.66     |
| 배우자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 624<br>(100.0) | 5<br>(0.8)  | 26<br>(4.2)  | 143<br>(22.9) | 309<br>(49.5) | 141<br>(22.6) | 3.89     |
| 배우자를 믿는다                | 624<br>(100.0) | 5<br>(0.8)  | 19<br>(3.0)  | 165<br>(26.4) | 342<br>(54.8) | 93<br>(14.9)  | 3.80     |
|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해<br>잘 알고 있다 | 624<br>(100.0) | 33<br>(5.3) | 91<br>(14.6) | 266<br>(42.6) | 185<br>(29.6) | 49<br>(7.9)   | 3.20     |

주1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주2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그림 3-33〉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4가지 문항 중 3개 문항(친밀도, 다툼, 신뢰)의 평균 점수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1개 문항(배우자의 친구 인지)에 대해서만 남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세대유형별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세대 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 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세대 가구가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친밀도(3.71점), 신뢰(3.88점) 등 다수의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4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단위 : 명, 점)

| 구분       |           | N   | 배우자와<br>친밀하다고 느낀다 |          | 배우자와 자주<br>다투지 않는 편이다 |           | 배우자를<br>믿는다 |          |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해<br>잘 알고 있다 |           |
|----------|-----------|-----|-------------------|----------|-----------------------|-----------|-------------|----------|-------------------------|-----------|
|          |           |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 전체       |           | 624 | 3.66              |          | 3.89                  |           | 3.80        |          | 3.20                    |           |
| 성별       | 남성        | 235 | 3.76              | 2.633**  | 4.00                  | -2.509*   | 3.87        | 1.765    | 3.14                    | -1.240    |
|          | 여성        | 389 | 3.60              |          | 3.83                  |           | 3.76        |          | 3.24                    |           |
| 거주<br>지역 | 제주시 동지역   | 361 | 3.71              | 6.044*** | 3.73                  | 17.241*** | 3.82        | 9.312*** | 3.32                    | 24.365*** |
|          | 제주시 읍면지역  | 93  | 3.41              |          | 4.03                  |           | 3.55        |          | 2.99                    |           |
|          | 서귀포시 동지역  | 87  | 3.56              |          | 3.92                  |           | 3.68        |          | 3.59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83  | 3.83              |          | 4.40                  |           | 4.11        |          | 2.52                    |           |
| 세대<br>유형 | 1세대 가구    | 254 | 3.63              | 3.109*   | 4.06                  | 8.146***  | 3.74        | 6.699*** | 3.04                    | 5.133**   |
|          | 2세대가구     | 339 | 3.71              |          | 3.80                  |           | 3.88        |          | 3.34                    |           |
|          | 3세대 이상 가구 | 30  | 3.30              |          | 3.43                  |           | 3.40        |          | 3.07                    |           |
|          | 1인 가구     | 1   | 4.00              |          | 2.00                  |           | 2.00        |          | 3.00                    |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척도의 평균 값임

주3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과 관련하여 전국과 제주지역을 비교 분석 결과, 제주지역 응답자들의 배우자와의 친밀도, 신뢰도 등에 대한 인식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배우자를 믿는다’라는 문항에 대한 제주지역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각각 3.66점, 3.80점으로서, 전국 평균(3.86점, 4.0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다만 ‘배우자와 자주 다투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한 제주지역 평균 점수는 3.89점으로서, 전국 평균(3.61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3-49〉 배우자와의 관계 인식 비교 (전국-제주)

(단위 : 점)

| 구분                   |    | 2020 전국<br>(N: 10,997) | 2022 제주<br>(N: 1,009) |
|----------------------|----|------------------------|-----------------------|
|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전체 | 3.86                   | 3.66                  |
|                      | 남성 | 3.96                   | 3.76                  |
|                      | 여성 | 3.75                   | 3.60                  |
| 배우자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 전체 | 3.61                   | 3.89                  |
|                      | 남성 | 3.63                   | 4.00                  |
|                      | 여성 | 3.59                   | 3.83                  |
| 배우자를 믿는다             | 전체 | 4.04                   | 3.80                  |
|                      | 남성 | 4.13                   | 3.87                  |
|                      | 여성 | 3.95                   | 3.76                  |
|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전체 | 3.19                   | 3.20                  |
|                      | 남성 | 3.12                   | 3.14                  |
|                      | 여성 | 3.25                   | 3.24                  |

주1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2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 □ 자녀와의 관계 인식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자녀와 다투지 않는 편이다(4.08점)<sup>10)</sup>’, ‘내 자녀를 믿는다(4.02점)’,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3.92점)’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표 3-50〉 자녀와의 관계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851<br>(100.0) | 4<br>(0.5)  | 16<br>(1.9)   | 171<br>(20.1) | 511<br>(60.0) | 149<br>(17.5) | 3.92     |
| 자녀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 851<br>(100.0) | 6<br>(0.7)  | 23<br>(2.7)   | 132<br>(15.5) | 430<br>(50.5) | 260<br>(30.6) | 4.08     |
| 내 자녀를 믿는다           | 851<br>(100.0) | 3<br>(0.4)  | 11<br>(1.3)   | 144<br>(16.9) | 503<br>(59.1) | 190<br>(22.3) | 4.02     |
|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851<br>(100.0) | 69<br>(8.1) | 158<br>(18.6) | 371<br>(43.6) | 207<br>(24.3) | 46<br>(5.4)   | 3.00     |

주1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2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10) 해당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부정 문항을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자녀와 자주 다투는 편이다’ → ‘자녀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그림 3-34〉 자녀와의 관계



- 연령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인식 비교 분석 결과, 낮은 연령대 응답자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 자녀와의 관계 인식에 관련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자녀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령 응답자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대유형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2세대 가구의 평균 점수가 다른 세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녀와의 다툼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세대 유형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세대 가구의 경우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4.01점)’, ‘내 자녀를 믿는다(4.12점)’ 등 자녀와의 관계 인식과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자녀와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1세대 가구(4.25점), 1인 가구(4.22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2세대 가구(3.93점), 3세대 이상 가구(3.81점)의 평균 점수가 낮게 분석됨

〈표 3-5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인식 비교

(단위 : 명, 점)

| 구분       |           | N   | 배우자와<br>친밀하다고 느낀다 |          | 배우자와 자주<br>다투지 않는 편이다 |           | 배우자를<br>믿는다 |          | 배우자의 친구들에 대해<br>잘 알고 있다 |           |
|----------|-----------|-----|-------------------|----------|-----------------------|-----------|-------------|----------|-------------------------|-----------|
|          |           |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 전체       |           | 851 | 3.92              | -        | 4.08                  | -         | 4.02        | -        | 3.00                    | -         |
| 성별       | 남성        | 279 | 3.84              | -2.449*  | 4.13                  | -1.293    | 3.93        | -2.539*  | 2.81                    | -4.114*** |
|          | 여성        | 572 | 3.96              |          | 4.05                  |           | 4.06        |          | 3.10                    |           |
| 연령       | 20-30대    | 54  | 4.33              | 8.621*** | 3.96                  | 5.911***  | 4.33        | 7.934*** | 3.35                    | 11.219*** |
|          | 40대       | 148 | 4.07              |          | 3.97                  |           | 4.20        |          | 3.32                    |           |
|          | 50대       | 272 | 3.87              |          | 3.96                  |           | 4.00        |          | 3.05                    |           |
|          | 60대       | 177 | 3.80              |          | 4.15                  |           | 3.88        |          | 2.90                    |           |
|          | 70대 이상    | 200 | 3.88              |          | 4.27                  |           | 3.94        |          | 2.71                    |           |
| 세대<br>유형 | 1세대 가구    | 230 | 3.92              | 6.504*** | 4.25                  | 12.228*** | 3.99        | 7.689*** | 2.83                    | 13.419*** |
|          | 2세대가구     | 398 | 4.01              |          | 3.93                  |           | 4.12        |          | 3.21                    |           |
|          | 3세대 이상 가구 | 36  | 3.64              |          | 3.81                  |           | 4.03        |          | 3.22                    |           |
|          | 1인 가구     | 187 | 3.79              |          | 4.22                  |           | 3.83        |          | 2.75                    |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3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 □ 부모와의 관계 인식

-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인식에 대한 문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부모님과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4.04점)’,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3.67점)’,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3.60점)’,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3.56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sup>11)</sup>

〈표 3-52〉 부모와의 관계 인식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 662<br>(100.0) | 7<br>(1.1) | 23<br>(3.5) | 267<br>(40.3) | 298<br>(45.0) | 67<br>(10.1)  | 3.60     |
| 부모님과 자주 다투지 않는<br>편이다** | 662<br>(100.0) | 4<br>(0.6) | 24<br>(3.6) | 112<br>(16.9) | 323<br>(48.8) | 199<br>(30.1) | 4.04     |
| 부모님을 나를 믿어주신다           | 662<br>(100.0) | 8<br>(1.2) | 18<br>(2.7) | 235<br>(35.5) | 322<br>(48.6) | 79<br>(11.9)  | 3.67     |
|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 662<br>(100.0) | 8<br>(1.2) | 64<br>(9.7) | 266<br>(40.2) | 195<br>(29.5) | 129<br>(19.5) | 3.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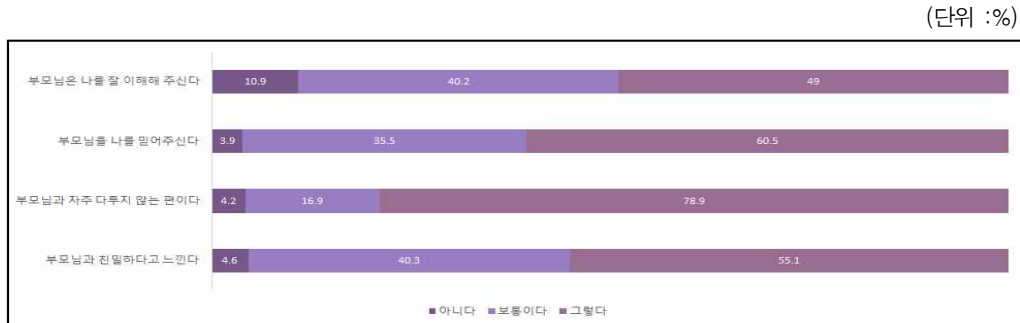
주1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2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11) 특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부정 문항을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부모님과 자주 다투는 편이다’ → ‘부모님과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 ‘부모님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그림 3-35〉 부모와의 관계 인식



-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인식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인식 분석 결과, 서귀포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 지역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도(3.71점), 다툼(4.23점), 신뢰(3.70점) 등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세대유형별 분석 결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친밀도, 신뢰 등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도(3.75점), 신뢰(3.86점), 상호간의 이해(3.64점) 등 타 세대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표 3-53〉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인식

(단위 : 명, 점)

| 구분       |           | N   |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        | 부모님과 자주 다투지 않는 편이다 |         |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        |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          |
|----------|-----------|-----|----------------|--------|--------------------|---------|---------------|--------|-------------------|----------|
|          |           |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평균<br>점수          | t, F     |
| 전체       |           | 662 | 3.60           | -      | 4.04               | -       | 3.67          | -      | 3.56              | -        |
| 성별       | 남성        | 241 | 3.53           | -1.683 | 4.07               | -0.609  | 3.64          | -0.882 | 3.59              | -0.528   |
|          | 여성        | 421 | 3.63           |        | 4.03               |         | 3.69          |        | 3.55              |          |
| 거주<br>지역 | 제주시 동지역   | 409 | 3.57           | 0.764  | 3.99               | 4.080** | 3.68          | 0.266  | 3.63              | 8.317*** |
|          | 제주시 읍면지역  | 109 | 3.61           |        | 4.19               |         | 3.61          |        | 3.28              |          |
|          | 서귀포시 동지역  | 79  | 3.71           |        | 4.23               |         | 3.70          |        | 3.35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65  | 3.62           |        | 3.88               |         | 3.68          |        | 3.91              |          |
| 세대<br>유형 | 1세대 가구    | 133 | 3.53           | 0.958  | 4.13               | 2.105   | 3.65          | 0.593  | 3.44              | 2.449    |
|          | 2세대가구     | 347 | 3.59           |        | 4.07               |         | 3.66          |        | 3.65              |          |
|          | 3세대 이상 가구 | 28  | 3.75           |        | 4.07               |         | 3.86          |        | 3.64              |          |
|          | 1인 가구     | 154 | 3.65           |        | 3.90               |         | 3.68          |        | 3.45              |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3 : 부정 문항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긍정 문항으로 변경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 나. 가족과의 대화

-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비동거중인 경우 포함)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자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각 구성원과의 대화 시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자녀와의 대화(3.64점), 배우자와의 대화(3.44점), 내 부모와의 대화(3.17점), 배우자 부모와의 대화(2.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분석 결과, 배우자 부모에 비해 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서, 내 부모와의 대화시간(3.1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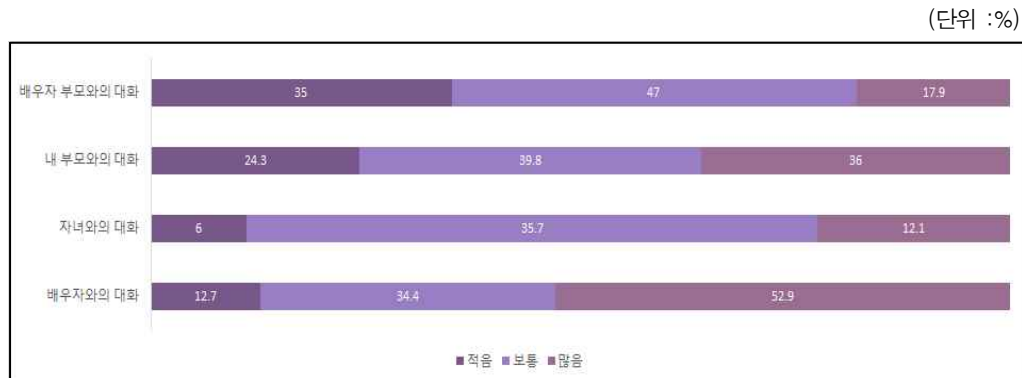
〈표 3-54〉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거의<br>나누지<br>않음 | 별로<br>나누지<br>않음 | 보통            | 자주<br>나눔      | 매우<br>자주<br>나눔 | 평균<br>점수 |
|-------------|----------------|-----------------|-----------------|---------------|---------------|----------------|----------|
| 배우자와의 대화    | 642<br>(100.0) | 19<br>(3.1)     | 72<br>(9.6)     | 242<br>(34.4) | 225<br>(39.2) | 84<br>(13.7)   | 3.44     |
| 자녀와의 대화     | 851<br>(100.0) | 5<br>(0.6)      | 46<br>(5.4)     | 304<br>(35.7) | 393<br>(46.2) | 103<br>(12.1)  | 3.64     |
| 내 부모와의 대화   | 611<br>(100.0) | 23<br>(3.8)     | 125<br>(20.5)   | 243<br>(39.8) | 163<br>(26.7) | 57<br>(9.3)    | 3.17     |
| 배우자 부모와의 대화 | 417<br>(100.0) | 30<br>(7.2)     | 116<br>(27.8)   | 196<br>(47.0) | 59<br>(14.1)  | 16<br>(3.8)    | 2.80     |

주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그림 3-36〉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 변화 분석 결과,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평균 점수는 3.44점으로서 2014(3.74점)에 비해 0.30점 감소한 반면, 자녀와의 대화시간 평균 점수는 2014년 3.62점에서 2022년 3.64점으로 0.02점 증가하였음

〈표 3-55〉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변화 (2014~2022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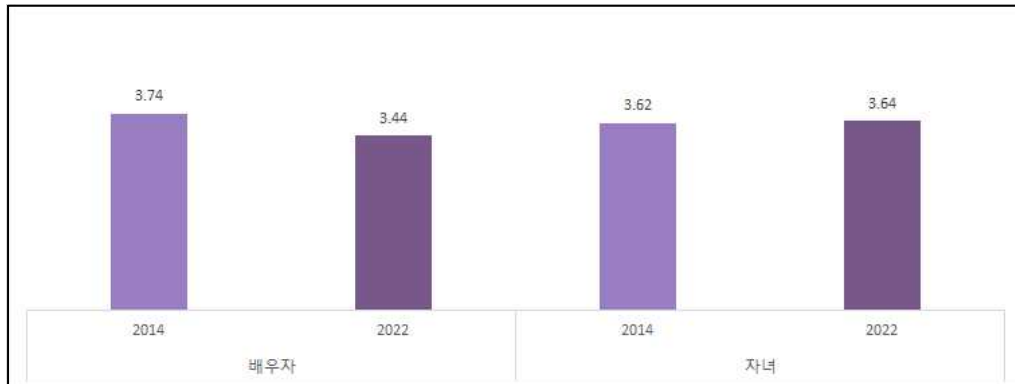
| 구분       | 2014  |      | 2022 |      | 2022-2014 |
|----------|-------|------|------|------|-----------|
|          | N     | 평균점수 | N    | 평균점수 | 평균점수      |
| 배우자와의 대화 | 2,014 | 3.74 | 642  | 3.44 | -0.30     |
| 자녀와의 대화  | 2,275 | 3.62 | 851  | 3.64 | 0.02      |

주1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주2 : 2014년 데이터의 평균값은 해당 문항이 4점 척도로 측정됨에 따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음

〈그림 3-37〉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 변화 비교 (2014~2022년)

(단위 :%)



-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에 대해 남성(3.51점) 응답자들이 여성(3.39점)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여성(3.75점)이 남성(3.41점)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 분석 결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고령자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 배우자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에 대한 20-30대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각각 4.08점, 4.0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0대 이상 응답자(배우자 3.36점, 자녀 3.62점)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56〉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단위 : 명, 점)

| 구분   |           | 배우자와의 관계 |       |               | 자녀와의 관계 |       |               | 내 부모와의 관계 |       |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        |
|------|-----------|----------|-------|---------------|---------|-------|---------------|-----------|-------|--------------|-------------|-------|--------|
|      |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N           | 평균 점수 | t, F   |
| 전체   |           | 642      | 3.44  | -             | 851     | 3.64  | -             | 611       | 3.17  | -            | 417         | 2.80  | -      |
| 성별   | 남성        | 247      | 3.51  | 1.541         | 279     | 3.41  | -5.977<br>*** | 214       | 3.02  | -2.786<br>** | 147         | 2.77  | -0.456 |
|      | 여성        | 395      | 3.39  |               | 572     | 3.75  |               | 397       | 3.25  |              | 270         | 2.81  |        |
| 연령   | 20-30대    | 82       | 4.08  | 10.812<br>*** | 54      | 4.02  | 10.377<br>*** | 137       | 3.45  | 4.839<br>*** | 64          | 2.98  | 2.267  |
|      | 40대       | 121      | 3.55  |               | 148     | 3.87  |               | 158       | 3.20  |              | 125         | 2.82  |        |
|      | 50대       | 176      | 3.33  |               | 272     | 3.58  |               | 232       | 3.05  |              | 178         | 2.67  |        |
|      | 60대       | 132      | 3.22  |               | 177     | 3.43  |               | 73        | 2.96  |              | 42          | 2.90  |        |
|      | 70대 이상    | 131      | 3.36  |               | 200     | 3.62  |               | 11        | 3.36  |              | 8           | 3.25  |        |
| 세대유형 | 1세대 가구    | 169      | 3.42  | 15.325<br>*** | 230     | 3.51  | 4.029<br>**   | 115       | 3.15  | 2.608        | 104         | 2.81  | 0.028  |
|      | 2세대가구     | 251      | 3.55  |               | 398     | 3.72  |               | 323       | 3.10  |              | 278         | 2.79  |        |
|      | 3세대 이상 가구 | 21       | 3.06  |               | 36      | 3.47  |               | 27        | 3.15  |              | 23          | 2.83  |        |
|      | 1인 가구     | 201      | 2.06  |               | 187     | 3.66  |               | 146       | 3.36  |              | 12          | 2.83  |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평균점수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 가족구성원과 나누는 대화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일상적인 대화(51.8%), 건강 및 여가활동 관련 대화(18.3%)를 나누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돌봄 관련 대화(1.7%)를 나누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7〉 가족과 나누는 대화의 종류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전체             | 1,736 | (100.0) |
| 일상적인 대화        | 899   | (51.8)  |
| 학업, 진로 등 취업 관련 | 128   | (7.4)   |
| 자녀 돌봄 및 교육 관련  | 116   | (6.7)   |
| 직장생활 관련        | 120   | (6.9)   |
| 부모 돌봄 관련       | 30    | (1.7)   |
| 가정의 경제문제 관련    | 110   | (6.3)   |
| 건강 및 여가활동 관련   | 317   | (18.3)  |
| 기타             | 16    | (0.9)   |

## 다. 배우자와의 가정생활

### □ 맞벌이 여부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5%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외벌이(17.1%), 모두 일하지 않음(8.3%), 아내 외벌이(4.0%)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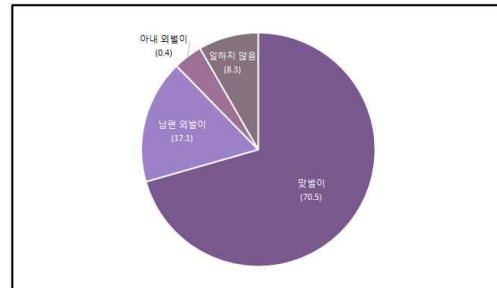
〈표 3-58〉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맞벌이       | 440 | (70.5)  |
| 남편 외벌이    | 107 | (17.1)  |
| 아내 외벌이    | 25  | (4.0)   |
| 모두 일하지 않음 | 52  | (8.3)   |
| 합계        | 624 | (100.0) |

〈그림 3-38〉 맞벌이 여부

(단위 : %)



## □ 가사분담 정도

-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분석 결과,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53.8%)은 남편(7.1%)에 비해 약 7.5배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가사분담 정도에 대한 가사노동 종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아내의 가사분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사노동 종류별 남편의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 항목의 응답률이 다른 가사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21.0%)인 것으로 분석됨

〈표 3-59〉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단위 : 명, %)

| 구분              | N              | 주로 남편이        | 부부가 함께        | 주로 아내가        |
|-----------------|----------------|---------------|---------------|---------------|
| 평균              | 624<br>(100.0) | 45<br>(7.1)   | 244<br>(39.1) | 335<br>(53.8) |
| 식사준비            | 624<br>(100.0) | 11<br>(1.8)   | 134<br>(21.5) | 479<br>(76.8) |
| 세탁              | 624<br>(100.0) | 20<br>(3.2)   | 194<br>(31.1) | 410<br>(65.7) |
| 청소              | 624<br>(100.0) | 36<br>(5.8)   | 266<br>(42.6) | 322<br>(51.6) |
|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 | 624<br>(100.0) | 131<br>(21.0) | 266<br>(42.6) | 227<br>(36.4) |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 624<br>(100.0) | 25<br>(4.0)   | 360<br>(57.7) | 239<br>(38.3) |

- 연령별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내의 가사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경우 아내의 가사분담률이 61.7%,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4.3%로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30대의 경우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51.8%) 및 남편이 한다는 응답(16.7%)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60〉 연령별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

(단위 : 명, %)

| 구분     | N              | 주로 남편이       | 부부가 함께       | 주로 아내가        |
|--------|----------------|--------------|--------------|---------------|
| 20-30대 | 66<br>(100.0)  | 11<br>(16.7) | 34<br>(51.8) | 21<br>(31.5)  |
| 40대    | 137<br>(100.0) | 12<br>(8.9)  | 55<br>(40.4) | 69<br>(50.7)  |
| 50대    | 220<br>(100.0) | 12<br>(5.3)  | 85<br>(38.7) | 123<br>(56.0) |
| 60대    | 107<br>(100.0) | 6<br>(5.4)   | 37<br>(34.8) | 64<br>(59.8)  |
| 70대 이상 | 94<br>(100.0)  | 4<br>(4.3)   | 32<br>(34.0) | 58<br>(61.7)  |

주 : 각 셀의 값은 5개 문항(식사준비, 세탁, 청소,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임

## □ 가정생활 결정권

-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별로는 아내(31.3%)가 남편(7.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결정권 분석 결과, 아내의 경우 생활비 지출,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편의 경우 투자 및 자산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생활비 지출 및 집안일과 관련하여 아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4.4%, 58.5%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의 경우 투자 및 자산관리(20.4%) 항목만이 유일하게 여성보다 높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61〉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단위 : 명, %)

| 구분         | N              | 주로 남편이        | 부부가 함께        | 주로 아내가        |
|------------|----------------|---------------|---------------|---------------|
| 평균         | 515<br>(100.0) | 36<br>(7.0)   | 317<br>(61.7) | 161<br>(31.3) |
| 자녀교육       | 539<br>(100.0) | 8<br>(1.5)    | 371<br>(68.8) | 160<br>(29.7) |
| 투자, 자산관리 등 | 624<br>(100.0) | 127<br>(20.4) | 382<br>(61.2) | 115<br>(18.4) |
| 생활비 지출     | 624<br>(100.0) | 57<br>(9.1)   | 290<br>(46.5) | 277<br>(44.4) |
| 취업, 직장이동   | 416<br>(100.0) | 41<br>(9.9)   | 311<br>(74.8) | 64<br>(15.4)  |
| 가사 등 집안일   | 624<br>(100.0) | 11<br>(1.8)   | 248<br>(39.7) | 365<br>(58.5) |
| 내 부모 돌봄    | 343<br>(100.0) | 14<br>(4.1)   | 219<br>(63.8) | 110<br>(32.1) |
| 배우자 부모 돌봄  | 322<br>(100.0) | 20<br>(6.2)   | 227<br>(70.5) | 75<br>(23.3)  |
| 가족여가       | 624<br>(100.0) | 11<br>(1.8)   | 491<br>(78.7) | 122<br>(19.6) |

○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 간의 결정권 부담률 차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 응답자 중 부부가 함께 가정생활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3.0%로서 60대(60.3%), 70대 이상(59.2%) 등 고 연령대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 간 응답률 차이가 20~30대 15.6%p, 70대 이상 15.0%p 등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2〉 연령별 부부간 가정생활 결정권

(단위 : 명, %)

| 구분     | N              | 주로 남편이      | 부부가 함께        | 주로 아내가       |
|--------|----------------|-------------|---------------|--------------|
| 20~30대 | 59<br>(100.0)  | 3<br>(5.7)  | 43<br>(73.0)  | 13<br>(21.3) |
| 40대    | 120<br>(100.0) | 8<br>(6.8)  | 70<br>(58.8)  | 41<br>(34.4) |
| 50대    | 191<br>(100.0) | 12<br>(6.0) | 117<br>(61.4) | 62<br>(32.6) |
| 60대    | 82<br>(100.0)  | 5<br>(6.1)  | 50<br>(60.3)  | 28<br>(33.6) |
| 70대 이상 | 63<br>(100.0)  | 8<br>(12.9) | 37<br>(59.2)  | 18<br>(27.9) |

주 : 각 셀의 값은 8개 문항(자녀교육, 자산관리, 생활비지출, 취업 및 직장이동, 집안일, 부모돌봄, 가족여가 등)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임

## □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차이(3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방식의 차이(18.6%)’,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충돌(13.3%)’, ‘경제적 문제(1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3〉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전체                | 624 | (100.0) |
|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   | 46  | (7.4)   |
| 배우자의 생활방식 차이      | 116 | (18.6)  |
|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 충돌    | 83  | (13.3)  |
| 경제적 문제            | 83  | (13.3)  |
| 가사 및 육아 분담        | 22  | (3.5)   |
| 부모 돌봄 및 부양        | 8   | (1.3)   |
| 배우자와 성격이나 사고방식 차이 | 216 | (34.6)  |
| 기타                | 50  | (8.0)   |

## 라.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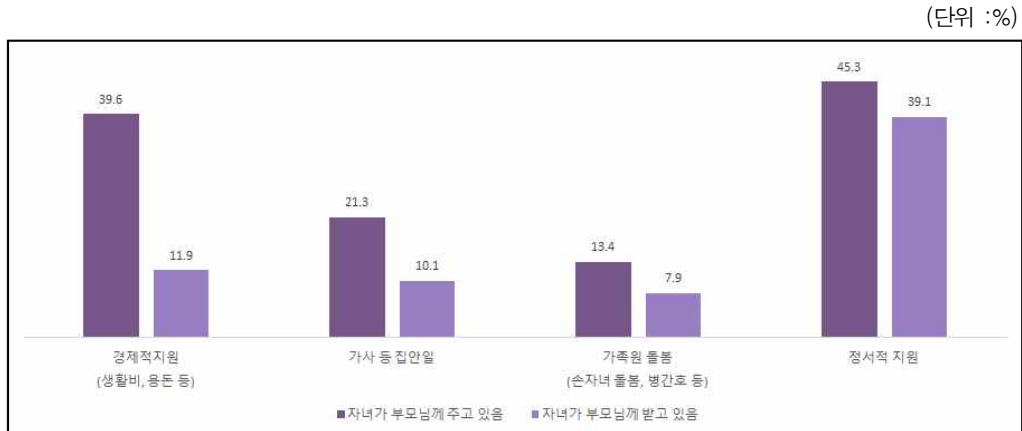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부모와의 상호 지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자녀→부모)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도움을 받고 있다(부모→자녀)라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 수준인데 반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세부 항목별 상호 지원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가장 교류가 많은 항목은 ‘정서적 지원’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 및 가사 지원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에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3%, 39.1%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리적, 정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64〉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단위 : 명, %)

| 구분                        | N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음 |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음 |               |
|---------------------------|-----------------|--------------------|---------------|--------------------|---------------|
|                           |                 | 그렇다                | 아니다           | 그렇다                | 아니다           |
| 평균                        | 662<br>(100.0)  | 198<br>(29.9)      | 464<br>(70.1) | 114<br>(39.1)      | 548<br>(60.9) |
| 경제적 지원<br>(생활비, 용돈 등)     | 662<br>(100.0)  | 262<br>(39.6)      | 400<br>(60.4) | 79<br>(11.9)       | 583<br>(88.1) |
| 가사 등 집안일                  | 662<br>(100.0)  | 141<br>(21.3)      | 521<br>(78.7) | 67<br>(10.1)       | 595<br>(89.9) |
| 가족원 돌봄<br>(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92.1<br>(100.0) | 89<br>(13.4)       | 573<br>(86.6) | 52<br>(7.9)        | 610<br>(92.1) |
| 정서적 지원                    | 662<br>(100.0)  | 300<br>(45.3)      | 362<br>(54.7) | 259<br>(39.1)      | 403<br>(60.9) |

〈그림 3-39〉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정도 분석 결과, 자녀가 부모님께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움을 받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46.9%)이 여성(35.4%)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12.8%)이 남성(1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모와 상호간의 가사노동 지원 정도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부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의 가사노동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2.1%)이 남성(1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여성(10.9%)이 남성(8.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5〉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단위 : 명, %)

| 구분                        |    | N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음 |               |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음 |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t            | 그렇다                | 아니다           | t      |
| 경제적 지원<br>(생활비, 용돈 등)     | 남성 | 241<br>(100.0) | 113<br>(46.9)      | 128<br>(53.1) | -2.925<br>** | 25<br>(10.4)       | 216<br>(89.6) | 0.936  |
|                           | 여성 | 421<br>(100.0) | 149<br>(35.4)      | 272<br>(64.6) |              | 54<br>(12.8)       | 367<br>(87.2) |        |
| 가사 등 집안일                  | 남성 | 241<br>(100.0) | 48<br>(19.9)       | 193<br>(80.1) | 0.656        | 21<br>(8.7)        | 220<br>(91.3) | 0.907  |
|                           | 여성 | 421<br>(100.0) | 93<br>(22.1)       | 328<br>(77.9) |              | 46<br>(10.9)       | 375<br>(89.1) |        |
| 가족원 돌봄<br>(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남성 | 241<br>(100.0) | 40<br>(16.6)       | 201<br>(83.4) | -1.801       | 19<br>(7.9)        | 222<br>(92.1) | -0.021 |
|                           | 여성 | 421<br>(100.0) | 49<br>(11.6)       | 372<br>(88.4) |              | 33<br>(7.8)        | 388<br>(92.2) |        |
| 정서적 지원                    | 남성 | 241<br>(100.0) | 104<br>(43.2)      | 137<br>(56.8) | 0.845        | 95<br>(39.4)       | 146<br>(60.6) | -0.118 |
|                           | 여성 | 421<br>(100.0) | 196<br>(46.6)      | 225<br>(53.4) |              | 164<br>(39.0)      | 257<br>(61.0)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많이 지원 하고, 적게 지원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의 49.3%가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 수준 인식이 낮은 응답자들은 부모에게 지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정서적 지원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46.7%, 37.4%)가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응답자들(41.9%, 36.0%)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6〉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지원 정도

(단위 : 명, %)

| 구분                        |    | N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음 |               |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음 |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F      | 그렇다                | 아니다           | F            |
| 경제적 지원<br>(생활비, 용돈 등)     | 낮음 | 107<br>(100.0) | 36<br>(33.6)       | 71<br>(66.4)  | 3.713* | 24<br>(22.4)       | 83<br>(77.6)  | 7.379<br>*** |
|                           | 보통 | 419<br>(100.0) | 159<br>(37.9)      | 260<br>(62.1) |        | 45<br>(10.7)       | 374<br>(89.3) |              |
|                           | 높음 | 136<br>(100.0) | 67<br>(49.3)       | 69<br>(50.7)  |        | 10<br>(7.4)        | 126<br>(92.6) |              |
| 가사 등 집안일                  | 낮음 | 107<br>(100.0) | 22<br>(20.6)       | 85<br>(79.4)  | 0.310  | 8<br>(7.5)         | 99<br>(92.5)  | 2.089        |
|                           | 보통 | 419<br>(100.0) | 93<br>(22.2)       | 326<br>(77.8) |        | 50<br>(11.9)       | 369<br>(88.1) |              |
|                           | 높음 | 136<br>(100.0) | 26<br>(19.1)       | 110<br>(80.9) |        | 9<br>(6.6)         | 127<br>(93.4) |              |
| 가족원 돌봄<br>(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낮음 | 107<br>(100.0) | 18<br>(16.8)       | 89<br>(83.2)  | 0.732  | 6<br>(5.6)         | 101<br>(94.4) | 0.449        |
|                           | 보통 | 419<br>(100.0) | 52<br>(12.4)       | 367<br>(87.6) |        | 35<br>(8.4)        | 384<br>(91.6) |              |
|                           | 높음 | 136<br>(100.0) | 19<br>(14.0)       | 117<br>(86.0) |        | 11<br>(8.1)        | 125<br>(91.9) |              |
| 정서적 지원                    | 낮음 | 107<br>(100.0) | 50<br>(46.7)       | 57<br>(53.3)  | 0.407  | 40<br>(37.4)       | 67<br>(62.6)  | 0.525        |
|                           | 보통 | 419<br>(100.0) | 193<br>(46.1)      | 226<br>(53.9) |        | 170<br>(40.6)      | 249<br>(59.4) |              |
|                           | 높음 | 136<br>(100.0) | 57<br>(41.9)       | 79<br>(58.1)  |        | 49<br>(36.0)       | 87<br>(64.0)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마. 가족과의 여가활동

### □ 가족과의 여가 시간

○ 가족과의 여가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과의 여가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5%에 불과한 반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0.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여가시간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

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동 지역에 거주중인 사람일수록' 여가시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여가시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44.6% 수준인데 반해, 70대 이상의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21.7%로 20-30대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동 지역 거주자들의 만족도 수준(제주시 31.2%, 서귀포시 48.4%)이 읍면지역(제주시 14.0%, 서귀포시 1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38.0%)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24.6%)에 비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표 3-67〉 가족과의 여가시간

(단위 : 명, %)

| 구분   |           | N                | 충분함           | 충분하지<br>않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298<br>(29.5) | 711<br>(70.5)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91<br>(25.6)  | 265<br>(74.4) | 2.044*    |
|      | 여성        | 653<br>(100.0)   | 207<br>(31.7) | 446<br>(68.3)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62<br>(44.6)  | 77<br>(55.4)  | 9.528***  |
|      | 40대       | 181<br>(100.0)   | 72<br>(39.8)  | 109<br>(60.2) |           |
|      | 50대       | 295<br>(100.0)   | 78<br>(26.4)  | 217<br>(73.6) |           |
|      | 60대       | 191<br>(100.0)   | 42<br>(22.0)  | 149<br>(78.0) |           |
|      | 70대 이상    | 209<br>(100.0)   | 44<br>(21.7)  | 159<br>(70.5) |           |
| 거주지역 | 제주시 동지역   | 571<br>(100.0)   | 178<br>(31.2) | 393<br>(68.8) | 18.279***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br>(100.0)   | 23<br>(14.0)  | 141<br>(86.0) |           |
|      | 서귀포시 동지역  | 153<br>(100.0)   | 74<br>(48.4)  | 79<br>(51.6)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121<br>(100.0)   | 23<br>(19.0)  | 98<br>(8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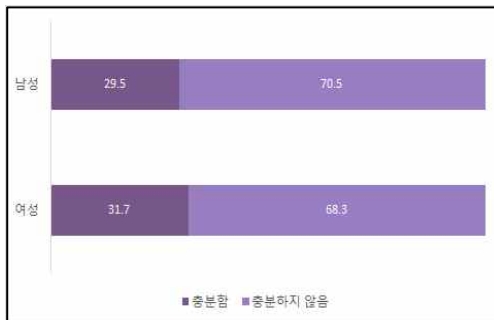


| 구분              |    | N              | 충분함           | 충분하지<br>않음    | t, F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45<br>(24.6)  | 138<br>(75.4) | 4.788** |
|                 | 보통 | 626<br>(100.0) | 177<br>(28.3) | 449<br>(71.7) |         |
|                 | 높음 | 200<br>(100.0) | 76<br>(38.0)  | 124<br>(6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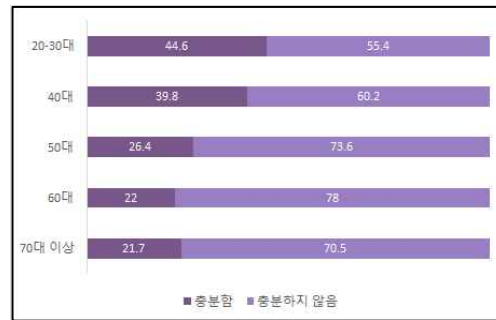
주 : \* p<.05, \*\* p<.01, \*\*\* p<.001

〈그림 3-40〉 가족과의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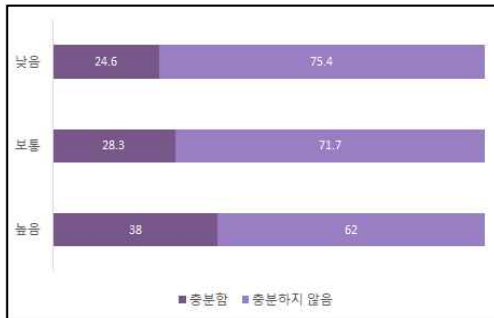
(단위 :%)



<성별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경제적수준 인식별>

- 가족들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가족구성원들이 바빠서’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서(42.8%)’,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30.3%)’,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가 없어서(10.0%)’ 순으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40대 및 50대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연령 및 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40대의 경우 학령기에 접어든 가족원들이 있는 가구가 다수 포함되면서,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서(42.1%)’, ‘자녀의 교육 때문에(6.7%)’라는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 50대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성년의 자녀가 있는 확률이 높은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구성원이 너무 바빠서(51.0%)’의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응답자의 대다수가 1인 가구에 해당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3-6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N                | 연령             |                |                |                |                | 혼인상태           |                |                |                |               |
|------------------|------------------|----------------|----------------|----------------|----------------|----------------|----------------|----------------|----------------|----------------|---------------|
|                  |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결혼<br>(동거포함)   | 미혼             | 이혼             | 사별             | 별거            |
| 전체               | 1,059<br>(100.0) | 114<br>(100.0) | 164<br>(100.0) | 312<br>(100.0) | 217<br>(100.0) | 252<br>(100.0) | 585<br>(100.0) | 116<br>(100.0) | 122<br>(100.0) | 204<br>(100.0) | 32<br>(100.0) |
|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 321<br>(30.3)    | 40<br>(35.1)   | 33<br>(20.1)   | 78<br>(25.0)   | 70<br>(32.3)   | 100<br>(39.7)  | 132<br>(22.6)  | 56<br>(48.3)   | 48<br>(39.3)   | 75<br>(36.8)   | 10<br>(31.3)  |
|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서     | 453<br>(42.8)    | 49<br>(43.0)   | 69<br>(42.1)   | 159<br>(51.0)  | 91<br>(41.9)   | 85<br>(33.7)   | 266<br>(45.5)  | 43<br>(37.1)   | 47<br>(38.5)   | 85<br>(41.7)   | 12<br>(37.5)  |
| 경제적 부담 때문에       | 65<br>(6.1)      | 6<br>(5.3)     | 16<br>(9.8)    | 15<br>(4.8)    | 11<br>(5.1)    | 17<br>(6.7)    | 35<br>(6.0)    | 3<br>(2.6)     | 9<br>(7.4)     | 15<br>(7.4)    | 3<br>(9.4)    |
|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 부족   | 10<br>(0.9)      | 2<br>(1.8)     | 3<br>(1.8)     | 2<br>(0.6)     | 0<br>(0.0)     | 3<br>(1.2)     | 8<br>(1.4)     | 0<br>(0.0)     | 2<br>(1.6)     | 0<br>(0.0)     | 0<br>(0.0)    |
|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서 | 7<br>(0.7)       | 0<br>(0.0)     | 2<br>(1.2)     | 2<br>(0.6)     | 2<br>(0.9)     | 1<br>(0.4)     | 4<br>(0.7)     | 0<br>(0.0)     | 1<br>(0.8)     | 1<br>(0.5)     | 1<br>(3.1)    |
| 자녀 교육 때문에        | 21<br>(2.0)      | 3<br>(2.6)     | 11<br>(6.7)    | 6<br>(1.9)     | 1<br>(0.5)     | 0<br>(0.0)     | 19<br>(3.2)    | 0<br>(0.0)     | 1<br>(0.8)     | 1<br>(0.5)     | 0<br>(0.0)    |
|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 49<br>(4.6)      | 4<br>(3.5)     | 5<br>(3.0)     | 9<br>(2.9)     | 4<br>(1.8)     | 27<br>(10.7)   | 32<br>(5.5)    | 1<br>(0.9)     | 1<br>(0.8)     | 13<br>(6.4)    | 2<br>(6.3)    |
|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가 없어서 | 106<br>(10.0)    | 8<br>(7.0)     | 20<br>(12.2)   | 35<br>(11.2)   | 29<br>(13.4)   | 14<br>(5.6)    | 75<br>(12.8)   | 10<br>(8.6)    | 7<br>(5.7)     | 10<br>(4.9)    | 4<br>(12.5)   |
| 기타               | 27<br>(2.5)      | 2<br>(1.8)     | 5<br>(3.0)     | 6<br>(1.9)     | 9<br>(4.1)     | 5<br>(2.0)     | 14<br>(2.4)    | 3<br>(2.6)     | 6<br>(4.9)     | 4<br>(2.0)     | 0<br>(2.0)    |

## □ 가족과의 여가 활동

- 가족과의 여가 활동 빈도 분석 결과, ‘일 년에 서너 번(23.1%)’, ‘한 달에 한 번 정도(21.1%)’, ‘전혀 없음(16.5%)’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여가시간 비교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여가활동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가족과의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일 년에 서너 번(3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한 달에 두세 번(18.0%)’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일 년에 서너 번(30.1%)’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69〉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

(단위 : 명, %)

| 구분              |        | N                | 전혀없음          | 일주일에 두세번     | 일주일에 한번정도     | 한 달에 두세번      | 한 달에 한번정도     | 일 년에 서너번      | 일 년에 한번이하   |
|-----------------|--------|------------------|---------------|--------------|---------------|---------------|---------------|---------------|-------------|
| 전체              |        | 1,009<br>(100.0) | 166<br>(16.5) | 77<br>(7.6)  | 135<br>(13.4) | 153<br>(15.2) | 213<br>(21.1) | 233<br>(23.1) | 32<br>(3.2)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19<br>(13.7)  | 27<br>(19.4) | 26<br>(18.7)  | 23<br>(16.5)  | 27<br>(19.4)  | 14<br>(10.1)  | 3<br>(2.2)  |
|                 | 40대    | 181<br>(100.0)   | 17<br>(9.4)   | 23<br>(12.7) | 38<br>(21.0)  | 35<br>(19.3)  | 43<br>(23.8)  | 23<br>(12.7)  | 2<br>(1.1)  |
|                 | 50대    | 295<br>(100.0)   | 38<br>(12.9)  | 14<br>(4.7)  | 53<br>(18.0)  | 55<br>(18.6)  | 65<br>(22.0)  | 61<br>(20.7)  | 9<br>(3.1)  |
|                 | 60대    | 191<br>(100.0)   | 45<br>(23.6)  | 7<br>(3.7)   | 13<br>(6.8)   | 17<br>(8.9)   | 37<br>(19.4)  | 64<br>(33.5)  | 8<br>(4.2)  |
|                 | 70대 이상 | 203<br>(100.0)   | 47<br>(23.2)  | 6<br>(3.0)   | 5<br>(2.5)    | 23<br>(11.3)  | 41<br>(20.2)  | 71<br>(35.0)  | 10<br>(4.9)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33<br>(18.0)  | 14<br>(7.7)  | 13<br>(7.1)   | 21<br>(11.5)  | 38<br>(20.8)  | 55<br>(30.1)  | 9<br>(4.9)  |
|                 | 보통     | 626<br>(100.0)   | 95<br>(15.2)  | 42<br>(6.7)  | 89<br>(14.2)  | 96<br>(15.3)  | 140<br>(22.4) | 143<br>(22.8) | 21<br>(3.4) |
|                 | 높음     | 200<br>(100.0)   | 38<br>(19.0)  | 21<br>(10.5) | 33<br>(16.5)  | 36<br>(18.0)  | 35<br>(17.5)  | 35<br>(17.5)  | 2<br>(1.0)  |

- 2014~2022년 가족과의 여가활동 변화 양상 분석 결과,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2014년 6.1%에서 2022년 9.1%로 3.1%p 증가한 반면, '일 년에 한 번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10.8%에서 2022년 3.8%로 7.0%p 감소하였음

〈표 3-70〉 가족과의 여가활동 변화 (2014~2022년)

(단위 : %)

| 구분          | 2014년   | 2022년   | 2022-2014 |
|-------------|---------|---------|-----------|
| 전체          | (100.0) | (100.0) | -         |
| 일주일에 두세 번   | (6.1)   | (9.1)   | (3.0)     |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15.7)  | (16.0)  | (0.3)     |
| 한 달에 두세 번   | (19.0)  | (18.1)  | (-0.8)    |
| 한 달에 한 번 정도 | (23.8)  | (25.3)  | (1.5)     |
| 일 년에 서너 번   | (24.5)  | (27.6)  | (3.1)     |
| 일 년에 한 번 이하 | (10.8)  | (3.8)   | (-7.0)    |

-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식(56.8%)'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산책 및 나들이(16.1%)', 'TV 및 비디오 시청(10.8%)' 등 일상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결과 또한 '외식(30.8%)'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V 및 비디오 시청(19.5%)', '산책 및 나들이(18.1%)' 등 타 항목과의 비중 차이는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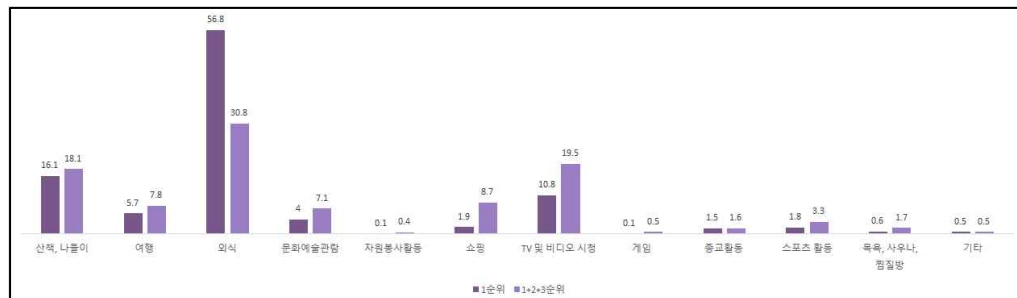
〈표 3-71〉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종류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843<br>(100.0) | 807<br>(100.0) | 717<br>(100.0) | 1,650<br>(100.0) | 2,367<br>(100.0) |
| 산책, 나들이           | 136<br>(16.1)  | 146<br>(18.1)  | 147<br>(20.5)  | 282<br>(17.1)    | 429<br>(18.1)    |
| 여행                | 48<br>(5.7)    | 64<br>(7.9)    | 72<br>(10.0)   | 112<br>(6.8)     | 184<br>(7.8)     |
| 외식                | 479<br>(56.8)  | 152<br>(18.8)  | 99<br>(13.8)   | 631<br>(38.2)    | 730<br>(30.8)    |
| 문화예술관람(영화, 박물관 등) | 34<br>(4.0)    | 65<br>(8.1)    | 69<br>(9.6)    | 99<br>(6.0)      | 168<br>(7.1)     |
| 자원봉사활동            | 1<br>(0.1)     | 2<br>(0.2)     | 6<br>(0.8)     | 3<br>(0.2)       | 9<br>(0.4)       |
| 쇼핑                | 16<br>(1.9)    | 88<br>(10.9)   | 102<br>(14.2)  | 104<br>(6.3)     | 206<br>(8.7)     |
| TV 및 비디오 시청       | 91<br>(10.8)   | 230<br>(28.5)  | 140<br>(19.5)  | 321<br>(19.5)    | 461<br>(19.5)    |
| 게임                | 1<br>(0.1)     | 6<br>(0.7)     | 4<br>(0.6)     | 7<br>(0.4)       | 11<br>(0.5)      |
| 종교활동              | 13<br>(1.5)    | 8<br>(1.0)     | 18<br>(2.5)    | 21<br>(1.3)      | 39<br>(1.6)      |
| 스포츠 활동            | 15<br>(1.8)    | 34<br>(4.2)    | 29<br>(4.0)    | 49<br>(3.0)      | 78<br>(3.3)      |
| 목욕, 사우나, 찜질방      | 5<br>(0.6)     | 11<br>(1.4)    | 24<br>(3.3)    | 16<br>(1.0)      | 40<br>(1.7)      |
| 기타                | 4<br>(0.5)     | 1<br>(0.1)     | 7<br>(1.0)     | 5<br>(0.3)       | 12<br>(0.5)      |

〈그림 3-41〉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종류

(단위 : %)



## 바. 소결

- 다른 가족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분석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은 4.15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20점으로 남성(4.04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배우자와의 관계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대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3.60점, 3.83점, 3.76점)에 비해 남성(3.76점, 4.00점, 3.87점)이, 2세대 가구(3.71점, 3.80점, 3.88점)가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친밀도, 다툼, 신뢰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자녀와의 관계 분석 결과, 낮은 연령대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여부가 자녀와의 다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대의 경우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자녀와의 친밀도(4.33점), 다툼(4.96점), 신뢰도(4.33점), 친구 인지(3.35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자녀와의 다툼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1세대 가구(4.25점), 1인 가구(4.22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2세대 가구(3.93점), 3세대 이상 가구(3.81점)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시간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배우자에 비해 자녀와의 대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대비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감소한 반면, 자녀와의 대화 시간은 소폭 증가하였음
  - 구성원 별 대화시간 분석 결과, 자녀와의 대화는 3.64점으로 배우자와의 대화(3.44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은 감소(3.74점→3.44점)한 반면, 자녀와의 대화시간(3.62점→3.64점)은 증가하였음
-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남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70대 이상의 경우 아내의 가사분담률이 61.7%,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4.3%로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30대의 경우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51.8%) 및 남편이 한다는 응답(16.7%)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가사노동과는 다르게 가정생활 결정권은 주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가 함께 가정생활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별 비교 분석 결과, 아내가 결정한다는 비율이 31.3%로 남편(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60대(60.3%), 70대 이상(59.2%) 등 높은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자녀→부모)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로부터 자녀가 도움을 받고 있다(부모→자녀)는 응답률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항목은 ‘정서적 지원’ 인 것으로 분석됨
-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6% 수준인데 반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른 항목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20% 내외의 응답을 보인 반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약 40% 수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가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바빠서’ 여가활동을 충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이 바빠서 여가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 분석 결과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수는 2014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증가(6.1%→9.1%)한 반면, ‘일 년에 한 번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3.8%)로 감소하였음



## 6. 자녀 및 가족 돌봄

### 가. 취학 전 영유아 돌봄

#### □ 주 양육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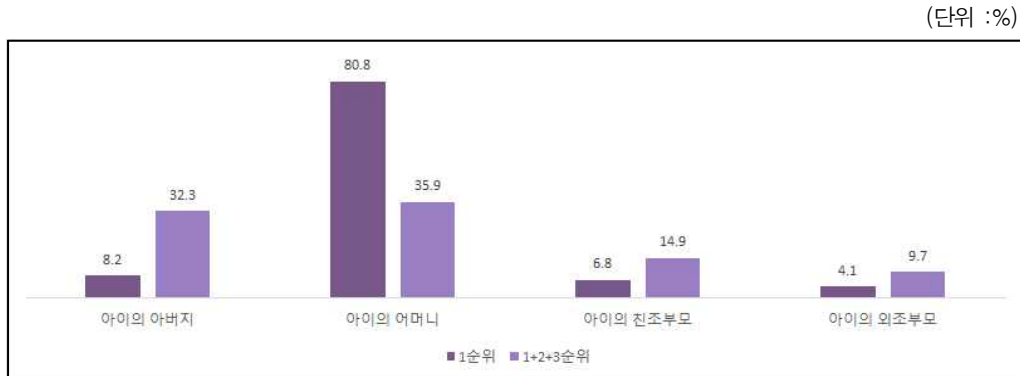
- 동거중인 가족 구성원 중 취학 전 영유아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이의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아이의 어머니(35.9%) 및 아버지(32.3%)를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4.6%(14.9%+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72〉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73<br>(100.0) | 73<br>(100.0) | 49<br>(100.0) | 146<br>(100.0) | 195<br>(100.0) |
| 아이의 아버지      | 6<br>(8.2)    | 51<br>(69.9)  | 6<br>(12.2)   | 57<br>(39.0)   | 63<br>(32.3)   |
| 아이의 어머니      | 59<br>(80.8)  | 7<br>(9.6)    | 4<br>(8.2)    | 66<br>(45.2)   | 70<br>(35.9)   |
| 아이의 친조부모     | 5<br>(6.8)    | 9<br>(12.3)   | 15<br>(30.6)  | 14<br>(9.6)    | 29<br>(14.9)   |
| 아이의 외조부모     | 3<br>(4.1)    | 3<br>(4.1)    | 13<br>(26.5)  | 6<br>(4.1)     | 19<br>(9.7)    |
| 아이의 이모, 삼촌 등 | 0<br>(0.0)    | 2<br>(2.7)    | 3<br>(6.1)    | 2<br>(1.4)     | 5<br>(2.6)     |
| 기타 친인척       | 0<br>(0.0)    | 0<br>(0.0)    | 3<br>(6.1)    | 0<br>(0.0)     | 3<br>(1.5)     |
| 가사도우미        | 0<br>(0.0)    | 1<br>(1.4)    | 0<br>(0.0)    | 1<br>(0.7)     | 1<br>(0.5)     |
| 이웃           | 0<br>(0.0)    | 0<br>(0.0)    | 1<br>(2.0)    | 0<br>(0.0)     | 1<br>(0.5)     |
| 기타           | 0<br>(0.0)    | 0<br>(0.0)    | 4<br>(8.2)    | 0<br>(0.0)     | 4<br>(2.1)     |

〈그림 3-42〉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율은 전체 남성 응답자의 87.0%로서, 여성(78.0%)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아이의 주 양육자가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의 주 양육자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72.5%, 11.8%로 나타난 반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 모든 응답자들이 아이의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7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영유아의 주 양육자 인식(1순위 기준)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 N             | 아이의 아버지     | 아이의 어머니       | 아이의 조부모     | 아이의 외조부모    |
|--------|--------|---------------|-------------|---------------|-------------|-------------|
| 전체     |        | 73<br>(100.0) | 6<br>(8.2)  | 59<br>(80.8)  | 5<br>(6.8)  | 3<br>(4.1)  |
| 성별     | 남성     | 23<br>(100.0) | 2<br>(8.7)  | 20<br>(87.0)  | 0<br>(0.0)  | 1<br>(4.3)  |
|        | 여성     | 50<br>(100.0) | 4<br>(8.0)  | 39<br>(78.0)  | 5<br>(10.0) | 2<br>(4.0)  |
| 연령     | 20-30대 | 41<br>(100.0) | 5<br>(12.2) | 35<br>(85.4)  | 0<br>(0.0)  | 1<br>(2.4)  |
|        | 40대    | 19<br>(100.0) | 0<br>(0.0)  | 15<br>(78.9)  | 3<br>(15.8) | 1<br>(5.3)  |
|        | 50대    | 9<br>(100.0)  | 0<br>(0.0)  | 7<br>(77.8)   | 1<br>(11.1) | 1<br>(11.1) |
|        | 60대    | 4<br>(100.0)  | 1<br>(25.0) | 2<br>(50.0)   | 1<br>(25.0) | 0<br>(0.0)  |
| 맞벌이 여부 | 맞벌이    | 51<br>(100.0) | 6<br>(11.8) | 37<br>(72.5)  | 5<br>(9.8)  | 3<br>(5.9)  |
|        | 남편 외벌이 | 20<br>(100.0) | 0<br>(0.0)  | 20<br>(100.0) | 0<br>(0.0)  | 0<br>(0.0)  |
|        | 아내 외벌이 | 2<br>(100.0)  | 0<br>(0.0)  | 2<br>(100.0)  | 0<br>(0.0)  | 0<br>(0.0)  |

## □ 돌봄 시설의 이용

○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 시설 이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5%가 돌봄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취업상태별 비교 분석 결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72.1%(44명)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 모든 응답자(9명)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맞벌이(76.5%) 및 남편 외벌이(65.0%) 가정의 시설 이용률이 아내 외벌이(50.0%) 가정에 비해 높게 분석됨

〈표 3-74〉 취학 전 영유아의 돌봄 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

| 구분        |           | N             | 이용하고 있음       | 이용하지 않음      | t, F    |
|-----------|-----------|---------------|---------------|--------------|---------|
| 전체        |           | 73<br>(100.0) | 53<br>(72.6)  | 20<br>(27.4) | -       |
| 거주지역      | 제주시 동지역   | 48<br>(100.0) | 31<br>(64.6)  | 17<br>(35.4) | 3.066*  |
|           | 제주시 읍면지역  | 15<br>(100.0) | 15<br>(100.0) | 0<br>(0.0)   |         |
|           | 서귀포시 동지역  | 6<br>(100.0)  | 5<br>(83.3)   | 1<br>(16.7)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4<br>(100.0)  | 2<br>(50.0)   | 2<br>(50.0)  |         |
| 취업상태      | 취업        | 61<br>(100.0) | 44<br>(72.1)  | 17<br>(27.9) | 6.446** |
|           | 실업        | 3<br>(100.0)  | 0<br>(0.0)    | 3<br>(100.0) |         |
|           | 비경제활동     | 9<br>(100.0)  | 9<br>(100.0)  | 0<br>(0.0)   |         |
| 맞벌이<br>여부 | 맞벌이       | 51<br>(100.0) | 39<br>(76.5)  | 12<br>(23.5) | 0.723   |
|           | 남편 외벌이    | 20<br>(100.0) | 13<br>(65.0)  | 7<br>(35.0)  |         |
|           | 아내 외벌이    | 2<br>(100.0)  | 1<br>(50.0)   | 1<br>(50.0)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취학 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돌봄 시설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55.3%), 학원(17.1%), 유치원(11.8%)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상태별 돌봄 시설 이용 분석 결과, 취업상태인 응답자들의 경우 비경제활동 응답자들에 비해 학원 이용률(1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 활동 응답자들의 경우 유치원 이용률(18.2%)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75〉 취학 전 영유아의 돌봄을 위한 이용 시설 종류

(단위 : 명, %)

| 구분      | N             | 취업상태          |               |               |
|---------|---------------|---------------|---------------|---------------|
|         |               | 취업            | 비경제활동         | 맞벌이           |
|         |               |               |               |               |
| 전체      | 76<br>(100.0) | 65<br>(100.0) | 51<br>(100.0) | 11<br>(100.0) |
| 유치원     | 9<br>(11.8)   | 7<br>(10.8)   | 6<br>(11.8)   | 2<br>(18.2)   |
| 어린이집    | 42<br>(55.3)  | 36<br>(55.4)  | 31<br>(60.8)  | 6<br>(54.5)   |
| 학원      | 13<br>(17.1)  | 12<br>(18.5)  | 11<br>(21.6)  | 1<br>(9.1)    |
| 지역아동센터  | 1<br>(1.3)    | 0<br>(0.0)    | 1<br>(2.0)    | 1<br>(9.1)    |
| 방과 후 교실 | 10<br>(13.2)  | 9<br>(13.8)   | 8<br>(15.7)   | 1<br>(9.1)    |
| 기타      | 1<br>(1.3)    | 1<br>(1.5)    | 1<br>(2.0)    | 0<br>(0.0)    |

##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등의 돌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대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대까지의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요는 오후 4~5시(20.1%), 오후 5~6시(22.6%), 오후 6~7시(21.4%) 등 어린이집 등의 돌봄 서비스 종료시간(오후 4시)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대(오후 7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어린이집 등의 시설 등원 시간대(오전 7~8시, 오전 8~9시)의 응답률 또한 각각 5.5%, 7.5%로 타 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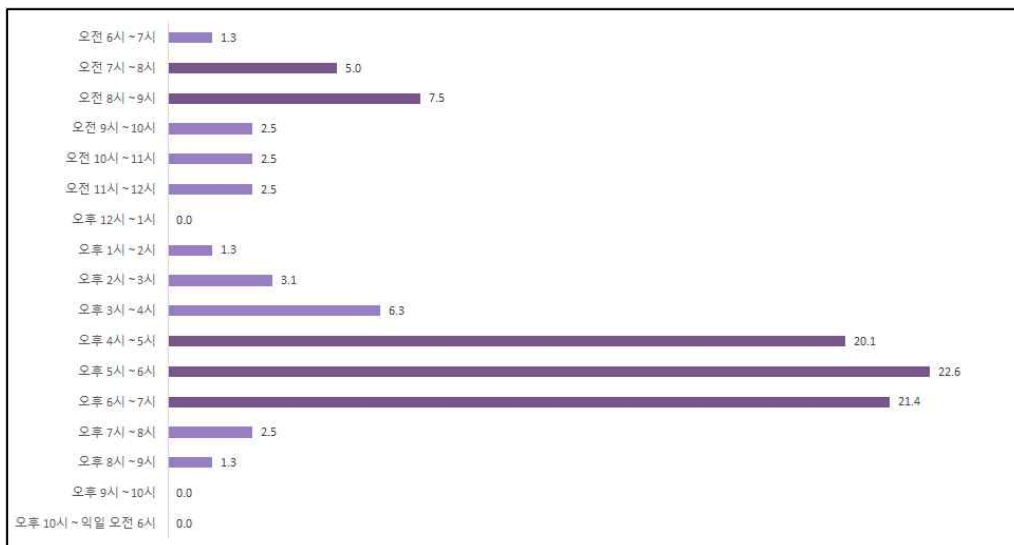
〈표 3-76〉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단위 : 명, %)

| 구분           | N   | %       | 구분                | N  | %      |
|--------------|-----|---------|-------------------|----|--------|
| 전체           | 159 | (100.0) | 오후 2시 ~ 3시        | 5  | (3.1)  |
| 오전 6시 ~ 7시   | 2   | (1.3)   | 오후 3시 ~ 4시        | 10 | (6.3)  |
| 오전 7시 ~ 8시   | 8   | (5.0)   | 오후 4시 ~ 5시        | 32 | (20.1) |
| 오전 8시 ~ 9시   | 12  | (7.5)   | 오후 5시 ~ 6시        | 36 | (22.6) |
| 오전 9시 ~ 10시  | 4   | (2.5)   | 오후 6시 ~ 7시        | 34 | (21.4) |
| 오전 10시 ~ 11시 | 4   | (2.5)   | 오후 7시 ~ 8시        | 4  | (2.5)  |
| 오전 11시 ~ 12시 | 4   | (2.5)   | 오후 8시 ~ 9시        | 2  | (1.3)  |
| 오후 12시 ~ 1시  | 0   | (0.0)   | 오후 9시 ~ 10시       | 0  | (0.0)  |
| 오후 1시 ~ 2시   | 2   | (1.3)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 0  | (0.0)  |

〈그림 3-43〉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단위 : %)



## 나. 초등학생 돌봄

### □ 방과 후 돌봄 장소

- 동거중인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장소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예체능 학원(30.2%), 보습학원(26.7%), 돌봄교실(22.1%)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방과 후 집에 머무르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르는 아동의 비율 또한 읍면지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방과 후 집에 머무르는 아동 비율이 19.6%로 나타났으나, 제주시 읍면지역이 28.6%,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0.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방과 후 집에 머무르는 아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맞벌이 가정에 비해 외벌이 가정의 돌봄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시설 이용률은 86.8%(32.4%+33.8%+20.6%)로 나타난 반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 외벌이 46.2%, 아내 외벌이 33.3% 수준으로 나타남

〈표 3-77〉 방과 후 돌봄 장소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 N             | 보습학원         | 예체능<br>학원    | 돌봄교실         | 집            |             | F      |
|----------|--------------|---------------|--------------|--------------|--------------|--------------|-------------|--------|
|          |              |               |              |              |              | 보호자<br>있음    | 보호자<br>없음   |        |
| 전체       |              | 86<br>(100.0) | 23<br>(26.7) | 26<br>(30.2) | 19<br>(22.1) | 14<br>(16.3) | 4<br>(4.7)  |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 지역  | 56<br>(100.0) | 17<br>(30.4) | 18<br>(32.1) | 10<br>(17.9) | 11<br>(19.6) | 0<br>(0.0)  | 2.840*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4<br>(100.0) | 2<br>(14.3)  | 5<br>(35.7)  | 3<br>(21.4)  | 2<br>(14.3)  | 2<br>(14.3) |        |
|          | 서귀포시<br>동 지역 | 6<br>(100.0)  | 1<br>(16.7)  | 2<br>(33.3)  | 3<br>(50.0)  | 0<br>(0.0)   | 0<br>(0.0)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0<br>(100.0) | 3<br>(30.0)  | 1<br>(10.0)  | 3<br>(30.0)  | 1<br>(10.0)  | 2<br>(20.0) |        |

| 구분        |               | N             | 보습학원         | 예체능<br>학원    | 돌봄교실         | 집            |            | F           |
|-----------|---------------|---------------|--------------|--------------|--------------|--------------|------------|-------------|
|           |               |               |              |              |              | 보호자<br>있음    | 보호자<br>없음  |             |
| 취업<br>상태  | 취업            | 77<br>(100.0) | 22<br>(28.6) | 24<br>(31.2) | 17<br>(22.1) | 10<br>(13.0) | 4<br>(5.2) | 1.433       |
|           | 실업            | 2<br>(100.0)  | 0<br>(0.0)   | 0<br>(0.0)   | 1<br>(50.0)  | 1<br>(50.0)  | 0<br>(0.0) |             |
|           | 비경제활동         | 7<br>(100.0)  | 1<br>(14.3)  | 2<br>(28.6)  | 1<br>(14.3)  | 3<br>(42.9)  | 0<br>(0.0) |             |
| 맞벌이<br>여부 | 맞벌이           | 68<br>(100.0) | 22<br>(32.4) | 23<br>(33.8) | 14<br>(20.6) | 5<br>(7.4)   | 4<br>(5.9) | 3.669<br>** |
|           | 남편<br>외벌이     | 13<br>(100.0) | 0<br>(0.0)   | 3<br>(23.1)  | 3<br>(23.1)  | 7<br>(53.8)  | 0<br>(0.0) |             |
|           | 아내<br>외벌이     | 3<br>(100.0)  | 0<br>(0.0)   | 0<br>(0.0)   | 1<br>(33.3)  | 2<br>(66.7)  | 0<br>(0.0) |             |
|           | 경제활동<br>하지 않음 | 2<br>(100.0)  | 1<br>(50.0)  | 0<br>(0.0)   | 1<br>(50.0)  | 0<br>(0.0)   | 0<br>(0.0) |             |

주 : \* p<.05, \*\* p<.01, \*\*\* p<.001

## □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

-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항상 부모가 함께 머무른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시간(22.1%), 1~2시간(19.8%), 30분~1시간(18.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귀포시 거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8〉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단위 : 명, %)

| 구분        |               | N             | 없음           | 30분<br>미만   | 30분<br>~1시간  | 1시간<br>~2시간  | 2시간<br>~3시간  | F           |
|-----------|---------------|---------------|--------------|-------------|--------------|--------------|--------------|-------------|
| 전체        |               | 86<br>(100.0) | 31<br>(36.0) | 3<br>(3.5)  | 16<br>(18.6) | 17<br>(19.8) | 19<br>(22.1) |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 지역   | 56<br>(100.0) | 21<br>(37.5) | 0<br>(0.0)  | 9<br>(16.1)  | 11<br>(19.6) | 15<br>(26.8) | 3.790<br>**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4<br>(100.0) | 8<br>(57.1)  | 0<br>(0.0)  | 1<br>(7.1)   | 3<br>(21.4)  | 2<br>(14.3)  |             |
|           | 서귀포시<br>동 지역  | 6<br>(100.0)  | 1<br>(16.7)  | 2<br>(33.3) | 2<br>(33.3)  | 0<br>(0.0)   | 1<br>(16.7)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0<br>(100.0) | 1<br>(10.0)  | 1<br>(10.0) | 4<br>(40.0)  | 3<br>(30.0)  | 1<br>(10.0)  |             |
|           |               |               |              |             |              |              |              |             |
| 취업<br>상태  | 취업            | 77<br>(100.0) | 23<br>(29.9) | 3<br>(3.9)  | 16<br>(20.8) | 17<br>(22.1) | 18<br>(23.4) | 3.069<br>*  |
|           | 실업            | 2<br>(100.0)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           | 비경제활동         | 7<br>(100.0)  | 6<br>(85.7)  | 0<br>(0.0)  | 0<br>(0.0)   | 0<br>(0.0)   | 1<br>(14.3)  |             |
| 맞벌이<br>여부 | 맞벌이           | 68<br>(100.0) | 18<br>(26.5) | 3<br>(4.4)  | 13<br>(19.1) | 16<br>(23.5) | 18<br>(26.5) | 2.200       |
|           | 남편<br>외벌이     | 13<br>(100.0) | 11<br>(84.6) | 0<br>(0.0)  | 2<br>(15.4)  | 0<br>(0.0)   | 0<br>(0.0)   |             |
|           | 이내<br>외벌이     | 3<br>(100.0)  | 0<br>(0.0)   | 0<br>(0.0)  | 1<br>(33.3)  | 1<br>(33.3)  | 1<br>(33.3)  |             |
|           | 경제활동<br>하지 않음 | 2<br>(100.0)  | 2<br>(10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
|           |               |               |              |             |              |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하교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대까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는 오후 5~6시(28.0%), 오후 6~7시(26.9%), 오후 4~5시(17.1%)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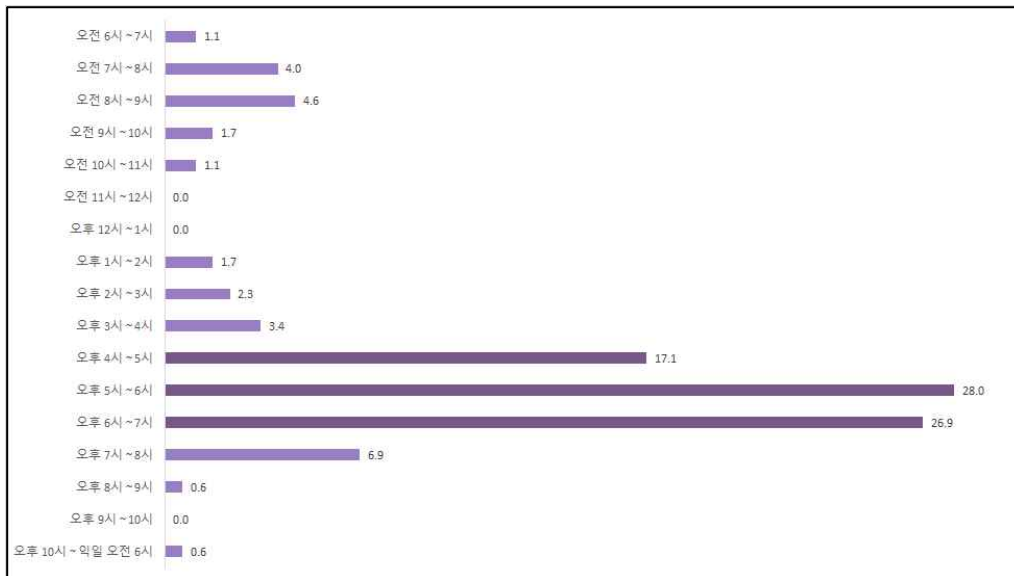
〈표 3-79〉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단위 : 명, %)

| 구분           | N   | %       | 구분                | N  | %      |
|--------------|-----|---------|-------------------|----|--------|
| 전체           | 175 | (100.0) | 오후 2시 ~ 3시        | 4  | (2.3)  |
| 오전 6시 ~ 7시   | 2   | (1.1)   | 오후 3시 ~ 4시        | 6  | (3.4)  |
| 오전 7시 ~ 8시   | 7   | (4.0)   | 오후 4시 ~ 5시        | 30 | (17.1) |
| 오전 8시 ~ 9시   | 8   | (4.6)   | 오후 5시 ~ 6시        | 49 | (28.0) |
| 오전 9시 ~ 10시  | 3   | (1.7)   | 오후 6시 ~ 7시        | 47 | (26.9) |
| 오전 10시 ~ 11시 | 2   | (1.1)   | 오후 7시 ~ 8시        | 12 | (6.9)  |
| 오전 11시 ~ 12시 | 0   | (0.0)   | 오후 8시 ~ 9시        | 1  | (0.6)  |
| 오후 12시 ~ 1시  | 0   | (0.0)   | 오후 9시 ~ 10시       | 0  | (0.0)  |
| 오후 1시 ~ 2시   | 3   | (1.7)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 1  | (0.6)  |

〈그림 3-44〉 초등학생 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단위 : %)



## 다. 가족 간병 및 돌봄

###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 전체 응답자 1,009명 중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9.6%(9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해당 가족원과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4.7%, 동거중이지 않은 응답자는 75.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중이라는 남성 응답자 비중(26.5%)은 여성(23.8%)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80〉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및 동거 여부

(단위 : 명, %)

| 구분 |        | N             | 동거여부         |              | t, F     |
|----|--------|---------------|--------------|--------------|----------|
|    |        |               | 동거중          | 미동거          |          |
| 전체 |        | 97<br>(100.0) | 24<br>(24.7) | 73<br>(75.3) | -        |
| 성별 | 남성     | 34<br>(100.0) | 9<br>(26.5)  | 25<br>(73.5) | -0.287   |
|    | 여성     | 63<br>(100.0) | 15<br>(23.8) | 48<br>(76.2) |          |
| 연령 | 20-30대 | 9<br>(100.0)  | 1<br>(11.1)  | 8<br>(88.9)  | 8.943*** |
|    | 40대    | 15<br>(100.0) | 1<br>(6.7)   | 14<br>(93.3) |          |
|    | 50대    | 49<br>(100.0) | 8<br>(16.3)  | 41<br>(83.7) |          |
|    | 60대    | 15<br>(100.0) | 6<br>(40.0)  | 9<br>(60.0)  |          |
|    | 70대 이상 | 9<br>(100.0)  | 8<br>(88.9)  | 1<br>(11.1)  |          |

주 : \* p<.05, \*\* p<.01, \*\*\* p<.001

##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 응답자를 대상으로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의 관계를 질문한 결과, 부모(79.0%), 아내(5.0%), 성년의 자녀(4.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중 부모의 경우 미동거 비중(79.7%)이 높게 나타난 반면, 타 가족원의 경우 동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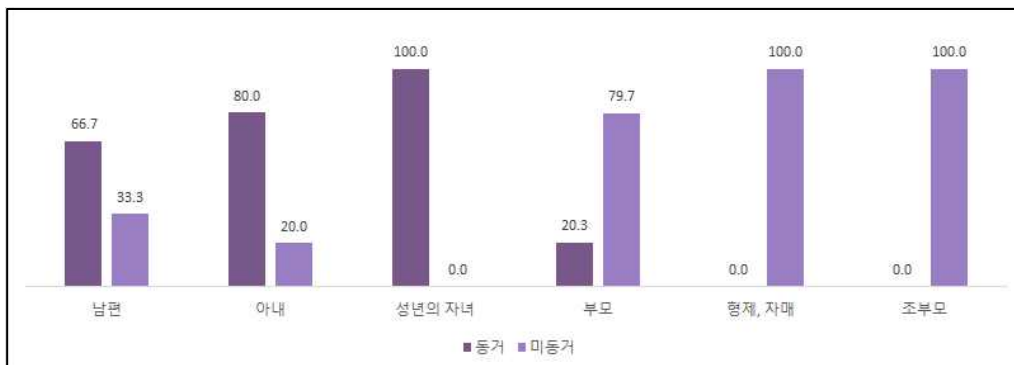
〈표 3-81〉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동거여부         |              |
|--------|----------------|--------------|--------------|
|        |                | 동거중          | 미동거          |
| 전체     | 100<br>(100.0) | 26<br>(26.0) | 74<br>(74.0) |
| 남편     | 3<br>(100.0)   | 2<br>(66.7)  | 1<br>(33.3)  |
| 아내     | 5<br>(100.0)   | 4<br>(80.0)  | 1<br>(20.0)  |
| 성년의 자녀 | 4<br>(100.0)   | 4<br>(100.0) | 0<br>(0.0)   |
| 부모     | 79<br>(100.0)  | 16<br>(20.3) | 63<br>(79.7) |
| 형제, 자매 | 1<br>(100.0)   | 0<br>(0.0)   | 1<br>(100.0) |
| 조부모    | 8<br>(100.0)   | 0<br>(0.0)   | 8<br>(100.0) |

〈그림 3-45〉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비교 (동거여부)

(단위 : %)



## □ 주로 돌보는 사람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에 대해, 자녀(35.0%), 배우자(20.0%), 기타(14.0%), 형제자매(13.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중 성년의 자녀를 간병하는 부모의 경우 대부분 동거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관계의 경우 미동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82〉 주로 돌보는 사람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동거여부         |               |
|---------|----------------|--------------|---------------|
|         |                | 동거중          | 미동거           |
| 전체      | 100<br>(100.0) | 26<br>(26.0) | 74<br>(74.0)  |
| 배우자     | 20<br>(100.0)  | 9<br>(45.0)  | 11<br>(55.0)  |
| 자녀      | 35<br>(100.0)  | 7<br>(20.0)  | 28<br>(80.0)  |
| 자녀의 배우자 | 9<br>(100.0)   | 2<br>(22.2)  | 7<br>(77.8)   |
| 부모      | 3<br>(100.0)   | 3<br>(100.0) | 0<br>(0.0)    |
| 손자녀     | 2<br>(100.0)   | 0<br>(0.0)   | 2<br>(100.0)  |
| 형제자매    | 4<br>(100.0)   | 1<br>(25.0)  | 3<br>(75.0)   |
| 간병인     | 13<br>(100.0)  | 0<br>(0.0)   | 13<br>(100.0) |
| 기타      | 14<br>(100.0)  | 4<br>(28.6)  | 10<br>(71.4)  |

〈그림 3-46〉 주로 돌보는 사람 (동거여부)

(단위 : %)



## □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 이용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97명 중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시설을 이용중인 이용자는 43.3%(4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시설 이용 여부 분석 결과,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주시(동 지역 43.3%, 읍면지역 56.3%)가 서귀포시(동 지역 25.0%, 읍면지역 30.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례하는 분석되었음
  -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64.7%가 돌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 수준 인식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34.8%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3〉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 이용 여부

(단위 : 명, %)

| 구분           |           | N             | 시설 이용        | 시설 미이용       | t, F   |
|--------------|-----------|---------------|--------------|--------------|--------|
| 전체           |           | 97<br>(100.0) | 42<br>(43.3) | 55<br>(56.7) | -      |
| 성별           | 남성        | 34<br>(100.0) | 10<br>(29.4) | 24<br>(70.6) | 2.051* |
|              | 여성        | 63<br>(100.0) | 32<br>(50.8) | 31<br>(49.2) |        |
| 거주지역         | 제주시 동 지역  | 67<br>(100.0) | 29<br>(43.3) | 38<br>(56.7) | 0.773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br>(100.0) | 9<br>(56.3)  | 7<br>(43.8)  |        |
|              | 서귀포시 동 지역 | 4<br>(100.0)  | 1<br>(25.0)  | 3<br>(75.0)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10<br>(100.0) | 3<br>(30.0)  | 7<br>(70.0)  |        |
| 경제적<br>수준 인식 | 낮음        | 23<br>(100.0) | 8<br>(34.8)  | 15<br>(65.2) | 2.0250 |
|              | 보통        | 57<br>(100.0) | 23<br>(40.4) | 34<br>(59.6) |        |
|              | 높음        | 17<br>(100.0) | 11<br>(64.7) | 6<br>(35.3)  |        |

주 : \* p<.05, \*\* p<.01, \*\*\* p<.001

-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당사자가 싫어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35.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20.0%), ‘비용이 부담되어서’ (18.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3-84〉 간병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전체                | 70 | (100.0) |
| 지리적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서 | 5  | (7.1)   |
| 시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 3  | (4.3)   |
| 돌봐줄 다른 가족이 있어서    | 7  | (10.0)  |
|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 14 | (20.0)  |
| 당사자가 싫어해서         | 25 | (35.7)  |
| 비용이 부담되어서         | 13 | (18.6)  |
| 다른 가족이 반대해서       | 1  | (1.4)   |
| 기타                | 2  | (2.9)   |

## 라. 가족원 돌봄 시 발생하는 문제점

### □ 자녀(손자녀) 돌봄

- 동거중인 자녀(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손자녀)돌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녀의 진로지도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 시 진로지도(23.0%), 양육비 및 보육비 부담(21.1%), 자녀와의 대화 부족(19.9%) 등이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양육비(24.6%) 및 대화부족(22.2%), 진로지도(25.1%)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돌봄시간 부족(10.7%), 학업성적(8.7%)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 연령층에서는 양육비 및 보육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는 반면, 고 연령층에서는 대화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85〉 자녀(손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전체               | 579<br>(100.0) | 167<br>(100.0) | 412<br>(100.0) | 85<br>(100.0) | 194<br>(100.0) | 221<br>(100.0) | 48<br>(100.0) | 31<br>(100.0) |
| 양육비 및 보육비 부담     | 122<br>(21.1)  | 41<br>(24.6)   | 81<br>(19.7)   | 29<br>(34.1)  | 54<br>(27.8)   | 32<br>(14.5)   | 5<br>(10.4)   | 2<br>(6.5)    |
|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 66<br>(11.4)   | 19<br>(11.4)   | 47<br>(11.4)   | 19<br>(22.4)  | 22<br>(11.3)   | 18<br>(8.1)    | 6<br>(12.5)   | 1<br>(3.2)    |
| 돌봄 시간 부족         | 59<br>(10.2)   | 15<br>(9.0)    | 44<br>(10.7)   | 25<br>(29.4)  | 21<br>(10.8)   | 10<br>(4.5)    | 2<br>(4.2)    | 1<br>(3.2)    |
| 자녀와의 대화 부족       | 115<br>(19.9)  | 37<br>(22.2)   | 78<br>(18.9)   | 1<br>(1.2)    | 20<br>(10.3)   | 53<br>(24.0)   | 21<br>(43.8)  | 20<br>(64.5)  |
| 자녀의 흡연, 음주, 비행 등 | 8<br>(1.4)     | 3<br>(1.8)     | 5<br>(1.2)     | 0<br>(0.0)    | 3<br>(1.5)     | 3<br>(1.4)     | 1<br>(2.1)    | 1<br>(3.2)    |
| 자녀의 학업 성적        | 44<br>(7.6)    | 8<br>(4.8)     | 36<br>(8.7)    | 4<br>(4.7)    | 21<br>(10.8)   | 17<br>(7.7)    | 1<br>(2.1)    | 1<br>(3.2)    |
| 자녀의 진로 지도        | 133<br>(23.0)  | 42<br>(25.1)   | 91<br>(22.1)   | 5<br>(5.9)    | 52<br>(26.8)   | 70<br>(31.7)   | 4<br>(8.3)    | 2<br>(6.5)    |
| 기타               | 32<br>(5.5)    | 2<br>(1.2)     | 30<br>(7.3)    | 2<br>(2.4)    | 1<br>(0.5)     | 18<br>(8.1)    | 8<br>(16.7)   | 3<br>(9.7)    |
| t, F             |                | -1.615         |                | 15.096***     |                |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 가족원 간병 및 돌봄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원 돌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경제적 부담’ (40.2%)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 성별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 이외에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14.7%), 정신적인 어려움(14.7%)을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15.9%), 가족 구성원 간 갈등(9.5%) 등을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3-86〉 가족원 간병 또는 돌봄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전체                      | 97<br>(100.0) | 34<br>(100.0) | 63<br>(100.0) | 9<br>(100.0) | 15<br>(100.0) | 49<br>(100.0) | 15<br>(100.0) | 9<br>(100.0) |
| 경제적 부담                  | 39<br>(40.2)  | 10<br>(29.4)  | 29<br>(46.0)  | 6<br>(66.7)  | 7<br>(46.7)   | 16<br>(32.7)  | 7<br>(46.7)   | 3<br>(33.3)  |
| 가족 구성원 간 갈등             | 10<br>(10.3)  | 4<br>(11.8)   | 6<br>(9.5)    | 1<br>(11.1)  | 2<br>(13.3)   | 4<br>(8.2)    | 3<br>(20.0)   | 0<br>(0.0)   |
| 육체적 어려움<br>(피로, 수면부족 등) | 13<br>(13.4)  | 3<br>(8.8)    | 10<br>(15.9)  | 1<br>(11.1)  | 4<br>(26.7)   | 3<br>(6.1)    | 3<br>(20.0)   | 2<br>(22.2)  |
| 돌봄으로 인한<br>개인시간 부족      | 6<br>(6.2)    | 5<br>(14.7)   | 1<br>(1.6)    | 0<br>(0.0)   | 0<br>(0.0)    | 4<br>(8.2)    | 1<br>(6.7)    | 1<br>(11.1)  |
| 정신적인 어려움                | 9<br>(9.3)    | 5<br>(14.7)   | 4<br>(6.3)    | 0<br>(0.0)   | 1<br>(6.7)    | 6<br>(12.2)   | 0<br>(0.0)    | 2<br>(22.2)  |
| 가정 내 생활공간<br>부족         | 2<br>(2.1)    | 0<br>(0.0)    | 2<br>(3.2)    | 0<br>(0.0)   | 1<br>(6.7)    | 1<br>(2.0)    | 0<br>(0.0)    | 0<br>(0.0)   |
|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br>서비스 부족   | 10<br>(10.3)  | 4<br>(11.8)   | 6<br>(9.5)    | 1<br>(11.1)  | 0<br>(0.0)    | 9<br>(18.4)   | 0<br>(0.0)    | 0<br>(0.0)   |
| 문제 없음                   | 8<br>(8.2)    | 3<br>(8.8)    | 5<br>(7.9)    | 0<br>(0.0)   | 0<br>(0.0)    | 6<br>(12.2)   | 1<br>(6.7)    | 1<br>(11.1)  |
| t, F                    |               | 1.348         |               | 2.917*       |               |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마. 소결

-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이의 어머니(80.8%)를 1순위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이의 아버지를 1순위 주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8.2%)은 조부모(6.8%)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이용률은 1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는 가구(18.5%), 특히 맞벌이 가구(21.6%)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실태 분석 결과,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아동들의 돌봄 시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거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시설 이용률은 86.8%(32.4%+33.8%+20.6%)로 나타난 반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 외벌이 46.2%, 아내 외벌이 33.3% 수준으로 나타남
- 자녀돌봄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대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 사이에 추가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영유아 및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수요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4~5시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4.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 응답자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당 가족원과 동거중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중이라는 남성 응답자 비중(26.5%)은 여성(23.8%)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11.1%)에 비해 70(88.9%)대 이상의 동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자녀(35.0%), 배우자(20.0%), 기타(14.0%), 형제자매(13.0%)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년의 자녀를 간병하는 부모의 경우 대부분 동거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관계의 경우 미동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자녀(손자녀) 돌봄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성은 양육비, 대화부족,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여성에 비해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돌봄 시간 부족,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또한 자녀(손자녀) 돌봄 시, 저 연령층에서는 양육비 및 보육비의 부담을 높게 느끼고 있는 반면, 고 연령층에서는 대화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족원 간병이나 돌봄에 있어서 남성들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 정신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육체적 어려움 등에 대한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 건강 및 노후 준비

### 가. 건강 상태

#### □ 신체적 건강 상태

- 응답자가 느끼는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에 달하는 49.1%의 응답자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36.3%)이 나쁘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14.6%)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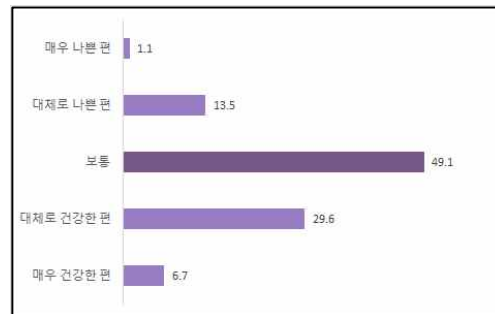
〈표 3-87〉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매우 나쁜 편   | 11    | (1.1)   |
| 대체로 나쁜 편  | 136   | (13.5)  |
| 보통        | 495   | (49.1)  |
| 대체로 건강한 편 | 299   | (29.6)  |
| 매우 건강한 편  | 68    | (6.7)   |
| 합계        | 1,009 | (100.0) |

〈그림 3-47〉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



- 성별에 따른 신체적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남성의 비중은 43.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비중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여부에 따른 신체적 건강 상태 분석 결과, 자녀 있는 응답자의 35.4%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41.8%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혼인상태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혼 경험이 있는 응답자(결혼, 이혼, 사별, 별거)에 비해 미혼 응답자들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6.1%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응답자의 경우 응답률이 모두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건강 상태 또한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건강 상태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37.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표 3-8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 구분              |          | N              | 나쁜 편          | 보통            | 좋은 편          | t, F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38<br>(10.7)  | 165<br>(46.3) | 153<br>(43.0) | 4.078***   |
|                 | 여성       | 653<br>(100.0) | 109<br>(16.7) | 330<br>(50.5) | 214<br>(32.8) |            |
| 자녀여부            | 자녀 있음    | 851<br>(100.0) | 132<br>(15.5) | 418<br>(49.1) | 301<br>(35.4) | 5.263*     |
|                 | 자녀 없음    | 158<br>(100.0) | 15<br>(9.5)   | 77<br>(48.7)  | 66<br>(41.8)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br>(100.0) | 73<br>(11.7)  | 306<br>(49.0) | 245<br>(39.3) | 13.287***  |
|                 | 미혼       | 114<br>(100.0) | 7<br>(6.1)    | 56<br>(49.1)  | 51<br>(44.7)  |            |
|                 | 이혼       | 94<br>(100.0)  | 15<br>(16.0)  | 43<br>(45.7)  | 36<br>(38.3)  |            |
|                 | 사별       | 159<br>(100.0) | 49<br>(30.8)  | 83<br>(52.2)  | 27<br>(17.0)  |            |
|                 | 별거       | 18<br>(100.0)  | 3<br>(16.7)   | 7<br>(38.9)   | 8<br>(44.4)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71<br>(38.8)  | 89<br>(48.6)  | 23<br>(12.6)  | 101.741*** |
|                 | 보통       | 626<br>(100.0) | 75<br>(12.0)  | 347<br>(55.4) | 204<br>(32.6) |            |
|                 | 높음       | 200<br>(100.0) | 1<br>(0.5)    | 59<br>(29.5)  | 140<br>(70.0)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9%가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다만 본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37.6%)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9.4%)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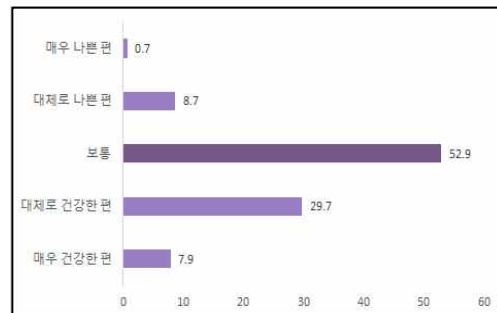
〈표 3-89〉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매우 나쁜 편   | 7     | (0.7)   |
| 대체로 나쁜 편  | 88    | (8.7)   |
| 보통        | 534   | (52.9)  |
| 대체로 건강한 편 | 300   | (29.7)  |
| 매우 건강한 편  | 80    | (7.9)   |
| 합계        | 1,009 | (100.0) |

〈그림 3-48〉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 %)



- 성별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남성의 비중은 42.7%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비중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 분석 결과 이혼, 사별, 별거 등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종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결혼 및 미혼 응답자가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7.9%, 3.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종료(이혼, 사별 등)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은 응답자의 73.5%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수준인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13.7%)에 비해 약 5.5배 높은 수치임

〈표 3-9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

| 구분              |          | N              | 나쁜 편         | 보통            | 좋은 편          | t, F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29<br>(8.1)  | 175<br>(49.2) | 152<br>(42.7) | 2.523*    |
|                 | 여성       | 653<br>(100.0) | 66<br>(10.1) | 359<br>(55.0) | 228<br>(34.9) |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624<br>(100.0) | 49<br>(7.9)  | 316<br>(50.6) | 259<br>(41.5) | 7.461***  |
|                 | 미혼       | 114<br>(100.0) | 4<br>(3.5)   | 63<br>(55.3)  | 47<br>(41.2)  |           |
|                 | 이혼       | 94<br>(100.0)  | 11<br>(11.7) | 51<br>(54.3)  | 32<br>(34.0)  |           |
|                 | 사별       | 159<br>(100.0) | 29<br>(18.2) | 96<br>(60.4)  | 34<br>(21.4)  |           |
|                 | 별거       | 18<br>(100.0)  | 2<br>(11.1)  | 8<br>(44.4)   | 8<br>(44.4)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48<br>(26.2) | 110<br>(60.1) | 25<br>(13.7)  | 75.116*** |
|                 | 보통       | 626<br>(100.0) | 44<br>(7.0)  | 374<br>(59.7) | 208<br>(33.2) |           |
|                 | 높음       | 200<br>(100.0) | 3<br>(1.5)   | 50<br>(25.0)  | 147<br>(73.5) |           |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 □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3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 (36.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다만, 4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비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비해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91〉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N               | 신체적 건강 상태     |               |               |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 |               |               |
|--------|-----------------|---------------|---------------|---------------|----------------|---------------|---------------|
|        |                 | 나쁜 편          | 보통            | 좋은 편          | 나쁜 편           | 보통            | 좋은 편          |
| 전체     | 1009<br>(100.0) | 147<br>(14.6) | 495<br>(49.1) | 367<br>(36.4) | 95<br>(9.4)    | 534<br>(52.9) | 380<br>(37.7) |
| 20-30대 | 139<br>(100.0)  | 16<br>(11.5)  | 61<br>(43.9)  | 62<br>(44.6)  | 11<br>(7.9)    | 73<br>(52.5)  | 55<br>(39.6)  |
| 40대    | 181<br>(100.0)  | 23<br>(12.7)  | 81<br>(44.8)  | 77<br>(42.5)  | 19<br>(10.5)   | 88<br>(48.6)  | 74<br>(40.9)  |
| 50대    | 295<br>(100.0)  | 24<br>(8.1)   | 147<br>(49.8) | 124<br>(42.0) | 10<br>(3.4)    | 156<br>(52.9) | 129<br>(43.7) |
| 60대    | 191<br>(100.0)  | 20<br>(10.5)  | 104<br>(54.5) | 67<br>(35.1)  | 15<br>(7.9)    | 100<br>(52.4) | 76<br>(39.8)  |
| 70대 이상 | 203<br>(100.0)  | 64<br>(31.5)  | 102<br>(50.2) | 37<br>(18.2)  | 40<br>(19.7)   | 117<br>(57.6) | 46<br>(22.7)  |
| F      |                 | 14.916***     |               |               | 7.911***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

-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2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조제 및 건강식품의 섭취(17.5%)’, ‘건강검진 또는 상담(12.8%)’, ‘식사조절 등 식이요법(11.6%)’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됨
-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수단 비교 분석 결과, 20-30대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건강관리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건강보조제 및 보조식품 섭취, 건강검진, 수면 등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건강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대 응답자 비율은 47.3%(33.2%+14.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은 31.1%(22.9%+8.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대조적으로 70대 이상 응답자 중 건강식품 섭취, 수면, 건강검진 등의 수단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7.5%(19.0%+13.6%)

+1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응답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제적 수준 인식이 낮을수록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92〉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N                | 연령             |                |                |                |                | 경제적 수준 인식      |                  |                |
|------------------------|------------------|----------------|----------------|----------------|----------------|----------------|----------------|------------------|----------------|
|                        |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낮음             | 보통               | 높음             |
| 전체                     | 2,187<br>(100.0) | 241<br>(100.0) | 388<br>(100.0) | 698<br>(100.0) | 471<br>(100.0) | 389<br>(100.0) | 360<br>(100.0) | 1,267<br>(100.0) | 560<br>(100.0) |
|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 140<br>(6.4)     | 34<br>(14.1)   | 21<br>(5.4)    | 24<br>(3.4)    | 22<br>(4.7)    | 39<br>(10.0)   | 34<br>(9.4)    | 99<br>(7.8)      | 7<br>(1.3)     |
| 운동                     | 565<br>(25.8)    | 80<br>(33.2)   | 111<br>(28.6)  | 179<br>(25.6)  | 106<br>(22.5)  | 89<br>(22.9)   | 100<br>(27.8)  | 347<br>(27.4)    | 118<br>(21.1)  |
| 식사 조절 등 식이요법           | 253<br>(11.6)    | 34<br>(14.1)   | 44<br>(11.3)   | 85<br>(12.2)   | 58<br>(12.3)   | 32<br>(8.2)    | 41<br>(11.4)   | 147<br>(11.6)    | 65<br>(11.6)   |
| 커피, 술, 담배 등<br>기호식품 절제 | 167<br>(7.6)     | 18<br>(7.5)    | 25<br>(6.4)    | 59<br>(8.5)    | 41<br>(8.7)    | 24<br>(6.2)    | 21<br>(5.8)    | 93<br>(7.3)      | 53<br>(9.5)    |
| 건강보조제,<br>보조식품의 섭취     | 383<br>(17.5)    | 31<br>(12.9)   | 72<br>(18.6)   | 115<br>(16.5)  | 91<br>(19.3)   | 74<br>(19.0)   | 68<br>(18.9)   | 205<br>(16.2)    | 110<br>(19.6)  |
| 건강검진 또는 상담             | 281<br>(12.8)    | 12<br>(5.0)    | 54<br>(13.9)   | 96<br>(13.8)   | 66<br>(14.0)   | 53<br>(13.6)   | 39<br>(10.8)   | 159<br>(12.5)    | 83<br>(14.8)   |
| 규칙적인 수면                | 246<br>(11.2)    | 16<br>(6.6)    | 34<br>(8.8)    | 71<br>(10.2)   | 67<br>(14.2)   | 58<br>(14.9)   | 34<br>(9.4)    | 125<br>(9.9)     | 87<br>(15.5)   |
| 동호회 등의<br>단체활동         | 115<br>(5.3)     | 11<br>(4.6)    | 19<br>(4.9)    | 51<br>(7.3)    | 16<br>(3.4)    | 18<br>(4.6)    | 16<br>(4.4)    | 66<br>(5.2)      | 33<br>(5.9)    |
| 미술, 목공 등 각종<br>여가활동    | 27<br>(1.2)      | 4<br>(1.7)     | 7<br>(1.8)     | 13<br>(1.9)    | 3<br>(0.6)     | 0<br>(0.0)     | 5<br>(1.4)     | 18<br>(1.4)      | 4<br>(0.7)     |
| 기타                     | 10<br>(0.5)      | 1<br>(0.4)     | 1<br>(0.3)     | 5<br>(0.7)     | 1<br>(0.2)     | 2<br>(0.5)     | 2<br>(0.6)     | 8<br>(0.6)       | 0<br>(0.0)     |

## 나. 노후 준비

###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2%(668명)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제주시 68.0%, 서귀포시 70.6%) 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제주시 59.8%, 서귀포시 61.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취업상태 및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고’, ‘취업 상태’인 응답자들의 경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취업상태인 응답자 중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71.7%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은 응답자들의 경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87.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9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단위 : 명, %)

| 구분   |           | N                | 준비하고 있음       | 준비하고 있지 않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668<br>(66.2) | 341<br>(33.8)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238<br>(66.9) | 118<br>(33.1) | -0.322    |
|      | 여성        | 653<br>(100.0)   | 430<br>(65.8) | 223<br>(34.2) |           |
| 거주지역 | 제주시 동지역   | 571<br>(100.0)   | 388<br>(68.0) | 183<br>(32.0) | 2.178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br>(100.0)   | 98<br>(59.8)  | 66<br>(40.2)  |           |
|      | 서귀포시 동지역  | 153<br>(100.0)   | 108<br>(70.6) | 45<br>(29.4)  |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121<br>(100.0)   | 74<br>(61.2)  | 47<br>(38.8)  |           |
| 취업상태 | 취업        | 780<br>(100.0)   | 559<br>(71.7) | 221<br>(28.3) | 26.088*** |
|      | 실업        | 43<br>(100.0)    | 26<br>(60.5)  | 17<br>(39.5)  |           |
|      | 비경제활동     | 186<br>(100.0)   | 83<br>(44.6)  | 103<br>(55.4) |           |

| 구분              |    | N              | 준비하고 있음     | 준비하고 있지 않음  | t, F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88<br>48.1  | 95<br>51.9  | 35.211*** |
|                 | 보통 | 626<br>(100.0) | 406<br>64.9 | 220<br>35.1 |           |
|                 | 높음 | 200<br>(100.0) | 174<br>87.0 | 26<br>13.0  |           |

주 : \* p<.05, \*\* p<.01, \*\*\* p<.001

- 노후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예금 및 적금’ (26.9%), ‘퇴직금 및 퇴직연금’ (17.5%), ‘부동산 운용’ (11.0%) 순으로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 연령대일수록 국민연금 및 부동산 투자를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령대 낮을수록 예금 및 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경우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3%, 25.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0대의 경우 각각 28.8%, 24%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3-94〉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수단 (중복응답)

(단위 : 명, %)

| 구분              |           | 국민<br>연금      | 공무원<br>연금   | 퇴직금,<br>퇴직연금  | 개인<br>연금    | 예금,<br>적금     | 부동산<br>운용     | 주식,<br>채권   | 기타         | 합계               |
|-----------------|-----------|---------------|-------------|---------------|-------------|---------------|---------------|-------------|------------|------------------|
| 전체              |           | 456<br>(32.9) | 37<br>(2.7) | 242<br>(17.5) | 56<br>(4.0) | 373<br>(26.9) | 153<br>(11.0) | 61<br>(4.4) | 7<br>(0.5) | 1,385<br>(100.0) |
| 연령              | 20-30대    | 36<br>(28.8)  | 9<br>(7.2)  | 22<br>(17.6)  | 8<br>(6.4)  | 40<br>(32.0)  | 3<br>(2.4)    | 7<br>(5.6)  | 1<br>(0.8) | 125<br>(100.0)   |
|                 | 40대       | 75<br>(27.0)  | 8<br>(2.9)  | 59<br>(21.2)  | 18<br>(6.5) | 75<br>(27.0)  | 22<br>(7.9)   | 21<br>(7.6) | 0<br>(0.0) | 278<br>(100.0)   |
|                 | 50대       | 183<br>(34.5) | 11<br>(2.1) | 97<br>(18.3)  | 25<br>(4.7) | 142<br>(26.8) | 44<br>(8.3)   | 28<br>(5.3) | 2<br>(0.4) | 530<br>(100.0)   |
|                 | 60대       | 102<br>(38.5) | 4<br>(1.5)  | 43<br>(16.2)  | 2<br>(0.8)  | 70<br>(26.4)  | 39<br>(14.7)  | 5<br>(1.9)  | 3<br>(1.1) | 265<br>(100.0)   |
|                 | 70대<br>이상 | 60<br>(33.3)  | 5<br>(2.8)  | 21<br>(11.7)  | 3<br>(1.7)  | 46<br>(25.6)  | 45<br>(25.0)  | 0<br>(0.0)  | 1<br>(0.6) | 180<br>(100.0)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52<br>(34.4)  | 2<br>(1.3)  | 27<br>(17.9)  | 8<br>(5.3)  | 36<br>(23.8)  | 18<br>(11.9)  | 8<br>(5.3)  | 2<br>(1.3) | 151<br>(100.0)   |
|                 | 보통        | 278<br>(34.2) | 23<br>(2.8) | 140<br>(17.2) | 32<br>(3.9) | 221<br>(27.2) | 85<br>(10.5)  | 34<br>(4.2) | 3<br>(0.4) | 813<br>(100.0)   |
|                 | 높음        | 126<br>(30.4) | 12<br>(2.9) | 75<br>(18.1)  | 16<br>(3.9) | 116<br>(28.0) | 50<br>(12.1)  | 19<br>(4.6) | 2<br>(0.5) | 414<br>(100.0)   |

## □ 노후에 지내고 싶은 장소

-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7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은 92.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의 연령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읍면 지역 응답자 비율(제주시 90.2%, 서귀포시 88.4%)은 동 지역(제주시 80.0%, 서귀포시 75.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 수준 인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은 응답자일 수록 노후에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83.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5〉 노후에 지내고 싶은 장소

(단위 : 명, %)

| 구분              |              | N                | 집             | 서비스형<br>주택    | 노인복지<br>시설  | 노인<br>공동체<br>주택 | 기타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828<br>(82.1) | 122<br>(12.1) | 33<br>(3.3) | 21<br>(2.1)     | 5<br>(0.5)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295<br>(82.9) | 38<br>(10.7)  | 14<br>(3.9) | 5<br>(1.4)      | 4<br>(1.1) | 0.136  |
|                 | 여성           | 653<br>(100.0)   | 533<br>(82.1) | 84<br>(12.1)  | 19<br>(3.3) | 16<br>(2.1)     | 1<br>(0.5)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104<br>(74.8) | 28<br>(20.1)  | 2<br>(1.4)  | 3<br>(2.2)      | 2<br>(1.4) | 1.690  |
|                 | 40대          | 181<br>(100.0)   | 137<br>(75.7) | 35<br>(19.3)  | 4<br>(2.2)  | 5<br>(2.8)      | 0<br>(0.0) |        |
|                 | 50대          | 295<br>(100.0)   | 237<br>(80.3) | 44<br>(14.9)  | 9<br>(3.1)  | 4<br>(1.4)      | 1<br>(0.3) |        |
|                 | 60대          | 191<br>(100.0)   | 162<br>(84.8) | 14<br>(7.3)   | 10<br>(5.2) | 5<br>(2.6)      | 0<br>(0.0)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188<br>(92.6) | 1<br>(0.5)    | 8<br>(3.9)  | 4<br>(2.0)      | 2<br>(1.0)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지역   | 571<br>(100.0)   | 457<br>(80.0) | 77<br>(13.5)  | 25<br>(4.4) | 11<br>(1.9)     | 1<br>(0.2) | 2.358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64<br>(100.0)   | 148<br>(90.2) | 10<br>(6.1)   | 2<br>(1.2)  | 3<br>(1.8)      | 1<br>(0.6) |        |
|                 | 서귀포시<br>동지역  | 153<br>(100.0)   | 116<br>(75.8) | 26<br>(17.0)  | 6<br>(3.9)  | 5<br>(3.3)      | 0<br>(0.0)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21<br>(100.0)   | 107<br>(88.4) | 9<br>(7.4)    | 0<br>(0.0)  | 2<br>(1.7)      | 3<br>(2.5) |        |
| 경제적<br>수준<br>인식 | 낮음           | 183<br>(100.0)   | 143<br>(78.1) | 20<br>(10.9)  | 11<br>(6.0) | 7<br>(3.8)      | 2<br>(1.1) | 3.806* |
|                 | 보통           | 626<br>(100.0)   | 519<br>(82.9) | 73<br>(11.7)  | 20<br>(3.2) | 12<br>(1.9)     | 2<br>(0.3) |        |
|                 | 높음           | 200<br>(100.0)   | 166<br>(83.0) | 29<br>(14.5)  | 2<br>(1.0)  | 2<br>(1.0)      | 1<br>(0.5) |        |

주1 : 노인 공동체 주택(노인 주거문제 및 고독사 해결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공 노인복지 주택)

주2 : \* p&lt;.05, \*\* p&lt;.01, \*\*\* p&lt;.001

## □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노후에 배우자와 살고 싶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64.6%)은 여성(45.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노후에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34.3%)이 남성(25.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비교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70대 이상의 응답자 중 43.3%가 노후에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3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동거 포함, 별거 제외)의 경우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동거 포함, 별거 제외)의 77.4%가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게 분석됨
  - 기혼자를 제외한 미혼, 이혼, 사별, 별거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와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에 비해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3-96〉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단위 : 명, %)

| 구분   |          | 나 혼자          | 배우자           | 아들 가운데 한 명 | 딸들 가운데 한 명  | 자식들 중 아무나    | 친구나 이웃 등     | 형제, 자매      | 반려동물       | 기타         | 전체               |
|------|----------|---------------|---------------|------------|-------------|--------------|--------------|-------------|------------|------------|------------------|
| 성별   | 남성       | 90<br>(25.3)  | 230<br>(64.6) | 0<br>(0.0) | 0<br>(0.0)  | 14<br>(3.9)  | 16<br>(4.5)  | 3<br>(0.8)  | 1<br>(0.3) | 2<br>(0.6) | 356<br>(100.0)   |
|      | 여성       | 224<br>(34.3) | 298<br>(45.6) | 8<br>(1.2) | 11<br>(1.7) | 33<br>(5.1)  | 57<br>(8.7)  | 12<br>(1.8) | 6<br>(0.9) | 4<br>(0.6) | 653<br>(100.0)   |
| 연령   | 20-30대   | 31<br>(22.3)  | 84<br>(60.4)  | 1<br>(0.7) | 0<br>(0.0)  | 3<br>(2.2)   | 13<br>(9.4)  | 4<br>(2.9)  | 2<br>(1.4) | 1<br>(0.7) | 139<br>(100.0)   |
|      | 40대      | 46<br>(25.4)  | 104<br>(57.5) | 1<br>(0.6) | 2<br>(1.1)  | 6<br>(3.3)   | 16<br>(8.8)  | 4<br>(2.2)  | 2<br>(1.1) | 0<br>(0.0) | 181<br>(100.0)   |
|      | 50대      | 81<br>(27.5)  | 175<br>(59.3) | 1<br>(0.3) | 2<br>(0.7)  | 11<br>(3.7)  | 18<br>(6.1)  | 3<br>(1.0)  | 2<br>(0.7) | 2<br>(0.7) | 295<br>(100.0)   |
|      | 60대      | 68<br>(35.6)  | 87<br>(45.5)  | 1<br>(0.5) | 3<br>(1.6)  | 12<br>(6.3)  | 13<br>(6.8)  | 4<br>(2.1)  | 1<br>(0.5) | 2<br>(1.0) | 191<br>(100.0)   |
|      | 70대 이상   | 88<br>(43.3)  | 78<br>(38.4)  | 4<br>(2.0) | 4<br>(2.0)  | 15<br>(7.4)  | 13<br>(6.4)  | 0<br>(0.0)  | 0<br>(0.0) | 1<br>(0.5) | 203<br>(100.0)   |
| 혼인상태 | 결혼(동거포함) | 76<br>(12.2)  | 483<br>(77.4) | 1<br>(0.2) | 1<br>(0.2)  | 23<br>(3.7)  | 29<br>(4.6)  | 8<br>(1.3)  | 1<br>(0.2) | 2<br>(0.3) | 624<br>(100.0)   |
|      | 미혼       | 50<br>(43.9)  | 36<br>(31.6)  | 0<br>(0.0) | 0<br>(0.0)  | 1<br>(0.9)   | 18<br>(15.8) | 4<br>(3.5)  | 4<br>(3.5) | 1<br>(0.9) | 114<br>(100.0)   |
|      | 이혼       | 63<br>(67.0)  | 3<br>(3.2)    | 0<br>(0.0) | 3<br>(3.2)  | 6<br>(6.4)   | 14<br>(14.9) | 2<br>(2.1)  | 2<br>(2.1) | 1<br>(1.1) | 94<br>(100.0)    |
|      | 사별       | 112<br>(70.4) | 3<br>(1.9)    | 7<br>(4.4) | 6<br>(3.8)  | 17<br>(10.7) | 12<br>(7.5)  | 0<br>(0.0)  | 0<br>(0.0) | 2<br>(1.3) | 159<br>(100.0)   |
|      | 별거       | 13<br>(72.2)  | 3<br>(16.7)   | 0<br>(0.0) | 1<br>(5.6)  | 0<br>(0.0)   | 0<br>(0.0)   | 1<br>(5.6)  | 0<br>(0.0) | 0<br>(0.0) | 18<br>(100.0)    |
| 전체   |          | 314<br>(31.1) | 528<br>(52.3) | 8<br>(0.8) | 11<br>(1.1) | 47<br>(4.7)  | 73<br>(7.2)  | 15<br>(1.5) | 7<br>(0.7) | 6<br>(0.6) | 1,009<br>(100.0) |

## 다. 소결

- 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와의 이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이혼, 사별, 별거)의 경 우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응 답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4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비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 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비해 심리 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운동’ 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연령에 따른 수단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 연령대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 한 적극적인 수단(운동, 식이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 으로 비활동적인 수단(건강보조제 및 보조식품 섭취, 건강검진, 수면 등)을 활용하 여 건강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동 지역(제주시 68.0%, 서귀포시 70.6%)이 읍면지역(제주시 59.8%), 서귀포시 61.2%) 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일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 중 국민연금(32.9%)의 선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령대가 높을수록 국민연금 및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금 및 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32.9%가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였으며, 연 령별로는 70대 이상은 국민연금(33.5%) 및 부동산 운용(25.0%)을, 20~30대는 예금 및 적금(32.0%)과 국민연금(28.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8.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 가. 공동체와 가족

#### □ 가정 건강성<sup>12)</sup>

-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정의 주관적인 가정 건강성을 질문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본인 가정의 가정 건강성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2.3%(11.1%+41.2%)가 본인 가정의 가정 건강성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2.7%(0.2%+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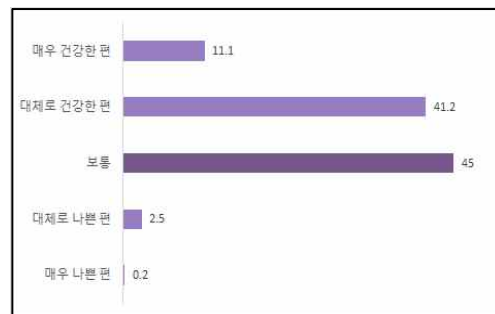
〈표 3-97〉 가정 건강성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매우 건강한 편  | 112   | (11.1)  |
| 대체로 건강한 편 | 416   | (41.2)  |
| 보통        | 454   | (45.0)  |
| 대체로 나쁜 편  | 25    | (2.5)   |
| 매우 나쁜 편   | 2     | (0.2)   |
| 합계        | 1,009 | (100.0) |

〈그림 3-49〉 가정 건강성

(단위 : %)



#### □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거주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5%(48.8%+14.7%)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0.2%+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거주 만족도 수준이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가정건강성 :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가구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상태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제주시 81.1%, 서귀포시 71.9%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지역 거주자(제주시 61.3%, 서귀포시 45.8%)에 비해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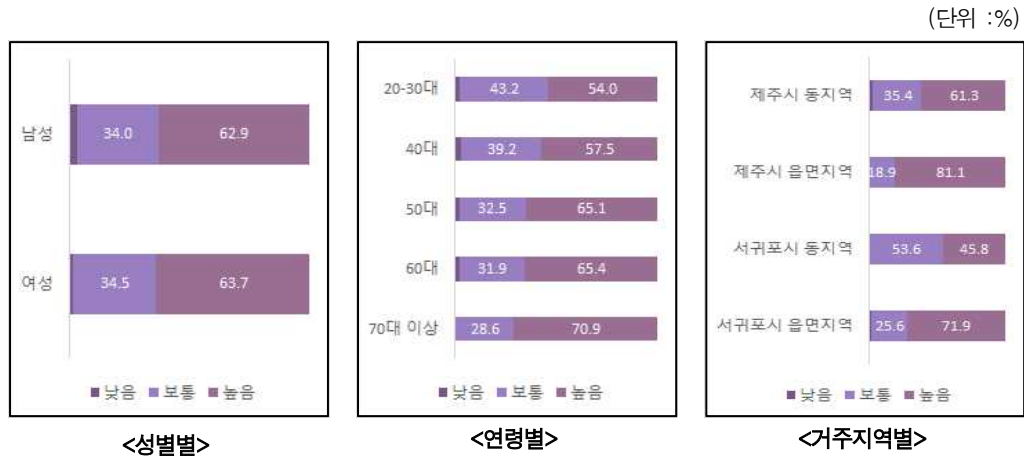
〈표 3-98〉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 구분       |              | N                | 매우<br>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br>높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2<br>(0.2) | 21<br>(2.1) | 346<br>(34.3) | 492<br>(48.8) | 148<br>(14.7)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0<br>(0.0) | 11<br>(3.1) | 121<br>(34.0) | 174<br>(48.9) | 50<br>(14.0)  | -0.560        |
|          | 여성           | 653<br>(100.0)   | 2<br>(0.3) | 10<br>(1.5) | 225<br>(34.5) | 318<br>(48.7) | 98<br>(15.0)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0<br>(0.0) | 4<br>(2.9)  | 60<br>(43.2)  | 59<br>(42.4)  | 16<br>(11.5)  | 4.511<br>***  |
|          | 40대          | 181<br>(100.0)   | 1<br>(0.6) | 5<br>(2.8)  | 71<br>(39.2)  | 81<br>(44.8)  | 23<br>(12.7)  |               |
|          | 50대          | 295<br>(100.0)   | 1<br>(0.3) | 6<br>(2.0)  | 96<br>(32.5)  | 152<br>(51.5) | 40<br>(13.6)  |               |
|          | 60대          | 191<br>(100.0)   | 0<br>(0.0) | 5<br>(2.6)  | 61<br>(31.9)  | 100<br>(52.4) | 25<br>(13.1)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0<br>(0.0) | 1<br>(0.5)  | 58<br>(28.6)  | 100<br>(49.3) | 44<br>(21.7)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지역   | 571<br>(100.0)   | 2<br>(0.4) | 17<br>(3.0) | 202<br>(35.4) | 279<br>(48.9) | 71<br>(12.4)  | 17.744<br>***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64<br>(100.0)   | 0<br>(0.0) | 0<br>(0.0)  | 31<br>(18.9)  | 111<br>(67.7) | 22<br>(13.4)  |               |
|          | 서귀포시<br>동지역  | 153<br>(100.0)   | 0<br>(0.0) | 1<br>(0.7)  | 82<br>(53.6)  | 59<br>(38.6)  | 11<br>(7.2)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21<br>(100.0)   | 0<br>(0.0) | 3<br>(2.5)  | 31<br>(25.6)  | 43<br>(35.5)  | 44<br>(36.4)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그림 3-50〉 거주중인 지역에 대한 인식



## □ 지역 분위기와 가족의 삶

- 지역 공동체의 분위기나 환경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 분위기나 환경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22.8%)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1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동 지역 거주자들이 읍면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지역 공동체의 분위기 및 환경과 가족의 삶 간에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 동 지역의 긍정적인 응답(3.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공동체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읍면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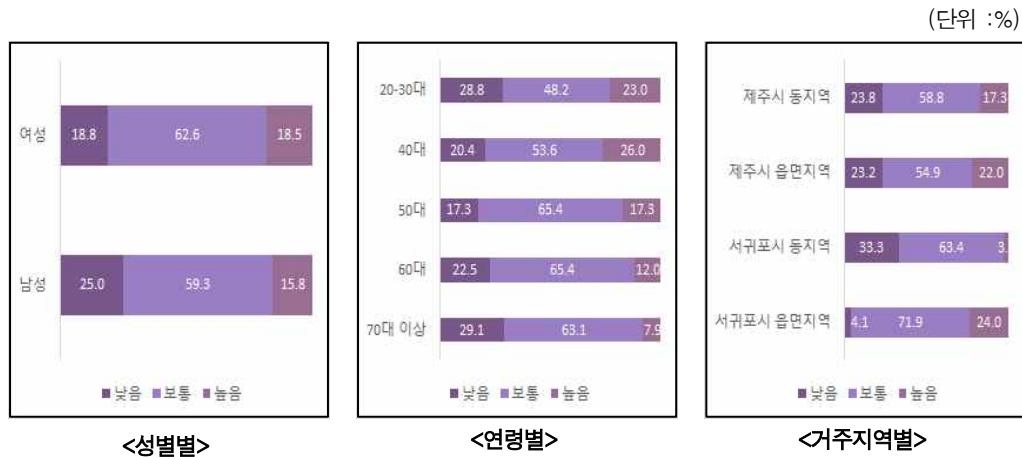
〈표 3-99〉 지역 분위기와 가족의 삶 관계 인식

(단위 : 명, %)

| 구분       |              | N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55<br>(5.5)  | 175<br>(17.3) | 610<br>(60.5) | 150<br>(14.9) | 19<br>(1.9)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11<br>(3.1)  | 56<br>(15.7)  | 223<br>(62.6) | 60<br>(16.9)  | 6<br>(1.7)  | 2.393*        |
|          | 여성           | 653<br>(100.0)   | 44<br>(6.7)  | 119<br>(18.2) | 387<br>(59.3) | 90<br>(13.8)  | 13<br>(2.0)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13<br>(9.4)  | 27<br>(19.4)  | 67<br>(48.2)  | 24<br>(17.3)  | 8<br>(5.8)  | 4.170**       |
|          | 40대          | 181<br>(100.0)   | 13<br>(7.2)  | 24<br>(13.3)  | 97<br>(53.6)  | 42<br>(23.2)  | 5<br>(2.8)  |               |
|          | 50대          | 295<br>(100.0)   | 11<br>(3.7)  | 40<br>(13.6)  | 193<br>(65.4) | 47<br>(15.9)  | 4<br>(1.4)  |               |
|          | 60대          | 191<br>(100.0)   | 6<br>(3.1)   | 37<br>(19.4)  | 125<br>(65.4) | 21<br>(11.0)  | 2<br>(1.0)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12<br>(5.9)  | 47<br>(23.2)  | 128<br>(63.1) | 16<br>(7.9)   | 0<br>(0.0)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지역   | 571<br>(100.0)   | 31<br>(5.4)  | 105<br>(18.4) | 336<br>(58.8) | 88<br>(15.4)  | 11<br>(1.9) | 14.792<br>***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64<br>(100.0)   | 5<br>(3.0)   | 33<br>(20.1)  | 90<br>(54.9)  | 30<br>(18.3)  | 6<br>(3.7)  |               |
|          | 서귀포시<br>동지역  | 153<br>(100.0)   | 17<br>(11.1) | 34<br>(22.2)  | 97<br>(63.4)  | 4<br>(2.6)    | 1<br>(0.7)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21<br>(100.0)   | 2<br>(1.7)   | 3<br>(2.5)    | 87<br>(71.9)  | 28<br>(23.1)  | 1<br>(0.8)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그림 3-51〉 지역 분위기와 가족의 삶 관계 인식



## □ 지역 공동체가 가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역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 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가족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역 공동체가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인식(6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14.6%)보다는 부정적인 인식(24.5%)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지역 공동체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30대 응답자의 경우 긍정 의견(12.3%)과 부정 의견(39.5%)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 연령층에서는 간격이 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제주시 15.8%, 서귀포시 23.2%)이 동지역(제주시 12.2%, 서귀포시 15.1%)에 비해 가족과 지역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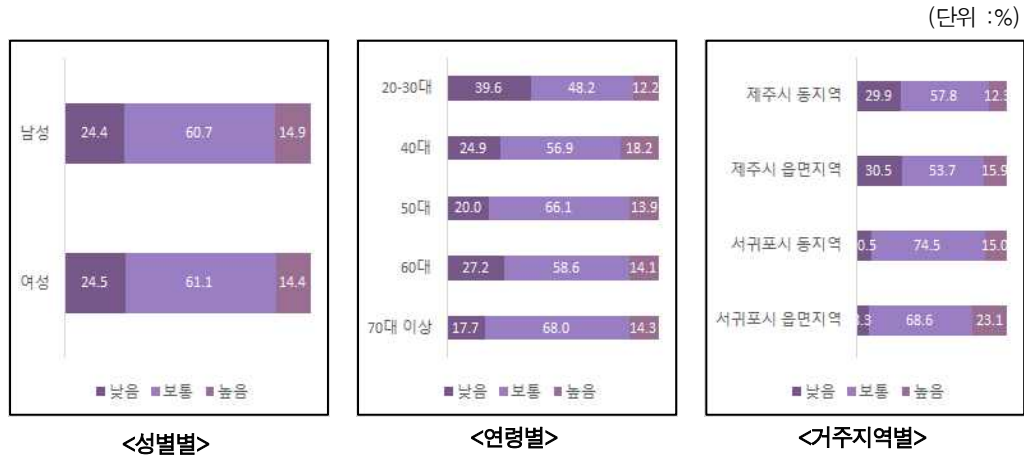
〈표 3-100〉 지역 공동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인식

(단위 : 명, %)

| 구분       |              | N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46<br>(4.6)  | 201<br>(19.9) | 615<br>(61.0) | 136<br>(13.5) | 11<br>(1.1)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13<br>(3.7)  | 74<br>(20.8)  | 216<br>(60.7) | 48<br>(13.5)  | 5<br>(1.4)  | 0.503         |
|          | 여성           | 653<br>(100.0)   | 33<br>(5.1)  | 127<br>(19.4) | 399<br>(61.1) | 88<br>(13.5)  | 6<br>(0.9)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17<br>(12.2) | 38<br>(27.3)  | 67<br>(48.2)  | 13<br>(9.4)   | 4<br>(2.9)  | 4.441<br>***  |
|          | 40대          | 181<br>(100.0)   | 12<br>(6.6)  | 33<br>(18.2)  | 103<br>(56.9) | 30<br>(16.6)  | 3<br>(1.7)  |               |
|          | 50대          | 295<br>(100.0)   | 12<br>(4.1)  | 47<br>(15.9)  | 195<br>(66.1) | 39<br>(13.2)  | 2<br>(0.7)  |               |
|          | 60대          | 191<br>(100.0)   | 2<br>(1.0)   | 50<br>(26.2)  | 112<br>(58.6) | 25<br>(13.1)  | 2<br>(1.0)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3<br>(1.5)   | 33<br>(16.3)  | 138<br>(68.0) | 29<br>(14.3)  | 0<br>(0.0)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지역   | 571<br>(100.0)   | 34<br>(6.0)  | 137<br>(24.0) | 330<br>(57.8) | 67<br>(11.7)  | 3<br>(0.5)  | 13.044<br>***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64<br>(100.0)   | 7<br>(4.3)   | 43<br>(26.2)  | 88<br>(53.7)  | 24<br>(14.6)  | 2<br>(1.2)  |               |
|          | 서귀포시<br>동지역  | 153<br>(100.0)   | 1<br>(0.7)   | 15<br>(9.8)   | 114<br>(74.5) | 20<br>(13.1)  | 3<br>(2.0)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21<br>(100.0)   | 4<br>(3.3)   | 6<br>(5.0)    | 83<br>(68.6)  | 25<br>(20.7)  | 3<br>(2.5)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그림 3-52〉 지역 공동체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인식



## 나.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

### □ 이웃과의 교류 수준

- 이웃과의 교류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이웃과의 교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23.9%)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18.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서귀포시에 거주할수록’ 이웃과의 교류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별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42.5%(14.4%+28.1%)가 이웃과의 교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이웃과의 교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7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은 11.4%(2.0%+9.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동 지역의 교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1〉 이웃과의 교류 수준

(단위 : 명, %)

| 구분       |              | N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t, F          |
|----------|--------------|------------------|--------------|---------------|---------------|---------------|-------------|---------------|
| 전체       |              | 1,009<br>(100.0) | 39<br>(3.9)  | 149<br>(14.8) | 580<br>(57.5) | 209<br>(20.7) | 32<br>(3.2) | -             |
| 성별       | 남성           | 356<br>(100.0)   | 12<br>(3.4)  | 54<br>(15.2)  | 224<br>(62.9) | 58<br>(16.3)  | 8<br>(2.2)  | -1.674        |
|          | 여성           | 653<br>(100.0)   | 27<br>(4.1)  | 95<br>(14.5)  | 356<br>(54.5) | 151<br>(23.1) | 24<br>(3.7) |               |
| 연령       | 20-30대       | 139<br>(100.0)   | 20<br>(14.4) | 39<br>(28.1)  | 61<br>(43.9)  | 15<br>(10.8)  | 4<br>(2.9)  | 14.275<br>*** |
|          | 40대          | 181<br>(100.0)   | 5<br>(2.8)   | 32<br>(17.7)  | 102<br>(56.4) | 32<br>(17.7)  | 10<br>(5.5) |               |
|          | 50대          | 295<br>(100.0)   | 9<br>(3.1)   | 25<br>(8.5)   | 181<br>(61.4) | 70<br>(23.7)  | 10<br>(3.4) |               |
|          | 60대          | 191<br>(100.0)   | 1<br>(0.5)   | 34<br>(17.8)  | 111<br>(58.1) | 41<br>(21.5)  | 4<br>(2.1)  |               |
|          | 70대 이상       | 203<br>(100.0)   | 4<br>(2.0)   | 19<br>(9.4)   | 125<br>(61.6) | 51<br>(25.1)  | 4<br>(2.0)  |               |
| 거주<br>지역 | 제주시<br>동지역   | 571<br>(100.0)   | 33<br>(5.8)  | 112<br>(19.6) | 330<br>(57.8) | 88<br>(15.4)  | 8<br>(1.4)  | 22.589<br>*** |
|          | 제주시<br>읍면지역  | 164<br>(100.0)   | 3<br>(1.8)   | 25<br>(15.2)  | 68<br>(41.5)  | 59<br>(36.0)  | 9<br>(5.5)  |               |
|          | 서귀포시<br>동지역  | 153<br>(100.0)   | 0<br>(0.0)   | 4<br>(2.6)    | 108<br>(70.6) | 35<br>(22.9)  | 6<br>(3.9)  |               |
|          | 서귀포시<br>읍면지역 | 121<br>(100.0)   | 3<br>(2.5)   | 8<br>(6.6)    | 74<br>(61.2)  | 27<br>(22.3)  | 9<br>(7.4)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그림 3-53〉 이웃과의 교류 수준



## □ 이웃과의 관계 인식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웃과의 관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sup>13)</sup>들을 토대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평균점수 3 점 이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네트워크 및 주민참여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규범 및 신뢰의 측면에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또한 평균점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13)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R. Putnam(2000)이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네트워크, 규범, 신뢰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유사한 형태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최근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항목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네트워크, 규범, 신뢰, 주민참여 등 총 네 가지 요소를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규정하여 진행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02〉 이웃과의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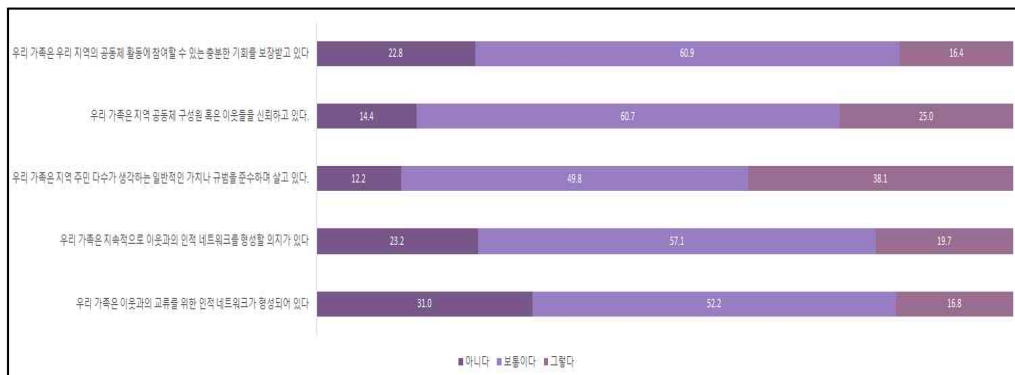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 구분   | N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평균<br>점수 |
|--|------------------|-------------|---------------|---------------|---------------|-------------|----------|
| 우리 가족은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br>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1,009<br>(100.0) | 65<br>(6.4) | 248<br>(24.6) | 527<br>(52.2) | 160<br>(15.9) | 9<br>(0.9)  | 2.80     |
| 우리 가족은 지속적으로<br>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를<br>형성할 의지가 있다          | 1,009<br>(100.0) | 35<br>(3.5) | 199<br>(19.7) | 576<br>(57.1) | 187<br>(18.5) | 12<br>(1.2) | 2.94     |
| 우리 가족은 지역 주민 다수가<br>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나<br>규범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 | 1,009<br>(100.0) | 18<br>(1.8) | 105<br>(10.4) | 502<br>(49.8) | 340<br>(33.7) | 44<br>(4.4) | 3.28     |
| 우리 가족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br>혹은 이웃들을 신뢰하고 있다.                | 1,009<br>(100.0) | 19<br>(1.9) | 126<br>(12.5) | 612<br>(60.7) | 228<br>(22.6) | 24<br>(2.4) | 3.11     |
|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br>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br>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 1,009<br>(100.0) | 29<br>(2.9) | 201<br>(19.9) | 614<br>(60.9) | 155<br>(15.4) | 10<br>(1.0) | 2.92     |

주 : 평균 점수는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그림 3-54〉 이웃과의 관계 인식

(단위 : %)



- 연령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 인식 분석 결과, 50대 및 60대 응답자들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웃과의 관계 인식을 묻는 5가지 문항과 관련하여 3개 문항(인적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형성 의지, 참여기회)은 6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가지 문항(규범 준수 여부, 이웃과의 신뢰)은 5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거주지역별 관계 인식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읍면지역의 평균 점수(3.13점)가 동지역(2.9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 지역의 평균 점수(2.85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 읍면지역의 평균 점수(3.13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 인식 비교

(단위 :명, 점)

| 구분    |           | N     | 우리 가족은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우리 가족은 지속적으로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의지가 있다 | 우리 가족은 지역 주민 다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나 규범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 | 우리 가족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혹은 이웃들을 신뢰하고 있다. |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
|-------|-----------|-------|-------------------------------------|---------------------------------------|--|------------------------------------|--|
| 전체    |           | 1,009 | 2.80                                | 2.94                                  | 3.28   | 3.11                               | 2.92   |
| 성별    | 남성        | 356   | 2.83                                | 2.96                                  | 3.30   | 3.09                               | 2.88   |
|       | 여성        | 653   | 2.79                                | 2.93                                  | 3.28   | 3.12                               | 2.93   |
|       | t         |       | 0.776                               | 0.566                                 | 0.401  | -0.601                             | -1.058   |
| 연령    | 20-30대    | 139   | 2.59                                | 2.78                                  | 3.27   | 2.94                               | 2.79   |
|       | 40대       | 181   | 2.77                                | 2.94                                  | 3.34   | 3.14                               | 2.92   |
|       | 50대       | 295   | 2.84                                | 3.01                                  | 3.43   | 3.25                               | 2.96   |
|       | 60대       | 191   | 2.89                                | 3.04                                  | 3.27   | 3.13                               | 2.99   |
|       | 70대 이상    | 203   | 2.83                                | 2.87                                  | 3.03   | 2.99                               | 2.86   |
|       | F         |       | 3.312**                             | 3.127**                               | 8.458***                                       | 6.461***                           | 2.296  |
| 거주 지역 | 제주시 동지역   | 571   | 2.76                                | 2.92                                  | 3.33   | 3.08                               | 2.89   |
|       | 제주시 읍면지역  | 164   | 2.80                                | 2.99                                  | 3.47   | 3.32                               | 3.06   |
|       | 서귀포시 동지역  | 153   | 2.80                                | 2.89                                  | 2.92   | 2.91                               | 2.73   |
|       | 서귀포시 읍면지역 | 121   | 2.98                                | 3.03                                  | 3.27   | 3.25                               | 3.08   |
|       | F         |       | 2.493                               | 1.228                                 | 15.986***                                      | 11.227***                          | 8.419***                                       |

주1 : \* p&lt;.05, \*\* p&lt;.01, \*\*\* p&lt;.001

주2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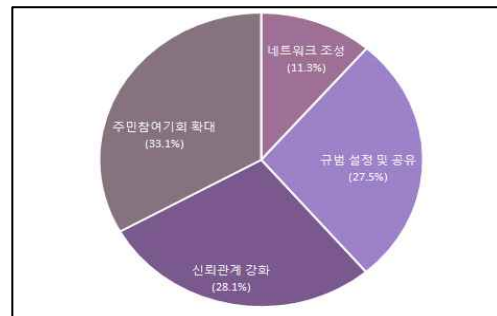
## □ 공동체 지원 정책 수요

-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웃간의 교류 강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1%가 이웃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신뢰관계 강화(28.1%), 규범 설정 및 공유(27.5%), 네트워크 조성(11.3%)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04〉 공동체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명, %)

| 구분         | N     | %       |
|------------|-------|---------|
| 네트워크 조성    | 114   | (11.3)  |
| 규범 설정 및 공유 | 277   | (27.5)  |
| 신뢰관계 강화    | 284   | (28.1)  |
| 주민참여기회 확대  | 334   | (33.1)  |
| 합계         | 1,009 | (100.0) |

〈그림 3-55〉 공동체 지원 정책 수요  
(단위 : %)



## 다. 가족친화정책

### □ 가족서비스 전달 기관 인지도

- 가족서비스 전달 기관의 인지도 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기관의 인지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의 기관 인지도는 46.5%, 기능 및 역할 인지도는 41.6%로 나타난 반면, 다른 기관의 인지도는 8~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족서비스 전달 기관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기관들에 대한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보기에 제시된 기관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은 기관은 지역아동센터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그 비율은 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관 및 기능 인지도가 각각 46.5%, 41.6%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3.6%)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5〉 가족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단위 : 명, %)

| 구분       | N                | 기관 인지도        |               | 기능 및 역할 인지도   |               | 이용경험        |               |
|----------|------------------|---------------|---------------|---------------|---------------|-------------|---------------|
|          |                  | 안다            | 모른다           | 안다            | 모른다           | 있음          | 없음            |
| 가족센터     | 1,009<br>(100.0) | 222<br>(22.0) | 787<br>(78.0) | 196<br>(19.4) | 813<br>(80.6) | 24<br>(2.4) | 985<br>(97.6) |
| 가족친화지원센터 | 1,009<br>(100.0) | 96<br>(8.8)   | 913<br>(91.2) | 80<br>(7.9)   | 929<br>(92.1) | 11<br>(1.1) | 998<br>(98.9) |
| 다함께돌봄센터  | 1,009<br>(100.0) | 186<br>(18.4) | 823<br>(81.6) | 157<br>(12.5) | 852<br>(87.5) | 10<br>(1.0) | 999<br>(99.0) |
| 육아종합지원센터 | 1,009<br>(100.0) | 216<br>(21.4) | 793<br>(78.6) | 196<br>(19.4) | 813<br>(80.6) | 28<br>(2.8) | 981<br>(97.2) |
| 지역아동센터   | 1,009<br>(100.0) | 469<br>(46.5) | 540<br>(53.5) | 420<br>(41.6) | 589<br>(58.4) | 36<br>(3.6) | 973<br>(96.4) |

## □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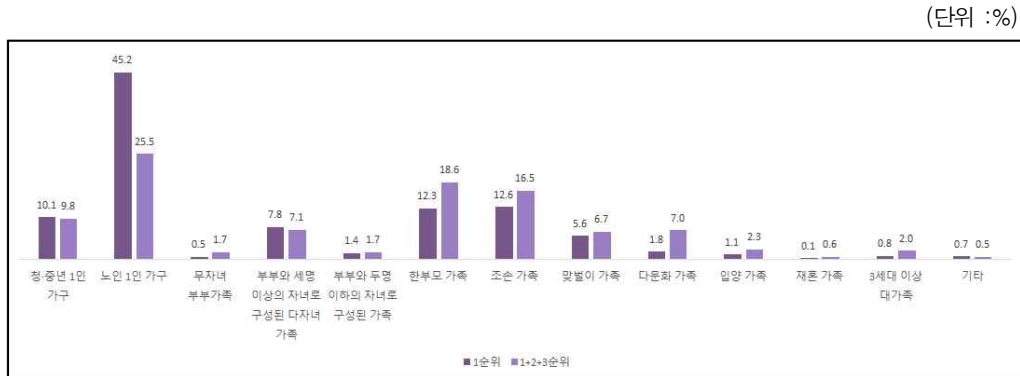
-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노인을 포함한 가족 및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45.2%), 조손가족(12.6%) 등 노인을 포함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 중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5.3%(10.1%+45.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25.5%), 한부모 가족(18.6%), 조손가족(16.5%), 청·중년 1인 가구(9.8%)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06〉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1,009<br>(100.0) | 1,008<br>(100.0) | 999<br>(100.0) | 2,017<br>(100.0) | 3,016<br>(100.0) |
| 청·중년 1인 가구                   | 102<br>(10.1)    | 121<br>(12.0)    | 73<br>(7.3)    | 223<br>(11.1)    | 296<br>(9.8)     |
| 노인 1인 가구                     | 456<br>(45.2)    | 187<br>(18.6)    | 125<br>(12.5)  | 643<br>(31.9)    | 768<br>(25.5)    |
| 무자녀 부부가족                     | 5<br>(0.5)       | 16<br>(1.6)      | 31<br>(3.1)    | 21<br>(1.0)      | 52<br>(1.7)      |
| 부부와 세명 이상의 자녀로<br>구성된 다자녀 가족 | 79<br>(7.8)      | 67<br>(6.6)      | 68<br>(6.8)    | 146<br>(7.2)     | 214<br>(7.1)     |
| 부부와 두명 이하의 자녀로<br>구성된 가족     | 14<br>(1.4)      | 15<br>(1.5)      | 23<br>(2.3)    | 29<br>(1.4)      | 52<br>(1.7)      |
| 한부모 가족                       | 124<br>(12.3)    | 210<br>(20.8)    | 228<br>(22.8)  | 334<br>(16.6)    | 562<br>(18.6)    |
| 조손 가족                        | 127<br>(12.6)    | 237<br>(23.5)    | 133<br>(13.3)  | 364<br>(18.0)    | 497<br>(16.5)    |
| 맞벌이 가족                       | 57<br>(5.6)      | 51<br>(5.1)      | 93<br>(9.3)    | 108<br>(5.4)     | 201<br>(6.7)     |
| 다문화 가족                       | 18<br>(1.8)      | 53<br>(5.3)      | 140<br>(14.0)  | 71<br>(3.5)      | 211<br>(7.0)     |
| 입양 가족                        | 11<br>(1.1)      | 20<br>(2.0)      | 39<br>(3.9)    | 31<br>(1.5)      | 70<br>(2.3)      |
| 재혼 가족                        | 1<br>(0.1)       | 5<br>(0.5)       | 13<br>(1.3)    | 6<br>(0.3)       | 19<br>(0.6)      |
| 3세대 이상 대가족                   | 8<br>(0.8)       | 24<br>(2.4)      | 28<br>(2.8)    | 32<br>(1.6)      | 60<br>(2.0)      |
| 기타                           | 7<br>(0.7)       | 2<br>(0.2)       | 5<br>(0.5)     | 9<br>(0.4)       | 14<br>(0.5)      |

〈그림 3-56〉 가족 형태별 정책 수요



○ 연령별 가족정책 수요 분석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고령자일수록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는 전 연령대에서 3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9.1%), 60대(57.6%) 등 고령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음

○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의 노인 1인 가구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는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 노인 1인 가구와 관련하여 동 지역의 수요(제주시 46.4%, 서귀포시 51.0%)가 읍면 지역(제주시 43.9%, 서귀포시 33.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중년 1인 가구의 경우 서귀포시(동 지역 13.1%, 읍면지역 24.8%)가 제주시(동지역 8.8%, 읍면지역 1.2%)에 비해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07〉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정책 수요(1순위 기준)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거주지역           |                |                |                | 가구형태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제주시 동          | 제주시 읍면         | 서귀포 동          | 서귀포 읍면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1인 가구          |
| 전체                    | 1006<br>(100.0) | 355<br>(100.0) | 651<br>(100.0) | 139<br>(100.0) | 181<br>(100.0) | 295<br>(100.0) | 191<br>(100.0) | 203<br>(100.0) | 571<br>(100.0) | 164<br>(100.0) | 153<br>(100.0) | 121<br>(100.0) | 259<br>(100.0) | 413<br>(100.0) | 36<br>(100.0) | 301<br>(100.0) |
| 청·중년 1인 가구            | 102<br>(10.1)   | 43<br>(12.1)   | 59<br>(9.1)    | 30<br>(21.6)   | 15<br>(8.3)    | 22<br>(7.5)    | 13<br>(6.8)    | 22<br>(10.8)   | 50<br>(8.8)    | 2<br>(1.2)     | 20<br>(13.1)   | 30<br>(24.8)   | 34<br>(13.1)   | 24<br>(5.8)    | 0<br>(0.0)    | 44<br>(14.6)   |
| 노인 1인 가구              | 454<br>(45.1)   | 157<br>(44.2)  | 297<br>(45.6)  | 44<br>(31.7)   | 59<br>(32.6)   | 123<br>(41.7)  | 110<br>(57.6)  | 120<br>(59.1)  | 265<br>(46.4)  | 72<br>(43.9)   | 78<br>(51.0)   | 41<br>(33.9)   | 117<br>(45.2)  | 152<br>(36.8)  | 19<br>(52.8)  | 168<br>(55.8)  |
| 무자녀 부부가족              | 5<br>(0.5)      | 2<br>(0.6)     | 3<br>(0.5)     | 0<br>(0.0)     | 1<br>(0.6)     | 2<br>(0.7)     | 0<br>(0.0)     | 2<br>(1.0)     | 3<br>(0.5)     | 0<br>(0.0)     | 2<br>(1.3)     | 0<br>(0.0)     | 3<br>(1.2)     | 0<br>(0.0)     | 0<br>(0.0)    | 2<br>(0.7)     |
| 부부와 세명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 79<br>(7.9)     | 32<br>(9.0)    | 47<br>(7.2)    | 15<br>(10.8)   | 23<br>(12.7)   | 19<br>(6.4)    | 10<br>(5.2)    | 12<br>(5.9)    | 29<br>(5.1)    | 20<br>(12.2)   | 17<br>(11.1)   | 13<br>(10.7)   | 18<br>(6.9)    | 47<br>(11.4)   | 3<br>(8.3)    | 11<br>(3.7)    |
| 부부와 두명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 14<br>(1.4)     | 6<br>(1.7)     | 8<br>(1.2)     | 8<br>(5.8)     | 1<br>(0.6)     | 4<br>(1.4)     | 1<br>(0.5)     | 0<br>(0.0)     | 10<br>(1.8)    | 3<br>(1.8)     | 0<br>(0.0)     | 1<br>(0.8)     | 1<br>(0.4)     | 11<br>(2.7)    | 0<br>(0.0)    | 2<br>(0.7)     |
| 한부모 가족                | 123<br>(12.2)   | 38<br>(10.7)   | 85<br>(13.1)   | 13<br>(9.4)    | 27<br>(14.9)   | 36<br>(12.2)   | 23<br>(12.0)   | 25<br>(12.3)   | 72<br>(12.6)   | 29<br>(17.7)   | 7<br>(4.6)     | 16<br>(13.2)   | 37<br>(14.3)   | 51<br>(12.3)   | 4<br>(11.1)   | 32<br>(10.6)   |
| 조손 가족                 | 127<br>(12.6)   | 39<br>(11.0)   | 88<br>(13.5)   | 8<br>(5.8)     | 30<br>(16.6)   | 55<br>(18.6)   | 20<br>(10.5)   | 14<br>(6.9)    | 92<br>(16.1)   | 16<br>(9.8)    | 7<br>(4.6)     | 12<br>(9.9)    | 24<br>(9.3)    | 71<br>(17.2)   | 7<br>(19.4)   | 25<br>(8.3)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거주지역        |            |              |            | 가구형태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제주시 동       | 제주시 읍면     | 서귀포 동        | 서귀포 읍면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1인 가구      |
| 맞벌이 가족     | 57<br>(5.7) | 18<br>(5.1) | 39<br>(6.0) | 17<br>(12.2) | 14<br>(7.7) | 18<br>(6.1) | 4<br>(2.1) | 4<br>(2.0) | 26<br>(4.6) | 8<br>(4.9) | 20<br>(13.1) | 3<br>(2.5) | 14<br>(5.4) | 35<br>(8.5) | 1<br>(2.8) | 7<br>(2.3) |
| 다문화 가족     | 18<br>(1.8) | 4<br>(1.1)  | 14<br>(2.2) | 3<br>(2.2)   | 6<br>(3.3)  | 7<br>(2.4)  | 2<br>(1.0) | 0<br>(0.0) | 15<br>(2.6) | 3<br>(1.8) | 0<br>(0.0)   | 0<br>(0.0) | 2<br>(0.8)  | 10<br>(2.4) | 1<br>(2.8) | 5<br>(1.7) |
| 입양 가족      | 11<br>(1.1) | 7<br>(2.0)  | 4<br>(0.6)  | 0<br>(0.0)   | 3<br>(1.7)  | 3<br>(1.0)  | 4<br>(2.1) | 1<br>(0.5) | 2<br>(0.4)  | 7<br>(4.3) | 0<br>(0.0)   | 2<br>(1.7) | 3<br>(1.2)  | 7<br>(1.7)  | 0<br>(0.0) | 1<br>(0.3) |
| 재혼 가족      | 1<br>(0.1)  | 0<br>(0.0)  | 1<br>(0.2)  | 0<br>(0.0)   | 0<br>(0.0)  | 1<br>(0.3)  | 0<br>(0.0) | 0<br>(0.0) | 0<br>(0.0)  | 1<br>(0.6)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1<br>(0.3) |
| 3세대 이상 대가족 | 8<br>(0.8)  | 5<br>(1.4)  | 3<br>(0.5)  | 0<br>(0.0)   | 1<br>(0.6)  | 3<br>(1.0)  | 1<br>(0.5) | 3<br>(1.5) | 2<br>(0.4)  | 1<br>(0.6) | 2<br>(1.3)   | 3<br>(2.5) | 4<br>(1.5)  | 3<br>(0.7)  | 1<br>(2.8) | 0<br>(0.0) |
| 기타         | 7<br>(0.7)  | 4<br>(1.1)  | 3<br>(0.5)  | 1<br>(0.7)   | 1<br>(0.6)  | 2<br>(0.7)  | 3<br>(1.6) | 0<br>(0.0) | 5<br>(0.9)  | 2<br>(1.2) | 0<br>(0.0)   | 0<br>(0.0) | 2<br>(0.8)  | 2<br>(0.5)  | 0<br>(0.0) | 3<br>(1.0) |
| t, F       |             | -0.364      |             | 0.017        |             |             |            |            | 2.855*      |            |              |            | 15.271***   |             |            |            |

주 : \* p<.05, \*\* p<.01, \*\*\* p<.001

## □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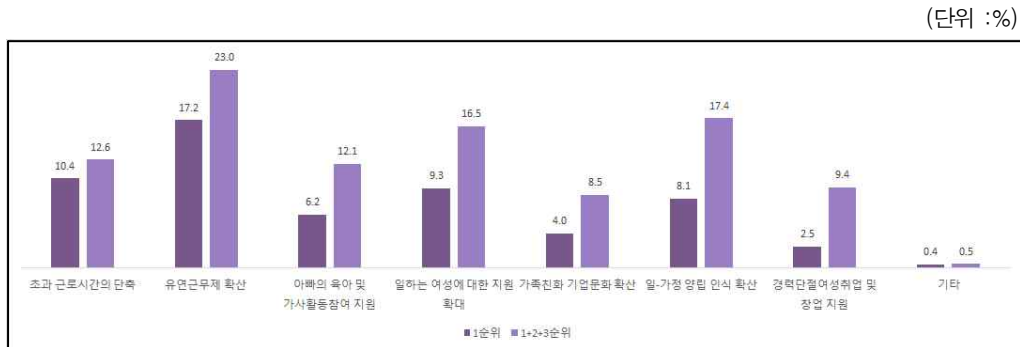
-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초과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 가정생활 참여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중 일-가정 조화를 위해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중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시간의 단축(10.4%)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조사되었음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외에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 (17.4%),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16.5%) 등에 대한 응답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08〉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1,009<br>(100.0) | 1,008<br>(100.0) | 1,000<br>(100.0) | 2,017<br>(100.0) | 3,017<br>(100.0) |
|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 180<br>(10.4)    | 107<br>(6.2)     | 92<br>(5.3)      | 287<br>(14.2)    | 379<br>(12.6)    |
| 유연근무제 확산               | 299<br>(17.2)    | 216<br>(12.4)    | 178<br>(10.3)    | 515<br>(25.5)    | 693<br>(23.0)    |
| 아빠의 육아 및 가사활동<br>참여 지원 | 108<br>(6.2)     | 149<br>(8.6)     | 109<br>(6.3)     | 257<br>(12.7)    | 366<br>(12.1)    |
|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161<br>(9.3)     | 188<br>(10.8)    | 150<br>(8.6)     | 349<br>(17.3)    | 499<br>(16.5)    |
|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 70<br>(4.0)      | 54<br>(3.1)      | 132<br>(7.6)     | 124<br>(6.1)     | 256<br>(8.5)     |
|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          | 140<br>(8.1)     | 190<br>(10.9)    | 194<br>(11.2)    | 330<br>(16.4)    | 524<br>(17.4)    |
| 경력단절여성<br>취업 및 창업 지원   | 44<br>(2.5)      | 101<br>(5.8)     | 139<br>(8.0)     | 145<br>(7.2)     | 284<br>(9.4)     |
| 기타                     | 7<br>(0.4)       | 3<br>(0.2)       | 6<br>(0.3)       | 10<br>(0.5)      | 16<br>(0.5)      |

〈그림 3-57〉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 성별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가정생활 참여 시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경우 워킹맘 지원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들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산(33.4%),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22.5%) 등을 통한 물리적 시간의 확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19.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별 분석 결과, 저 연령층의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은 반면, 고 연령층의 경우 인식 개선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30대 및 40대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37.4%, 30.9%)하고 있는 반면, 60대, 70대 이상의 경우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17.8%, 18.7%)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0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1순위 기준)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거주지역           |                |                |                | 가구형태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제주시 동          | 제주시 읍면         | 서귀포 동          | 서귀포 읍면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1인 가구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139<br>(100.0) | 181<br>(100.0) | 295<br>(100.0) | 191<br>(100.0) | 203<br>(100.0) | 571<br>(100.0) | 164<br>(100.0) | 153<br>(100.0) | 121<br>(100.0) | 259<br>(100.0) | 413<br>(100.0) | 36<br>(100.0) | 301<br>(100.0) |
|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 180<br>(17.8)    | 80<br>(22.5)   | 100<br>(15.3)  | 26<br>(18.7)   | 37<br>(20.4)   | 54<br>(18.3)   | 28<br>(14.7)   | 35<br>(17.2)   | 89<br>(15.6)   | 19<br>(11.6)   | 39<br>(25.5)   | 33<br>(27.3)   | 35<br>(13.5)   | 73<br>(17.7)   | 7<br>(19.4)   | 65<br>(21.6)   |
| 유연근무제 확산               | 299<br>(29.6)    | 119<br>(33.4)  | 180<br>(27.6)  | 52<br>(37.4)   | 56<br>(30.9)   | 92<br>(31.2)   | 52<br>(27.2)   | 47<br>(23.2)   | 199<br>(34.9)  | 69<br>(42.1)   | 15<br>(9.8)    | 16<br>(13.2)   | 66<br>(25.5)   | 123<br>(29.8)  | 6<br>(16.7)   | 104<br>(34.6)  |
| 아빠의 육아 및<br>가사활동 참여 지원 | 108<br>(10.7)    | 30<br>(8.4)    | 78<br>(11.9)   | 14<br>(10.1)   | 22<br>(12.2)   | 28<br>(9.5)    | 21<br>(11.0)   | 23<br>(11.3)   | 58<br>(10.2)   | 18<br>(11.0)   | 17<br>(11.1)   | 15<br>(12.4)   | 37<br>(14.3)   | 45<br>(10.9)   | 6<br>(16.7)   | 20<br>(6.6)    |
| 일하는 여성에 대한<br>지원 확대    | 161<br>(16.0)    | 33<br>(9.3)    | 128<br>(19.6)  | 26<br>(18.7)   | 31<br>(17.1)   | 50<br>(16.9)   | 24<br>(12.6)   | 30<br>(14.8)   | 88<br>(15.4)   | 21<br>(12.8)   | 36<br>(23.5)   | 16<br>(13.2)   | 42<br>(16.2)   | 67<br>(16.2)   | 10<br>(27.8)  | 42<br>(14.0)   |
| 가족친화 기업문화<br>확산        | 70<br>(6.9)      | 28<br>(7.9)    | 42<br>(6.4)    | 5<br>(3.6)     | 8<br>(4.4)     | 17<br>(5.8)    | 19<br>(9.9)    | 21<br>(10.3)   | 44<br>(7.7)    | 9<br>(5.5)     | 14<br>(9.2)    | 3<br>(2.5)     | 19<br>(7.3)    | 31<br>(7.5)    | 1<br>(2.8)    | 19<br>(6.3)    |
| 일-가정 양립 인식<br>확산       | 140<br>(13.9)    | 50<br>(14.0)   | 90<br>(13.8)   | 9<br>(6.5)     | 17<br>(9.4)    | 42<br>(14.2)   | 34<br>(17.8)   | 38<br>(18.7)   | 68<br>(11.9)   | 17<br>(10.4)   | 22<br>(14.4)   | 33<br>(27.3)   | 44<br>(17.0)   | 50<br>(12.1)   | 5<br>(13.9)   | 41<br>(13.6)   |
| 경력단절여성<br>취업 및 창업 지원   | 44<br>(4.4)      | 11<br>(3.1)    | 33<br>(5.1)    | 1<br>(0.7)     | 10<br>(5.5)    | 11<br>(3.7)    | 13<br>(6.8)    | 9<br>(4.4)     | 22<br>(3.9)    | 7<br>(4.3)     | 10<br>(6.5)    | 5<br>(4.1)     | 14<br>(5.4)    | 19<br>(4.6)    | 1<br>(2.8)    | 10<br>(3.3)    |
| 기타                     | 7<br>(0.7)       | 5<br>(1.4)     | 2<br>(0.3)     | 6<br>(4.3)     | 0<br>(0.0)     | 1<br>(0.3)     | 0<br>(0.0)     | 0<br>(0.0)     | 3<br>(0.5)     | 4<br>(2.4)     | 0<br>(0.0)     | 0<br>(0.0)     | 2<br>(0.8)     | 5<br>(1.2)     | 0<br>(0.0)    | 0<br>(0.0)     |
| t, F                   |                  | -2.377*        |                | 3.906**        |                |                |                |                | 1.834          |                |                |                | 3.597*         |                |               |                |

주 : \* p&lt;.05, \*\* p&lt;.01, \*\*\* p&lt;.001

## □ 가족친화도시<sup>14)</sup>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제공,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상담 지원, 노인돌봄 관련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프로그램 제공(20.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 지원(16.7%), 노인 돌봄 및 시설 지원(13.7%)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 2, 3순위를 더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 프로그램 제공(13.1%) 및 노인 돌봄 지원(12.6%)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10〉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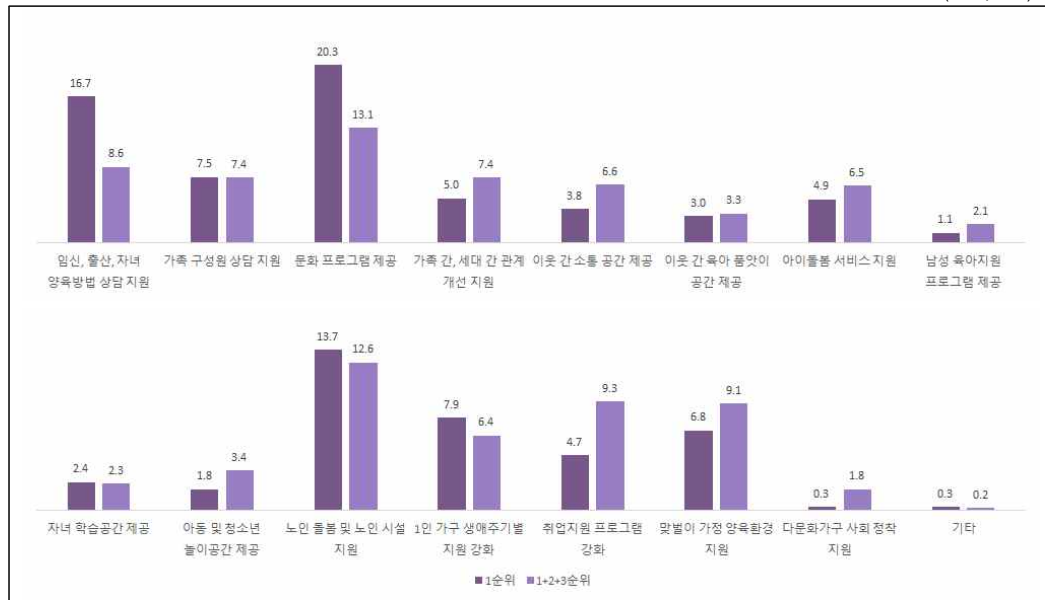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전체                            | 1,009<br>(100.0) | 1,009<br>(100.0) | 1,002<br>(100.0) | 2,018<br>(100.0) | 3,020<br>(100.0) |
| 임신 출산 및 자녀<br>양육방법 상담 지원      | 168<br>16.7      | 59<br>5.8        | 33<br>3.3        | 227<br>11.2      | 260<br>8.6       |
| 가족 구성원 상담 지원<br>(부부, 부모-자녀 등) | 76<br>7.5        | 85<br>8.4        | 63<br>6.3        | 161<br>8.0       | 224<br>7.4       |
| 가족이 함께하는<br>문화 프로그램 제공        | 205<br>20.3      | 116<br>11.5      | 74<br>7.4        | 321<br>15.9      | 395<br>13.1      |
| 가족 간 세대 간 관계 개선 지원            | 50<br>5.0        | 110<br>10.9      | 63<br>6.3        | 160<br>7.9       | 223<br>7.4       |
|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 38<br>3.8        | 45<br>4.5        | 115<br>11.5      | 83<br>4.1        | 198<br>6.6       |
| 이웃 간 육아 품앗이 공간 제공             | 30<br>3.0        | 41<br>4.1        | 29<br>2.9        | 71<br>3.5        | 100<br>3.3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49<br>4.9        | 85<br>8.4        | 63<br>6.3        | 134<br>6.6       | 197<br>6.5       |
| 남성 육아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br>1.1        | 18<br>1.8        | 35<br>3.5        | 29<br>1.4        | 64<br>2.1        |
| 자녀 학습공간 제공                    | 24<br>2.4        | 26<br>2.6        | 18<br>1.8        | 50<br>2.5        | 68<br>2.3        |
| 아동 및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              | 18<br>1.8        | 50<br>5.0        | 35<br>3.5        | 68<br>3.4        | 103<br>3.4       |

14)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이 필요한 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사회생활에 불편이 적으며, 가족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도시 (자녀양육이 편한 도시, 부모공양하기 편한 도시,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등)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2순위       | 1+2+3순위     |
|-------------------|-------------|-------------|-------------|-------------|-------------|
| 노인 돌봄 및 노인 시설 지원  | 138<br>13.7 | 94<br>9.3   | 149<br>14.9 | 232<br>11.5 | 381<br>12.6 |
|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80<br>7.9   | 70<br>6.9   | 42<br>4.2   | 150<br>7.4  | 192<br>6.4  |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47<br>4.7   | 106<br>10.5 | 127<br>12.7 | 153<br>7.6  | 280<br>9.3  |
| 맞벌이 가정 양육환경 지원    | 69<br>6.8   | 79<br>7.8   | 128<br>12.8 | 148<br>7.3  | 276<br>9.1  |
| 다문화가구 사회 정착 지원    | 3<br>0.3    | 24<br>2.4   | 27<br>2.7   | 27<br>1.3   | 54<br>1.8   |
| 기타                | 3<br>0.3    | 1<br>0.1    | 1<br>0.1    | 4<br>0.2    | 5<br>0.2    |

〈그림 3-58〉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 등 육아 정책 수요가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 연령층의 경우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30대 응답자들의 경우 ‘임신·출산·양육방법 상담 지원’(18.7%),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12.2%), ‘자녀 학습공간 제공’(4.3%) 등 육아 관련 정책 수요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와 대조적으로 ‘문화 프로그램 제공’(15.8%), ‘노인돌봄 및 시설 확충’(7.9%)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음
- 지역별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제주시의 임신, 출산, 육아 수요(동 지역 17.7%, 읍면지역 29.9%)는 서귀포시(동 지역 5.2%, 읍면지역 8.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문화 프로그램 수요(동 지역 23.5%, 읍면지역 24.8%)는 제주시(동 지역 18.4%, 읍면지역 2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노인 돌봄 및 복지 시설과 관련된 수요의 경우 동 지역(제주시 13.0%, 서귀포시 22.9%)이 읍면지역(제주시 10.4%, 서귀포시 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1순위 기준) 비교

(단위 : 명, %)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거주지역           |                |                |                | 가구형태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제주시 동          | 제주시 읍면         | 서귀포 동          | 서귀포 읍면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1인 가구          |
| 전체                            | 1,009<br>(100.0) | 356<br>(100.0) | 653<br>(100.0) | 139<br>(100.0) | 181<br>(100.0) | 295<br>(100.0) | 191<br>(100.0) | 203<br>(100.0) | 571<br>(100.0) | 164<br>(100.0) | 153<br>(100.0) | 121<br>(100.0) | 259<br>(100.0) | 413<br>(100.0) | 36<br>(100.0) | 301<br>(100.0) |
|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상담 지원        | 168<br>(16.7)    | 63<br>(17.7)   | 105<br>(16.1)  | 26<br>(18.7)   | 20<br>(11.0)   | 63<br>(21.4)   | 30<br>(15.7)   | 29<br>(14.3)   | 101<br>(17.7)  | 49<br>(29.9)   | 8<br>(5.2)     | 10<br>(8.3)    | 44<br>(17.0)   | 64<br>(15.5)   | 7<br>(19.4)   | 53<br>(17.6)   |
| 가족 구성원 상담 지원<br>(부부, 부모-자녀 등) | 76<br>(7.5)      | 22<br>(6.2)    | 54<br>(8.3)    | 8<br>(5.8)     | 24<br>(13.3)   | 20<br>(6.8)    | 15<br>(7.9)    | 9<br>(4.4)     | 54<br>(9.5)    | 10<br>(6.1)    | 5<br>(3.3)     | 7<br>(5.8)     | 14<br>(5.4)    | 33<br>(8.0)    | 3<br>(8.3)    | 26<br>(8.6)    |
|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제공           | 205<br>(20.3)    | 65<br>(18.3)   | 140<br>(21.4)  | 22<br>(15.8)   | 36<br>(19.9)   | 64<br>(21.7)   | 42<br>(22.0)   | 41<br>(20.2)   | 105<br>(18.4)  | 34<br>(20.7)   | 36<br>(23.5)   | 30<br>(24.8)   | 61<br>(23.6)   | 99<br>(24.0)   | 5<br>(13.9)   | 40<br>(13.3)   |
| 가족 간 세대 간 관계 개선 지원            | 50<br>(5.0)      | 21<br>(5.9)    | 29<br>(4.4)    | 5<br>(3.6)     | 17<br>(9.4)    | 12<br>(4.1)    | 10<br>(5.2)    | 6<br>(3.0)     | 32<br>(5.6)    | 10<br>(6.1)    | 5<br>(3.3)     | 3<br>(2.5)     | 16<br>(6.2)    | 21<br>(5.1)    | 0<br>(0.0)    | 13<br>(4.3)    |
|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 38<br>(3.8)      | 15<br>(4.2)    | 23<br>(3.5)    | 2<br>(1.4)     | 4<br>(2.2)     | 11<br>(3.7)    | 9<br>(4.7)     | 12<br>(5.9)    | 19<br>(3.3)    | 6<br>(3.7)     | 12<br>(7.8)    | 1<br>(0.8)     | 12<br>(4.6)    | 15<br>(3.6)    | 1<br>(2.8)    | 10<br>(3.3)    |
| 이웃 간 육아 품앗이 공간 제공             | 30<br>(3.0)      | 10<br>(2.8)    | 20<br>(3.1)    | 3<br>(2.2)     | 6<br>(3.3)     | 4<br>(1.4)     | 8<br>(4.2)     | 9<br>(4.4)     | 7<br>(1.2)     | 9<br>(5.5)     | 11<br>(7.2)    | 3<br>(2.5)     | 10<br>(3.9)    | 12<br>(2.9)    | 0<br>(0.0)    | 8<br>(2.7)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49<br>(4.9)      | 14<br>(3.9)    | 35<br>(5.4)    | 17<br>(12.2)   | 7<br>(3.9)     | 17<br>(5.8)    | 5<br>(2.6)     | 3<br>(1.5)     | 35<br>(6.1)    | 5<br>(3.0)     | 1<br>(0.7)     | 8<br>(6.6)     | 7<br>(2.7)     | 33<br>(8.0)    | 2<br>(5.6)    | 7<br>(2.3)     |
| 남성 육아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br>(1.1)      | 3<br>(0.8)     | 8<br>(1.2)     | 4<br>(2.9)     | 4<br>(2.2)     | 2<br>(0.7)     | 1<br>(0.5)     | 0<br>(0.0)     | 8<br>(1.4)     | 1<br>(0.6)     | 1<br>(0.7)     | 1<br>(0.8)     | 2<br>(0.8)     | 4<br>(1.0)     | 2<br>(5.6)    | 3<br>(1.0)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구분                | N             | 성별           |              | 연령          |              |              |              |              | 거주지역         |              |              |              | 가구형태         |              |             |              |
|-------------------|---------------|--------------|--------------|-------------|--------------|--------------|--------------|--------------|--------------|--------------|--------------|--------------|--------------|--------------|-------------|--------------|
|                   |               | 남성           | 여성           | 20-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제주시 동        | 제주시 읍면       | 서귀포 동        | 서귀포 읍면       | 1세대 가구       | 2세대 가구       | 3세대 이상 가구   | 1인 가구        |
| 자녀 학습공간 제공        | 24<br>(2.4)   | 7<br>(2.0)   | 17<br>(2.6)  | 6<br>(4.3)  | 3<br>(1.7)   | 6<br>(2.0)   | 3<br>(1.6)   | 6<br>(3.0)   | 4<br>(0.7)   | 8<br>(4.9)   | 3<br>(2.0)   | 9<br>(7.4)   | 9<br>(3.5)   | 9<br>(2.2)   | 3<br>(8.3)  | 3<br>(1.0)   |
| 아동 및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  | 18<br>(1.8)   | 9<br>(2.5)   | 9<br>(1.4)   | 5<br>(3.6)  | 6<br>(3.3)   | 3<br>(1.0)   | 4<br>(2.1)   | 0<br>(0.0)   | 13<br>(2.3)  | 1<br>(0.6)   | 2<br>(1.3)   | 2<br>(1.7)   | 5<br>(1.9)   | 10<br>(2.4)  | 0<br>(0.0)  | 3<br>(1.0)   |
| 노인 돌봄 및 노인 시설 지원  | 138<br>(13.7) | 56<br>(15.7) | 82<br>(12.6) | 11<br>(7.9) | 15<br>(8.3)  | 32<br>(10.8) | 32<br>(16.8) | 48<br>(23.6) | 74<br>(13.0) | 17<br>(10.4) | 35<br>(22.9) | 12<br>(9.9)  | 36<br>(13.9) | 35<br>(8.5)  | 5<br>(13.9) | 62<br>(20.6) |
|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80<br>(7.9)   | 25<br>(7.0)  | 55<br>(8.4)  | 12<br>(8.6) | 7<br>(3.9)   | 18<br>(6.1)  | 16<br>(8.4)  | 27<br>(13.3) | 35<br>(6.1)  | 7<br>(4.3)   | 13<br>(8.5)  | 25<br>(20.7) | 19<br>(7.3)  | 11<br>(2.7)  | 1<br>(2.8)  | 49<br>(16.3) |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47<br>(4.7)   | 22<br>(6.2)  | 25<br>(3.8)  | 3<br>(2.2)  | 12<br>(6.6)  | 17<br>(5.8)  | 6<br>(3.1)   | 9<br>(4.4)   | 35<br>(6.1)  | 2<br>(1.2)   | 8<br>(5.2)   | 2<br>(1.7)   | 8<br>(3.1)   | 18<br>(4.4)  | 2<br>(5.6)  | 19<br>(6.3)  |
| 맞벌이 가정 양육환경 지원    | 69<br>(6.8)   | 20<br>(5.6)  | 49<br>(7.5)  | 13<br>(9.4) | 19<br>(10.5) | 25<br>(8.5)  | 9<br>(4.7)   | 3<br>(1.5)   | 46<br>(8.1)  | 4<br>(2.4)   | 13<br>(8.5)  | 6<br>(5.0)   | 13<br>(5.0)  | 46<br>(11.1) | 5<br>(13.9) | 5<br>(1.7)   |
| 다문화가구 사회 정착 지원    | 3<br>(0.3)    | 2<br>(0.6)   | 1<br>(0.2)   | 1<br>(0.7)  | 0<br>(0.0)   | 0<br>(0.0)   | 1<br>(0.5)   | 1<br>(0.5)   | 2<br>(0.4)   | 0<br>(0.0)   | 0<br>(0.0)   | 1<br>(0.8)   | 2<br>(0.8)   | 1<br>(0.2)   | 0<br>(0.0)  | 0<br>(0.0)   |
| 기타                | 3<br>(0.3)    | 2<br>(0.6)   | 1<br>(0.2)   | 1<br>(0.7)  | 1<br>(0.6)   | 1<br>(0.3)   | 0<br>(0.0)   | 0<br>(0.0)   | 1<br>(0.2)   | 1<br>(0.6)   | 0<br>(0.0)   | 1<br>(0.8)   | 1<br>(0.4)   | 2<br>(0.5)   | 0<br>(0.0)  | 0<br>(0.0)   |
| t, F              |               | 0.766        |              | 1.209       |              |              |              |              | 11.847***    |              |              |              | 2.286        |              |             |              |

주 : \* p<.05, \*\* p<.01, \*\*\* p<.001

## 라. 소결

-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건강성 및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도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정건강성 및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각각 52.3%, 6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가, 공동체 분위기나 환경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응답자들은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평균점수가 2.80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2.94점으로 평균(3점) 이하의 점수가 도출되었음
  - 또한 공동체 정책 수요에 대한 질문에서도 네트워크 강화(11.3%)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 분석 결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묻는 문항에서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1순위 응답이 전체 응답의 55.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에서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 남성들은 가정생활 참여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경우 워킹맘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산(33.4%),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22.5%) 등 1순위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19.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특성 및 변화 종합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방향



##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특성 및 변화 종합

### 가. 2022년 제주지역 가족실태 요약

-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제주지역의 가족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가족의 정의 대한 인식 변화)** 가족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연 또는 법적 관계 등으로 인식되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혈연으로 구성되어야만 가족’이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고령자보다 20-30대에서 긍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높은 자녀돌봄 의식, 낮은 부모돌봄 의식)**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자녀의 부모돌봄’에 비해 ‘부모의 자녀돌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모의 자녀 돌봄’ 관련 문항과 ‘자녀의 부모 돌봄’과 관련 문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부모의 자녀 돌봄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임
- **(결혼과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성격’)**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성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성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47.7%(1순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격 또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4%인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수준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다른 가족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분석 결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수준은 4.15점으로서, 다른 구성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20점으로 남성(4.04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세대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3.60점, 3.83점, 3.76점)에 비해 남성(3.76점, 4.00점, 3.87점)이, 2세대 가구(3.71점, 3.80점, 3.88점)가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친밀도, 다툼, 신뢰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전히 높은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남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편과 아내 간의 차이가 적은 20~3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70대 이상의 경우 아내의 가사분담률이 61.7%,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4.3%로 나타나는 등 매우 극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의 경우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 및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편(16.7%)에 비해 아내(31.5%)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높게 나타남
- **(자산관리는 남편이, 가사 결정은 아내가)** 가족의 가정생활 결정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아내가 높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 및 자산관리 항목의 경우 남편의 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의 가정생활 결정권은 아내(31.3%)가 남편(7.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 및 자산관리의 경우 유일하게 남성(20.4%)이 여성(18.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출퇴근 시간 중심의 자녀돌봄 수요 발생)** 자녀 돌봄 시설 이용률 및 이용 수요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는 가구, 특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오전 9시, 오후 6시)를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맞벌이 가구의 취학 전 아동 학원 이용률은 (21.6%)로 전체 평균(17.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설 이용률은 86.8%로 외벌이 가정(남편 외벌이 46.2%, 아내 외벌이 33.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간대별 자녀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 **(높은 수준의 미동거 가족원 대상 간병·돌봄 수요)**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응답자 중 동거중인 응답자는 24.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모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모와 미동거중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의 관계 분석 결과 부모(79.0%), 아내(5.0%), 성년의 자녀(4.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경우 미동거 비중(79.7%)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 노동)** 가족원 간병이나 돌봄 시 여성들의 경우 실질적 돌봄 참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어려움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들의 경우 가족원 돌봄 시 개인시간 부족(14.7%), 정신적 어려움(14.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6.0%), 육체적 어려움(15.9%)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음
-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 ‘운동’)**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연령대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운동, 식이요법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수단(건강보조제 및 보조식품 섭취, 건강검진, 수면 등)의 의존 빈도가 높아지는 등의 경향을 보임
  - 20~30대 응답자의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나타난데 반해, 60대 및 70대 이상의 경우 각각 22.5%, 22.9%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반해 건강보조제를 섭취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20~30대 비율은 각각 12.9%, 5.0%에 그친 반면, 70대 이상의 경우 19.0%, 13.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동 지역에 비해 낮은 읍면지역 노후준비)** 동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일수록’, ‘경제적 수준 인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동 지역 거주자(제주시 68.0%, 서귀포시 70.6%)가 읍면지역 거주자(제주시 59.8%, 서귀포시 61.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높은 수준의 국민연금 의존도)**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의존도는 고 연령대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32.9%가 노후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였으며, 70대 이상은 국민연금(33.5%) 및 부동산 운용(25.0%)을, 20~30대는 예금 및 적금(32.0%)과 국민연금(28.8%)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역 공동체에 대한 낮은 인식)** 공동체와 가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공동체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가’, ‘공동체 분위기나 환경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낮은 의지)** 응답자의 다수는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가 2.80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형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 또한 2.94점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공동체 정책 수요에 대한 질문에서도 ‘인적 네트워크 강화’(11.3%)에 대한 수요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높은 수준의 1인 가구 정책 수요)**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노인 1인 가구, 청-중년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와 관련하여 1순위 응답 중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5.3%(청-중년 10.1% + 노인 45.2%)에 이르는 것으로

로 분석되었음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성별별 인식 차이)**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들은 가정생활 참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워킹맘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 ‘유연근무제 확산’(33.4%),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22.5%)등을 1순위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19.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나. 제주지역 가족실태 변화

- 2014년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의 조사 데이터 및 지역별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제주지역 가족실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인구 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 전입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이주민 증가세가 감소함에 따라 출산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673,1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합계 출산률의 감소(2012년 5,992명→2021년 3,989명),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2012년 0.97→2021년 0.71) 등 인구관련 지표의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시점임
- **(가구 구성의 변화)** 가구형태별 가구의 추세를 종합하면, 1인 가구의 증가, 2세대 가구의 감소세, 분거가족 증가 등 가구 구조의 변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정책 수립 시 1인 가구 내에서도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과거부터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던 2세대 가구의 경우 현재까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분거가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 분거하는 형태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평균 혼인연령 증가)**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만혼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혼자들의 평균 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제주지역 초혼 비중은 2000년 25~29세(56.0%)에서 2021년 30~34세(34.7%)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 연령 또한 2000년 기준 30~34세(24.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50~54세(16.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혈연에 대한 인식 증가)**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읍면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의견 중 혈연 관계와 관련된 응답의 평균 점수는 2014년 3.40점에서 2022년 3.62점으로 0.22점 증가하였음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질문의 평균 점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거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2014년 3.54점에서 2022년 3.08점으로 0.46점 감소하였으나, ‘동거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의 경우 2014년 2.76점에서 2022년 2.84점으로 0.08점 증가하였음
- **(자녀와 본인의 삶의 분리 의식 상승)**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등 자녀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2014년 2.51점에서 2022년 2.65점으로 0.14점 증가하였으며, ‘아이가 있으면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항의 경우 2014년 3.56점에서 2022년 3.01점으로 0.55점 감소하였음
- **(배우자 간 친밀도 약화)**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 간의 대화 시간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으며, 평균 점수 또한 전국 대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배우자를 믿는다'라는 문항에 대한 제주지역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각각 3.66점, 3.80점으로서, 평균(3.86점, 4.0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또한 감소 2014년 3.74점에서 2022년 3.44점으로 감소하였음

○ **(부모와 자녀 간 상호 돌봄 의식 감소)** 자녀 및 부모 돌봄과 관련된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부모 돌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부모의 성인 자녀 돌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3.50점에서 3.45점으로 0.05점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부모 돌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3.46점에서 2.70점으로 0.76점 감소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과거 밝거리 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제주지역 가족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다. 전국과 비교한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

○ 2020년 실시된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의 조사 데이터 및 전국-지역 간 현황자료 비교 데이터 등 활용하여 분석한 제주지역 가족실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평준화)** 전국적으로는 30대 이하 청년 및 7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0대, 30대 및 7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50대(20.5%), 40대(17.0%)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분석됨

○ **(낮은 초혼율, 높은 재혼율)** 제주지역의 경우 초혼 비중이 낮게 나타난 반면, 재혼 비중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혼 후 재혼률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혼인 수 중 재혼 비율은 22.8%로서 전국(17.8%)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혼 후 재혼 비율은 제주 21.2%, 전국 16.7%로 제주지역이 4.5%p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제주지역 혼인 건수 중 초혼 비율은 76.8%로서, 전국(82.0%)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혼인 대비 높은 이혼율)**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과 비교했을 때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 내에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 2021년 등록된 전체 혼인 및 이혼 중 제주지역의 비중은 각각 1.4%, 1.5%로서, 이혼 건수 비중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혈연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혈연, 법적관계, 경제적 관계 등) 또한 전국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족의 정의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전국 조사의 경우 혈연 관계(4.38점), 법적 관계(4.22점), 경제적 공유 관계(3.86점) 순으로 가족을 정의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조사의 경우 법적 관계(3.88점), 경제적 공유 관계(3.65점), 혈연 관계(3.62점)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 형성 및 출산에 대한 개방적 사고)** 가족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동거, 동거 중 출산, 무자녀 결혼생활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거, 동거 중 출산에 대해 제주지역은 각각 2.84점, 2.65점으로 전국(2.68점, 2.27점) 대비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덩크족(Double Income, No Kids)에 대한 인식 또한 제주지역(3.09점)이 전국(2.74점)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수준의 자녀 돌봄 의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지는 의무감, 행복감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 문항에 대한 제주지역의 평균 점수는 4.05점으로 전국(3.76점) 대비 0.2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제주지역의 평균 점수는 2.79점으로, 전국(2.27점) 대비 0.52점 높게 나타남

##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방향

### 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발굴

- 2세대 가구의 지속적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분거 가족의 증가, 다문화가족 문제의 변화 등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이자 가족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여겨지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중은 2015년 29.1%에서 2021년 25.4%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6.5%에서 2021년 32.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2세대 가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분거 가족 증가 등의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형태의 가구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021 제주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한부모 가구는 17.0%로 전국(14.7%)에 비해 2.3%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은 81.6%로 전국(77.3%)에 비해 4.3%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사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사회 가족 형태 및 가족 문제의 변화는 향후 일원화된 가족정책이 더 이상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하며, 또한 정책 대상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대안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가족의 다양성 및 비정형성을 고려한 가족정책 발굴을 시도하고 있음
- 즉, 이러한 흐름은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으로서, 사회 변화에 발맞추고 지역 사회에 부합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고르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지역의 가족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다문화가족, 정착주민, 1인 가족(예정)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형태 이외에 소수의 가족들은 충분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다만 이외에 다른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정기적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고르게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최근 변화하는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등 혈연 및 법적 개념 중심의 가족관에서 벗어난 비정형적인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여성 관점의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

- 제주지역의 경우 출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수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및 혼인건수는 급격



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는 3,728명으로서, 2015년 5,600명에 비해 감소(연평균 증가율 -0.66%)하고 있으며, 혼인건수 또한 2021년 기준 2,661건으로서, 2015년(3,67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증가율 -5.2%)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합계 출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 수는 2015년 144,422명에서 2021년 148,849명으로 소폭 증가(연평균 증가율 0.5%)하였음
- 또한 전체 여성 1인 가구 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임 연령대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49.5%로서, 2015년 50.5%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임기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40.4%에서 2021년 43.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 중 출산 의사가 있는 남성의 비율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육아를 위한 부부 간 역할 분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30대 응답자 중 자녀 출산 의사가 있는 여성의 비율은 41.1%로서, 남성(5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20.9%), 양육비용 부담(14.8%), 육아를 위한 역할 분담이 어려워(8.7%)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제주지역의 출생률 감소에는 결혼률 감소 및 결혼, 출산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인식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및 저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5~49세 여성 인구들의 결혼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출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 및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으로 초과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인식 확산,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 등을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 지원, 결혼 및 출산에 따른 휴가제도의 확대

적용, 경력단절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

-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대면형 인간관계의 축소,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 및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21 제주의 사회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대상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직접 돌본다는 응답자 비율은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의 건강이상(43.8%),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16.2%)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최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실제 가족들의 생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족, 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족 등 특정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2021년 제주의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원 돌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자녀 돌봄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집에서 자녀 돌보기 26.1%, 아이들 학습 지도 16.9%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정 중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4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원 돌봄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족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 시간대별 자녀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급격한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도 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제주도정은 맞벌이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돌봄제도 운영,

무급 휴가로 가족원을 돌보는 도민들을 위한 가족 돌봄비용 지원 사업, 취약계층 간병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 가족원 돌봄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족 내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사노동 종사 비중이 높은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여전히 남성(7.1%)에 비해 여성(53.8%)의 가사분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아내의 의사결정권 수준 또한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가족원 간병이나 돌봄 시 여성들의 경우 실질적 돌봄 참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어려움을 가족 돌봄 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돌봄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 노동의 부담이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 및 시간, 서비스 종류 등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통해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 및 자녀 또는 간병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가구 등 돌봄 수요가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돌봄 체계 구축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함
- 또한 공공 및 마을, 마을 자원 등의 연계,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마을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유희공간 발굴, 관련 프로그램 지원, 관련 기관 연계 등), 아동 돌봄 네트워크 강화(학교, 지역,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돌봄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유관단체 활동과 지자체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독거노인, 다문화 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라. 성별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인식 개선 및 지원제도 강화

- 최근 제주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성별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남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도민수요조사 개발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여전히 생활비 부담에 대한 높은 남편 비중(56.3%), 가사 노동에 대한 높은 아내 비중(62.1%), 자녀 돌봄에 대한 높은 아내 비중(53.5%) 등의 경향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성별에 따른 역할이 고착화된 제주지역의 현 상황은 임금, 고용 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서, 성별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가족친화적이고, 일과 생활이 균형적인 사회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202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사회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남성 위주의 고용 환경은 필연적으로 여성 위주의 가사 환경을 조성하며, 그 결과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가족 생활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 제주사회의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처해진 환경 및 인식의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성별 간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안의 마련 및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가정 조화를 위한 정책 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은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남성들에게는 가정생활 및 육아 참여가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초과근무 제한 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들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이후 사회활동 재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촘촘히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

-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주민들이 현실로 느끼고 있는 가족 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수는 7,165,788호, 제주지역의 1인 가구 수는 88,683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37.7%, 51.7% 증가한 수치임
  - 2022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구 수는 2043년 최대 33만 4천여호까지 증가하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현재 30.7% 수준에서 최대 3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조사에 따르면 가구형태별 가족정책 필요성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1순위 응답은 전체 응답의 55.3%(청-중년 10.1% + 노인 45.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요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은 다양화된 수요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만혼화 현상 및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인해 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 및 고령자 중심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연령별로 고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대, 30대, 70대 이상 1인

-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50대(20.5%), 40대(17.0%)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이 평균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각 세대별 맞춤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과제의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바. 이혼 및 재혼가족 지원 체계 구축

-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낮은 초혼률, 높은 이혼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재혼 가정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서 전국(17.8%)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초혼 비율은 76.8%로서, 전국(82.0%)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재혼 연령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녀를 포함한 재혼 가정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혼 가정 및 자녀를 포함한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제주지역의 재혼 연령은 2000년 기준 30~34세(24.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50~54세(16.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중장년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족의 생활 주기 및 발달과업은 가구의 형태, 특히 일반 가정과 재혼 가정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높으며,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활 주기 또는 발달과업 등을 재혼가정에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재혼을 통한 재구성가족은 새 부모와의 관계 수용, 재혼 부부의 부모역할 재조정 등 가족 내에서 기존의 가족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홍승아 외, 2015 재인용)
  - 예를 들어 재혼 가구에 속한 아동들은 필연적으로 부모의 이혼 및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부모의 재혼으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될 여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족정책들은 이혼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가족이 재혼을 통해 재구성된 이후 부모의 역할 및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재혼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교육 지원 사업, 재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원 사업, 재혼가족을 위한 생활주기별 지원 사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및 사회 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제주시 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필연적으로 인구, 가구, 사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에 따른 제주시 동 지역의 인구 수는 389,66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수는 162,701세대로서, 전체 세대의 53.9%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에는 도내 전체 사업체의 73.6%(48,635개)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서귀포시에는 26.4%(17,463개)가 등록되어 있는 등 각종 사업체 및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가족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역별로 인구 및 가구 증가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19)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입 인구는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기준 전입인구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 인접한 조천읍 및 애월읍,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의 전입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대륜동 및 대천동의 세대 수는 2015년 4,524세대, 3,597세대에서 2020년 6,494세대, 6,382세대로 각각 7.5%, 12.2% 증가하였음

-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럽게 선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갈등 문제, 분거가족 증가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문제, 연령 및 성별별 1인 가구 문제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 문제 도출 및 해결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실정임
  - 최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계획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역별 산업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인구 및 가족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행정시, 권역, 읍면동 등 지역별 인구, 가족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제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아. 효과적인 가족정책 전달체계 구축

- 최근 가족의 특성 및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생 및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을 설치하고, 가족담당관을 운영하여 가족정책을 전담 운영하고 있음(강경숙 외, 2021)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 내 효과적인 가족정책 수립 및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가칭)가족정책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부서 내에 가족정책의 주요 현안이슈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돌봄 및 가족 친화팀, 다문화정책팀, 1인 가구 지원팀, 정착주민 지원팀 등)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기본계획(다문화 기본계획, 정착주민 기본계획, 1인 가구 기본계획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



를 통해 제주지역 가족 현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가족센터’의 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실적인 가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내 수요자들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주체간의 제휴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지역 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 집단들을 연계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명확하게 진단 및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 형태임(강권오·남윤섭, 2022 재인용)
- 즉, 중간지원조직은 일선에서 서비스에 대한 전달 뿐만 아니라 니즈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전달 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기능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 가족실태조사의 정례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전국단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별 가족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5)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족실태조사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15)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부재함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14년 여성·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22년 본 연구가 진행되기까지 제주지역의 가족실태 점검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착주민, 1인가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수립하고, 관련 기능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또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족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족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202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7)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주기적인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각종 가족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정례화하고, 이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가칭)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업무,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가족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인 지원 및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권오·남윤섭(202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NGO연구」, 17(1): 147-177.
- 권희정·염미경(2014),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가족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명화(2017), 「2017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본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영란 외(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정(2020), 「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2019),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 양정선(2017), 「경기도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방향」,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2021),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 연구」.
- 이나련·정혜원(2017), 「경기도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이해웅·김산옥·이연화(2021), 「제주지역 이주여성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임우연(2017), 「충청남도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전선영·박주은·권순범·김은형·박지혜(2021),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 인천여성가족재단.
- 정영태·김혜숙·강경숙(200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주재선 외(2020),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7),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2019~2022)」.
- 제주특별자치도(2019),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0년」.

한경현·정영금이완정·윤홍식·류연규(2013),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천여성가족재단.

홍승아·최인화·최진화·유은경(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최진화·진미정·김수진(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부 록]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      |  |      |  |      |         |
|------|--|------|--|------|---------|
| 조사자명 |  | 조사장소 |  | 조사일시 | 22년 월 일 |
|------|--|------|--|------|---------|

|    |  |  |  |  |
|----|--|--|--|--|
| ID |  |  |  |  |
|----|--|--|--|--|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 평등 제주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 노동, 돌봄, 가족, 다문화, 건강 등 여성과 가족이 당면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제주지역의 가족 현황 도출 및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지역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통계법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 조사문의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I. 일반적 특성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설문 종료)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2.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lt;제주시&gt;

- |                               |                               |                               |                               |
|-------------------------------|-------------------------------|-------------------------------|-------------------------------|
| <input type="checkbox"/> 한림읍  | <input type="checkbox"/> 애월읍  | <input type="checkbox"/> 구좌읍  | <input type="checkbox"/> 조천읍  |
| <input type="checkbox"/> 한경면  | <input type="checkbox"/> 추자면  | <input type="checkbox"/> 우도면  | <input type="checkbox"/> 일도1동 |
| <input type="checkbox"/> 일도2동 | <input type="checkbox"/> 이도1동 | <input type="checkbox"/> 이도2동 | <input type="checkbox"/> 삼도1동 |
| <input type="checkbox"/> 삼도2동 | <input type="checkbox"/> 용담1동 | <input type="checkbox"/> 용담2동 | <input type="checkbox"/> 건입동  |
| <input type="checkbox"/> 화북동  | <input type="checkbox"/> 삼양동  | <input type="checkbox"/> 봉개동  | <input type="checkbox"/> 아라동  |
| <input type="checkbox"/> 오라동  | <input type="checkbox"/> 연동   | <input type="checkbox"/> 노형동  | <input type="checkbox"/> 외도동  |
| <input type="checkbox"/> 이호동  | <input type="checkbox"/> 도두동  |                               |                               |

## &lt;서귀포시&gt;

-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정읍 | <input type="checkbox"/> 남원읍 | <input type="checkbox"/> 성산읍 | <input type="checkbox"/> 안덕면 |
| <input type="checkbox"/> 표선면 | <input type="checkbox"/> 송산동 | <input type="checkbox"/> 정방동 | <input type="checkbox"/> 중앙동 |
| <input type="checkbox"/> 천지동 | <input type="checkbox"/> 효돈동 | <input type="checkbox"/> 영천동 | <input type="checkbox"/> 동홍동 |
| <input type="checkbox"/> 서홍동 | <input type="checkbox"/> 대륜동 | <input type="checkbox"/> 대천동 | <input type="checkbox"/> 중문동 |
| <input type="checkbox"/> 예래동 |                              |                              |                              |

3.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다음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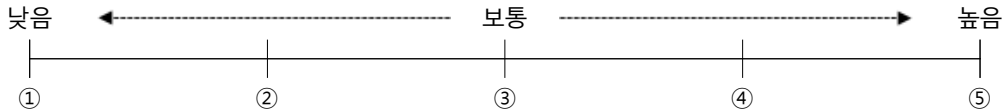
## 4. 귀댁의 세대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1) 1세대 가구 | ① 부부<br>⑤ 가구주+기타친인척 | ② 부부+형제자매<br>⑥ 1인가구 | ③ 부부+기타친인척<br>⑦ 기타 1세대 가구 | ④ 가구주+형제자매 |
| 2) 2세대 가구 | ⑧ 부부+자녀<br>⑫ 부부+한부모 | ⑨ 부+자녀<br>⑬ 조부모+손자녀 | ⑩ 모+자녀<br>⑭ 기타 2세대 가구     | ⑪ 부부+양친    |
| 3) 3세대 가구 | ⑮ 부부+자녀+양친          | ⑯ 부부+자녀+한부모         | ⑰ 기타 3세대 가구               |            |
| 4) 기타     | ⑱ 4세대 이상 가구         | ⑲ 비혈연 동거가구          |                           |            |

## 5. 귀댁의 가구 특성과 관련된 다음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
| 1) 귀 댁은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십니까?              | ①   | ②   |
| 2) 귀 댁에 동거하는 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가족원이 있습니까? | ①   | ②   |

## 6. 평소 귀댁의 경제적 수준이 제주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II. 가족에 대한 인식

## 7.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귀하의 의견을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결혼하지 않고 동거(사실혼)관계로 사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한 부모도 두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결혼하지 않고 동거(사실혼) 상태로 아이를 낳고 사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귀하는 어느 시기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원    | ② 대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지원         |
| ③ 대학원을 졸업할 때 까지 지원 | ④ 경제적 능력을 갖출 때(취업 시) 까지 지원 |
| ⑤ 결혼하기 전까지 지원      | ⑥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지원          |
| ⑦ 기타 ( )           |                            |

10.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보살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귀하는 부모님 부양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장남 또는 그 가족              | ② 아들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③ 딸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④ 아들, 딸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⑤ 모든 자녀들이 함께 또는 그 가족들이 함께 | ⑥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음       |
| ⑦ 기타 ( )                  |                                |



## Ⅲ. 가족의 형성 및 변화

12. 귀하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보 기 】 |                  |          |
|---------|------------------|----------|
| ① 외모    | ② 성격             | ③ 나이     |
| ④ 학력    | ⑤ 건강             | ⑥ 경제력    |
| ⑦ 직업    | ⑧ 종교             | ⑨ 사랑     |
| ⑩ 가정환경  | ⑪ 출생순위(장남, 장녀 등) | ⑫ 기타 ( ) |

13.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13-1번으로 이동)      ② 없음

## ▶ 자녀가 있는 경우

13-1.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아들 | 딸 |
|----|---|
| 명  | 명 |

13-2.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 질문에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녀와 자주 다투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내 자녀를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귀하는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14-1번으로 이동)

## ▶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

14-1.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이미 낳은 자녀 수로 충분해서            | ②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서 |
| ③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 ④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
| ⑤ 양육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⑥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
| ⑦ 자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 ⑧ 배우자가 반대해서         |
| ⑨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 ⑩ 나이가 많아서           |
| ⑪ 육아를 위한 부부간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⑫ 기타 ( )            |

| 구분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해당없음 |
|----------------|--------|-----|----|----|-------|------|
| 1) 배우자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 2) 자녀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 3) 내 부모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22. 코로나19로 인한 귀댁의 일상생활 변화 정도를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해당<br>없음 |
|--------------------------------|-----------|------------|----------|------------|-----------|----------|
| 1) 식당, 마트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 이용 회피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지인들과의 교류 감소로 인한 우울감, 외로움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 4)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결혼, 이사 등 가족의 큰 행사에 차질 발생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과의 교류 감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⑨        |

23. 귀하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은 현재 살아 계십니까?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① 예"로 응답)

① 네 (☞ 2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 (배우자 부모님 포함)

23-1. 귀하와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다음 질문에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부모님과 자주 다투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2. 귀하와 부모님 간에 도움을 주거나 받는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고 있음 |     | 받고 있음 |     |
|---------------------------|-------|-----|-------|-----|
|                           | 네     | 아니오 | 네     | 아니오 |
| 1) 경제적 지원 (생활비, 용돈 등)     | ①     | ②   | ①     | ②   |
| 2) 가사 등 집안일               | ①     | ②   | ①     | ②   |
| 3) 가족원 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 ①     | ②   | ①     | ②   |
| 4) 정서적 지원                 | ①     | ②   | ①     | ②   |

☞ 24 ~ 28번 문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29번 문항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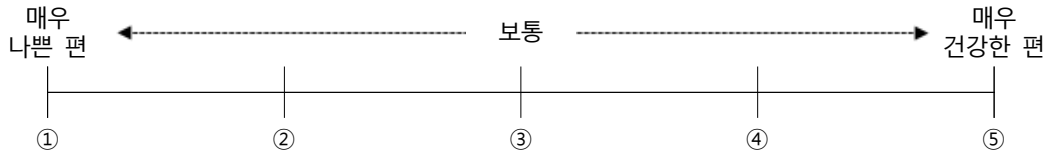
24.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에 대한 다음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동거여부   | ① 동거              | ② 미동거                   |
| 2) 맞벌이 여부 | ① 맞벌이<br>③ 아내 외벌이 | ② 남편 외벌이<br>④ 모두 일하지 않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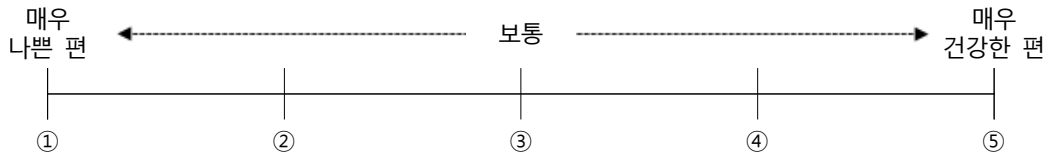


## V. 건강 및 노후준비

29. 귀하는 본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귀하는 본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 귀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 ② 운동               | ③ 식사 조절 등 식이요법     |
| ④ 커피, 술, 담배 등 기호식품 절제         | ⑤ 건강 보조제, 보조식품의 섭취 | ⑥ 건강검진 또는 상담       |
| ⑦ 규칙적인 수면                     | ⑧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      | ⑨ 미술, 목공 등 각종 여가활동 |
| ⑩ 기타 (                      ) |                    |                    |

32. 귀하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네 (**32-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32-1. 귀하는 노후를 위해 어떠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국민연금            | ② 공무원 연금 (교직원, 군인연금 등 포함)     |
| ③ 개인연금 (은행, 보험 등) | ④ 퇴직금, 퇴직연금                   |
| ⑤ 예금, 적금          | ⑥ 부동산 운용                      |
| ⑦ 주식, 채권          | ⑧ 기타 (                      ) |

33. 귀하는 노후에 어디에서 지내고 싶습니까?

- |                               |                  |
|-------------------------------|------------------|
| ① 집                           | ②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
| ③ 노인복지시설                      | ④ 노인 공동체 주택*     |
| ⑤ 기타 (                      ) |                  |

### \* 노인 공동체 주택?

- 노인 주거문제 및 고독사 해결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39.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의견을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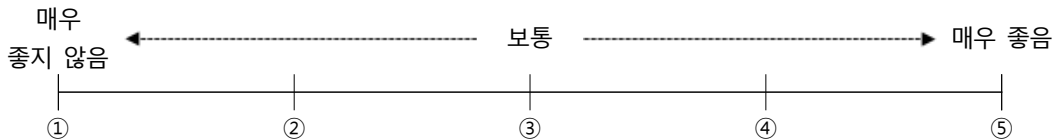
| 구분   | 전혀<br>아니다 | 대체로<br>아니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가족은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 가족은 지속적으로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의지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리 가족은 지역 주민 다수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나 규범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우리 가족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혹은 이웃들을 신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이웃 간의 교류를 활성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체 구성원 간 네트워크의 조성 및 강화
- ②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범의 설정 및 공유
- ③ 지역 주민들 간 신뢰관계 강화
- ④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주민 참여기회의 확대

## VII. 가족친화정책

41. 귀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 마을 등)이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 귀하는 귀택의 가정 건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가정 건강성?

- 가정 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가구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상태



43. 제주도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가족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의견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관<br>인지도 |         | 기능 및<br>역할 인지도 |         | 이용경험 |    | 만족도     |                    |               |          |          |
|-------------|-----------|---------|----------------|---------|------|----|---------|--------------------|---------------|----------|----------|
|             | 안다        | 모른<br>다 | 안다             | 모른<br>다 | 있음   | 없음 | 불만<br>족 | 대체<br>로<br>불만<br>족 | 대체<br>로<br>만족 | 매우<br>만족 | 해당<br>없음 |
| 1) 가족센터 *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⑨        |
| 2) 가족친화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⑨        |
| 3) 다함께돌봄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⑨        |
| 4) 육아종합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⑨        |
| 5) 지역아동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⑨        |

\* 가족센터 : (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 귀하가 생각하기에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족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보 기 】                 |                             |
|-------------------------|-----------------------------|
| ① 청중년 1인가구 (64세 이하)     | ② 노인 1인가구 (65세 이상)          |
| ③ 무자녀 부부 가족             | ④ 부부와 세명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다자녀 가족 |
| ⑤ 부부와 두명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⑥ 한부모 가족                    |
| ⑦ 조손 가족                 | ⑧ 맞벌이 가족                    |
| ⑨ 다문화 가족                | ⑩ 입양 가족                     |
| ⑪ 재혼 가족                 | ⑫ 3세대 이상 대가족                |
| ⑬ 기타 ( )                |                             |

45. 귀하는 제주 지역사회 내에서 일-가정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보 기 】               |                                |
|-----------------------|--------------------------------|
| ①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 ② 유연근무제 확산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
| ③ 아빠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지원 | ④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 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 ⑥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                |
| ⑦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 ⑧ 기타 ( )                       |



49. 귀 댁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보 기 】    |                |            |
|------------|----------------|------------|
| ① 아이의 아버지  | ② 아이의 어머니      | ③ 아이의 친조부모 |
| ④ 아이의 외조부모 | ⑤ 아이의 이모, 삼촌 등 | ⑥ 기타 친인척   |
| ⑦ 가사도우미    | ⑧ 이웃           | ⑨ 기타 ( )   |

50. 귀댁은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네 (☞50-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50-1. 귀하가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① 유치원      | ② 어린이집    | ③ 학원           |
| ④ 지역아동센터   | ⑤ 방과 후 교실 | ⑥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
| ⑦ 민간 베이비시터 | ⑧ 사회복지관   | ⑨ 기타 ( )       |

51. 평일 중 아이 돌봄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① 오전 6시 ~ 7시        | ② 오전 7시 ~ 8시   | ③ 오전 8시 ~ 9시  | ④ 오전 9시 ~ 10시 |
| ⑤ 오전 10시 ~ 11시      | ⑥ 오전 11시 ~ 12시 | ⑦ 오후 12시 ~ 1시 | ⑧ 오후 1시 ~ 2시  |
| ⑨ 오후 2시 ~ 3시        | ⑩ 오후 3시 ~ 4시   | ⑪ 오후 4시 ~ 5시  | ⑫ 오후 5시 ~ 6시  |
| ⑬ 오후 6시 ~ 7시        | ⑭ 오후 7시 ~ 8시   | ⑮ 오후 8시 ~ 9시  | ⑯ 오후 9시 ~ 10시 |
| 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                |               |               |

VIII-2. 초등학생 돌봄

52. 현재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 중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손자녀 포함)

- ① 네    ② 아니오 (☞56번으로 이동)

53. 이 어린이가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① 보습학원              | ② 예체능 학원        |
| ③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등) | ④ 지역아동센터        |
| ⑤ 집 (성인 보호자 있음)     | ⑥ 집 (성인 보호자 없음) |
| ⑦ 기타 ( )            |                 |

54. 이 어린이가 방과 후 성인 보호자가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 |                   |                   |
|-------------------|-------------------|
| ① 없음              | ② 30분 미만          |
| ③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 ⑤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⑥ 3시간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2-11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

발 행 일 2022년 11월 30일  
발 행 인 민 무 속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 064-720-4917, F. 064-711-2350  
www.jewfri.kr  
인 쇄 소 경민사

---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7026-89-1